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3-0281

 결대로자람학교

우리

학교

이야기

2

결대로

빛나는

2023

결대로자람학교 실천사례집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학교·마을협력과

1

초 등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역화

남나05	인천신흥초등학교	11
남나10	인천용일초등학교	13
남나13	인천용정초등학교	16
남나14	인천남부초등학교	22
남나22	인천대화초등학교	27
남나23	인천운서초등학교	30
남나25	인천백학초등학교	35
남나33	인천인주초등학교	40
남나42	인천삼목초등학교	44
남나45	인천운남초등학교	50
남나49	인천별빛초등학교	55
북나04	인천부개초등학교	58
북나07	인천동암초등학교	63
북나08	인천부평북초등학교	68
북나16	인천일신초등학교	75
북나20	인천상정초등학교	80
북나21	인천마곡초등학교	85
북나41	인천금마초등학교	89
동나14	인천약산초등학교	93
동나20	인천장수초등학교	98
동나33	인천능허대초등학교	103
동나38	인천축현초등학교	108
동나42	인천새말초등학교	112
동나48	인천은봉초등학교	117
서나15	인천계산초등학교	122
서나21	인천건지초등학교	127
서나23	인천작동초등학교	131
서나29	인천부현초등학교	136
서나49	인천봉화초등학교	140
서나55	인천경서초등학교	145
서나58	인천양촌초등학교	150
강나02	합일초등학교	155
강나03	갑룡초등학교	160
강나14	명신초등학교	165
강나15	양사초등학교	170

1

중 등 · 특 수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역화

남나05	신흥여자중학교	177
동다05	만수중학교	182
동다13	선학중학교	187
동다22	인천중학교	192
동다24	함박중학교	197
서다17	북인천중학교	201
서다32	인천석남중학교	206
강더01	동광중학교	212
기교15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216
기교34	강화여자고등학교	221
기교38	계산여자고등학교	228
기교62	인천예일고등학교	233
기교79	인천세원고등학교	238
기사01	동산고등학교	243
기사25	대인고등학교	248
기사28	덕신고등학교	252
특수05	인천청인학교	257



2

초등
·
중등

민주적 학교공동체

남나32	인천창영초등학교	265
북나25	인천갈산초등학교	269
동나09	인천주원초등학교	273
동나10	인천동부초등학교	277
동나67	인천장아초등학교	281
서나03	인천석남초등학교	286
서나09	인천석남서초등학교	291
서나18	인천계양초등학교	296
서나43	인천명현초등학교	301
서나52	인천굴현초등학교	305
서나69	인천가원초등학교	310
기교18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315
기교60	작전여자고등학교	320

3

초등
·
중등

윤리적 생활공동체

북나27	인천구산초등학교	331
북나30	인천부일초등학교	335
북다09	동암중학교	340
동다16	만성중학교	345
기교20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350
기교61	안남고등학교	354



4

초등
·
중등

전문적학습공동체

남나27	인천만석초등학교	363
남너03	영화초등학교	367
동나22	인천남동초등학교	372
동나46	인천장도초등학교	377
남나04	제물포여자중학교	382
북다21	인천상정중학교	386
동다15	연성중학교	390
서다18	백석중학교	394
기교55	인천효성고등학교	399

5

초등
·
중등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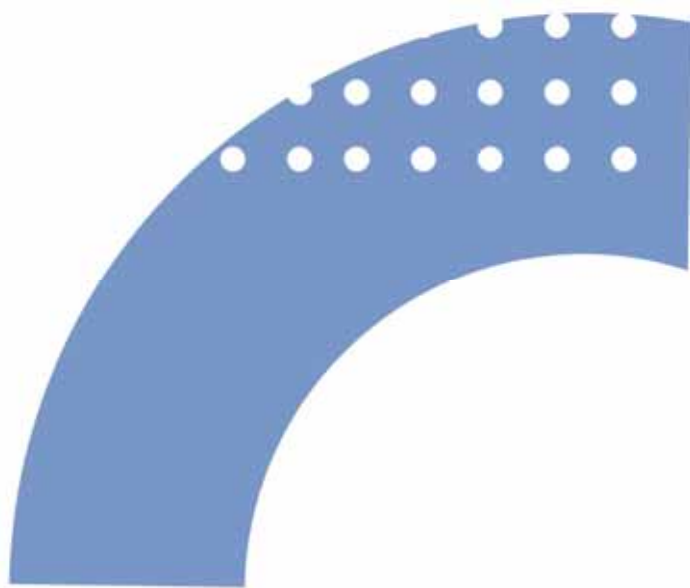
남나29	인천서흥초등학교	409
북나23	인천동수초등학교	415
동나01	인천만수초등학교	420
동나07	인천도림초등학교	425
남다01	인천남중학교	429
남다02	신흥중학교	434
남다12	선인중학교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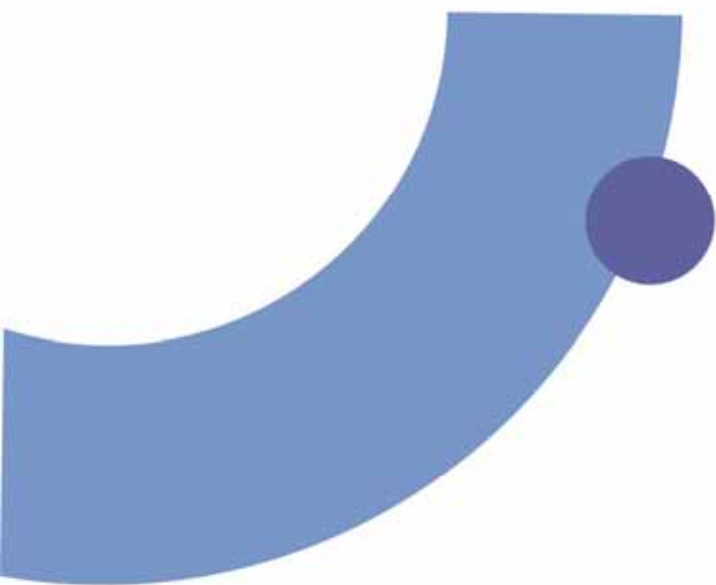


1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지역화



초 등



한 명씩 눈 맞추며, 마을과 만나는 학교

학 교 명	인천신흥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4학급(387명)
소 재 지	중구 답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2.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내 마음속 울림 ‘난타’ - 텃밭 정원에서 몽글몽글 우리의 꿈이 열려요! -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 학년 다모임과 회복적 서클 활동		

1

바른 인성의 힘으로 사회적 리더의 꿈을 설계하다.

● 내 마음속 울림 ‘난타’

‘둥, 둥, 둥’ 북소리에 학급은 하나가 되어가고,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울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난타’라는 활동으로 소리를 맞추고 울동을 맞춰 결대로자람 문화예술 나눔 활동(구 학예회)에서 연주할 생각에 조금 더 신중하고 집중하여 연습하였다. 학생들이 북을 칠 때는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처럼 그저 친구들과의 호흡과 리듬에 자기 몸을 맡기는 듯 보였다. 한 곡을 모두 마쳤을 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 벅참으로 학생들에게 다가왔다. 우리 반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함께 웃고 즐기는 ‘난타’ 활동으로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리’라는 가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

● 텃밭 정원에서 몽글몽글 우리의 꿈이 열려요!

우리 지역 원예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텃밭 정원을 가꾸어 보았다. 봄에 방울토마토, 당근, 옥수수, 무, 오이, 가지와 같은 작물들과 함께 한련화, 레몬밤, 마리골드 등의 꽃과 허브도 심어 보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고 어려웠지만 원예 전문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텃밭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한 학생은 점심 시간마다 친구와 함께 물을 주며, ‘튼튼하게 잘 자라서 예쁘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였다. 5월에 무를 수확하여 친구들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고,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며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텃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농작물 키우기

또한 직접 기른 허브를 집에 가져가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내가 심고, 길러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노력의 끝에는 자기가 바라는 값진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 민주시민으로서의 첫걸음! 학년 다모임과 회복적 서클 활동

매달 1회씩 강당에 모여 학년 전체 다모임을 가졌다. 학년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우리 스스로 정하고, 학교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점심시간에 봉사활동을 하였고, 화장실 티슈 버리는 통을 교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 하기도 하였다. 학기를 마무리하며 “실수해도 괜찮아, 배움으로 연결해”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친구와 마음을 연결하는 놀이를 하였고, 선생님께, 친구에게 나에게 격려와 응원의 쪽지를 남기는 활동도 하였다. 나와 친구와 선생님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여야 하는지 함께



교장선생님 초대석
〈교육권과 수업권을 말한다.〉

이야기하고, 교장선생님을 초대하여 교육권과 수업권에 대한 말씀도 전해 들었다. 다양한 의견을 함께 이야기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고,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훌륭한 나만의 자산으로 남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으로 나만의 결대로 꿈꾸는 학생을 마주하다.

결대로자람학교 예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6학년은 자율선택제 사업으로 자율 주제를 선택하여 ‘학년 다모임과 회복적 서클 활동’을 주제로 일 년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활동에 쑥스러워했던 학생들이 학년말에는 스스로 없이 말하는 모습으로 변모 하는 것에 부딪힘을 느꼈다. 또한 내가 노력한 만큼 수확할 수 있다는 텃밭 활동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함께 협력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난타’ 활동으로 함께 어우러짐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등 스스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내 안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음악에 몸을 싣는 무아지경을 경험함으로써 무언가에 집중하면 어떠한 일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으로 내 안의 바른 인성을 일깨우고, 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리더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는 등 개개인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꿈의 나침반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라요

학교명	인천옹일초등학교	학급수(학생 수)	24학급(490명)
소재지	미추홀구 용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꿈대로 배우고 결대로 자라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지역화		
주요내용	- 학교 숲, 마을 숲을 통한 기후생태환경교육 - 자존감 회복을 위해 결대로 놀면서 자라는 신체활동 - 꿈대로 자라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실시		

1 우리 마을은 꿈의 나침반

● 마을의 기억은 우리 삶이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미추홀구의 중심 산인 수봉산이 올려다보인다. 인천의 사람들은 수봉산을 어떻게 기억할까? 물줄기가 흘러 내려오던 산, 어렸을 때 소풍으로 놀러 가던 산, 마을 어린이들의 놀이공원이었던 수봉랜드를 기억하는 사람, 한 여름날의 쉼터 물놀이장을 기억하는 사람 등 마을의 한 곳도 이렇게 다양한 기억으로 남는다.

수봉산에 오르면 우리 마을 용현동 전체가 내려다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곳곳마다 학생들의 꿈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자원들이 있다. 선생님과 학생은 마을을 함께 걸으며 마을의 시간과 공간을 배운다. 교실로 찾아오는 마을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 넓고 큰 세상을 상상하며 꿈을 키워 주신다. 이렇게 마을은 기억이 되어 한 사람의 삶을 채운다.

● 교육과정은 배움을 찾아가는 보물지도

아이들의 꿈은 가지각색이며 배움의 요구는 다양하다. 모두의 결들을 담기 위해 교육과정에 학교와 마을 연계하는 보물지도를 그렸다. 학교 숲을 탐험하고 스스로 식물을 재배했던 학생들은 이제 골목길 풀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전통무용, 연극 수업은 코로나의 상처를 회복하고 자존감을 키운 아이들은 이제 주도적으로 학예회를 교실마다 준비한다. 코로나로 굳어있던 학교는 삶의 터와 구분 없이 봄은 함께 찾아왔고 배움의 씨앗을 심었다.



모종심기(1학년)



도예체험(2학년)



금연캠페인(4학년)



연극수업(6학년)

2

마을과 함께 배움의 꽃을 활짝 피우다.

학교 숲과 마을 숲에서 자연을 배워요

수봉산을 중심으로 구도심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는 학교 숲이 있다. 기후생태환경교육의 배움터가 되어주는 학교 숲에서 학생들은 텃밭을 일구고 식물들을 관찰한다. 숲 해설사님이 오시는 날이면 숲을 활용한 놀이도 체험한다. 그리고 6학년 걷기 동아리는 학교와 마을 사이를 오르고 내리며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다.



채소 모종 관찰하기



숲놀이 체험교육



수봉산 걸어오르기

결대로 놀며 자라는 신체활동 주간 운영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놀면서 어울리고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신체활동주간을 운영하였다.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놀이형 신체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 응원하는 함성이 5월 초 내내 학교 안에 울려 퍼졌다.



결대로 놀자 신체활동(고)



결대로 놀자 신체활동(중)



결대로 놀자 신체활동(저)

● 꿈대로 자라는 학생주도 문화예술교육

우리 학교의 대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은 전학년 현악기 교육이다. 현악기의 종류도 우쿨렐레, 바이올린, 첼로로 다양하다. 그리고 찾아오는 문화예술교육(연극 수업, 전통음악 수업 등)과 다양한 체험학습은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버스킹) 행사로 이어졌다.



현악기 첼로 수업(고학년)



전통문화 예술교육(중학년)



전통놀이 체험교육(저학년)



등곳길 음악회(브라스 '비상')



학생자치활동(버스킹행사)



현장체험학습(애보박물관)

3

꿈의 나침반,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을 향하여



교육공동체의 나침반은 언제나 학생의 성장을 향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며 학교만의 특별함과 지역성을 담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공동체의 고민과 성찰을 통한 철학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삶의 터전과 분리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내실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공동 성장, 서로 존중하는 윤리적 교육공동체, 무엇 하나 없어서는 안 되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 학교는 코로나 상황과 함께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였다. 묵묵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이어온 교육공동체는 교육혁신의 발전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다. 지속적인 우리 학교만의 혁신모델에 대한 스케치에 색을 입히기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습 격차의 최소화를 목표로 모두의 배움을 책임지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찾은 봄, 마을과 함께 학교는 배움의 꽃을 피울 것이다.

행복한 학교에서 행복한 마을로

학 교 명	인천용정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5학급(247명)
소 재 지	미추홀구 송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사례 - 학교와 마을을 하나로 연결하여 사랑나눔 교육공동체로 거듭나기		

1

우리 아이들은 결대로 자라가고 있을까?

● 삶과 삶의 주도성 찾기

본교는 수봉산 자락에 위치한 학교로 학교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며 시간을 보낼 장소가 부족하다. 곧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놀이터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누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자신들이 가진 나다움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학교가 고민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나다움을 찾으며 책임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 학교와 마을을 교육으로 잇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자원들이 풍부하다. 이를 활용하여 마을연계 교육과정 재구성을 운영하며 우리 학교 교육 목표대로 “삶의 주인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용정인”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와 마을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됨을 알게 해주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1학년 1학기		프로젝트 주제	봄과 하나 되는 우리	
교과	활동내용		차시	마을자원
슬생	●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 알기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종류와 특징 파악하기 -봄 동식물 카드 분류하기		1-2	
안전	● 수봉공원의 봄 모습 관찰하기 -봄놀이 갈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알기 -숲 놀이를 하며 숲과 친해지기 -수봉공원의 꽃과 나무 관찰하기 -자연물을 소중히 여기며 액자화본 꾸미기		3-4	수봉산, 미추홀구 마을 숲 생태 탐방 교실
즐생	● 1인 1화분 키우기 -그림책 <씨앗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를 읽고 씨앗이 자라는 과정 알아보기 -1인 1화분(강낭콩)을 키우며 관찰일지 작성하기		5-6	
슬생	● 우리 반 봄 동산 만들기 -‘봄’ 생각그물로 프로젝트 정리하기 -봄 동식물 그림을 꾸며 우리 반 봄 동산 완성하기		7-8	

2학년 2학기		프로젝트 주제	우리 동네 미르샘 영웅	
교과	활동내용		차시	마을자원
통합	● (프로젝트 학습 안내) 동화책 읽고 독후활동 하기 - 우리 동네 슈퍼맨 / 우리가 잠든 사이에 /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죽		1	
	● 우리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해보고 우리동네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기		2-3	
	● 우리 동네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뉴스로 만들어서 소개하기		4-5	
	●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감사합니다 놀이 하기		6-7	
	●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고 실천하기 (영웅 실천표 내용 정하기/ 우리 동네 영웅 활동 다짐하기)		8-10	
	● 동네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고 메시지 전하기		11	
	● 우리 동네 영웅 활동 후 반성 및 느낀 점 나누기 (영웅 인증서)		12	
국어	● 우리동네 영웅 활동을 하며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기		13-14	
	● 우리동네 영웅책 만들기		15-16	
	● 우리동네 영웅 활동 후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글로 쓰기		17-18	
창체	● 우리 동네의 좋은점과 부족한점 찾아보기(PMI토의)		19	
	● 다육이 화분으로 우리 동네 아름답게 꾸미기-도예활동		20-21	마을교육강사
	● 아나바다 바자회 열기		22	학부모회
	● 바자회 수익금 기부하는 방법 토의 및 기부		23	행정복지센터

3학년 2학기		프로젝트 주제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교실	
교과	활동 내용		차시	마을 자원
과학	● 프로젝트 소개 - 수행과제 안내 - 학습활동 순서 안내 -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1	
과학	● 우리 주변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 학교 주변에 사는 동물을 조사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동물이 살고 있음을 설명하기		2-3	
과학	● 마을 숲 생태 탐방하기 - 숲 속의 소리 들어보기 - 마을 생태 스토리텔링/ 거미와 거미줄 관찰하기/다양한 열매 관찰하고 씨앗 나르기		4	마을아 반가워
과학	● 마을 숲 생태 탐방 후속활동 - 소감 나누기 - 마을 사랑 및 생명존중 다짐 활동하기		5	
과학	● 프로젝트 마무리 - 소감 나누기 - 프로젝트 작품 정리하기		6	

4학년 2학기		프로젝트 주제	우리 고장 알리기	
교과	활동내용		차시	마을자원
사회	● 경제활동과 현명한 선택 -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의 모습 찾기 - 우리 마을 시장 체험하기		1~3	용현동, 송의동 일대/마을 해설사, 용현시장
음악	● 지역 축제를 찾아서 - 우리 마을 지역 축제에 대해 알아보기 - 우리 마을 지역 축제에 음악이 활용된 알아보기		4~5	
미술	● 우리 마을의 특별한 곳 알리기 - 나만의 우리 마을 스팟을 알리는 포스트 만들기		5~8	

5학년 1학기		프로젝트 주제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교과	활동내용		차시	마을자원
국어	● 우리 문화 읽기 - 우리고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기 - 그림책으로 인천 해양 설화 이야기 만나기 「자월도 마고할미 공깃돌」, 「따오기의 하얀 날개, 백령도」 등		1-2	인천 해양 설화 그림책
창체	● 우리마을 둘러보기 - 수봉공원 일대 둘러보기		3-4	마을 자원 활용(수봉산)
체육	● 안전하게 롤러스케이트 타기 - 우리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안전하게 타기		5-8	마을 자원 활용(롤랫)
미술	● 우리 마을과 관련된 그림 기호 만들기 - 의미를 알려주는 그림기호 익히기 - 생활 속 픽토그램과 친해지기 - 그림이 있는 간판으로 만들기		9-10	
국어	● 우리 마을과 관련된 이야기 만들기 -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 하기 - 프로젝트를 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기		11-14	

6학년 2학기		프로젝트 주제	우리 마을 나의 비전	
교과	활동내용		차시	마을자원
국어	● 내가 꿈꾸는 삶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 시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이 드러나도록 시 작품으로 표현하기		1-2	
실과	● 우리 마을의 문제 해결 방안 알아보기 - 우리 마을의 공동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절차적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해결 방안 알아보기		3-4	마을 지도
국어	● 연극(영화) 관람하여 가치관 탐색하기 - 연극(영화) 속 등장인물의 삶을 이해하고 가치관 탐색 하기		5~6	학산소극장 또는 도화CGV
국어	● 나의 비전을 친구들과 공유하기 - 다양한 작품 속 인물들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나의 비전을 정리한 후 친구들과 공유하기		7~8	

〈마을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2

마을에서 놀고 마을에 사랑을 실천하고

● 우리 마을을 온몸으로 체험해요

“수봉산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우리 수봉산 가서 놀아요.”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 가을에는 예쁜 단풍과 은행나무로 뒤덮인 수봉산을 활용하여 1년에 2차례씩 학년별로 수봉산 체험활동을 한다. 학교 근처에 산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또한 수봉공원 안쪽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국궁장이 있는데 국궁협회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교내 체험도 할 수 있고 국궁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활동도 진행해 주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1, 2학년 학생들은 독정골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레고방에서 다양한 레고를 만들어 봄으로써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을 수 있었다. 3, 4학년은 학교 인근에 용현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만나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시장에서 파는 다양한 물건을 사고 구경하며 시장의 역할을 배우게 되었다. 5, 6학년 학생들은 미추홀구 인근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신나게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활동을 통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마을 주변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삶에 마을을 통한 다양한 배움이 일어나는 뜻깊은 교육이 진행되었다.



수봉산 숲놀이



체험국궁장 활쏘기 체험



롤러스케이트 체험



독정골도서관 레고체험



용현시장 체험

● 학교에서 시작된 마을 사랑 마중물

학생들이 마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학교에서도 마을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이 마을에 다양한 도움을 주는 방법을 교육과정에 접목한 결과 여러 가지 마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2학년 학생들은 마을 영웅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나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마을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여 작은 고사리손으로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모두가 마을의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5학년 학생들은 우리 마을 주변 노인 20여 분께 나눔을 위한 생필품을 직접 포장하며 작은 정성을 보낼 수 있었고, 5, 6학년 학생들은 11월에 연탄기부를 위한 폐현수막으로 앞치마를 직접 만들어 이를 활용하여 사랑의 연탄 기부행사에 참여하였고 학교 주변 어려운 가정에게 연탄을 손수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마을에서 받은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다시 마을로 흘려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 용정초등학교 학생들은 행복하다.



나눔바자회 수익금



기부생필품 나눔 포장



친환경 텃밭지킴이



연탄기부를 위한 폐현수막 앞치마 만들기



사랑의 연탄 기부행사

3

마을에서 배우는 우리의 삶, 삶



지금까지 용정초의 마을에 의한, 마을을 통한, 마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살펴보았다. 우리 용정초 학생들은 행복하다. 학교가 있어서 행복하고 마을에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있어서 행복하고 마을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러한 행복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나다움을 발견하고 책임 있는 학생으로 한해 한해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대로 자람의 뜻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보는 의미있는 시간들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앞으로 우리 용정초 학생들이 자신의 결대로 마을과 더불어 행복한 한 사람으로 책임감 있게 자라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결대로 자라는 남부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남부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3학급(503명)
소 재 지	미추홀구 주안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읽·견·쓰’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 마을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우리 -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1

프로젝트 활동에 들어가며

● 우리들의 첫 만남

5학년으로서 학생들의 삶과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하며 공감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마을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키워가며 읽·견·쓰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나간다.

●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읽고, 견고, 쓰기 역량 키우기

학생의 배움 만족도, 학습 행복도를 높이하고자 많은 것을 체험하며 느끼고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결대로 자라는 남부 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마을 연계 활동을 통한 우리 마을 역사 알기, 우리 마을의 환경을 생각하며 공예작품 만들기,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한 연극 활동하기, 프로젝트 결과물 정리하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읽·견·쓰의 덕목을 자연스럽게 기르고자 한다.

2 마을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우리

● 운영 내용

대상	5학년(1학기)	프로젝트 주제	마을 공동체 속에 하나 되는 우리	
교과	관련단원	활동내용 (읽견쓰★)	차시	마을자원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 프로젝트 소개 - 수행과제 안내 - 학습활동 순서 안내	1	
사회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 주제 관련 소양 교육 - 세계시민교육 - 나의 인성 이야기 꾸미기 (★읽기)	2-3	인천공항
교과	관련단원	활동내용 (읽견쓰★)	차시	마을자원
사회	국토와 우리생활	◎ 주제 관련 소양 교육 (★견기) - 우리 마을 지리 및 위치 특별한 이야기 알기 - 우리 마을 역사, 상징물 알기 - 우리 마을 교육, 문화 시설, 행정, 복지센터 알기	4-5	문학산 학산서원 인천향교
미술	어제의 미술, 오늘의 미술	◎ 주제 관련 체험활동 - 나만의 마을 동화 그림책 만들기 - 우리 마을 그림지도 그리기 (★쓰기)	6-7	
실과	가정생활과 안전	◎ 주제 관련 체험활동 (읽기★ 견기★) - 우리 마을의 환경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공예작품 만들기	8-9	인천문화예술 회관
미술	우리 그림 속 풍경	◎ 주제 관련 표현활동 - 다양한 방식으로 배운 내용 표현하기 (포트폴리오, 영상, 작품 전시회) (★읽기)	10-11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수업	◎ 프로젝트 평가 - 소감 나누기 - 프로젝트 결과물 정리하기	12	



우리 마을 역사 알기(근현대사 문화체험)



우리 마을 공예작품 만들기

● 운영성과

우리 마을 역사를 알기 위하여 근현대사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읽·걷·쓰 근현대 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당시 쓰던 생필품, 당시의 학교의 모습, 당시의 거리의 모습 등을 재현한 모형물을 통하여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근현대사 문화의 변화와 흐름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그리고 마을 연계 교육 우리 마을 꾸미기 활동을 하였다. 공예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사는 마을 주변의 공공시설을 알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꾸며봄으로써 내 주변의 마을 환경과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3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 운영 내용

대상		5학년(2학기)	프로젝트 주제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교과	관련단원	활동내용(읽걷쓰★)		차시	마을자원
과학	재미있는 나의 탐구	◎ 프로젝트 소개 - 수행과제 안내 - 학습활동 순서 안내		1	
사회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 주제 관련 소양 교육 (읽기, 걷기 ★) - 마을 역사 교육 - 마을 지리교육		2-3	인천향교 도호부청사 문학산
사회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 주제 관련 소양 교육 - 우리 마을 문화 교육 (읽기 쓰기★)		4-5	
국어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주제 관련 소양 교육 (읽기 ★) - 책을 통해 우리 마을 알아보기		6-7	주안도서관 큰나무도서관 수봉도서관
미술	도형에서 찾은 조형 원리	◎ 주제 관련 체험활동 (걷기★) - 우리마을 랜드마크 알아보기 - 내가 만드는 우리마을 랜드마크		8-9	
국어	함께 연극을 즐겨요	◎ 주제 관련 표현활동 (읽기 ★) -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하여 연극 활동하기		10-11	은율탈춤전수관 작은극장 돌체 인천예총 국악회관

대상		5학년(2학기)	프로젝트 주제	내가 만들어 가는 우리 마을	
교과	관련단원	활동내용(읽건쓰★)		차시	마을자원
실과	나의 발견과 나의 미래	◎ 주제 관련 표현활동 - 다양한 방식으로 배운 내용 표현 하기 (포트폴리오, 영상, 작품 전시회)		12-13	
도덕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 프로젝트 평가 - 소감 나누기 - 프로젝트 결과물 정리하기		14	



우리 마을 연극 활동하기



프로젝트 소감 나누기

● 운영성과

2023학년도 우리 학교 5학년 5개 학급 학생들은 동아리 시간에 연극 수업을 30차시 하였다. 학생들은 연극 동아리 수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 연극 활동을 체험하였다. 또한 우리 마을 상황에 대한 토의를 거쳐 연극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모둠별로 자신들이 만든 연극 직접 시연하며 자신감을 기르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더 나은 활동을 위해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었다.

우리 마을 외식 체험을 하면서 이번 프로젝트 활동의 소감 발표를 나누는 시간을 갖으며 내 고장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더 알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고 하였다.

4

마치며

‘결대로 자라는 남부 공동체’의 주제로 5학년 아이들의 환경과 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아이들의 학습 의욕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생 본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행복감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으며, 체험하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공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은 우리 마을에 대한 지식과 개념 형성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지역사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를 통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중심의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남부초만의 결대로자람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활동

학 교 명	인천대화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454명)
소 재 지	미추홀구 도화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생의 삶과 이어지는 마을 공동체 활동 - 읽견쓰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그림책 만들기		

1 학생의 삶과 이어지는 배움으로 수업의 즐거움을 찾아주기

● 코로나 19, 그리고 삶과 이어지는 배움

신나고 설레임 가득한 초등학교의 첫 경험을 코로나 19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더불어 산 2023학년도 4학년 학생들은 다른 어느 학년보다 삶과 이어진 다양한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적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 그에 따라 코로나 19가 한 풀 꺾이며 시작한 올 한해 4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의 삶과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채워주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되어주었다.

● 생각을 모아 함께 우리마을 이야기를 만들어볼까?

4학년 사회 교과서 1단원인 ‘지역의 위치와 특성’은 ‘내가 살고 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지역의 다양한 곳을 살펴보게 된다. 이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는 중심지를 비롯하여 우리마을의 유명장소를 조사해 보고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림책의 구성과 필요한 삽화 그리기 등의 활동으로 표현의 기회도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여기에 우리마을 조사활동을 통하여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평상시에는 몰랐던 우리마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찾아보며 그 역할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져보았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이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리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 함양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바람도 함께 담아 보았다.

2

우리마을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만들기

◉ 그림책을 마음으로 그리다

본교에서는 4학년교육과정의 사회과와 마을연계교육과정과의 연계 활동으로 6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0시간에 걸쳐서 마을연계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4학년 총 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별 5개의 모둠을 만들어 학생들이 힘을 모아 20권의 그림책을 제작하였다. 처음 이야기 구상 단계에서는 우리 마을의 여러 지역을 살펴보고 이야기의 배경을 다양한 장소에서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마을을 배경으로 책을 만들어 본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이 반신반의하며 활동에 참여였지만 활동을 더해갈수록 장난기 어린 표정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어 갔다.



삽화 디자인하기1



삽화 디자인하기2



이야기의 구성 배우기

◉ 그림책을 가슴에 담다

작품의 구상단계 이후 이야기 쓰기, 내용 다듬기, 삽화 연결짓기 등의 여러 활동을 거치면서 아이들의 작품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바뀌어 갔다. 아이들이 한 장 한 장 그린 그림과 이야기들은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바뀌어갔다. 중간에 만들어진 작품을 확인하고 수정할 점을 찾아서 책을 만들어 간 끝에 드디어 완성된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났다.



내용 검토하고 수정하기



학생작품
『수봉산의 거인』 첫 페이지



학생작품

◉ 그림책을 나누다

2학기가 시작된 9월 12일에 학생들이 고대하던 책이 완성되어 나오는 날 학년 책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총 4개 학급이 한 시간은 학급별 책발표회 시간을 갖고, 이후 한 시간은 학년별 책 둘러보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모둠별로 2명씩 조를 짜서 첫 번째 팀은 다른 반 학생들에게 자신의 책을 소개하였고 나머지 팀원들은 다른 학급의 책을 둘러보았다. 2시간에 걸쳐 발표회와 둘러보기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책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책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점을 발견하고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책 발표회



그림책 발표회를 듣는 모습



우리가 만들었어요

3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함께 마을!

‘우리 마을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라는 교사의 물음에 ‘학교도 있고 태권도장이 있어요!’라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대답을 들으면서 삶과 배움의 이어짐을 위해 더욱 풍부한 경험으로 학생들의 삶을 채워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우리 마을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책 만들기 활동은 단순히 학교와 태권도장이 있는 마을이 아닌 자신이 미처 되돌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를 알게되고 신기한 이야기의 배경으로 책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마을, 다른 이의 마을이 아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임을 되새겨주는 의미있는 활동이 되었다.

지역사랑에 바탕을 둔 책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감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져보는 찐수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어떤 수업을 함께 만들어볼까?

읽·걷·쓰! 교육과정과 만나다 - 이야기가 있는 마을 걷기 -

학 교 명	인천운서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9학급(577명)
소 재 지	중구 운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읽·걷·쓰 교육활동을 적용한 학년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 - ‘삶의 터전과 분리되지 않는 배움’ 실현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1 이야기가 있는 마을 걷기를 시작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계기로 많은 학자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 전문가들은 질문과 상상하는 힘을 키울 때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한다. 질문과 상상으로 우리는 익숙한 세계에서 낯선 세계로 건너갈 수 있게 된다. 걷기는 낯선 세계로 건너가는 좋은 방법이다. 늘 변하고 있는 길을 홀로 거닐거나 함께 산책하며, 읽은 것을 떠올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 후 사유와 대화의 열매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읽·걷·쓰인가? 읽·걷·쓰는 말그대로의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아니다.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사유하는 힘을 기르며, 쓰기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과 소통 공감하고 성찰할 수 있다.

결대로자람학교를 처음 도전하는 우리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 걷기」와 교육과정의 만남을 통해 마을에 대해 질문하고 변화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2

교육과정에 담은 읽·걸·쓰



○ 교육회복 학교 자율 프로그램(結대로 함께하는 꿈知樂!)

학 습

〈知〉 함께하는 책놀이

- 가정, 마을과 연계한 온책읽기(문해력 향상을 통한 학습회복)
- 책 나눔읽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나만의 글쓰기 준비
- 정기 독서 나눔: 바르게 읽기를 통한 짝낭송, 모둠낭송, 낭송영상 만들기
- 작가되기 프로젝트(자기이해, 표현을 통한 마음회복)
- 소소하게 통하는 소통 책토론- 경청과 말하기를 통한 해결점 찾아 정리하기

심 리

〈樂〉 손으로 꿈지락! 시나브로 마음회복

- 흠놀이를 통한 자기 이해, 자기 표현
- 도예활동, 한지공예, 책만들기 등 미술놀이를 표현하여 마음 회복하기
- 자연과 함께 회복하기: 사진에 투영하기
- 신체과 함께 회복하기: 무용으로 자신 표현하기
- 긍정학급훈련 회복적서클 운영(함께 걷기 프로그램 운영)

사 회

〈結〉 관계맺기

- 고학년과 저학년 : 형아우 맺기(꿈 나눔을 통한 진로 확장)
- 학생과 교사 : 사제동행
- 가정과 마을 : 결대로자랑발표회를 통한 UCC 상영: 사진 및 소감 기록



자연과 함께 회복하기 교육활동



손으로 꿈지락! 시나브로 마음회복

● 마을에서 함께하는 동네책방 탐방교실

시기	주제 및 활동 내용	비고
3월	□ 구석구석 동네 책방 톺아보기 계획 수립 □ 교사 동아리 및 지원단 조직 □ 가정 홍보 및 학생교육 □ 학교도서관 친해지기(사서선생님과 함께하며 배우기) □ 마을강사 활용 구연동화 공연(「영종도 설화가 살아있다.」)	클래스팅
4월	□ 동네 책방 나들이 학급문고 만들기 - 동네 서점 구경하고 그림책 사기 □ 그림책 읽기(낭랑작가 연계)	사제동행 가정연계
5월	□ 마을연계 수업 관련한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 학교 주변 정원 탐방 및 작은 도서관 방문 □ 책 놀이 프로그램 체험(나만의 책만들기 북아트) - 독서와 관련된 책 놀이 활동	마을연계
6월	□ 책 놀이 프로그램 체험(나만의 책만들기 북아트) - 독서와 관련된 책 놀이 활동 - 책 속 인물이 되어 인터뷰 하기	마을연계
7월	□ 부모님과 함께 동네 도서관 탐방하기 - 가정연계 독서교육활동 및 1학기 활동 정리	클래스팅
9월	□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속 보물찾기 - 작은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연계 책 속 숨겨진 보물찾기 - 종이의 질감을 살린 책만들기(북아트)	도서관협조 마을강사
10월	□ 우리집 낭독회 VS 학급 낭독회 - 가족과 함께 하는 낭독대회 - 학급 낭독회	영상자료 발표회
11월	□ 모의 출판 - 나만의 그림책을 위한 모음집 제작	
12월	□ 독서 동아리 활동 마무리 - 1년 동안 진행한 활동을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공유하기 - 출판기념회를 통해 작가되기 체험	활동 내용 홈페이지 탑재 및 도서관 전시



구연동화로 영종도 이야기 만들기



어린이날 행사 - 동네책방 책 선물



작가와의 만남(달팽이 시리즈 작가 신민재님)



글꿈터(학교 도서관)과 친해지기

○ 형·아우가 함께 마을에서 놀자

- 3,4학년 형아우 함께 걷기 활동 연계
-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함께 걷기
- 백운산, 마을 공원(호수공원, 냇디공원 등) 체육시설에서 팀조끼를 활용한 놀이활동



우리 마을 함께 걷기



형아우 함께 걷기

3 마을 걷기는 계속 된다

우리는 마을 속에서 나고, 자라고, 꿈을 키워간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 걷기를 통해 친구들 뿐 아니라 선후배 사이의 얹이 생기고, 가족과의 이해가 생기고, 선생님과의 유대를 키울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관심을 키우면서 좀더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자라게 되었다. 1년 동안의 성장이 크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결대로자람학교가 이어지는동안 이야기가 있는 마을 걷기도 계속 될 것이다. 오늘의 나에서 결대로 성장한 내일의 나를 기대하며 다음 발걸음을 준비해본다.



2023. 4. 10.~14. 1학년 동네 탐방-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일자~걸자~쓰자~웃자~

1학년 봄학에 나오는 봄소풍을 위해 동네 걷기 및 마을 탐방을 해 보았습니다. 백운산 등반, 인근공원 탐방, 학생과학관 체험 등 우리 동네의 여러 곳을 살펴보고 관찰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와 동네에서 본 것을 그려보고 마을 탐방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적어보는 원경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또 가고 싶은 마을 체험 교육! 결대로 자람 교육과 함께 자라는 우리 1학년-



읽걷쓰와 함께하는 slow walking, 마을을 걷다

학 교 명	인천백학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240명)
소 재 지	미추홀구 학익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2.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숲과 관련한 책을 읽고 연경산 숲체험 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기록 - 인천의 옛이야기 책을 읽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마을탐방 실시 - 마을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으로 마을과 지구환경 지키기 다짐		

1 ‘읽걷쓰와 함께하는 마을걷기 프로젝트’ 수업의 필요성

내가 사는 마을은 우리 삶의 공간이다. 우리의 배움 또한 삶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마을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마을 자원은 그런 의미에서 교과서이며 교구이고 우리는 자원을 활용하여 배움을 만들어간다.

읽걷쓰와 함께하는 마을연계 학년별 프로젝트수업에서 아이들은 책을 통해 경험을 넓혀가고 상상력을 키우며, 마을을 둘러보면서 직·간접의 체험을 한다. 나와 타인이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또는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의 의미를 배운다. 그리고 활동으로부터 환류되는 메시지와 에세이 공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내면화하고 타인의 삶에 공감하며 성장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읽걷쓰와 함께하는 마을걷기 프로젝트’ 활동은 즐거움을 주는 놀이이자 성장이며 행복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읽걷쓰와 함께하는 마을걷기 프로젝트’ 수업의 운영 사례

● slow walking, 연경산 숲길에 올라요

하늘은 높고 푸르며, 나무가 자라고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숲이 우리 마을에 있다. 숲은 계절 따라 갖갖은 향기를 내뿜으며 아름답게 변하고 하늘과 땅에는 동식물들이 살아 움직인다. 아이들은 그 모습이 재미있고 궁금하다. 숲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놀이터이다. 천천히 숲을 걸으며

백이학이 1~6학년 어린이들의 연경산 탐험 프로젝트 활동을 따라가 보자.

활동 영역	실 천 내 용	대상	시기	비고
계획	• 학년교육과정 구성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계획 •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계획 시 예산 수립	전학년	2~3월	
읽기	• 학년별 환경과 생태 관련한 책 읽기 • 숲에 대한 활동과 관찰 계획 세우기 • 독후활동하기(숲에 대한 질문 주고받기)	전학년	6월~10월	
걷기	• 교내 생태체험하기 • 학교주변의 식물 살펴보기	1학년	4월, 10월	연경산공사로 교내진행
	• 연경산 숲길 걷기 • 연경산 숲 생태체험하기	2~6학년	10월~11월	마을강사 활용
쓰기	• 숲 동식물만들기(나무피리, 부엉이, 열매키링만들기) • 학년별 글쓰기 활동(편지쓰기, 시화전, 생태보호 글쓰기)	전학년	10월~11월	

먼저 환경과 생태 관련한 책읽기를 통해 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이야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본다. 아이들 스스로 숲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어떠한 것들을 관찰하고 싶은지 계획하였다.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산을 걸어 올라갔다. 루페로 고사리 잎과 포자를 관찰하고 나무의 입술모양의 껍질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자연놀이도 하고 숲 동물도 만들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숲이 주는 감성과 신기함은 아이들에게 모두 다른 색깔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숲에서의 느꼈던 느낌과 경험을 그림과 글로 남겨보고 나의 마음속에 숲의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생태환경 도서(30권)



1~6학년 생태환경 책읽기



루페 식물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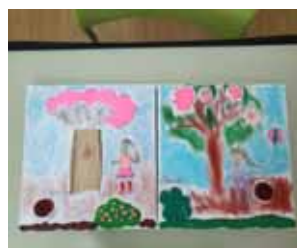
공동체 자연놀이



나무 껍질 관찰



생태놀이



숲 이야기 그리기



숲 이야기 시쓰기

● slow walking, 마을 구석구석 탐험가

우리가 사는 마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 예술과 체육 등 다양한 교과가 담겨 있다. 곧 마을은 교육과정이며 책상이 없는 교실이다. 학생들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듣고 인천의 옛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인천의 전설들이 우리 마을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계획한 마을의 곳곳을 탐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마을을 걸으며 탐방을 시작하였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드는 인천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마을에 대한 애향심과 자랑스러움을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을 경험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마을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활동 주제	실 천 내 용	대상	시기	비고
우리동네 꿈을 찾아 마을로 나가보자	• 우리 동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마을 탐색하기(읽기) • 가고 싶은 장소와 위치 모둠별 계획하기(읽기) • 동네를 걸으며 학교와 상점 위치를 알아보고 공간 탐방하기(걷기) •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 인터뷰하기(걷기) • 마을 직업 뉴스 만들기(쓰기) • 마을 직업 놀이하기 • 마을에서 나의 꿈 찾기, 꿈 발표하기(쓰기)	2학년	8월	
책 향기와 함께 걷는 우리 마을	• 다양한 책 속에서 인천의 옛이야기 읽기(읽기) • 옛 이야기 속 인천의 모습 토의하기, 탐방계획 세우기(읽기) • 우리 마을 도서관 탐방하기(걷기) • 우리 마을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하기(걷기) • 인천 향교 견학 및 전통놀이하기(걷기)	3학년	6월	마을강사 활용
역사와 함께하는 마을탐방 프로젝트	• 다양한 책 속의 인천들의 옛이야기 읽기(읽기) • 역사탐방 계획세우기, 탐방 유의점 토의하기(읽기) • 문학산을 걸으며 문화유산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듣기(걷기) • 문학산 역사관 관람하기, 전통놀이하기(걷기) • 강화역사박물관 관람하기, 고인돌 견학하기(걷기) • 화문석 공예체험, 도자기 공예체험하기	4학년	5월~6월	마을강사 활용
글쓰기	• 학년별 글쓰기 활동 • 마을 홍보물 만들기(쓰기) • 여행일지,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글쓰기(쓰기)	학년별	-	



책을 읽고 인천의 옛이야기 상자 만들기



인천의 문화유산 탐방 사전 계획하기



마을 인터뷰



마을 향교 탐방



문학산 역사탐방



미디어스튜디오 견학



마을 홍보물 만들기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글쓰기

slow walking, 마을 플로깅(Plogging)으로 환경을 지켜요

플로깅(Plogging)은 ‘줍다’라는 뜻으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 플로깅은 마을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워 우리 마을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이다. 4~6학년 희망학생 및 4학년 봉사단은 아침, 점심, 방과후시간을 활용하여 마을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학생들은 시간이 거듭 될수록 우리 마을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쓰레기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에 공감하며 마을을 깨끗하게 보전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지구촌 생태환경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인천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주변 쓰레기 줍기



공원주변 쓰레기 줍기



마을 쓰레기 줍기

3

제언 및 의견



읽건쓰와 함께하는 마을연계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책을 읽고 상상하는 힘, 체험하고 경험하는 힘, 에세이를 공유하고 사색하는 힘을 함양할 수 있었다. 사람과 자연이 마을에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으며 공동체로서 서로 도우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과 마을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유익한 마을자원을 십분 활용하기에는 지역적 거리 한계로 인해 도보로 활동하는 아이들에게 수업계획이 자유롭지는 않은 아쉬움이 있었다.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인주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6학급(550명)
소 재 지	미추홀구 학익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년군별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함께 성장하기 - 나, 너, 우리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관계 맺기		

1

빛깔있는 교육과정으로 날마다 성장해요.

● 사람이 보이는 교육과정을 꿈꾸다.

10년 전, 20년 전에도 우리 교육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일이었다. 현재도 역시 그렇다. 다만 교육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을 빛깔 있게 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한 올바른 관계 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주초등학교 구성원들은 학년군 특성을 고려한 단계형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학년군 특성을 고려한 중점과제(감성·인성교육/창의·예술교육/미래·진로교육)를 구조화하여 빛깔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따뜻한 감성·인성을 길러요.

● 자연과 같이 놀며 감성·인성을 키워요.

인주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자연은 고운 색’이라는 주제로 4월 4일부터 학교 텃밭에 봉숭아 씨앗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봄에는 연경산 숲 생태체험을 통해 연못에 사는 올챙이와 도롱뇽을 관찰하고 산에 있는 동식물을 탐구하였으며 가을에는 실내 낙엽 놀이로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언어, 소리, 동작이 통합된 종합적 예술 표현 활동인 오르프 음악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오감 만족 체험활동을 하였다.



봉숭아 물들이기



협동놀이(줄여기)



연경산 생태체험



실내 낙엽놀이

● 삶과 연계한 배움으로 소통과 공감 능력을 키워요.

인주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여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가치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해-존중-공존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특히, 전통·예술교육을 통해 융합 예술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자연, 동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윤리적 소양과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통 놀이 및 문화 이해 교육, 놀이로 배우는 우리 국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 표현 활동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전통놀이 체험

문화유산 탐방
(인천도호부관아)

놀이로 배우는 우리 국악

온채읽기 셋길활동
(식물역할극)

● Hi! Dream, Dream High!

자신을 가꾸며 미래의 꿈을 준비하는 인주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융합인재가 되기 위해 다양한 미래·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온작품읽기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딩 교육과 다양한 SW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꿈을 키우는 융합인재로 자라고 있다.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여 미래를 꿈꾸며 끼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6학년 학생들은 미래교실창작부를 조직하여 '새로운 배움을 담는 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원하는 교실의 느낌, 교실에 필요한 물건, 교실에 어울리는 색깔 등을 고민하여 실제 건축사와의 만남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교실 설계과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미래교실창작부
(건축사와의 만남)



미래교실창작부
(2D 평면도 제작)



우리같이(가치)공감부
(멸종위기동물분포도)



우리같이(가치)공감부
(텃밭가꾸기)



온책읽기 연계활동



학교안 생존수영활동



드론비행체험



읽건쓰 활동

●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학생자치회와 또래상담가들이 주도하여 다양한 초청공연과 학교 자체 행사를 진행하였다.



어울림 나눔 주간
(등교맞이)



어울림 나눔 주간
(토닥토닥 마음약방)



찾아가는 학부모
심리·정서 프로그램



학업중단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활동



한마음 큰 잔치



찾아가는 등굣길 음악회



흡연예방 골든벨



독서의 달 행사

3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궁금해요.



혐오와 반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이기심은 환경을 파괴하고 그 대가를 재난으로 돌려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다.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 활동을 통해 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는 더불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교사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던 학생들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가 되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은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결대로 자람학교 3년차를 이어오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보완할 부분을 고민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인천인주초등학교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



읽·걸·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

학 교 명	인천삼목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8학급(651명)
소 재 지	중구 운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읽·걸·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 읽·걸·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전체학년 및 학년별 프로그램)		

1

읽·걸·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 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이란?

인문학의 사전적 의미는,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양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평소 닦아 놓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흔히 아는 교양과 같은 말이다. 즉 인문학적 소양이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따위를 통해서 학습하고 배운 지식 즉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은 ‘독서’와 연계한 교육이어야 한다.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누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야 한다.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판단능력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p43).

● 읽·걸·쓰란 무엇인가?

읽·걸·쓰란 인공지능(AI)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학습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읽기, 걷기, 쓰기의 통합 활동 또는 개별 활동이다.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사유하는 힘을 기르며, 쓰기를 통해 자신 또는 타인과 소통·공감하고 성찰할 수 있다.

왜 읽·걸·쓰일까? 사람은 늘 변하고 있는 길을 홀로 거닐거나 함께 산책하며, 읽은 것을 떠올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눈 후 사유와 대화의 열매를 글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 읽·걸·쓰는 읽기, 걷기, 쓰기의 통합 활동 또는 개별 활동으로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떤 활동이든

가능하다. 읽·걸·쓰 통합 활동은 글이나 책을 읽고, 함께 관련된 장소를 답사하거나 사유하며 걷고, 그 결과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읽·걸·쓰 개별 활동은 읽기, 걷기, 쓰기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읽기의 대상이 반드시 글이나 책이 아닌 유무형의 예술작품이나 문화재, 트렌드일 수도 있다. 쓰기 역시 그림, 사진을 곁들인 쪽글이거나 영상 기록물일 수도 있다. 걷기 역시 매일 일정하게 정해진 길을 걷는 활동에서부터 주제에 따른 견학, 여행지에서 걷기, 숲이나 공원 산책 등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다.(인천광역시교육청 읽·걸·쓰 총괄 추진계획)

● 읽·걸·쓰로 인문학적 소양 및 종합적 읽기 쓰기 역량 함양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는 지금 교육의 방향도, 방법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어느 한 개체만의 교육을 통해서는 어렵다. 학생들에게는 독서를 통한 인문체험활동 중심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원과 학부모에게는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다양한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인문 독서·토론 동아리활동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지역축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사 초청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역사를 알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육으로서 좋은 인문 체험이 될 것이다.

2

읽·걸·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읽·걸·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교사 역량 강화 연수

- 교사 자발적 연수 참여 유도 (원격연수, 직무연수)
- 워크숍 운영(2월, 12월) : 독서역량강화, 2015, 2022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 외부강사 초청 연수
 - 2022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핵심역량 교육과정 재구성, 읽·걸·쓰활동프로그램 교수학습설계,
- 읽·걸·쓰 활동 프로그램 비전 공유
- 전입교사, 신규교사 대상 연수 운영(3월)

전문적학습공동체·교사협의회·교사동아리

- 학년별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교내)
 - ○○놀잇방(1-2학년군), HDCA(3-4학년군), 오비이락五飛以樂(5-6학년군)
- 읽·걸·쓰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교간)
- 동학년 교사 협의회 운영
 -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의 일체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실시
- 교사 독서 동아리 운영

◉ 읽·견·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학기	교과	단원	재구성 전 주제	재구성 후 주제
3-1	미술 (2차시)	4. 상상 속 세상	연상, 상상하거나 대상을 관찰하여 나타내기	우리 고장의 옛 모습,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우리 고장 문화유산 신문 만들기
	사회 (2차시)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 살펴보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 문화유산 소개 신문을 만들고 발표하기
	국어 (1차시)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기	문화재청 누리집, 우리 마을 구석구석 책에 있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관련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만 간추리기

◉ 읽·견·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 운영(책가방 없는 날)

학년	1		2		3		4		5		6	
시수 확보	교과시수12 + 창체자율4		교과시수12 + 창체자율4		교과시수30 + 창체자율10		교과시수30 + 창체자율10		교과시수30 + 창체자율10		교과시수30 + 창체자율10	
학기별 시간 운영	1	2	1	2	1	2	1	2	1	2	1	2
	16	16	16	16	20	20	20	20	20	20	20	20
계	32		32		40		40		40		40	

3

읽·견·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읽·견·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전학년 운영 프로그램)

대상	읽견쓰 활동프로그램	운영 내용
전학년	책가방 없는 날	- 1~6학년 한달에 한번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연간 8회 운영) - 읽.견.쓰 활동 연계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및 프로그램 구안    전통 떡 체험 세계평화의 숲 생태 체험 도자기 체험
	삼목 공감 콘서트	책 읽는 ○○ 도서선정 (학년별 5권) 슬로 리딩 (1인 5권) 선정도서 (마을연계)관련 마을나들이 북아트, 캘리그래피 등 표현 활동 ○○공감 콘서트 작품전시회 - 학교 도서관 연계 수업으로 학년당 5권씩 30권(150권) 선정 구입 - 교사, 학부모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도서 선정 후 구입, 읽.견.쓰 활동 - 교육과정 재구성 통한 수업 시수 확보 후 슬로 리딩 - 마을이야기, 기후생태, 지역사회 연계 도서 선정 후 체험학습 실시(예:도서관, 과학관, 세계평화의 숲 등) - 북아트, 캘리그래피 전문강사 등 초빙하여 인상 깊은 문구로 표현활동 작품 제작 - 삼목공감콘서트 : 학생, 학부모, 교사 작품 제작 및 전시    삼목공감콘서트 작품전시회 삼목공감콘서트 작품전시회 삼목공감콘서트 작품전시회

【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 책가방 없는 날(예시)-전학년 】

학년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 (책가방 없는 날)	운영 장소	프로그램 개요
1	■ 구해줘, 지구!	교실, 세평숲	- 그림책 활용 기후위기와 멸종위기 동물 알기
2	■ 함께 행복을 키우는 우리	교실, 강당	- 동화를 활용한 다양한 친교, 적응활동
3	■ 우리 고장 문화유산(마을연계)	교실, 마을산책	- 우리 고장 문화유산 조사 및 신문 제작
	■ Book적 Book적 책놀이	교실	- 온작품 읽기, 책만들기를 통한 국어 창의학습
	■ 체험형 독서활동을 통해 미래환경 지킴이가 되는 산책 길	교실, 세평숲	- 기후위기안내서 온책 읽기(슬로리딩)
	■ 온새미로 생태환경놀이	학교숲, 세평숲	- 노작과 실습중심의 생태환경 체험활동
	■ 문화예술교육 차근차근 ABDC	교실, 강당	- 사계절에 어울리는 놀이, 음악, 미술, 명절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기
6	■ 왕피구 독도를 지켜라!	교실, 강당	- 독도의 날 기념 활동
	■ 지구촌 한 가족!	교실, 강당	- 세계 놀이 체험을 통한 다문화 감수성 함양 활동
	■ 마술같은 과학, 과학같은 마술!	교실, 강당	- 마술과 접목한 과학 원리 체험(창의과학활동)
	■ 신나는 미술놀이터	교실	-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미적감수성 함양 활동
	■ 함께해서 즐거운 협력놀이	교실, 운동장	- 뉴스포츠 놀이를 통한 체력 증진활동

● 읽·견·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학년별 운영 프로그램)

대상	읽·견·쓰 활동프로그램	운영 내용
1~2학년	학부모 독서동아리 연계 읽·견·쓰 낭독학교	학부모 동아리 선정 학부모 책읽어주는 방법 연수 낭독학교 운영 도서 선정 1~2학년 아침활동 낭독학교 운영 낭독 도서 역할극 발표회 - 학부모 독서 동아리 선정 - 학부모 독서 연수 : 책읽어주기, 그림책연수, 독서논술, 북아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1학기) - 2학기 아침활동 시간 활용 학부모 동아리 연계 낭독학교 운영(1~2학년) - 낭독 도서중 선택하여 역할극 발표회 운영
3~4학년	읽·견·쓰 골목길 프로젝트 우리 동네 자량위원회	책 읽는 삼목 도서선정 슬로 리딩 중구 지역사회 인사 및 자원 활용 수업 우리동네 골목길 지도 제작 선정도서 (마을연계)관련 마을나들이 - 교육과정 재구성 통한 수업 시수 확보 후 슬로 리딩 - 우리동네 골목길 지도 제작 및 전시 - 중구 지역사회 인사 및 자원 발굴 및 섭외 필요
5~6학년	읽·견·쓰 도전! 나도작가	책 읽는 삼목 글쓰기 방법 도서선정 슬로 리딩 독서논술 전문가 및 작가 연계 초청 강의 작품제작 글쓰기 및 사진집 글 쓰는 ○○ 작품 출간 - 교육과정 재구성 통한 수업 시수 확보 후 슬로 리딩 - 독서 논술 특강 및 작가 연계 초청 강의 실시, 작품제작 및 도서 출간(인쇄)

4

읽·견·쓰 독서삼다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



교 사

- ▶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
- ▶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교실 수업개선 및 수업능력 향상
- ▶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로 교직에 대한 사명감 고취

학 생 지 도

- ▶ 배움이 일어나는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생 성장형 교육과정 운영
-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미래 핵심역량의 효과적 증진방안 마련
- ▶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즐겁고 행복한 교실수업 개선

학 교 교 육

- ▶ 읽·견·쓰 활동 관련 연수를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
- ▶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워하는 교사들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인적 자원 제공
- ▶ 모든 교과 적용 가능한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 대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자료 지원 및 교사연수, 학생지도에 활용
- ▶ 인천시 역점사업과 연계 읽·견·쓰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일반화에 기여

인문학적
소양
및 종합적
읽기, 쓰기
역량 함양



마을과 함께 활기찬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우리!

학 교 명	인천운남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8학급(365명)
소 재 지	중구 운남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문화, 예술, 체육교육 - 마을연계교육 - 학생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1 우리 아이들, 우리 마을을 들여다보며

우리 학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다. 학교 주변에 백운산과 아파트가 덩그러니 있고 그 외 교육, 문화시설은 거의 없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빈약한 교육과 문화시설로 문화적 경험의 기회가 적고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기에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통해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고, 체육 교육을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으로 자라나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공동체가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한마음으로 노력하였다.

학생들이 문화, 예술, 체육 교육을 통해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및 방과후 동아리 활동 등을 운영하였다. 학생참여형 문화, 예술, 체육교육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행복한 운남교육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2 마을과 함께 스스로 참여하는 문,예,체 교육의 배움과 나눔

○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는 예술교육

우리 학교 문화예술교육은 연간교육과정으로 1인 1악기 활동을 하였다. 1학년은 사물놀이, 2학년은 핸드벨, 3~4학년은 우크렐레, 5~6학년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하고 익혀 나갔다.

서툴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갈고 닦은 실력을 11월 3일부터 시작된 학년별 학부모 공개수업일에 공개 수업 후 1인 1악기 연주 실력을 부모님 앞에서 발표하는 악기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학년별 악기 발표회를 통해 학부모님은 자녀의 악기 연주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응원해주었다.

또한 문화예술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마을연계교육으로 공예 활동 서각을 배우며 학생들이 서각에 대해 이해하고 서각 작품을 완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대회에 직접 출품하고 수상하면서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마을 속으로 찾아가는 마을탐방 도예체험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 걸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도예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예교육을 받고 물레를 돌리며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며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작품을 소중히 여기며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미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우리 학교는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아침을 여는 교육활동으로 1교시 전 아침활동 시간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다. 검도부는 지역사회 검도선생님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학생들이 검도를 익히며 마음가짐을 다잡고 바른 자세와 검도 기본기를 익혔다. 검도부는 2학기 들어 여자검도부도 생길 만큼 학생들의 호응과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스포츠클럽이다. 또한 방과후에 탁구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탁구 코치의 지도로 탁구 스포츠클럽이 이루어지며 이 또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내 선생님이 지도하는 축구부는 4~6학년 남학생의 신청이 매우 많고 적극 참여하는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농구부도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운영되었다. 인성교실로 운영된 핸드볼부도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핸드볼부는 각 종 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교 안의 다양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활기차고 건강한 학생들을 만들어가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외에도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걷기 활동도 학급별 희망을 받아 3개 학급이 운영하였고, 우리 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돌아보며 걷기 활동을 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있다. 학교 전체 걷기 일환 행사로 학생들이 가족들과 마을을 돌아보며 사진을 찍어 제출하고, 이를 전시하는 ‘우리 마을 사진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활동을 통해 마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고 관찰력도 기르게 되었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은 교내에 전시하여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 참여한 학생에게는 제출한 사진을 액자에 끼워주기도 하여 출품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회를 관람하며 전교생이 우리 마을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었다.



1인 1악기 악기발표회



우리 마을 사진 전시회

● 마을 속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학생동아리 활동

한 해 동안 학생동아리활동도 활성화되어 학생 밴드부인 ‘운남밴드’를 운영하였다. 운남초 학생 자유톨리인 ‘운남밴드’는 다양한 음악을 직접 연주하고 음악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학기초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서로 악기 연주로 협응하고 기악합주를 성공시키며 협동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 7월 교내 강당에서 학생동아리 발표회를 통해 연습한 음악을 공연하였고, 10월 14일(토) 지역사회에서 개최된 제14회 펜타스쿨 락페스티벌에 참여하여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멋지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후 학생들은 더욱 자신감과 열정을 갖게 되었고 ‘운남밴드’는 이후 12월 초에 있을 재능발표회 공연 출연을 목표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 운남초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자유톨리 활동으로 음악을 즐기고 자신의 재능을 펼쳐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개최한 락페스티벌 참여는 학생들에게 도전의식과 열정을 더욱 불어 넣어주었다. 끊임 없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및 사랑의 손맛 나눔 봉사활동

우리 학교 옥상엔 모든 학생이 사랑하는 텃밭이 있다. 학교 건축물 설계도에 이미 형태가 나와 있으나 그간 활용되지 않았던 약 240 제곱 미터의 화단이 수년간 전혀 쓰임새 없이 방치된 옥상 화단을 새 생명이 자랄 터전으로 바꾸는 과정은 모든 교직원이 함께했다. 식목일 행사로 옥상에 모인 교직원이 함께 돌을 골라냈고, 교장 선생님이 직접 농기계를 몰아 밭의 형태를 만들었다. 전교 학생들이 다양한 작물을 골라 텃밭에 심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한 마을 텃밭 교육 예산의 도움이 컸다. 옥수수,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심고 수확하였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학교 텃밭에 심은 고구마를 학생들이 직접 캐고 수확하는 고구마 캐기 체험활동을 하였다.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고 학생이 직접 체험 해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학교 텃밭에서 키운 작물은 사랑의 손맛동아리 학부모회 봉사동아리 활동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학부모회 기능부서 중 하나인 사랑의 손맛동아리는 학기별 2회 이상 지역사회 어렵게 사시는 독거 노인에게 반찬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사랑의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랑의 수고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텃밭 가꾸기



사랑의 손맛 동아리 봉사활동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읽,견,쓰’ 독서축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으로 운남초는 한글날을 맞아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는 「읽.견.쓰 한글날 독서축제」를 진행하였다. 「읽.견.쓰 한글날 독서축제」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독서 축제로, 학부모회가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운영하며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9월에는 독서교육봉사회에서 북폴딩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학부모 북폴딩 연수를 받은 학부모들은 한글날이 있는 독서축제 주간에 1학년과 4학년 북폴딩 수업을 진행하는 재능기부 수업에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북폴딩을 통해 재활용 책을 멋지게 접어보며 책에 관심을 갖고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공작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읽.견.쓰 한글날 독서축제」 기획을 위해 두 달 전부터 독서교육봉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 방법을 논의하였다. 독서축제는 도서 나눔 바자회, 온 책 읽기 골든벨, 명언 액자 만들기, 한글날 3행시 짓기, 별자리 책갈피 만들기, 포토존, 간식 코너 등 흥미롭고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며 전교 학생들이 즐겁게 독서축제 부스 체험을 할 수 있었다. 한글날 독서 축제는 본교의 학생·교사뿐 아니라 학부모가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읽고, 견고, 쓰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며 한글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운남 교육공동체가 되었다.



북폴딩 학부모연수 및 재능기부 수업



읽.견.쓰 한글날 독서축제

3

마을과 함께하는 배움과 나눔으로 행복한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 환경의 빈약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문화,예술,체육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중심 프로그램을 연중 다양하게 운영해왔다. 활기차고 행복한 학생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및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학생참여형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해야 한다.
- 문화예술적 감수성과 심신의 건강을 키우는 문화,예술,체육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을 더욱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교육공동체가 모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별처럼 빛나는 환경 운동 실천가

학 교 명	인천별빛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47학급(1152명)
소 재 지	중구 중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2.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마을연계 교육과정 및 생태전환 환경교육 운영 - 플로깅, 커뮤니티 매핑, 환경사진전 운영		

1 산, 바다, 들이 펼쳐진 천혜의 자연을 품은 영종도

● 마을 자원이 풍부하고 생태전환 환경교육이 가능한 교육 환경

인천별빛초등학교가 위치한 영종도의 하늘도시는 산과 바다와 들이 공존하는 자연 환경과 신도시의 성장으로 마을 교육과 생태전환 환경교육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5학년 교육과정에서 운영한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소개하려 합니다.

2 학교 주변에서 마을까지

● 플로깅 활동의 시작

인천별빛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으로 플로깅 활동을 하였습니다.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 과 “조깅하기”의 jogga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말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조깅을 하는 동안 눈에 띄는 쓰레기를 줍는 일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행하는 환경 보호 활동입니다. 인천별빛초등학교가 위치한 영종하늘도시의 길거리는 얼핏 보면 매우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을 다니며 유심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길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마음으로 학교 주변 플로깅 활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잠깐 다녀왔을 뿐인데 너무 많은 쓰레기를 모아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입을 모아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하며 우리 학교와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로깅 활동

● 우리 마을에서 영종도로

5학년 학생들은 우리 학교 및 마을에서 영역을 살짝 넓혀 영종진 공원으로 플로깅 활동하러 갔습니다. 영종진 공원에서 레일바이크를 타며 시원한 바람도 맞고 친구들과 힘을 합쳐 페달을 밟는 체험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마을 주변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레일바이크 체험 후에 영종진 공원 플로깅 활동과 사진 촬영 미션 해결 활동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종역사관과 영종진 공원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쓰레기도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종진 공원에서 내려간 바닷가에서는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치울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양 쓰레기들이 떠내려 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많은 쓰레기 양에 놀라면서도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종도의 대표적인 백운산과 공항 신도시에 있는 세계평화의 숲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백운산과 세계평화의 숲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자 봉지, 담배꽂초 등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가 있을까 싶을 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치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구석구석 쓰레기를 치우던 학생들은 자신을 대견해하고 부듯하였습니다. 또한 수거한 많은 쓰레기를 본 공원 관리 직원 분의 놀라운 표정도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영종진 공원



백운산 플로깅 활동



세계평화의 숲

● 생태지도 만들기와 환경 사진전

5학년 학생들은 학교 주변 및 마을에서 플로깅 활동하면서 우리 마을 주변의 생태지도를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매핑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은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동식물 사진을 촬영하여 지도에 올려놓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잘 찍는 방법도 익히고 매핑활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지나쳤던 다양한 동식물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종류와 위치를 공유하면서 이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우리 마을 생태 환경에 대한 각자 자기 생각과 의도를 담아서 환경 사진전에 출품할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여 학년말에 환경 사진전도 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환경에 대한 한층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될 거라 기대됩니다.



커뮤니티 매핑-생태지도 만들기 및 환경 사진전

3

마을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

1년 가까이 생태 전환 환경교육을 운영한 5학년 선생님께서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전 학교에서의 마을 교육은 다양한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 교육을 주로 실행하였지만, 이번 활동에서는 우리 학생들도 마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마을 교육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더욱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마치 작지만 수많은 환경 운동 실천가를 탄생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면서 많은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학 교 명	인천부개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6학급(256명)
소 재 지	부평구 부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운영 방향 -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학교 내·외 프로그램 운영		

1 문화예술 교육의 필요성

● 부개동은 문화·예술 인프라 열악 지역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 문화회관, 예술회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세계적인 전쟁, 질병 등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이런 때일수록 문화·예술에 배정된 예산은 축소되고 있어 서울이 아닌 지역의 주민이나 학생들은 더욱 문화·예술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부개동 역시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언어, 수리, 외국어, IQ, 공간인지력, 관찰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전반적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부개동의 학생들은 이런 문화·예술교육의 영향을 포기해야 할까?

●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

어떤 영역이든 어릴 적부터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은 수학과 영어보다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자칫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연계 방법의 모색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성은 있었다. 본교는 혁신 학교 지정 시기부터 코로나19를 지난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내 교육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고, 이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

2

학교에서 경험하는 문화·예술교육

● 학교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난해까지 부평구와 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에 활용할 다양한 악기를 갖추 수 있었다. 악기를 보관하며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역시 확보하였다. 또한 오래전 구비한 악기들을 정비하고 부족한 악기는 추가 구매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음악 분야뿐만 아니라 미술 분야의 소양 함양을 위한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고 미술 작품을 전시하였다.



음악자료 및 음악교육이 가능한 음악실



미술 전시 갤러리

● 지역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예술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본교는 인천 지역의 우수한 문화, 예술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들이 부개동 주변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담임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코티칭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더불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마을 연계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핸드벨 연주 수업



실로폰 연주 수업



기타 연주 수업



우쿨렐레 연주 수업



국악 수업



풍물 수업



전통문화체험 수업



도자기 물레 체험 수업



학교 갤러리 미술작품 수업

● 학교로 초청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버스 대절의 경우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 체험교육이 축소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본교는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공연팀을 학교로 초청하였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도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버블쇼 공연 관람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뮤지컬팀 초청 공연 관람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등곶길 음악회 관람

3

학교 밖 지역사회로 넓혀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평구부터 인천 지역, 수도권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학년별 문화·예술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체험비는 결대로자람학교, 인천시교육청의 예산을 100% 지원하였으며,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체험 공문도 활용하였다. 2023학년도의 활동을 바탕으로 2024학년도에도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미술 전시 관람



OST 콘서트 관람



스위스 민속 악기 배우기



인천예술회관 뮤지컬 관람



부평구 영화관 문화 체험



대학로 뮤지컬 관람

4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사 연구활동

문화·예술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소양이나 경험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실 속 수업에서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 신장 방안 연구를 위한 S.U.B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였고, 학교에 조성된 갤러리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S.U.B 전문적학습공동체
미술관 체험



S.U.B 전문적학습공동체
문화 체험



갤러리 활용을 위한 문화예술체험
연수

5

더 발전된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학교에서 시작하여 마을로 확대해 나가는 문화·예술교육을 전개한 본교는 더 발전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 전학년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 체계적 지도를 위한 전문지식의 한계 등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한 발씩 나아간다면 더 발전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에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가정, 마을과 함께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3주체인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는 날을 꿈꿔본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중간 놀이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동암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0학급(351명)
소 재 지	부평구 십정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교육공동체로부터 시작된 놀이 시간 확보 프로젝트! - 모두가 함께하는 중간놀이 시간- 놀이 시간을 통한 학생들의 재발견!		

1

교육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놀이 시간 확보 프로젝트!

● 동암 꿈자람 놀이터의 완공

본교는 2022년 말, 국민은행·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동암 꿈자람 놀이터’를 완공했다. 설치 위치, 놀이기구, 놀이터의 색깔 및 컨셉 등 계획·제작·감리의 모든 과정을 교육공동체로 구성된 ‘학교놀이 환경지원단’과 함께하며 하나의 뜻으로 이루어 낸 뜻깊은 놀이터였다. 완공과 동시에 꿈자람 놀이터는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되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꿈자람 놀이터 제작 과정



완공된 동암 꿈자람 놀이터

● 교육공동체로부터 놀이 시간이 확보되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직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을 할애 하여 놀이터 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놀이시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문 결과

놀이시간 확보에 대해 학부모 87.7%, 학생 86.5% 등 많은 분들의 찬성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에는 ‘중간놀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10:20~10:50(30분간) 놀이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4. (놀이 시간 확보) 2022년에는 학생들의 안전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4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학생들의 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 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15기



24. (놀이 시간 확보) 2022년에는 학생들의 안전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4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학생들의 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 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기



24. (놀이 시간 확보) 2022년에는 학생들의 안전 및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40분의 놀이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학생들의 시간이나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놀이 활동 시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9기



▶ 놀이 시간 확보에 대해 교직원 76.9%, 학부모 87.8%, 학생 86.5%로 모두 찬성도가 높음.

● 중간놀이 시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중간놀이 시간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었다.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급 교실 놀이부터 시작하여 꿈자람 놀이터를 활용한 놀이, 도서관에서의 책놀이, 교내 둘레길을 활용한 걷기 놀이,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한 카페 운영 등 학교 곳곳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학교의 중간놀이 시간을 운영하였다.

[인천동암초등학교 중간놀이 시간표]

장소	실내					실외			
	교실	강당	지능형 과학실	도서관	돌봄 교실	동암 행복 배움 둘레길	꿈자람 놀이터	실외 놀이터 (모래사장)	놀이 마당 골목 운동장
내용	자유놀이	방송댄스	전래놀이	동암카페 음악감상 보드게임	책 읽고 한 문장 쓰기	공예 만들기	함께 걷기	자유 놀이	세계 놀이
대상	전교생	전교생	2~5학년	4~6학년	전교생	3학년	전교생	전교생	3~6학년
일정	매일	주 2회	주 1회	주 3회	매일	주 1회	매일	1일 1학급	매일

2

자발적으로 도전하는 코인 획득 미션 중간놀이(10:20~10:50)

●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중간놀이

중간놀이 시간 운영에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중간놀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곳곳에서 안전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물론 교직원(스포츠 강사, 운동부 코치, 교육복지사, 교육감소속근로자 등), 학부모 모두 학생들의 안전과 뜻깊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모두가 발 벗고 나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1학기 중간놀이 시간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었고,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동암행복배움둘레길 걷기(1km)



동암카페 음악 감상
및 필사 프로그램



도서관 한 책 읽고
한 문장 쓰기

● 스스로 맘대로 참여하는 중간놀이와 잔반 없는 급식시간

우리는 본교에서 운영 중인 동암 코인 제도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간놀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교내 둘레길 3바퀴(1km) 걷기, 도서관에서 글귀 필사하기 등의 다양한 미션을 정했고, 학생들이 미션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면 동암 코인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얻은 동암코인 개수]

프로그램 미션	내용	코인
[동행길] 동암행복둘레길 3바퀴 걷기(약 1km)	- 기간: 4. 6. ~ 11. 17.(진행 중) - 대상: 전교생 자발적 참여 - 그린 획득 코인: 4,794개(명) - 학생들이 걸은 총 거리: 4,794km	
[도서관] 한 책 읽고 한 문장 쓰기	- 기간: 5. 15. ~ 11. 17.(진행 중) - 대상: 전교생 자발적 참여 - 옐로우 획득 코인: 814개(명) - 학생들이 쓴 문장 개수: 814문장	
[급식실] 잔반 없이 급식 다 먹기	- 기간: 4. 6. ~ 11. 17.(진행 중) - 대상: 전교생 자발적 참여 - 블루 획득 코인: 10,012개(명)	

● 2학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까?

1학기 중간놀이 시간이 무사히 종료되고 우리는 2학기 중간놀이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다시 설문했다. 그 결과, 공예·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강당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두 달간의 여름방학 내내 이에 대해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좋은 이야기가 들렸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뜻깊은 프로그램에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는 소식이었다. 곧이어 교직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협의를 실시하였고, <동암 꿈자람 학부모 봉사단>을 조직하여 공예·만들기와 전래놀이·키즈 요가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운영해 주시기로 결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에도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중간 놀이 시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동암 꿈자람 학부모 봉사단>
만들기 프로그램



<동암 꿈자람 학생·학부모 봉사단>
키즈 요가 프로그램

● 중간놀이 시간에서 시작된 진로 오디션!

중간놀이 시간 운영 프로그램 중,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방송댄스였다. 유행하는 음악이나 간단한 안무를 강당에서 함께 춤을 추는 방송댄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큰 활기를 불어 넣어줬고, 또한 우리도 학생들의 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결국 본교에서 가장 큰 연간 행사 중 하나인, <동암 꿈자람 놀이 체험 한마당>으로 확장되었다. 축제 운영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 방송댄스에서 배운 끼를 펼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중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방과 후 <진로 오디션>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진로 오디션>은 춤,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5팀(25명)이 참가했고, 참관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도 오셔서 한 마음으로 응원했다. 그 결과 어느 한 팀 아쉬워하는 마음 없이 순수한 의미로 열정을 발산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박수칠 수 있었다.



<동암 꿈자람 놀이체험 한마당> 중 진로 오디션 프로그램

3

중간놀이 시간을 통한 학생들의 재발견!

지난 1년간 본교는 꿈자람 놀이터의 완공부터 시작해 중간놀이 시간을 거쳐 진로 오디션까지,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밟아왔다. 또한 학생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교직원들과 학부모님들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끼를 펼치는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학습·정서·사회성 측면의 다양한 교육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기 어려워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던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찾아가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을 때 비로소 학생들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표정에 모두가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도 작지만 강한 인천동암초등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학교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서로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 프로젝트 또한 현재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으로 꿈을 디자인하는 교육과정

학 교 명	인천부평북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9학급(351명)
소 재 지	부평구 계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꿈 디자인 프로젝트 - 읽·걸·쓰 독서 프로그램 운영(수준별 독서활동, 온작품 읽기 아트북 레시피)		

1

결대로자람학교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놀면서 배우는 감수성 교육’을 슬로건으로 결대로자람학교 첫 해를 시작하여 지난해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한 학생 자치 운영에 온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은 짧은 기간 동안 학교 문화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나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다. 결대로자람학교 워크숍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화를 꽃 피우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아이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많아,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경험하고 실행한 경험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를 확장하여 읽기, 걷기, 쓰기가 어우러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학교 구성원 전체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책 속에서 꿈을 가꾸고 지혜를 얻는 활동을 실현하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렸다. 지금부터 행복을 찾아 나선 부평북 학생들의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소개 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과 함께 하는 꿈 디자인 프로젝트

모든 학생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후 활동을 기획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다. 꿈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학년별 발달 단계 및 교육과정과 결합된 효과적인 진로독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하였다.

2-1

1,2학년 등장 인물이 되어 봅시다! 아기돼지 삼형제 수박 수영장

-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감정을 담아 글을 읽는 기회를 가짐.
- 책 속 등장 인물의 상황과 행동을 살피고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함.
- 책과 관련된 다양한 독후 활동(수박 모자 만들기, 모둠별 생각 나누기 활동)을 실시함.



도서 관련 인형극 관람



모둠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수박모자 제작)



독후활동(수박모자 제작)

2-2

3,4학년 나의 생각을 꿈 속에 담아요 아씨방 일곱동무 사라 버스를 타다

- 중학년 교과 학습 주제와 학생의 흥미를 담고 있는 도서를 엄선했.
- 글의 구성요소 및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진로교육, 환경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독후 활동(주사위 이야기 만들기, 삼각책 만들기, 희망 등불 만들기 등)을 실시함.

- 글의 시대적 배경(조선 시대의 여성의 생활, 미국 노예제도에 대한 항거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 희망 등불 만들기 / 삼각책 만들기 활동▶



2-3

5,6학년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독서단원(KDC 젠가놀이 등) 우주호텔

- 고학년 교과 학습 주제와 학생의 흥미를 담고 있는 도서를 엄선했.
- 작품 속 인물의 삶을 살펴본 후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나의 삶을 연결해 보기
- 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 표현하기(놀이 사냥 수업)
- 책과 관련된 다양한 독후 활동(꿈 팝업 카드 만들기, 비전보드 만들기)을 실시함.



3

읽·견·쓰 독서 프로그램 운영 ①_수준별 독서 활동

작가가 책을 집필한 배경과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갈등, 고난, 성공, 행복 등의 사유를 체험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면의 글이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고 책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와 책이 주고자 하는 깊은 생각과 감정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3-1

너는 기적이야(1인 테이블극 활동)

저학년

- 저학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독서 활동 종류와 도서 목록을 선택
- 사전 활동으로 작품을 읽는 활동 실행
- 1인 테이블극을 준비하여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건 마련
- 작품 관련 이야기 나누기, 생각 나누기, 출연 인형과 사진찍기 등의 사후 활동 실천

테이블극 전문가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 ▶



3-2

내 마음 속 꽃 이야기 (한태희 작가와의 만남)

3학년

단계	내용
독서 전	· 표지와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측
독서 중	· 그림을 살피며 친구와 함께 읽기
	· '작가님 궁금해요' 질문 보드 작성
	· 작가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기
독서 후	· 『열두 달 꽃가방 만들기』 활동

한태희 작가님과 꽃 가방 만들기 ▶



3-3

난 남달라 (김준영 작가와의 만남)

4학년

단계	내용
독서 전	· 표지와 제목을 보고 내용을 추측
독서 중	· 내가 잘하고 행복한 활동 생각하기
	· '작가님 궁금해요' 질문 보드 작성
	· 작가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기
독서 후	· 『나도 멋진 작가가 될거야!』 활동

김준영 작가님과 나의 꿈 이야기 나누기 ▶



3-4

송내관의 재미있는 궁궐 탐방 (송용진 작가와의 만남)

5학년

- 고학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함.
- 5학년 국어, 사회 교육과정의 통합 재구성
- 한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와 내용을 엄선하여 독서 활동을 구성함.
- 관련 작가님을 초빙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궁금증을 해소함.

송용진 작가님과 역사 이야기 나누기 ▶



3-5

노래와 책이 함께하는 북콘서트 (제갈인철 북뮤지션과의 만남)

6학년

	내용
책노래 1	〈내 짝궁 최영대〉 채인선 동화
책노래 2	〈엄마의 등 학교〉 고정욱 동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최고의 동화작가가 된 고정욱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음.
낭독	〈알사탕〉 소리 없는 것들과의 아름다운 소통
함께노래	함께 즐거운 노래
책노래 3	〈유튜브 스타 금은동〉 임지형 동화 꿈을 찾은 은동이의 우당탕탕 유튜브 도전기.

제갈인철 북뮤지션, 가수 신윤아와 함께한 북콘서트 ▶



	내용
책노래 4	〈비비를 돌려줘〉 권오준 생태동화 욕심 많은 암탉이 사는 닭장에 떨어진 비둘기 알. 비둘기 부부가 아기 비비를 되찾는 이야기
책노래 5	랩으로 읽는 책 〈아름다운 가치 사전2〉 채인선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좋은 가치들을 사전 형식으로 엮은 책.

나만의 〈아름다운 가치 사전〉 만들기 ▶



4

읽·견·쓰 독서 프로그램 운영 ②_온작품 읽기 아트북 레시피

책을 읽고 사유하는 과정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와 연결 짓는 경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체인지 메이킹의 기초를 다졌다.

4-1

아트북 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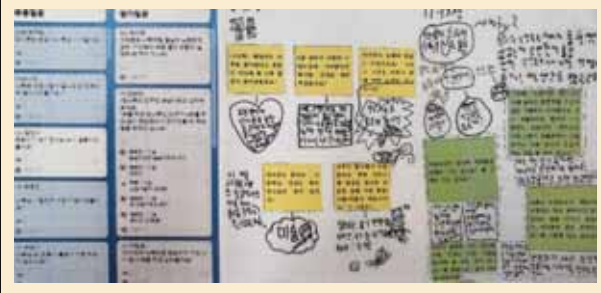
- 맞춤형 독서 후 온작품 읽기 질문 수업 전개
- 독후 활동으로 개인별 아트북 만들기
-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는 질문 수업 전개



4-2

아트북 갤러리 워크

- 1년 동안 온작품 읽기 교육과정 전개
- 아트북 갤러리 워크 전시회 실시
- 감상평을 적고 감상하는 기회 갖기



4-3

가정과 연계한 아트북 레시피

- 1년 동안 온작품 읽기 교육과정 전개
- 아트북 갤러리 워크 전시회 실시
- 감상평을 적고 감상하는 기회 갖기



4-4

도서관 갤러리 워크

- 1년 동안 온작품 읽기 교육과정 전개
- 아트북 갤러리 워크 전시회 실시
- 감상평을 적고 감상하는 기회 갖기



5

읽·걸·쓰 독서 프로그램 운영 ③ _학교도서관 기반 독서활동

매년 똑같이 실행했던 재미없는 활동은 그만 멈추고 모든 학생이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인기 도서 투표’ 등을 기획하는 등 우리의 일상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독서활동을 실천하였다.

5-1 내가 만든 독서 명언	5-2 책 제목 맞추기	5-3 책 표지 컬러링
독서가 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며 나만의 독서 명언 만들어 발표하기	도서관 앞에 전시된 행사 관련 책들의 힌트를 보고 제목 적어보기	나만의 컬러링 책갈피를 만들어 본다. (책갈피 300장 구비)
		
5-4 2023년 최고의 책 낭독	5-5 최고 인기 도서 투표	5-6 학생 연체 해방 운동
일년 동안 읽었던 책의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구절 혹은 나의 감상평을 친구(가족)에게 소개(낭독)하기	2023년 한 해 동안 인기 있었던 도서를 투표하고 결과를 공유하며 만나보지 못했던 책을 접하는 기회 갖기	도서관 행사 기간 동안 연체된 도서를 반납하여 연체를 풀고 빌리고 싶었던 도서를 대출하는 기회 잡기
		

6

책과 함께 꿈을 디자인하는 부평북초 어린이



2023년 행복학교 활동을 통해 전 교직원과 학생은 더불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교사가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따르던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깊고 다채로웠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과 마음을 키우며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 궁금하다. 행복 학교 4년차를 이어오며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쉬운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찾아가며 오롯이 부평북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핵심 역량을 뛰어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학습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평북 어린이들이 멋지게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



빛깔 있는 교육,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학 교 명	인천일신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8학급(353명)
소 재 지	부평구 일신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빛깔 있는 문화예술교육 및 인문교양교육 -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		

1

저마다 다른 학생들이 결대로 빛나도록

●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을 찾다.

“선생님, 저 푸른 사자 와니니 2권도 사서 읽고 있어요!”

학년별 추천 도서가 무색해질 무렵의 고학년 학생들이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고, 연극을 하고 마침내 스스로 다음 권 책을 샀을 때 그때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문이 열린다. 각자 놀던 1학년 학생들이 놀 줄 아는 학생들이 되어 함께 깔깔대고, 악기를 접해보지 못한 3학년 학생들이 화음을 만들어 낼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빛깔 있는 교육, 함께하는 학교를 꿈꿀 수 있었다.

● 행복한 배움 속에서 결대로 자랐다.

학교혁신을 꿈꾸며 행복 배움 학교로 자리 잡아간 우리 학교는 학년마다 요구와 특성이 다를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결대로자람학교의 지향점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저마다 주체가 되어 선택하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 연수 및 협의회를 실시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회 및 학생 동아리 활동도 꾸려나가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학교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배움을 경험해 나가며 그들의 개별성과 주체성이 커지고 저마다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빛깔 있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으로

● 학년별 중점 놀이 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인문 교양교육 활동

우리 학교는 각 학년의 학생들이 나이에 맞는 놀이나 문화예술교육, 인문 교양교육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래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1, 2학년은 어울림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익히고, 3, 4학년은 악기 연주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5, 6학년은 함께 책을 읽고, 읽기 후 활동을 폭넓게 확장해가며 인문학적 감수성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학년 활동 내용		
어울림 놀이 동아리 활동	우리는 다독왕	나만의 팝업북 만들기
▷ 주 1회 나만의 딱지 만들어 딱지 치기, 달팽이 술래잡기, 미션 옷놀이 등 현대식으로 변용한 전래놀이 규칙을 익히고 참여함.	▷ 연중 주1회 도서관 방문, 매월 1회 독서달력 제출하여 꾸준히 기록한 학생 시상	▷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알아보고 헌책을 활용하여 나만의 팝업북을 제작함.



2학년 활동 내용		
어울림 놀이 동아리 활동	칼림바 연주	학년 스포츠데이
▷ 주 1회 술래잡기(모퉁이 술래잡기, 바나나 술래잡기, 알까기 술래잡기, 그물 술래잡기), 달팽이 놀이, 딱지놀이 등 여러 가지 놀이 활동하기	▷ 칼림바의 유래, 구조와 관리 및 조율을 배우고 칼림바의 특징과 테크닉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주법과 숫자악보를 통해 악보를 보고 곡을 연주하기	▷ 공을 이용한 신체활동, 고무줄 빠져나가기



3학년 활동 내용		
우쿨렐레 연주	우리만의 티셔츠	캐네이션 화분 만들기 및 편지쓰기
▷ 우쿨렐레: 운지법을 익히고 C, G7, F 코드까지 배워 간단한 곡을 연주하고 화음을 넣을 수 있음.	▷ 일신 체육축제 및 현장체험학습 등에 활용함.	▷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알아보고 헌책을 활용하여 나만의 팝업북으로 제작함.
		
4학년 활동 내용		
난타 연주	읽·견·쓰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표고버섯 따기 생태체험 (산지촌 경험하기)
▷ 난타의 기본타법과 강약 추임새 익혀 다양한 음악에 맞춰 친구들과 어울려 난타 연주하기	▷ <사료를 드립니다>를 읽고 질문 만들기, 토론하기, 역할극으로 꾸미기 등의 독서 전/중/후 활동	▷ 표고버섯의 특징과 생김새 관찰하고 자라는 환경 알기 ▷ 산지촌 사람들이 하는 일 이해하기
	 	
5,6학년 활동 내용		
코딩(엔트리) 교육 활동	온책읽기	디저트 문화를 익히고 케이크 만들기
▷ 실과책에서 나온 엔트리 사용 방법 외에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익힘.	▷ <복제인간 윤봉구>를 읽고, 전/중/후 활동 ▷ 연극 동아리 활동에서 책을 활용하여 창작연극을 만들어 공연	▷ 세계의 디저트인 케이크의 역사를 배우고 디자인을 하여 만들며 파티쉐 직업을 체험 ▷ 케이크 디자인을 직접 해보며 창의성 기르기
		

● 도서관 행사 운영

도서관에서는 실제 성우들이 진행하는 낭독극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책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낭독콘서트	작가와의 만남
▷ 동화책 ‘한밤 중 달빛 식당’을 바탕으로 한 소리극 낭독 콘서트	▷ 학생들이 진형민 동화 작가를 직접 만나는 경험
 	 

●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활동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과 학생자치회 공약 이행을 통해 스스로 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하도록 격려하였다. 또한, 학부모 연수를 통해 결대로자람학교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봤으며, 교사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도서부 나눔활동	학생자치회 공약 이행	학부모 연수	문화예술역량강화 교사 연수
▷ 도서부 학생들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청구기호 퀴즈 풀기, 압화 책갈피 만들기, 나눔 활동	▷ 학생회장 공약 사항 실천 - 화장실 디퓨저 설치	▷ 결대로자람 실제 사례 중심 학부모 연수	▷ 교사의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3

저마다 익히고 결대로 느끼며 함께 성장하는 길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김 구 선생의 ‘나의 소원’의 한 구절이다. 우리 학교가 결대로 자람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꿈꾸었던 학교는 이와 많이 닮아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활동을 익히고, 느끼며, 그것이 학생들 저마다의 삶에 스며들어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일신 교육공동체가 바라보는 학교의 모습이다. 아직 까지는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요구와 반응을 살피고 계획하는 비중이 크지만 나날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행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꿈꾸어 본다.



나다움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상정인

학 교 명	인천상정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6학급(331명)
소 재 지	부평구 십정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9.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학생 중심 자율교육과정 운영 - 온 책 읽기를 통한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 운영 - 배움공책을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 실천		

1 선생님, ‘결대로자람’이 뭐예요?

● 함께 생각하는 ‘결대로자람’의 의미

“선생님, 결대로자람이 뭐예요?”

‘결대로자람학교’라는 명칭을 보고 학생들이 의미를 물었다. 결은 성품의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결대로자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성품의 상태에 대한 존중과 성장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의 불안에서 막 벗어난 학교는 경직된 분위기 탓에 학습활동 전반적인 부분이 위축되어 있었다. ‘결대로자람’의 의미를 담아 교육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나다움’을 찾아가려는 시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었다.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고, 수업 시간에도 즐겁게 배우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이게 바로 ‘결대로자람’에서 지향하는 부분인 것 같다.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배움이 즐거워지는 학교이다.

● nada움을 찾기

우리 학교의 비전은 ‘나다움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이다.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성찰하고 nada움을 찾는 과정을 교육과정에 담았다. 그리고 상정 다모임을 통해 타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다.

상정 다모임에서는 학년군별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를 정했다. 1~2학년은 생태전환교육, 3~4

학년은 마을연계교육, 5~6학년은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이다. 그리고 이 주제를 교육과정, 온 책 읽기 활동, 체험학습과 통합하여 학년별로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은 학생들이 나다움을 찾을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이 주제는 1학년부터 6학년 까지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시각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도록 구성되었다.

2 나다움을 찾는 여정 속의 우리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학생 중심 자율 교육과정 운영

우리 학교에서는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학년 군별 프로젝트 학습 주제를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학년 군별로 활발하게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며 자발적 동료성을 강화하고 협력적 연구의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였다. 내실 있는 학생 중심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년 교육과정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 별 주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면서 나다움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과를 편성할 때, 미래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고,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공동수업안을 작성하여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구현하였다.

- 1~2학년군: 생태전환교육

- 1학년: (1학기)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생태 시민 육성
(2학기) <지구 사용 수칙> 만들기
- 2학년: (1학기) 자연에서 어울림을 배워요
(2학기) 주렁주렁 가을 탐험



1학년 생태전환교육-1



1학년 생태전환교육-2



2학년 생태전환교육-1



2학년 생태전환교육-2

- 3~4학년군: 마을연계교육

- 3학년: (1학기) 부평의 홍보대사 『부평자랑이』
(2학기) 우리 마을 홍보대사 『우리 마을 사람들』
- 4학년: (1학기) 나는야, 미래 인천 지킴이
(2학기) 지구별 수호자 인천의 아이들



3학년 마을연계교육-1



3학년 마을연계교육-2



4학년 마을연계교육-1



4학년 마을연계교육-2

- 5~6학년군: 세계시민교육

- 5학년: (1학기) 나의 고정관념과 한계를 인정하는 인권 감수성 키우기
(2학기) 「기후를 바꾸는 우리 교실」 CCC(Climate Change Class)
- 6학년: (1학기) 세계 속의 K문화-KPOP
(2학기) 세계 속의 K문화-영화(드라마)



5학년 세계시민교육-1



5학년 세계시민교육-2



6학년 세계시민교육-1



6학년 세계시민교육-2

● 온 책 읽기를 통한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 운영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한 온 책 읽기 활동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 1~2학년군: 생태전환교육

	1학년 온 책 읽기	2학년 온 책 읽기
1학기	뭐든지 나라의 가나다	너는 어떤 씨앗이니?
2학기	나무 하나에	가을을 파는 마법사

- 3~4학년군: 마을연계교육

	3학년 온 책 읽기	4학년 온 책 읽기
1학기	만복이네 떡집	알려줘, 인천 위인
2학기	검보만보	고래를 삼킨 바다 쓰레기

- 5~6학년군: 세계시민교육

	5학년 온 책 읽기	6학년 온 책 읽기
1학기	나를 지키는 열두 가지 말	10대들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2학기	열두 달 지구하자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



온 책 읽기- 생태전환교육



온 책 읽기- 마을연계교육



온 책 읽기- 세계시민교육

배움공책을 활용한 배움 중심 수업 실천

- 코넬식 노트 정리법 도입

- 핵심 단어를 정리, 요약하며 복습에 유리한 구조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함.
- 스스로 생각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력, 응용력이 향상될 수 있음.
- 노트 정리를 하면 학습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할 때 이해하기 쉬움.

- 차곡차곡 쌓여가는 배움 중심 수업

- 목표 세우기는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다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임.
-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활동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배움을 시각화함.
-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삶을 내실 있게 가꾸고 성장하는 힘 키우기.



배움공책 안내



배움공책-수학



배움공책-사회



골트래커

3

함께 성장하는 상정인

학생에게 있어 성장은 신체적으로 자라나는 의미와 더불어 미숙한 존재에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변화를 말한다. 이것은 나다움을 찾으며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는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더불어 살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인 변화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체성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구성성을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다움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상정인’이라는 학교 비전은 ‘결대로자람학교’가 지향하는 목표점과 일치한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주변의 자연과 긍정적 관계를 맺는 ‘생태전환교육’, 나와 타자의 관계를 생각하고 주변의 공간과 소통하는 ‘마을연계 교육’, 그리고 관계를 더 확장하여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적인 시민의 자질을 키우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나다움’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배우며 알찬 2023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나다움을 찾고 함께 성장하는’ 상정 교육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결’은 별보다 더 반짝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대로 꿈이 자라는 행복 배움터

학 교 명	인천마곡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114명)
소 재 지	부평구 산곡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자연과 놀이, 나눔과 배려, 배움과 지혜, 꿈과 자람이 있는 학교 -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1 자연과 놀이, 나눔과 배려, 배움과 지혜, 꿈과 자람이 있는 학교

● 새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

새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의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교육을 추구합니다. 학생에게 다양한 에듀테크 환경 및 교육을 연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새 시대에 맞춘 인재상으로 학생을 키워냅니다.



태블릿을 활용한 마을 아카이빙
시스템 제작



고개! 프로그램(에듀테크)



구글 오토 드로우
프로그램(에듀테크)

● 예술 체육 씨앗 심기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

학생이 학교 활동 속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곡초는 다양한 예술, 체육 등의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합니다. 예술적 감수성과 튼튼한 신체를 통하여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년군 별 악기 활동 (1,3,4학년 우쿨렐레 / 2학년 칼림바 / 5,6학년 기타 /)



등굣길 음악회(문화예술사업)



뉴스포츠 활동



국악 교육

● 몸과 마음을 기르는 자연 생태교육

마을단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마을 주변의 다양한 환경을 이용한 생태탐방교육, 마을 교육 과정을 연계한 텃밭교육, 원예 활동등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 회복을 통한 인성교육을 진행합니다.



마을교육과정 연계 생태원예교육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연계
원적산현장학습



마을 교육 환경을 활용한 책놀이
활동

●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 자치회

선배가 읽어주는 동화책 활동, 마곡 어린이자치회, 빛가람 봉사단 등 다양한 학생 자치회 활동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길을 찾고 꿈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방안을 모색합니다.



선배가 읽어주는 동화책 활동



전학년 학생이 함께하는 마곡 어린이자치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식단
(학생 급식 설문)



선배와 함께하는 책날개 입학식



가정의 달 맞이 떡나눔 행사



빛가람 봉사단 캠페인 활동

2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마마, 책마마 활동

마곡초등학교만의 특색인 학부모회(놀이마마, 책마마 등)의 협력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학부모회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날 놀이마마 활동



마곡초 놀이축제
(북부 교육지원청 뉴스 참고)



책마마 독서 프로그램 활동



놀이마마 책마마 학부모 연수

3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한 인천마곡초등학교의 변화



인천 부평구 내 소규모 학교라는 특수한 성격을 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학생마다의 흥미, 관심사, 능력 함양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 학습, 체육 활동, 예술 교육, 에듀테크, 놀이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학생 스스로의 결과 자라남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활발한 학부모회 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발전적 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미래 핵심역량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 교 명	인천금마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301명)
소 재 지	부평구 구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다양한 체험 중심과 마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참된 배움이 있는 의미 있는 교수-학습 과정 운영		

1 다양한 체험으로 참된 배움을

●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건강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교사가 “자세히, 깊이 보아라”라고 말해도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보지 말아라.”고 해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저절로 보게 된다. 문제는 ‘애정’이라고 한다. 애정이란 것은 결코 획일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배움의 대상에게 애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애정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진정한 나눔을 행하면서 함께 배워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본교는 마을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의미 있는 교수학습을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 다양한 마을 연계 체험학습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지닌 학생을 기른다.

본교는 주거지 이동이 잦고 근무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군부대 자녀들과 영유아기 학대 및 방치로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이는 학생이 있는 보육원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늘 고심하고 노력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학년에 맞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다.

● 학교 교과서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

학교 교과서만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인재의 교육은 불가능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성숙한 뇌를 가진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창의성과 공간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년 단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가 필요하다.

2

참된 배움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 다양한 체험 중심과 마을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년	체험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1	◎ 친구들과 즐겁게 봄놀이하기(통합) - 비눗방울 놀이하기 ◎ 어버이날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표현하기(국어, 통합):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기 ◎ 100일 잔치(국어, 통합, 창체) - 변화된 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함께 축하하며 친구들과 함께 교실놀이 ◎ 베 짜기 방법 알아보기(통합) - 양말목을 활용한 재활용 공예작품 만들기	1. 그림책 활용한 수업 사례 나누기 2. 그림책을 활용한 학년 공동 수업안 작성하기 3. 함께 읽고 말하는 그림책 하브루타 활동하기
2	◎ 개운죽 키우기(과학, 창체) ◎ 케익 만들기 체험(통합)	
3	◎ 과학관 동물원 견학(과학, 창체) ◎ 도예 활동(사회, 미술)	◎ 온책읽기 마음자람교육 일환으로 학생용 책과 교사용 책을 구입하여 독서 단원 교육에 활용 및 매월 협의
4	◎ 연극 강사 수업(국어, 음악) ◎ 수제 과일청 만들기(창체) ◎ 인성교육 수업(사회, 음악)	
5	◎ 더 좋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레고 활용 수업(미술, 창체) ◎ 부모님 사랑해요! - 카네이션 바구니 만들어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전하기(국어, 창체) ◎ 여름맞이 물총놀이 시원한 여름 나기(체육)	◎ 학년 영역 중심 주제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적용 방법 협의 1. 랜드마크이야기, 학교 일상생활을 주제로 나만의 레고 작품 만들기 2.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스마트미래 학교를 상상을 더해 꿈의도시로 만들기
6	◎ 환경교육: 곤충 체험과 환경 ◎ 행복한 교실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 함께 하는 우리들 대광이 뽑기 행사(국어, 사회) ◎ 소프트웨어 및 에이아이 프로그램 체험(과학)	



1학년:
비눗방울 놀이 체험



2학년:
개운죽 키우기



3학년:
동물원 견학



4학년:
연극 놀이 수업



마을 연계:
과일 수제청 만들기 체험



5학년:
레고 만들기 활동



6학년:
환경 이야기 곤충체험



고학년:
소프트웨어 체험

● 참된 배움이 있는 의미 있는 교수-학습 과정 운영

학생에 대한 다양한 이해로 학년에 맞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해 본교 교사들은 학년 군 저-중-고학년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 저학년은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함께 읽고 말하는 하브루타 활동을 했다. 중학년은 마음 자람 교육의 일환으로 온책읽기 독서활동 후 하나의 주제로 글도 쓰고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학년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 레고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체험으로 창의성과 공간 감각을 키우고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저학년 수업



온책읽기로 마음자람 중학년 수업



주제 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고학년 수업

●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작성

교육과정 재구성 시 교과 분석, 학년별 발달단계, 학교 및 지역사회 여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의미한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중심

학습을 위해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가 항상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단계별 지속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고민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 져야 한다.

3 마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한다. 더 좋은 사람은 성숙한 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공간 감각을 높인 정신적 어른을 키워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한다. 마을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 수업을 위한 고민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다모임 문화를 통한 소통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생리학자 엄웅의 교수 〈함께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법〉 중에서 인용



신나는 배움이 함께 하는 약산 교육

학 교 명	인천약산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37학급(620명)
소 재 지	남동구 간석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교의 교육 비전을 구현하는 교육과정 디자인을 위한 워크숍 운영
- 학년별 다양한 주제별 교육과정 운영

1

‘신나는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약산’ 교육을 되돌아보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약산 교육공동체는 매년 협력적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지난 교육과정 활동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교육 비전을 선정하였다. 완성된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도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였다. 2020년 9월 1일 결대로자람학교에 지정된 후 교육공동체가 선정한 첫 번째 새 교육 비전은 2021학년도 ‘신나는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약산’이었으며,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구현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새 학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출발점은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에 관한 솔직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시발로 삼았다. 진솔한 평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모여 학기별 연 2회의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각 교육 주체 의견이 담긴 토론과 평가 결과는 교육공동체 전체에 공유하고, 나아가 새 학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회의의 다양한 모습

2

‘신나는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약산’ 교육을 함께 만든다.

● 신학년 준비 워크숍 및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



신학년 준비 워크숍 활동 모습

2023학년도 시작 전 [신학년 준비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의 목적은 오롯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워크숍은 3일간 진행되며, 학년별 교육목표와 중점 교육 활동을 선정하고 주제별 교육 활동 선정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

먼저 교직원 전체 워크숍에서 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한 공통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 각 학년의 후속 워크숍이 이루어진다. 학년별 워크숍에서는 새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 재구성 학년별 워크숍은 새 학기 시작 전과 1학기 말에 연 2회 별도 운영한다.

워크숍을 통해 학년 교육과정에 관한 이해력과 친밀감을 높이고, 함께 고민하여 완성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 학년별 다양한 주제별 교육과정 운영



〈1학년 꼬마작가 책 출판회 외〉

1학년은 학생 스스로 꼬마 작가가 되어

자신이 직접 한글책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프로젝트를 구안하여 실천하였다.

학년 초에 바른 글씨 쓰기도 어려웠던 학생이 어느덧 자기 생각을 글자로 또박또박 채우며 한글책을 완성하여 능동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담은 책 출판회를 개최하였다.



〈2학년 초록마을 가꾸기 외〉

2학년 학생들은 초록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친환경 텀블러 가방 꾸미기 활동,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자연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패브릭 텀블러 가방 꾸미기 등의 활동으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3학년 마을생태환경가 외〉

3학년은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마을을 둘러보며 내 주변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마을생태환경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기, 마을생태환경가 책자 만들기, 멸종동물 보호 티셔츠 제작하기, 소피백 업사이클링 공책 만들기, 만월산 줄기에 참여하기 등 생명 존중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배움을 경험하였다.



〈4학년 텃밭생태교육 외〉

4학년 학생들은 텃밭생태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토마토, 가지, 고추, 오이, 상추를 함께 심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수확물을 얻어 고기 파티를 개최하고, 무, 배추, 쪽파를 심어 깍두기를 만들어 보며 지속가능한 실천 활동에 참여하였다.



〈5학년 북극곰 살리기 외〉

5학년에서는 나를 사랑하고 공동체와 사회에서의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북극곰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체인지메이커로서 지역과 사회의 과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공동 책임 의식을 느끼고 동아시아 구성원으로서 같이 해야 할 일을 찾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후생태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6학년 생태환경을 지켜요 외〉

6학년은 학교와 가정에서 생태환경 살리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3월부터 진행된 활동은 학생들에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자원의 재사용을 실천하도록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폐현수막을 에코백과 주머니로 만들어 보고 공기정화식물을 키워 보았으며 가정에서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배출하는 분리수거를 직접 실천하였다.

3

결대로 자라는 약산 교육



약산 교육은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 비전을 중심으로 학년별 특색을 발현하는 결대로 자라는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기후생태환경교육)은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학년별 색깔에 어울리게 운영한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각자의 품에 맞는 결대로 자라는 약산 교육을 꿈꾸며 지속하고자 한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깊이 있는 배움

학 교 명	인천장수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1학급(155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한 학생 중심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 - 삶과 연계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1

들어가며

● 교육과정에 진심인 선생님들과 결대로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장수 아이들의 결은 무엇일까? 우리 장수 교육공동체가 추구하는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아이들을 결대로 자라게 하려면 무엇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할까?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며 우리 장수 교육공동체는 많은 토론과 고민을 통해 ‘함께’라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며 ‘성장’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되 행복하고 ‘즐거움’ 시간과 공간으로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라는 비전을 함께 만들었다. 즐거우면서도 학생들이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삶과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였다.

● 삶의 터전이자 배움의 터전이 되는 마을

우리 장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해봐야 11 학급 밖에 되지 않는 도심 속의 아주 작은 학교이다. 때론 수업 시간에 학교 길 건너편 장수 농장에 사는 닭울음 소리에 놀라서 마치 시골 학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곤 한다. 아늑하고 정겨워서 좋지만 학교가 작아서 일손도 부족하고, 예산도 너무 없다. 부족한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마을로 확대하고 활용하기로 하였다. 마을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마을 속에서 제 몫을 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미래형 학교자율교육과정에 진심을 담다

● 깊이 있는 배움을 위해 영혼을 갈아 넣은 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이 재미있었니? 라고 묻자 학생들은 저마다 좋았던 프로젝트를 각자 이야기 한다.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며 의미있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결대로, 곁에 딱 맞는 배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땀 한땀 엮어가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있어서 장수초는 만족도가 높고 웬만한 대안학교보다 더 훌륭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입소문이 나 누구나 오고 싶은 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 학년별 프로젝트 운영 주제 〉

학년	주제	유형	시수	방법 및 시기
1학년	우리들은 1학년	교과융합형	63	4~5월 집중 운영
	다다다 다른 별	교과연계형	20	8~9월 집중 운영
	한가위만 같아라	교과연계형	36	10~11월 집중 운영
2학년	친구와 어우러지다	교과연계형	24	3월 집중 운영
	가족과 어우러지다	교과연계형	24	5월 집중 운영
	마을과 어우러지다	교과연계형	55	8~9월 집중 운영
	세계와 어우러지다	교과연계형	51	11월 집중 운영
3학년	나, 너, 우리 이야기	교과융합형	73	3~4월 집중 운영
	다양성 존중 수업	교과융합형	48	10~12월 운영
4학년	안녕? 나는 인천이야!	교과융합형	35	4~5월 집중 운영
	우리들의 행복 스토리	교과연계형	60	8월~11월 운영
5학년	나를 알고 우리를 다지는 시간	교과융합형	45	3월 집중 운영
	가재 인권의 숲으로	교과융합형	35	4~6월 집중 운영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읽고 행복한 자전거 여행하기	교과융합형	67	4~6월 집중 운영
	역사 하기(Doing History)	교과연계형	87	9월 2주~11월 14주 운영
	언어의 힘	교과연계형	26	9월 5주 ~ 10월 10주 운영
6학년	우주나라(우리가 주인인 나라) 만들기	교과융합형	72	3~4월 집중 운영
	한반도 보안관이 되어	교과연계형	29	8~10월 집중운영



1학년 『우리들은 1학년』 프로젝트〈 100일 기념 〉



2학년 『가족과 어우러지다』 프로젝트



3학년 『나,너,우리이야기』 프로젝트 〈학급규칙 만들기〉



4학년 『안녕 나는 인천이야』 〈인천 탐방-소래습지〉



5학년 『가자 인권의 숲으로』 〈인권 담쟁이 〉



6학년 『우주나라』프로젝트 〈우리가 주인이되는 나라 〉

● 『생태전환교육』 운영으로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기후위기대응하는 마을시민 되기

장수초 주변에는 거머리산이라는 학생들이 오르기 만만한 산도 있고, 길 건너편에는 장수농장이 있고 조금만 걸으면 인천대공원이나 소래산, 장수천과 같은 잘 가꾸어진 생태환경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풍부한 생태환경을 활용한 자연과 친근하고 생태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장수 아이들의 결이 아닐까? 선생님들은 미래형 학교자율교육과정을 쑥덕쑥덕 공모(?)하여 부족한 예산을 끌어오고 만수동과 장수동의 생태환경을 활용하여, 전학년 공통주제로 생태전환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장수 아이들의 결대로 자람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학교자율교육과정 공통주제 운영 내용〉

학교비전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공통주제	우리는 푸른별 지키미!					
학년별 주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들은 환경지킴이	자연과 어우러지다	생명은 소중해	내 친구 자연이	환경 문제에 예술 공예가 답하다	GREEN LIGHT를 밝혀라!
시수 및 운영시기	연중 매주 1시간	연중 매주 1시간	연중 매주 1시간	연중 매주 1시간	연중 매주 1시간	연중 매주 1시간
내용	- 재배 활동 - 학교 숲 체험 - 자연 미술관 전시 활동 - 캠페인 활동	- 텃밭 활동 - 숲 체험 - 장수천 플로깅 - 캠페인 활동	- 텃밭 활동 - 배추흰나비 한살이 관찰 - 장수천 플로깅 - 캠페인 활동	- 텃밭 활동 - 자연 체험 놀이 - 강화도 생태탐방 - 업사이클링 활동	- 텃밭 활동 - 숲 체험 - 짚풀공예 - 텃밭 신문 만들기 - 그래피티 니팅하기	- 재배 활동 - 친환경 농업 홍보물 만들기 - 김장, 깎두기담기 - 장수천 플로깅



(1학년) 생태환경 캠페인



(2학년) EM효공으로 장수천 살리기



(3학년) 장수농장 체험



(4학년) 감자 수확



(5학년) 장수농장 매실 수확



(6학년) 장수천 플로깅

● 매실청 나눔으로 마을과 함께하다.

장수 어린이들은 6월이 되면 학교 바로 옆 매실 농장에 간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고사리 손을 뻗어 매실도 따고 친구들과 매실청을 담근다. 학교 앞 장수농장의 매실 농장에서 학생들이 직접 매실을 따고 매실청을 담그며 나누는 활동이다. 매실밭 사장님께서서는 마을 농장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이 체험할 때 매실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매실 수확할 때 주의할 점 등 안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 수확한 매실은 아이들이 직접 씻고 말리고 꼭지를 떼낸다. 그리고 설탕을 켜켜이 쌓아 매실청 담그기를 한다. 6월 중순에 담근 매실은 교실에 두고 매실청이 잘 숙성되도록 골고루 굴려주며 100일을

기다린다. 10월 초록빛 매실청이 다 익을 즈음 학생대의원 학생들은 마을 어디에 기부를 할지 토의를 한다. 매실을 거르고 예쁘게 표지도 붙이고 포장을 하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정성을 담아 매실청 나눔을 한다. 매실청 나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어울려 성장하며 의미있는 마을 구성원이 되는 경험의 기회를 갖는다.



매실 수확



매실청 씻기



매실청 담그기



매실청 나눔 준비



매실청 마을 나눔(경로당)



매실청 마을 나눔(복지센터)



3

맺으며



전교생이 150명 남짓하고 한 학년에 학급이 한 반 또는 두 반인 도심의 아주 작은 학교.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이나 가정사까지 속속들이 잘 아는 장수.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 협의할 동료교사 없는 대신 아이들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가는 장수. 어찌보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 하나하나에 맞춰 배움을 설계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기가 막히게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배움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과 교육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따뜻한 시선과 열정이 있다면 따뜻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어울림으로 함께 가니 좋다!

문화예술교육으로 꽃피는 행복한 능허대

학 교 명	인천능허대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37학급(839명)
소 재 지	연수구 옥련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문화예술교육의 심장 전문적학습공동체 - 학생주도 문화예술활동 - 학부모 문화예술동아리 - 마을연계 문화예술교육		

1

교육 회복의 꿈! 문화예술교육에서 그 해답을 찾다!

● 침체된 학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고민

3년간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원인은 집단 모임의 제한이다.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목소리와 표정, 교사들이 함께 나누던 차 한 잔의 여유도 점차 사라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도 교사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었고 그만큼이나 마음의 거리는 점차 멀어져 학교는 점차 생동감을 잃어갔다. 침체된 학교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그 해답을 문화예술교육에서 찾았다.

● 문화예술교육의 바탕 다지기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교육적 가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사회성은 물론 타인과 교감하고, 사회규범을 배우며, 이를 향유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합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바탕을 다지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하였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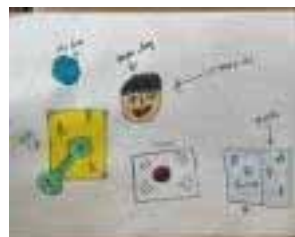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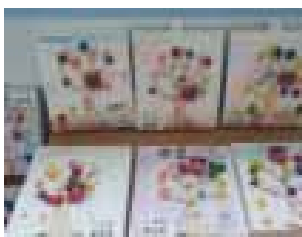
문화예술교육으로 행복을 꽃피우다!

● 문화예술교육의 심장, 전문적학습공동체

본교는 특색교육인 ‘결대로 성장하는 능허대 HAPPY·Dream교육’의 하나로 문화예술교육(ART)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문적학습공동체이다. 교사들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조직하여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업무 피로도도 낮추며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문화예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교사들은 각각의 학년의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문화 예술교육을 구현하였다. 그 예로 1~2학년은 다양한 미술 체험활동으로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3학년은 독서교육, 4학년은 놀이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접목하였으며 5학년은 세계시민교육, 6학년은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접목하여 운영하였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의 발현으로 자기 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기르고 국제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한 작품 전시

놀이 문화 체험활동

온라인 국제교류를 통한
문화교육

● 학생 주도 문화예술활동, 버스킹

코로나19 이후 교육활동의 회복은 학생회 활동에서부터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학생회 활동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소통과 소속감, 적극적인 참여에 많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모일 수 있는 시간은 학생들이 활기차게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고 그렇게 기획하게 된 것이 ‘매력뽕뽕 능허대 버스킹’이다.

‘버스킹’은 상상 그 이상으로 폭발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어냈다. 처음 기획 단계부터 학생들이 주관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리서치하였고 많은 참여자가 모두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1차 온라인 버스킹을 실시한 후 다시 보고 싶은 버스킹 팀을 각 학급의 투표에 의해 오프라인 버스킹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후 아침 등갯길에 선정된 팀의 버스킹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버스킹’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행사를 주관하여 기획한 학생, 직접 버스킹에 참여한 학생, 온라인 버스킹을 보며 투표에 참여했던 학생, 관람을 함께 즐긴 학생들 까지 소외되는 학생 없이 그야말로 모두가 참여한 행사였다. 또한 ‘버스킹’이후에 학생 주도형 자치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예전보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생활에 유익한 무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고 이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한 발짝 다가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학생회 다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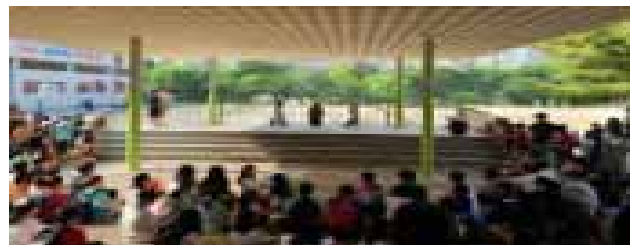
행사 홍보안내문 제작 및 홍보 활동



온라인 버스킹



오프라인 버스킹



아침 등갯길 버스킹 관람

● 학부모와의 행복한 동행, 학부모문화예술동아리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학교설명회를 통해서 만난 학부모들은 학부모 참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고 학부모 동아리 조직과 관련하여 의견을 모은 결과 ‘캘리그래피’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 일회성이 아닌 다회기로 기획하여 운영하였고 동아리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었다.

또한 학부모동아리 활동은 참여한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어져 자녀의 교육과 학교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만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기부할 수 있어 학부모의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캘리그래피’ 동아리 활동 이외에도 ‘피클 만들기’, ‘양말목 공예’, ‘비누 공예’등의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



양말목 공예



피클 만들기

● 마을, 문화예술교육의 깊이를 더하다!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연계 문화예술활동을 전개 하였다. 지역 예술가와의 협력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지역의 물적 자원을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고 문화 예술 공연팀을 초대한 초청 공연 등이 그 예이다.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적인 기능 지도가 필요한 악기 연주 수업이나 도자기 만들기 등을 진행할 때 보다 수월하게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 공연팀을 초청한 생동감 넘치는 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적 감각을 깨우고 느끼는 체험의 기회가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악수업



1인 3악기



등곶길 음악회



교육 연극



샌드아트

3

오늘도 행복한 능허대!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한 문화예술교육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 미술, 음악, 연극 등의 다양한 예술활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활동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국제교류활동,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높이고 세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토의 토론의 과정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넷째, 학부모 문화예술동아리를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이끌었으며 학부모들간의 소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 내에서 자녀와 함께 예술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은 삶과 삶의 연결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와 보다 수준 높은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배우고, 함께 감동하며, 함께 성장하는 ‘오늘도 행복한 능허대!’를 만들어 주었다.



삶과 얹이 어우러지는 축현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축현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6학급(334명)
소 재 지	연수구 옥련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자연·사람·배움·관계 프로젝트로 빛깔있는 교육과정 운영 - 삶의 힘을 키우는 마을연계 체험활동 운영		

1

교육과정에 어떤 빛깔을 입힐까?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을 학교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 Alvin Toffler -

10년 후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학생, 연예인이 되고 싶은 학생! 같은 교실에 앉아 있는 많은 아이들은 각각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양한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배우는 교육이 아닌 실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결대로자람학교의 첫 해를 맞이한 본교는 학생들의 삶과 얹이 연결되고 학생들의 삶을 미래 핵심 역량 중심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각 학년의 특색과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했다. 또한 학습의 장을 학교를 넘어 학생들의 실제 삶의 장소인 마을로까지 배움의 공간을 확장시켜 그 속에서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배움은 교과서와 학교와 학교 너머로 공간을 넓혀 학생, 교사,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내용과 환경 안에서 더 생생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축현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았다.

2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아이들 결대로 성장 프로젝트

● 자연·사람·배움·관계 프로젝트로 빛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학년별로 자연·사람·배움·관계 네 가지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했다. 청량산이라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연계교육,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학년	학기	프로젝트 주제	교과 (시수)	관련 단위		
1	1	• 놀면서 자라는 우리들은 1학년(15차시) • 특명! 지구의 온도를 낮춰라(10차시)	국어(8)	(국어 8)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2	• 감정의 보물을 찾는 그림책 공방(10차시) • 핸드벨로 연주하는 무지개 세상(18차시)	창체(2)	(창체 2) 책을 읽으며 마음의 감정 보물 찾기		
			단계	교과	차시	수업 활동
2	1	• 우리는 소중한 친구!(22차시) • 자연은 소중한 친구!(22차시)	프로 젝트 시작 하기	국어	1	• ‘책놀이’ 프로젝트 주제 탐색 및 계획하기 - 책을 읽은 경험을 말하기 -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활동 계획 세우기
	2	• 우리 동네를 슈퍼스타(20차시) • 출발! 세계 여행(20차시)				
3	1	• 마을에서 배우는 우리 문화(14차시) • 꿈과 우정이 자라는 교실(17차시)	탐구· 과제 해결 하기	국어	2	• 이따리파 나무나무 책 읽기 - 책의 내용 파악하기 - 글을 읽고 재미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 오해, 편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감정 헤아리기 - 책표지 그리기
	2	• 지구야, 지켜줄게(12차시) • 생태, 생활문화 체험(13차시)				
4	1	• 인천 앞, 인천 삶!(10차시) • 휴(休)·숨 쉬는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프로젝트(15차시)			3	• 이따리파 나무나무 책에 표현된 감정 읽기 - 내가 경험한 오해·편견의 장면 떠올려 책 꾸미기 - 이따리파 나무나무에 등장하는 캐릭터 만들기
	2	• 우리가 그린(Green) 미래, 초록 지구별(12차시) • 달라서 재미! 함께해서 행복!(12차시)				
5	1	• 서로서로 배려하고 탐구하며 만드는 우리 반 법(11차시) • 나도 학교 숲 해설가(13차시)			3	• 그림책 관련 공예품 만들기 - 그림책에 등장하는 캐릭터 공예품 만들기 - 캐릭터 인형으로 이야기 꾸미기
	2	• 우리는 생태환경 지킴이(18차시) • 나의 추억을 기리며(12차시)				
6	1	• 멋진 나! 더 멋진 우리!(21차시) • 지구를 구해줘!(12차시)	성과물 발표회	창체	1	• 편견과 오해가 없는 마을 꾸미기 - 내가 만든 책표지 발표 - ‘내가 만든 캐릭터’ 공예품 발표 -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묶어 학급 알림 앱에 게시
	2	• 네 꿈을 펼쳐라!(42차시) • 우리는 다(함께) 친구!(12차시)				

● 활동 모습



1학년
백일잔치



2학년
책놀이하기



3학년
현수막 재활용가방 만들기



4학년
청량산 숲속 빙고놀이



5학년
친환경화분 꾸미기



6학년
그림책으로 정체성 알기



생태생활문화 체험
상추 가꾸기



커피 케익으로
화분 꾸미기

● 삶의 힘을 키우는 마을연계 체험활동 운영

배움은 즐거워야 하고 생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습의 자율성과 학생들이 살아 가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실제 삶과 배움이 연결되도록 교육내용 과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학교) 주변의 마을 곳곳 을 직접 탐방해보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지역 마을 공간, 단체, 전문가들 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했다.

주제	활동 구분	내 용
청량산에 빠지다	숲학교 체험	1학기와 2학기에 각 학년별로 2시간 운영 - 숲해설 전문가와 함께 청량산의 생태 탐구, 친구와 숲놀이, 자연물 활용디 자인하기, 청량산 정화활동하기
가천박물관 탐방	박물관 체험	1학년 학생들의 우리 마을 가천박물관 탐방 -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1학년 학급에 딱맞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
인천시립박물관 탐방	박물관 체험	1~3학년과 6학년의 인천에 대해 알아보는 시립박물관 탐방 - 학교와 인접해 있는 마을 자원인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인천의 역사와 유 물, 지형,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인천이야기를 만남
G타워에서 꿈을 날리다	도시 탐방	3학년 마을 탐방 프로그램으로 운영 - 송도의 G타워, 센트럴파크, 인천도시역사관을 탐방하고 나의 소원이 이 루어지길 바라며 종이잠자리를 함께 날림
저어새 탐험	생태 탐험	4학년 마을 탐방 프로젝트 - 저어새의 서식지인 송도 유수지를 방문해서 저어새 생태에 대해 알아보 고 저어새 그리기 활동하기
마을 자원과 학교의 만남	책놀이 프로젝트	1, 2학년과 6학년의 마을 전문가와 함께 하는 책놀이하기 - 발달 단계에 어울리는 책을 읽고나서 각자의 보석을 찾아보고 책놀이를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 만들기
	초록지구 지킴이 및 인천영상가이드 제작 프로젝트	4학년 생태환경 지킴이 및 인천 여행 가이드 영상제작 프로젝트 활동 - 마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고 재활용 컵조명 만 들기,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인천 여행 가이드 영상 제작하기

주제	활동 구분	내 용
	생태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5학년 생태환경 지킴이 프로젝트 활동 -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제작하고, 쓰레기 줄이는 방안 토의
옥련 시장 탐방	우리마을 전통시장 탐방	6학년의 우리마을에 있는 2개의 전통시장 중 옥련시장 탐방하기 - 옥련시장의 역사 및 시장의 모습을 탐방하고 소비활동하기

● 활동 모습



가천박물관 체험



인천시립박물관 탐방



송도 도시 탐방



청량산 숲학교



여행가이드 영상 만들기



재활용 제품 제작하기



옥련시장 체험



저어새 탐험

3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성장을 기대하며

결대로자람학교 첫 해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지난 2월,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교상, 학생상, 올해의 교육 목표 등을 이야기하며 단어 중심으로 모아 학교 비전을 세웠다. 완성된 비전 아래 학년 선생님의 특성, 가치관 등이 더해져 학년 교육과정을 디자인했다. 학년별 편차도 있고, 이해의 차이도 있었지만 지난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며 전 교직원과 학생은 더불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교과서 안의 배움을 넘어 아이들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으로서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운영으로 우리 모두의 모습은 깊고 다채로웠다. 물론 업무와 교육을 함께 해야 하는 어려움, 프로젝트의 이해 차이에서 잡음 등 문제점도 보였지만 다양한 제안을 2023학년도 프로젝트 학습에 더해 더 발전된 배움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년도 프로젝트에 차곡차곡 쌓아기볼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아이들 삶을 참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학교와 마을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꿈꾸며, 새롭게 탄생한 프로젝트로 축현 어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기대해 본다.

삶과 배움이 하나로, 학교와 마을을 잇다!

학 교 명	인천새말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0학급(422명)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돈보기로 마을을 들여다보다! - 자연가득(지역과 함께하는 학습공동체)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1

마을과 함께 주도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들

선생님! 이번 <돈보기로 마을을 들여다보다!> 프로젝트는 정말 힘들었지만 동네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나 많은 병원과 약국이 있고,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로 환경정화활동을 하며 길에 버려진 담배꽂초가 많다는 것도요. 우리들이 활동한 결과물들을 그림지도 안에 하나씩 붙여가며 살기 좋은 동네를 완성해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우리 동네 그림지도를 한땀한땀 완성해가며 고사리같은 손으로 만들고 그려 올린 건물이나 가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설명과 감사 편지도 잊지 않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젝트 마무리 소감을 포스트 잇에 써 낸다.

이렇듯 새말초는 각 학년별로 연간 네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여 마을에 대한 지식 및 지역사회 참여 및 실제 경험을 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더 강한 연결을 느끼면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계와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교실과 지역사회 간의 간극을 좁혀 교육 경험을 확대해 나가며 평생교육 차원의 지역사회의 가치를 이해해 나가고 있다. 2023년 새말초에서 결실을 맺은, 삶의 터전과 분리되지 않는 배움의 실현으로, 2학년 프로젝트 <돈보기로 마을을 들여다보다!>와 6학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벽화 그리기>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한다.

2

2학년 세 번째 프로젝트 <돌보기로 마을을 들여다보다!>



2학년 아이들은 그림책을 좋아한다. 이러한 학생의 바람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매 프로젝트의 시작도,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그림책과 함께한다. 이번 마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엉뚱한 문방구」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핵심발문을 통해 대망의 프로젝트를 열었다. 구체적인 소주제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주제 1: 우리 마을의 모습	소주제 2: 우리 마을 사람들
그림책 [엉뚱한 문방구], [하나뿐인 우리 동네]를 활용하여 소주제 1 시작하기	그림책 [우리 동네 행복한 직업]을 활용하여 소주제2 시작하기
-마을 탐방 사전 준비 -동네에 있는 것 살펴보기 (마을 탐방) -우리 동네에 있는 것들 그림지도로 표현하기 -우리 동네 모습을 생각하며 마을송 만들기(개사) -우리 마을 가게 및 시설명을 이용한 동네 돌기 놀이하기 -동네 모습을 담은 소식지 만들기 -우리 마을의 Best & Worst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필요한 것 만들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조사하기 -동네 사람 카드 모으기 놀이하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지도 위에 나타내기 -우리 동네 직업 무리 짓고 알게 된 내용 방송 놀이하기 -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동네를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 알기 -마을 속 직업 가방걸이 만들기 -마을 속 직업(제빵사, 플로리스트, 공예가) 체험하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 전하기 -우리 동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계획 세우고 실천하기 -마을 속 시설(남동청소년문화의집) 체험하기 -마을에 있는 장소, 가게, 직업으로 말놀이 즐기기 ; 흉내 내는 말로 표현하기, 다섯 고개, 말 덧붙이기 -다른 지역의 캐릭터 살펴보고, 우리 마을 캐릭터 만들기 -우리 마을 캐릭터 열쇠고리 만들기 -우리 동네 전시회 열기

마을 탐방을 통해 우리 동네의 모습을 그림지도로 표현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빛을 발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불편하다며 분홍색지를 띠로 오리고 연결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주도적이었다. 저학년이기에 교육과정을 주도해서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거듭될수록 교사가 제안한 프로젝트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며 교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이들의 동네에 대한 이해 및 학교와 마을을 잇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단언한다. 프로젝트를 마무리 단계에 2학년 아이들은 함께 우리 동네 전시회를 열어 그간 노력의 결과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다. 전시회를 관람하는 오고 가는 선배들의 응원과 칭찬이 담긴 포스트잇은 2학년 아이들에게 학교공동체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선물이기도 했다.



우리 동네 전시회
(완성된 그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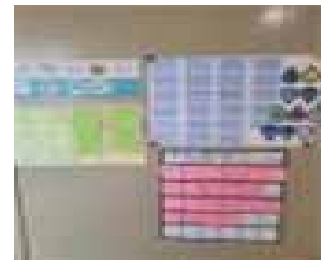
우리 동네 전시회
(우리 마을 캐릭터 열쇠고리 만들기)



우리 동네의
Best & Worst



우리 마을 소식지



프로젝트를 마친 소감

2

자연가득(지역과 함께하는 학습공동체)과 함께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NO가 아닌 GO로 나아가는 NGO



기후 위기 재난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없을까? 마을 활동가와 선생님, 예술 및 생태 전문가들이 모여 학습공동체를 꾸렸다. 학생들과 기후 위기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의 생태계에 관한 관심과 기후 변화 실천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그릇으로 학교 공간의 변화를 택했다.



자연가득 워크숍



자연가득 수업 협의

아이들은 먼저 마을의 생태 전문가 선생님과 기후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후 위기로 인한 전 지구적 이상 현상을 알아보고 멸종 위기 동물도 찾았다. <열네 마리 늑대>를 읽고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몸소 느꼈는지 벽화에 늑대를 그려야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기후 난민이라는 생소한 개념도 접하며 기후 문제가 주는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생태 선생님과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예술 선생님을 만났다. 생태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벽화로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벽화를 그리는 이유에서부터 벽화를 통해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 보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리는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기대하였다. 간단한 도안을 그리고 모듬끼리 도안을 합쳐서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린 그림을 크게 그리는 연습도 하고 벽화 작업 방식도 배웠다. 늦여름의 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밑그림부터 색칠까지 고사리손으로 하나하나 해 나갔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졸업할 건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불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다. 하지만 조금씩 완성되는 벽화를 보면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와, 너무 예뻐요. 저희도 하고 싶어요.”라며 지나가는 동생들의 목소리에, 조금씩 협동해서 완성되어 가는 그림을 보며 새삼 뿌듯하다는 소감도 전했다.



기후 변화에 대해
생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기



벽화 선생님과 벽화 작업 방식 알아보기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생태 문제를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마을 활동가와 벽화 작업에 노하우가 있으신 예술 작가님, 마을 활동가와 연결 지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담당자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 알고 수업을 구성하는 담임 선생님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논의한 덕분에 완성도 있는 벽화를 제작하고 나눌 수 있었다. 마을과 함께 유대를 쌓아가는 일, 마을 속에서 우리의 실천을 함께 나누는 일이 어렵지만은 많은 일임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벽화 그리는 과정



마을 축제 영상 상영회



3

삶과 배움이 하나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관련 제언



이렇듯 학교와 마을을 잇는 배움은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지역 자원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마을 연계 교육과정 설계 및 구현할 능력을 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을 연계 프로젝트 수업이 각 학교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초록의 가치를 마을에서 배워요

학 교 명	인천은봉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454명)
소 재 지	남동구 논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텃밭 활동으로 초록의 가치 배우기 - 숲과 마을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초록의 가치 - 기후정의와 만나는 초록의 가치		

1

초록의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

○ 학교의 환경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마을 안에서 자라고 배운다. 은봉초등학교 아이들은 은봉초등학교가 속한 마을에서 배우고 자라고 뛰논다. 우리 학교는 주변에 오봉산과 논현 근린공원 등 초록의 숲이 있고 아파트와 상가 같은 도심을 함께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안에는 생태 숲을 비롯하여 작은 연못(숨소리 습지원)과 운동장 텃밭(도담도담 텃밭), 학교 옥상 텃밭(하늘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아이들이 초록의 가치를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 학교 주변의 마을에까지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한다.

○ 초록의 전통을 이어가는 학교

우리 학교는 행복배움학교의 시작부터 초록의 가치를 키우는 학교로 오랫동안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은봉의 학생들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 사회, 즉 ‘초록의 가치’를 배우며 생태교육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어새 보호활동이나 가로수 관찰 등 마을의 환경보호나 생명존중교육을 충실하게 지켜왔고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초록의 가치를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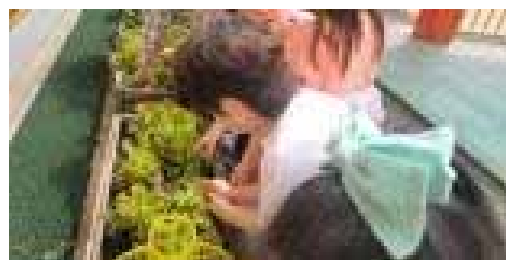
● 텃밭활동으로 초록의 가치 배우기

우리 학교에는 운동장에 ‘도담도담 텃밭’ 및 옥상에 ‘하늘정원’, 건물 앞의 ‘은봉 우리 작은 텃밭’ 등 곳곳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학년이 시작되기 전 교사들의 논의에 따라 각 학년의 교육과정에 맞게 텃밭을 배정하고, 농사활동을 실시한다. 텃밭 활동은 절기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절기에 따른 농사짓기와 절기의 변화에 따른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변화와의 관계를 알도록 계획하였다.

은봉 우리 작은텃밭에는 1학년이 주로 열매를 맺는 토마토나 잎채소인 상추를 재배하여 식물을 기르고 관찰하며 자기의 식물과 교감을 나누고 물을 주며 풀을 뽑는 활동으로 노동의 기쁨을 맛보았다. 운동장 텃밭에는 2학년과 3학년이 텃밭 강사님의 도움으로 친환경 농업을 배우며 흙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여 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거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천연 해충제를 활용하는 등 흙을 만지며 냄새 맡고 건강한 흙을 만들며 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학기에는 감자를 심고 가꾸어 하지감자를 수확하고 친구들과 감자를 삶아 나누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2학기에는 김장 채소를 심고 가꾸어 수확한 작물로 김치를 담그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작물을 재배할 때 허브를 중간 중간에 심어줌으로써 벌레에 약을 뿌리지 않고 식물들이 서로의 도움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배웠다. 식물 사이에 심었던 메리골드 꽃을 이용하여 손수건 천연 염색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들인 도림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선물로 나누기도 하였다.



메리골드 꽃으로 손수건 염색하기



은봉 우리작은텃밭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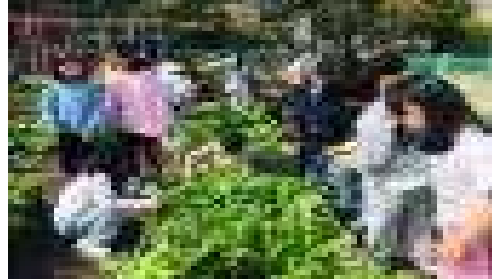
4,5,6학년에서는 옥상에 하늘정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특별히 작물이 아니어도 허브를 심고 가꾸며 가을에는 가을꽃을 심어 하늘 텃밭을 아름답게 자신만의 정원으로 가꾸기도 하였다. 하늘 텃밭에 작은 논을 만들어 벼를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며 가꾸어 가을에 소소하게 벼를 수확하여 겉질을 까서 쌀을 수확해 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접근성이 좋은 하늘정원에서 톱툰이 물을 주고 사랑으로 가꾸었으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작물과 허브로 가꾼 옥상정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놀이하며 배움을 이어갔다.

학생들의 텃밭 활동은 절기를 살펴보고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농사의 때를 알고 이에 맞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아채며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터득해 가는 과정이

되었다. 텃밭활동을 통해 흙을 고르고 만지며 흙의 소중함과 우리의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작활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일하는 과정을 겪어 보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늘정원 텃밭활동



도담도담 텃밭활동

● 마을에서 초록의 가치 실천하기

우리 학교 근처에는 오봉산이 있고 오봉산 너머에는 도림초등학교가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봉산을 5봉부터 오르고 도림초등학교는 1봉부터 오른다. 두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웃 마을의 학교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산책 활동이나 숲놀이 활동으로 오봉산을 자주 오른다. 전교생이 주기적으로 오봉산 산책 활동을 실시하고 근린공원을 활용한 숲놀이를 실시하며 우리 마을에 있는 오봉산의 숲의 가치를 알며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봉산을 통해 계절과 절기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간다.

2023학년도에는 3학년 교육활동으로 오봉산 넘어 이웃 학교 방문하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옛날 사람들의 왕래 방법 중 하나로 산을 지나서 도보로 이웃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실시하여 오봉산을 넘어가서 이웃 학교인 도림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2학기에는 도림초등학교가 오봉산 너머 은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짝공활동, 학교 소개, 학급 소개, 함께 놀이 활동을 하며 친교활동을 실시하였다. 단 2회의 만남이지만 만남을 위해 오봉산 오봉을 다 넘기 위해 오봉산을 수시로 오르내리면 부단히 체력을 기르고 만남 후에는 그리움과 편지 왕래를 통해 색다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며 만남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었다.

오봉산과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숲체험 활동으로 계절마다 변화하는 나무나 꽃을 관찰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오봉산 모습을 관찰하고 가을 오봉산에서는 가을열매 친구들을 만나고 낙엽 밟고 신호등 놀이를 하거나 가을 소리를 찾고 이를 국어활동과 연계하여 내가 만난 가을을 시로 표현하기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오봉산 숲놀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사지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하며 몸의 감각을 깨우고 튼튼한 몸을 만들어 간다. 숲의 열매를 주워 그 열매를 이용하여 수와 덧셈 뺄셈을 배우고 숲속의 동물들에게 겨울 먹이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 숲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숲의 산물로 공부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나간다.



오봉산 넘어 도림초 친구 만나기



오봉산 생태 놀이 활동



고학년이 되면 좀 더 수준 높은 활동을 실시한다. 우리 고장에 사는 새의 종류를 알아보고 새의 습성을 공부하여 새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소래 생태공원까지 걸어가서 망원경으로 새를 관찰하고 갯벌에 들어가 직접 갯벌을 밟아 보고 다양한 생명을 체험하며 몸으로 갯벌의 중요성을 공부한다. 사회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후(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실천하여 나부터 변하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교실 안에서부터 물티슈보다는 물걸레를, 종이컵 보다는 개인 물통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분리 배출하는 등 실천으로 시작하여 기후정의행동을 학교 내에서 또, 직접 마을에 나가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마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가지기도 하였다.

우리 학교에는 생태 동아리로 ‘지구사랑부’가 운영되고 있다. 생태 동아리는 저어새 보호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저어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우유갑 모으기 캠페인



기후정의행동 캠페인

3

배움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요즘 우리는 기후변화, 기후 위기라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예전과 다른 기후변화로 나의 의식주, 주변 자연환경이 변화하고 소소한 생활 방식들도 변화하고 있다. 이제 예전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을 돌이킬 수 없는 위협적인 변화가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위협적인 변화는 어른들보다는 학생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처해 갈 역량을 길러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텃밭에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고 흙을 느끼며 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이를 하는 경험은 아주 중요하다. 학생들이 농사라는 종합적인 활동으로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문제해결 협력의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자연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변 환경의 변화를 눈치채고 이를 해결하려는 관심과 실천으로 나아가 기후정의행동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교육과정 안에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늘도 학교 숲에서, 텃밭에서, 오봉산에서 마을에서 뛰어 놀며 자연을 배우고 함께하며 공존할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됨을 알아가고 있다.



사회정서역량을 키우는 ‘공동체’ 교육과정

학 교 명	인천계산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1학급(185명)
소 재 지	계양구 계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따뜻한 감성을 채우는 공감 프로그램(존중, 공감) - 관계의 힘을 키우는 동행 프로그램(소통, 배려) - 더불어 삶을 다지는 체험 프로그램(협력, 책임)		

1 사회정서학습(SEL)에서 답을 찾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200명 정도되는 소규모 학교이다. 작은 학교인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교생 등교를 일찌감치 할 수 있었고, 제약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올해로 결대로자람학교 4년차. 우리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키워주고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서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하였고, 학생들의 대인관계 및 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하고자 사회정서학습(SEL)에 기반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 사회정서학습(SEL) 기반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 따뜻한 감성을 채우는 공감 프로그램(존중, 공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공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입학과 동시에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저학년 학생들에게 친구와 관계 맺기는 어려운 시행착오의 연속이며, 서로의 감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렵기만 하다. 그래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감정코칭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림책 속 인물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살펴보고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해 보는 활동,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는 활동, 서로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가는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아가 친구의 감정을 공감하고 감정 조절 및 감정 표현의 대화법을 익히고 연습하며 긍정적인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함께 그림책 읽기



나의 감정 색깔은?



감정 인터뷰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르프 수업도 따뜻한 감성을 채우는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음악의 힘, 악기의 힘은 놀랍다. 소리에 집중하며 함께 연주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언어가 아닌 음악으로 소통하는 색다른 경험의 시간이었다. 잘 맞지 않다가도 순간순간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집중하며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도 체험하게 되었다. 친구와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박자에 따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을 배우게 되었으며 악기를 연주하고 신체 표현 활동을 하면서 타인의 생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서로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배우게 되었다.



인사나누기



악기연주하며 신체표현하기



공동작품 만들기

● 관계의 힘을 키우는 동행 프로그램(소통, 배려)

문화예술교육은 소통과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고 이를 통해 관계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전 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의 동아리 시간을 연간 30시간 배정하고 외부 전문 예술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예술동아리를 운영하였다. 1학년은 오르프, 2학년은 난타, 3~6학년은 무학년제로 바이올린, 기타, 우쿨렐레, 플루트, 풍물 동아리를 구성하였으며 4년째 운영중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악기 연주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동아리 시간 외 중간놀이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후에도 삼삼오오로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 소통한다. 보고만 있어도 절로 흐뭇한 모습이다.



난타



바이올린



풍물

동아리 중 풍물과 기타 팀은 주민자치회 마을 축제에도 참여하여 공연을 하였다. 공연을 위해 방학에도 나와 연습을 하였다. 몇몇 친구들의 의견 차이로 생긴 갈등으로 팀 해체라는 위기도 있었으나 갈등을 잘 해결한 후 무대에서 보여준 단합된 모습은 정말 멋졌다.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마을축제 공연(밴드부)



마을축제 공연(풍물부)



교육감님과 함께

우리학교에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다. 작년에 결성하여 올해 2년째이다. 학생들은 평소 파트 연습할 때는 힘들어 하였지만 합주를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같이 가치를 알게 된 후부터는 열심히 파트 연습에 참여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친구들과 학부모님 앞에서 연주회도 발표하였다. 연주회를 본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였고 연주 후 칭찬, 응원, 격려가 이어졌으며 이를 듣는 학생들도 기뻐하였다. 음악의 힘은 위대하다.



비올라



첼로



플루트

● 더불어 삶을 다지는 체험 프로그램(협력, 책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는 생활의 터전에서 요즘 아이들은 생태를 접하고 그 안에서 책임감을 배운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협력과 책임감은 동시에 친구들과 힘을 모으는 활동이며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책임감과 맞닿아 있다. 자연의 소중함, 더불어 살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고 있는 요즘 우리 학교는 한 걸음 나아가 살아있는 교육이 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그 안에서 협력과 책임감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노력하였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텃밭은 그 시작부터 아이들의 손으로 일구어졌다. 텃밭 상자를 직접 나무로 제작하고 칠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모든 학급이 자신들의 텃밭을 직접 가꾸는 1년을 계획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텃밭 상자를 만들기 위해 모둠 안에서 서로 손을 맞추며 그럴듯한 밭을 완성한 아이들의 표정은 참 맑고 예뻐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점심시간에 나가 인사를 건넨다는 아이들의 노력은 드디어 방울토마토와 고추, 콩, 오이 등으로 부듯하게 열매를 맺었다. 아이들은 발갛게 예쁜 방울토마토를 함부로 따지 않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책임감이라는 열매도 함께 얻었다. 물과 햇빛만으로 열매를 맺어내는 땅의 힘을 느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아이들은 자연이 고맙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채식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는 아이들이 가지는 ‘맛없다’는 편견이 큰 장애물이 되었는데 텃밭 식물을 수확하고 점심시간에 상추를 따서 먹으며 자연을 함께 생각하자 우리 지구를 위해 해 볼 만하다는 의견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연에서 얻어진 작물에 우리의 힘을 더해 지역사회와 나누는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모습에 한 발짝 다가서길 바라면서 우리 학교는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배추, 무, 파에서 확장하여 김장하기 프로젝트도 실천하고 있다.



텃밭 제작



감자캐기



채식 실천

‘김장 나눔’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하는 행사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총 180여 통의 김장 김치를 만들었고 지역 사회 독거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였다. 우리 학교의 노력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더불어 삶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빈곤 퇴치를 이야기하는 SDGs는 우리 아이들 삶 속에 다가오기에 어렵다.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손을 보태 직접 경험하는 김장 나눔 행사는 대표적인 품앗이로서 협력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으로 타인에게 귀한 음식을 전하면서 책임을 익히는 기회가 되었다. 김장 나눔을 하고 난 후 매일 등굣길 아침맛이를 하시는 교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네 어른신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건 우리의 노력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함께 하는 김장

김장 나눔

3

우리는 결대로 잘 자라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는 한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며, 사회 또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올 한해 사회정서학습(SEL) 기반 공동체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가정-마을로 이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 인성을 갖춘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한 뼘 더 성장하였을 거라 기대 해 본다.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누는 결대로 행복학교

학 교 명	인천건지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3학급(255명)
소 재 지	서구 가좌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온책읽기 및 도서관 활용교육 활성화 - 걷기 스포츠클럽 운영 및 등반대회 운영 - 학급문집을 활용한 쓰기교육 및 발표전시 활성화		

1 결대로 행복학교를 꿈꾸며

● 255개의 꿈이 자라는 학교

생물다양성이란 “생물체들간의 다양성과 변이 및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생태적 복합체들”을 통틀어 일컫는다. 1989년 세계자연보호재단(Worldwide Fund for Nature)은 “생물다양성이란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 등 지구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의 풍요로움이다”라고 정의했다. 오늘날 전지구적인 과제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과 인식이 강화되었다.

과제 우리의 교육은 1000여명의 학생이 한 가지 모범적인 학생모델을 지향하는 교육이었다. 이러한 환경은 마치 1980년대 파나마병으로 지구상의 특정 바나나품종 70%가 사멸한 사건처럼 급변하는 사회시대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공교육에서 어떻게 255개의 꿈을 모두 지원할 수 있을까? 매 수업마다 개별화교육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단지 풍부하고 다양한 교육주제를 적극 수용하고 개인의 특성이 발현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255명 학생들의 결대로 행복배움을 이룰 수 있다.

● 읽고 걷고 쓰고 =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누고

‘읽-걷-쓰’는 읽기, 걷기, 쓰기의 줄임말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활동이자 시민문화운동이다. 보통 책읽기로 생각의 힘을 기르고, 규칙적인 걷기 활동으로 신체 건강을 키우며, 글쓰기와 책쓰기로 공동체 결대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러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외연을 확장하면 학생들이 사고하고 공동체단위로 함께 활동하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모든 활동을 교육현장에 도입할 수 있다. 255명이 저 마다의 느낌과 생각, 특기와 재주를 표현하고 함께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품과 특성(결)을 찾아가고 나와 다른 '결'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결'이 어울려 함께 배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완성한다.

2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누는 특성화 교육활동

● 풍부한 체험을 바탕으로 전문과 생각 넓히기

- 학급별 온책읽기 활동과 지역도서관(가재울어린이 도서관) 활용 협력수업
- 목공교육, 국악교육, 기악교육, 연극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전학년 지원
- 문화예술의 날 행사, 개교기념 행사, 가을대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체험
- 전교학생회, 청소년봉사단, 청소년단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 전학년 무상 체험학습으로 다양한 체험건문 넓히기

● 도전하고 행동하기

- 전교학생회 주관 학교폭력예방 및 급식문화 캠페인
-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학교사랑 캠페인
- 학생·학부모와 함께 하는 고추장만들기 체험 및 가을산 등산체험
- 학생과 함께 가꾸는 학교 공동체 텃밭조성
- 교내 학생 합창부 운영 및 소방동요제 참가(수상)
- 교내 아침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피구, 배드민턴, 체육365교실 등 다양)

● 함께 표현하고 함께 공감하기

- 학교사랑 캐릭터 홍보사업을 통한 애교심 기르기
- 목공작품 전시회 및 각종 작품 전시회
- 연극학습발표회 및 기악학습발표회를 통한 문화예술 공유(12월 예정)
- 전학년 학급문집 발간 및 6학년 나만의 책 출간하기
- 특수학급 작품 전시 발표회



학교공동체 텃밭 조성



목공실활용 전문목공교육



기악강사 리코더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실 캠페인



등굣길 음악회



학생회주관 급식소통행사



학년테마 무상현장체험 운영



등교맞이 및 아침캠페인



학부모와 함께 고추장만들기



아침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학부모회 학교사랑 캠페인



가을 대운동회



학생 목공작품 전시회



개교기념 캐릭터그림 전시



공동체텃밭 학생수확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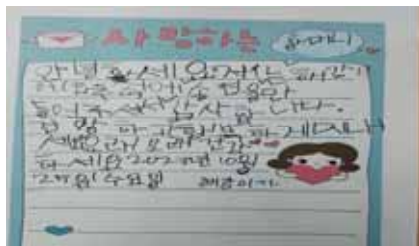
교내 합창부 소방동요제 시상



건지공동체 가을산 등반대회



마을교육축제 부스참가



전학년 학급문집 쓰기교육



교내도서관 활용수업



특수학급 작품 전시회

3

결대로 행복한 교육이 행복배움을 만든다



‘생각하고-행동하고-나누고’를 실천하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결을 찾는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다른 학생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한다. 다양한 교내 전시 및 발표기회를 통해 학급마다 프로젝트 학습을 계획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실질적인 산출물(전시, 발표, 공연, 캠페인 등)을 생산하는 배움과 행동이 조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바탕 속에 학생 자신의 결대로 흥미와 성취를 낼 수 있는 과제를 발견하고 학교교육이 학생의 삶과 학교생활에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행복배움으로 거듭난다.

함께 만들고 같이-가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작동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3학급(501명)
소 재 지	계양구 작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생각듬 Co-teaching 학년별 독서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 oh-yee(藝)소리가 절로 나는 작동 행복예감 문화예술 교육 - 학교텃밭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생태환경 교육 운영		

1 생각듬 Co-teaching 학년별 독서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 운영 목적

- 다양한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독서에 흥미를 느끼고 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 기존의 독서활동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향상시키고 마음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행복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 예체능과 연계한 독서활동, 뮤지컬 연극 놀이를 통해 독창적인 표현력과 창의력을 키우고자 한다.

●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

학년	프로젝트명(주제)	교과(과목)	세부 운영 내용	차시	비고
1	재미있는 책놀 이로 책날개 달기	국어 통합	- 그림책 읽기 활동 - 주제와 관련된 책놀이 하기 - 소감 나누기	6	
2	함께하는 독서연극 놀 이로 책날개 펼치기	국어 통합 창체	- 연극 이해하기 - 몸으로 표현하기(사물, 움직임, 상황 등) - 이야기 속 상황극 만들기	6	
3	감정 코칭 독서 논술로 책과 통하기	국어 창체	- '민들레는 민들레' 책을 통해 자아존중감 키우기 - '곰아 돌아와' 책을 통해 배려와 소통 배우기 - '오레오와 미세먼지'를 통해 책임과 실천 배우기	6	

학년	프로젝트명(주제)	교과(과목)	세부 운영 내용	차 시	비 고
4	독서 연극에 풍덩 빠지다	국어	- 책을 읽고 상황극 만들어보기 - 역할극을 통해 2인 대사 해보기 - 동화 속 문장들을 신체로 표현하기	6	
5	그림책 디베이트	국어	- 하브루타식 그림책 읽기 - 그룹별 질문 만들고 피라미드 토론하기 - 자신의 주장이 담긴 토론 개요서, 입론서 작성하기	6	
6	디베이트 토의·토론학습	국어	- 주제를 정하여 즉흥연설 작성하기 - 디베이트 이해하기 -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입안문 작성하기	6	



1학년
〈책날개로 책날개 달기〉



2학년
〈독서연극놀이로 책날개 펼치기〉



3학년
〈책으로 통하다〉



4학년
〈독서 연극에 풍덩 빠지다〉



5학년
〈그림책 디베이트〉



6학년
〈디베이트 토의 토론 학습〉

● 프로그램 운영 효과

- 자신의 생각을 신체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른다.
- 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키운다.

2

oh-ye(藝)소리가 절로 나는 작동 행복예감 문화예술 교육

● 운영 목적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도모한다.

- 교내 외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예술을 향유하는 태도를 기른다.
- 지역사회 시설·프로그램 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체험 예술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 다양한 활동에 자율적 참여와 회복적 생활 태도를 함양하여 기쁨과 행복을 향유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

주제	학년	세부 운영 내용	비고
1인 1악기 학년별 동아리 운영	1~6	- 학년별 1인 1악기 동아리 운영 1학년 : 실로폰 / 2학년 : 핸드벨 3학년 : 리코더 / 4학년 : 칼림바 5학년 : 우쿨렐레 / 6학년 : 우쿨렐레	
국악수업	1~6	- 국악강사와 함께하는 국악 수업, 전래동요, 민요, 사물놀이 등 국악에대한 이해를 높임	
학교예술동아리	3	- 우리나라 전통 민요인 '아리랑'의지역별 특색을 살려 노래 부르고 굿거리장단을 이용한 사물놀이 합주를 통해협동심을 기르고 합주의 기쁨을 친구들과 나눔	
창의 팡팡 감성 뽀뽀 찾아가고 찾아오는 공연 프로그램 관람	4~5	- 신나는 예술 여행(배짱이의 모험)을 통해연극에 대한 관심 증진과 진로탐색의기회를 제공	
	1~4	- 음악과 춤, 연극이 어우러진 '찾아가는아트스쿨 (토기의 묘책)' 공연을 관람 하며 예술적 심성과 창의성을 발전시킴	
송암 미술관 체험 학습	3~4	- 우리 문화 예술에 스며 있는 12띠 수호신모습을 감상하고 자기만의 12수호신을창의적으로 만듦	
찾아가는 예술 캠프	4~5	- 6교시 동안 전문강사와 함께 난타, 뮤지컬, 태권도, 탈춤, 방송댄스,부채춤, 사물놀이를 배우고 친구들과 앞에서 공연을 함	
등곳길 음악회	1~6	- 5월과 10월에 아침 등곳길 음악회를 통한기분 좋은 아침 맛이를 함	※ 버스킹 형식으로 다같이 즐김



우쿨렐레



등곶길 음악회



국악수업



공연관람(베짱이의 모험)



송암미술관(12띠수호신)



찾아가는 예술캠프

● 프로그램 운영 효과

-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고운 예술적 심성을 키우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추억으로 학생 간의 우정을 돈독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외의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의 학생 대상 행사나 대회를 학생에게 홍보하여 관심있는 학생에게 참여의 기회와 소질 발굴의 기회 제공한다.
- 국악 수업을 통해 우리 음악의 특징과 흥을 느끼며 음악적 취미 발견과 소질 계발, 진로 탐색을 꾀한다.

3

학교텃밭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생태환경 교육 운영

● 운영 목적

- 학교 텃밭 가꾸기 노작 체험으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평화 감수성을 높인다.
- 야생화 화단 확충, 수생식물원 조성을 통한 기초 탐구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 교육공동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체험 중심의 노작교육을 통해 따뜻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활동 내용	학년	소요시간	시기		준비물
텃밭 운영 희망 학급 수요 조사	희망학급		3월		.
여러 가지 씨앗 심어보기	1~2	1	1 학기	4월 1주	여러 가지 씨앗
채소 씨앗 및 모종 심기	3~6	1		4월 2주	쌈채소 모종
여러 가지 열매채소 모종 심기	3~6	1		5월 2주	열매채소 모종
텃밭에 자라는 식물 가꾸며 관찰하기	1~2	1		수시	기록장
가꾸기 및 수확하여 이용하기	3~6	1		5~7월	비닐 롤팩
가을 채소 씨앗 및 모종 심기	3~6	1	2 학기	8월~9월	씨앗 및 모종
텃밭에 자라는 식물 관찰하기	1~2	1		수시	관찰 및 수확
가을 채소 수확 체험하기	3~6	1			



쌈채소 심기



쌈채소 기르기



쌈채소 수확하기

● 프로그램 운영 효과

-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통해 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른다.
- 식물교재원 조성 및 학교 텃밭 체험을 통해 다양한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기쁨을 통해 행복과 긍정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부현의 ‘결’ 가꾸기

학 교 명	인천부현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434명)
소 재 지	계양구 계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생태 및 탄소중립 교육, 지속성 있는 문화·예술 교육, 계양구를 배움터로 삼은 마을교육 등으로 부현 교육과정의 ‘결’을 찾고 함께 가꾸기		

1 들어가며

● 지금까지 찾아온 부현의 ‘결’을 함께 가꾸다

본교는 인천의 다른 지역과 견주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전출입이나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0년 9월 1일부터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구성원들의 다양한 교육적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 온 바 있다. 2023년에는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이 막바지에 이르며 그동안 축적된 인적·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은 보다 비중 있게 진행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덜어내며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 활동 중 모든 학년에서 비중 있게 다루게 된 교육과정의 세 축을 아래와 같이 꼽을 수 있다.

2 중점 교육활동 소개

●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생태 및 탄소중립 교육

올해 초, 학년의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모든 학년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고자 의견이 모인 중점 교육은 바로 자연과 생태교육이다.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에 본교가 갖고 있던 장점이라면 작년부터 학교 구석구석에 일구어낸 학교 텃밭이 있다는 점이다.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하나로 ‘녹색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며 교직원들이 틈틈이 자신이 맡은 텃밭을 가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4~6학년 각 학급, 학생자치회, 봉사동아리도 나서서 흙을 고르고 씨를 심으며 수확, 요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교직원 전학공 활동



학생자치회 수확 활동



학급별 텃밭

또한 올해부터 탄소감축을 위한 채식급식 선도학교를 지원하여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이 또한 학교 텃밭 활동과 연계하여 텃밭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기, 교직원 대상 채식 급식 관련 연수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교직원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학년의 특성에 맞는 탄소 중립 교육, 채식 메뉴 만들기 체험, 그리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퀴즈와 이벤트가 한 해 동안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빈틈없이 채워 주었다.



탄소중립 이해 교육



탄소중립 식생활 교육



채식 급식에 대한 학생의견

생태교육의 일환으로 교내와 주변 공원을 학습의 터전 삼아 자연을 관찰하고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는 숲체험활동도 진행되었다. 특정한 관점에 따라 자연을 관찰한 뒤 나무를 재료로 한 공예품 만들기, 바질 화분 심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각 학년의 수준과 특색, 관련 교육과정에 맞게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교내 숲체험활동



오조산공원 숲체험활동



테라리움 만들기

지속성을 갖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문화·예술 교육

학생들이 단순히 ‘체험’하거나 ‘즐거운 경험’을 갖는 데 그치지 않도록 지속성과 의미가 있는 문화 예술교육을 계획하였다. 연극 수업은 4~6학년이 2시간씩 8주간 진행하였는데, 하나의 주제나 작품을 다루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각 학년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하기 몇 주 전 연극 강사와 만나며 각 학년과 학급의 특성, 학년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중 연극 수업과 연계하거나 중점적으로 진행할 주제나 작품, 학생들의 특성상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점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같은 강사가 모든 학년의 연극 수업을 진행했지만 각 학년, 또는 각 반의 연극 수업 양상은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연극 수업(5학년)



연극 수업(3학년)



문학 연극 관람

본교의 오랜 자랑거리인 오케스트라 운영도 마찬가지이다. 작년까지는 3~6학년 중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그 대상을 넓혀 학년에서도 학생들이 각각 악기를 맡아 지속성 있게 배우고 모두 모여 합주하는 경험을 가졌다. 또한 동아리 수업 등을 통해 우쿨렐레, 칼림바, 댄스, 무용 등을 배우고 점심시간 음악회 등으로 다양한 음악적·예술적 경험을 쌓았다.



학년 악기 지원 교육



동아리 활동 및 무용



점심시간 음악회

우리 마을 계양, 배움터가 되다

본교는 계양구의 풍부한 인문·환경적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과 하나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인천농업기술센터, 계양구청, 청소년경찰학교, 계양청소년의 집 등 교육청 사업 연계를 통해 방문할 수 있는 공간부터, 계양산, 부평도호부관아, 마을 구석에 자리 잡은 공방이나 영화관 같은 일상적

공간에 이르기까지, 부현 교육과정의 배움터는 학생 삶의 공간들과 점점 더 교집합을 넓혀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이 일회성 체험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과 내에서 사전, 사후 활동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여러 교과를 넘나들며 통합적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계양구 여행 협의



부평도호부관아 체험학습



마을연계형 박물관에 체험활동

3

마치며



2023학년도의 1학기 교육과정을 마치며 모든 학년의 교사와 비교과 교사까지 함께 섞이고 모여 힘들었던 업무나 교육과정, 기억에 남는 활동 등을 나누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얻었던 점을 꼽는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일의 주인인 이들이 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고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나 우리 학교만의 특색과 ‘결’이 맞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와 교육공동체의 ‘결’을 찾아나가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현의 교육공동체는 지금도 부현의 ‘결’을 찾고 가꾸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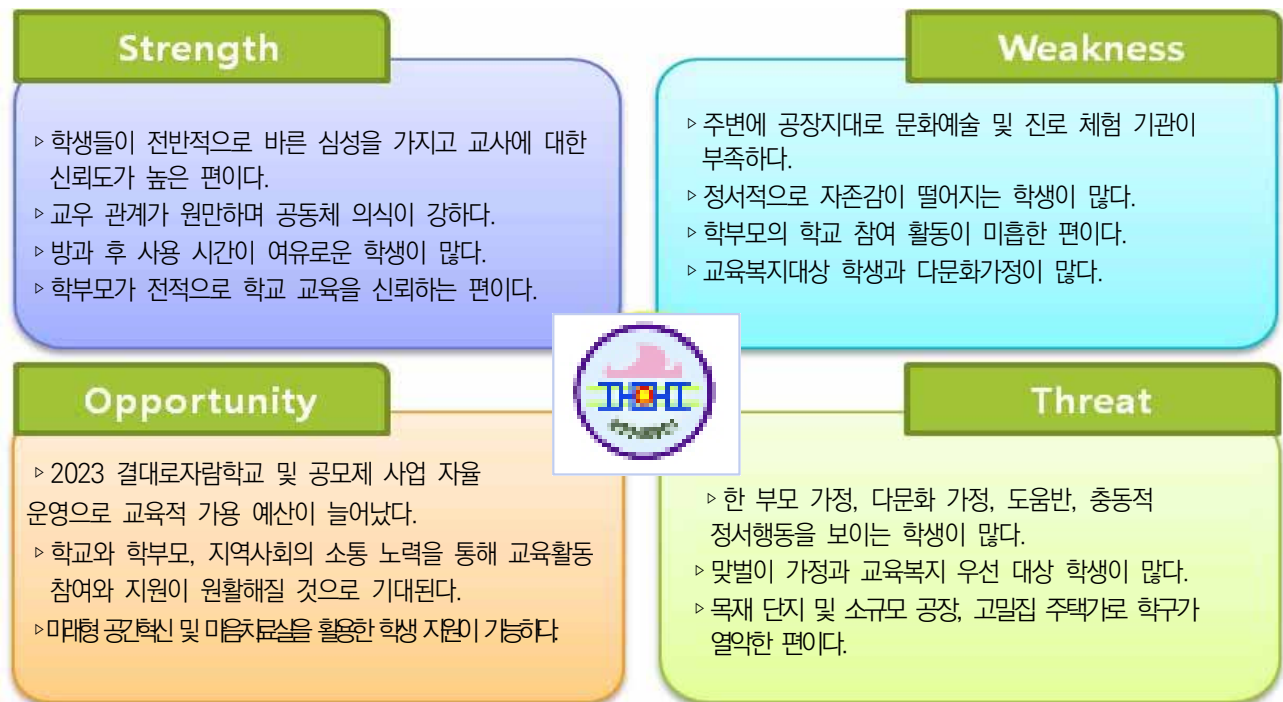
1학기 교육과정 갈무리

현장체험활동을 통한 다양한 미래 사회 핵심 역량 기르기!

학 교 명	인천봉화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9학급(333명)
소 재 지	서구 가좌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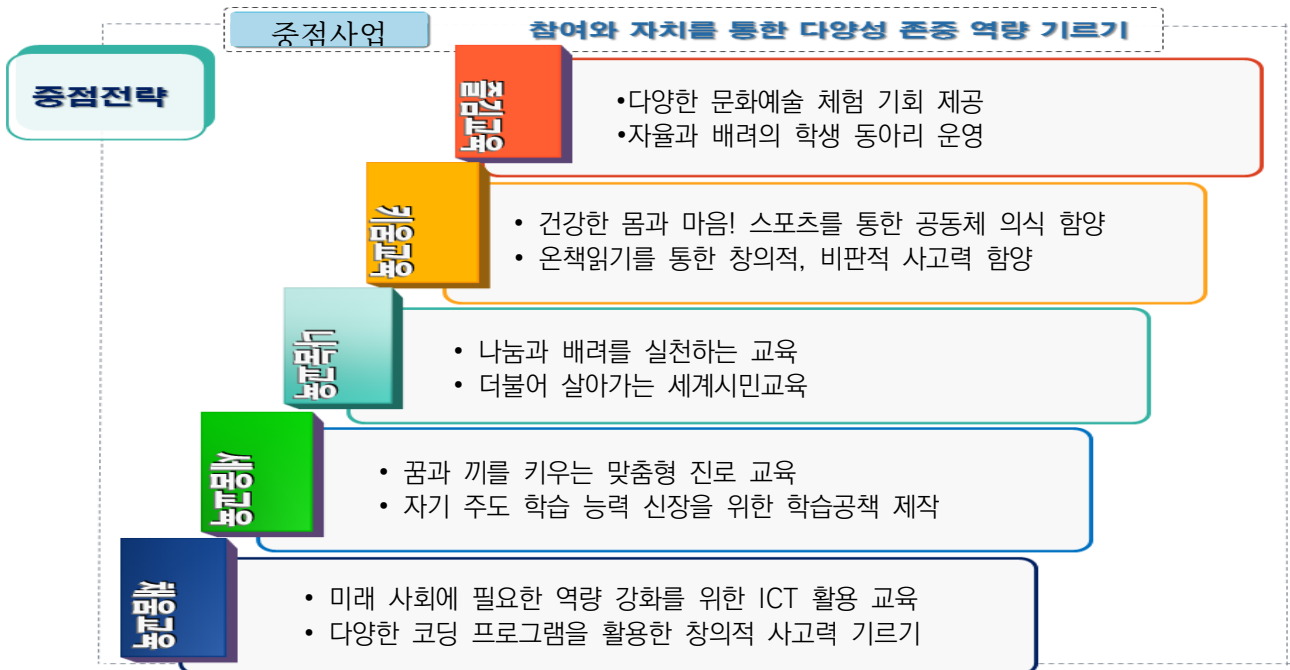
1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SWOT 실태 분석



2

실태 분석을 통한 학년교육과정 중점 전략 수립



3

중점 전략에 따른 주제별 세부 실천 내용

● 예술적인 감성을 키우며 문화를 이해하는 즐길 교육과정

- 주변에 문화 시설이 취약하여 대학로 연극 관람 및 영화 관람 등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가졌다.
- 등곳길 찾아가는 음악회 2회, 오케스트라 아트스쿨 공연, 찾아가는 국악교실(국악배달통) 등을 신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자 하였다.
- 문화예술 자율 동아리 악기부 운영 및 1인1악기 문화예술역량 강화 전문 강사 공모를 통해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소고, 핸드벨, 리코더 등을 배웠다.



대학로 연극공연관람



주안역 CGV 영화관람



등곳길 오케스트라 공연



국악배달통

● 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한 키움 교육과정

- 어린이날 기념 놀이마당을 개최하여 다양한 놀이로 공동체성을 강화하였다.
- 주 2회 아침 걷기를 통하여 건강을 위하여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였다.
- 상설스포츠 동아리, 상설배구 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체육 교과 및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천마 볼링장 체험학습, 스케이팅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여가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1학기 1권 온 책 읽기 도서를 선정하여 다양한 교과와 연계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온 책 읽기 후 낭독극 공연,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여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 도서관 월별 행사를 통해 책과 가까워지고 마음을 가꾸고 깊이있는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4월-상식퀴즈, 미션!도서관 탐방)(6월-나만의 그림동화만들기, 필사(筆寫)의 즐거움)
(9월-1,2학년 그림책과 친구하기)(10월-가족과 함께하는 저녁독서)
(11월-좋은 구절 댓글쓰기, 책제목 끝말잇기, 책을 빌리면 행운이)



어린이날 기념 놀이마당



상설스포츠동아리 운영



마을연계 사제동행 볼링대회



온 책 읽기 낭독극 공연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의식 고취를 위한 나눔 교육과정

- 2학기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 시민 교육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송도 세계 시민 교육 한마당에 참여 및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체험활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 석남 녹지공원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시 숲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인천 차이나타운 체험학습을 통해 이웃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사회임을 알게 되었다.
- 1학년 신입생들과 6학년의 띠앗 맺기(월 1회) 선포식을 입학식 날 진행하고 학교 시설물 소개하기, 줄넘기 가르쳐주기, 동생과 함께하는 미술 활동, 책 읽어주기, 생명존중 캠페인활동 등 다양한 띠앗 맺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 서부과학인재육성 프로그램-토론캠프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관련된 토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송도 세계시민교육 한마당



석남 녹지공원 체험학습



인천차이나타운 체험학습



1학년과 띠앗 맷기



서부인재육성(스마트에코)



생명존중캠페인



인천시의회 청소년의정아카데미



1학년과 띠앗 맷기

○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키우는 세움 교육과정

- 자기주도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하여 학습 공책을 학년에서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군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였다.
- 커리어넷 등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업 등을 조사해 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 잡월드 현장체험학습(2023.12.29.예정)을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직업 2개를 현실적으로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였다.



자기주도 학습 공책



매일 중요 내용 학습 공책에 정리



커리어넷을 활용한 진로 탐방

○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통한 채움 교육과정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및 실과 교과와 연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기별 ICT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 다양한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 코딩을 제작해 보면서 창의성을 길렀다.

- 햄스터봇, 오조봇 등 다양한 로봇을 활용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질과 역량을 가지도록 하였다.
- 인천시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의정 교실 현장학습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오조봇을 활용한 코딩 수업



코딩 프로그램 개발 활동



인천시의회 청소년 의정 교실 참여

4

결론 및 제언

- 실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현재 모습에서 필요한 중점 과제를 설정한 부분이 좋았다.
- 교실에서만의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및 체험활동을 계획하였으나 학교 주변에 문화 시설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버스를 임대하지 않으면 다소 불편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학교 교육 참여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삶과 삶이 만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경서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31학급(695명)
소 재 지	서구 경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두레연구, 두레학습 실천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 콘서트 - 꿈과 끼를 살리는 경서ART 페스티벌 -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융합축제 한마당		

1

들어가며

아이들이 행복한 행복배움학교 2년, 학생의 걸을 존중하는 걸대로자람학교 1년차로 3년간 본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빛나는 결과물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그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이라 할 수 있다. 서구 경서동에 위치한 본교는 경서동 유일한 관공서로 학교와 마을이 하나 되어 학생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곳으로 학교의 행사가 곧 온 마을 이벤트가 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속에서 학교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원활한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본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제한적이었던 지역과 함께하는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직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해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우리 학교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삶과 얹이 만나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 경서 실천 사례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두레 연구, 두레 학습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 콘서트

새 학년 구성이 완료되는 2월 초부터 학년 교육과정 작성 및 재구성을 위해 동학년 단위로 두레 연구가 한창이다. 학년별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그 중심으로 핵심 인성덕목 및 핵심 역량을 추출하여 학년 교육목표에 맞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시작하였다. 학년별 교육목표에 맞추어 2~3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을 정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각 과목을 분석한 후 학년 학생들의 곁에 맞는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기적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 1학년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교육 목표	오색빛깔 곁따라 꿈을 키우는 1학년						
기간	4월 1~3주	국어	바생	즐생	슬생	창체	계
주제	친구야, 같이 놀자 (놀이 로 학급 공동체 세우기)	2	2	8	6	2	20
핵심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핵심인성덕목			배려, 존중, 협동		
재구 성 방 향	'친구야, 같이 놀자' 프로젝트는 1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학급 공동체'를 느끼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빛깔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인 놀이교육 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를 확장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학년별 2~3개 주
제로 교육과정 재
구성 실시
*학생들의 실제적
성장을 돕는 교육
과정 운영

또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와 함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년 교육 활동 계획을 실천하였다.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에 맞추어 1~2학기에 걸쳐 마을활동가 등 전문가 초청 수업, 국어, 미술 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담임교사와 전문강사의 협력수업을 밀도있게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와 협업하는 수업은 1학년 놀이 체험 프로그램, 2학년 미술놀이 프로그램, 3,4학년 칼림바, 우쿨렐레 및 이지댄스 프로그램, 5,6학년 중국어와 교육연극 등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1, 2학기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내실을 다지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악기교육 및 댄스, 교육연극, 미술활동 등의 다채로운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여건상 사교육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일깨워 주어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학년 전문가초청수업(놀이교육)



2학년 전문가초청수업(미술놀이)

3, 4학년
전문가초청수업(칼림바, 우쿠렐레)

3, 4학년 전문가초청수업(이지댄스)



5, 6학년 전문가초청수업(중국어)



6학년 전문가 초청 수업(교육연극)

● 꿈과 끼를 살리는 경서ART 페스티벌

학교 교육활동을 통해 키운 다양한 재능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고 이 과정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기회를 가져 학부모와 학교 교육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하여 문화 예술 체험의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예술 체험과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꿈과 끼를 계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경서 ART페스티벌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타악기 공연 관람 및 세계 타악기 체험 이후 학급별 문화 예술 체험 및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댄스, 뮤지컬, 부채춤, 소고춤, 판소리 등 전문적 소양을 지닌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전문가의 수준있는 공연을 학부모와 함께 관람하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문화체험 및 공연 관람을 통해 학생들은 문화예술체험 생활화의 계기가 되었고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았으며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세계 타악기 예술 공연 관람



세계 타악기 체험



예술전문가와 함께한 학생 난타공연



예술 전문가와 함께한 부채춤 공연



학생 소고춤 공연



학생 댄스팀 공연

●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창의융합 축제 한마당 운영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학습할 때 더욱 흥미를 느끼고 참여한다. 이에 근거리에 위치한 ‘인천로봇랜드’를 활용하여 학년별 다양한 코딩 교육을 계획하여 4차 산업의 특징과 미래 산업의 발달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서 창의융합 축제 한마당’을 계획하여 학습자 주도로 구체물을 직접 움직이고 조작해 보면서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분석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서창의융합 축제 한마당’은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은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시작하여 오조봇으로 코딩에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으며, 2학년은 GO-Car 활동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를 알아보고 코딩카의 구조를 이해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3학년 학생들은 ‘뚜루뚜루’ 프로그램으로 컬러코딩 활동을 통해 컬러 카드부터 라인트레이싱까지 컬러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4학년은 카미봇을 가지고 리모콘 앱, 카미카드 앱 등을 이용한 기초 블록 코딩 활동을 하였다. 5~6학년은 쏘물락 블록 코딩을 활용하여 컴퓨터 없이 진행되는 코딩 활동 및 핑퐁 로봇 앱을 이용하여 조종 및 기초 블록 코딩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3~5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이착륙, 비행 감각 습득 및 장애물 통과 연습 등 드론을 활용한 기초 기능을 익히는 체험을 실시하며 미래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고조시키고자 하였다. ‘경서 창의융합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다양한 미래 과학 체험 프로그램 실시를 통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바탕으로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오조봇 체험



쏘물락블록코딩



드론날리기

3

맺음말

삶과 얹이 만나 그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실행하며 달려온 3년이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학교 교육 공동체는 저마다의 위치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참여하는 속에서 각자의 결을 가꾸어 가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남은 1년 동안에도 우리 경서교육공동체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앞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결을 살릴 수 있는 교육, 교육공동체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노력할 것이다. 이 속에서 우리 경서교육공동체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결대로자람학교로서 다채로운 체험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느꼈던 설렘과 기쁨, 부딪힘의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서 좋은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이 모여 행복이 되어 경서초를 삶과 얹이 만나는 지속 가능한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학교로 기억하길 기대해 본다.



결대로 자라는 꿈 끼 성장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양촌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255명)
소 재 지	계양구 병방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꿈 끼 채움 문화 예술 특성화 교육과정 -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 연계 활동 교육과정 - SW교육을 통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정		

1

결대로 꿈꾸는 모든 양촌인을 위해...

● 결대로 꿈꾸게 하자!

소규모 학교, 1-2년이 지나면 모두가 서로를 알게 되는 작은 학교!

서로에게 뭘 잘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고 물어보면 누가 좋아해요, 누가 관심이 있어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있는 학교이다. 다양한 교육 활동의 중심이 본격적으로 학교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지는 채 1년이 되지 않아도 양촌의 교육 공동체는 서로가 관심 있는 잘하고 싶은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 학생을 세밀히 들여다 보고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그려보는 데 중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 볼 수 있는 학생 한명 한명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자신이 가진 관심을 개개인이 펼쳐 볼 수 있도록 꿈을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미래 인재로 만들기 위해 행복한 배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결대로 꿈을 꾸는 것, 교육과정을 계획하며 시작점으로 생각한 동기이다.

● 감성 가득, 우리 마을과 함께, 그리고 미래의 SW

도심 속에 자리한 학교로 주변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장소들이 많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과 계양산, 그리고 농업 기술 센터 주변의 생태 공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설들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의 제한과 각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구성원의 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상 개인적인 체험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어 우리 마을, 지역과 연계한 개별적 체험 학습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사교육 역시 교과 위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전교 학생 수가 다양한 부서가 운영되는 방과후학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심미적 영역과 관련된 음악, 미술 분야와 다양한 체육 활동의 경험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빛깔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역량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개별적 학습 활동이 많지 않았다. 스스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걸을 찾아 자라날 수 있도록 감성 가득한 교육과정,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미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 선정이 필요했다. 3가지 영역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제 중심과 마을 중심, 역량 중심이라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방향을 세우고 학년에 따라 재구성의 중심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결대로 자람 학교 3년동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감성 가득한 삶과 SW 디지털 역량을 키워 미래에 대한 앞이 일치하는 내면화 통합 교육과정이 일어나는 다양한 빛깔로 가득한 학생 활동 중심의 학년별 교육과정의 프로젝트 학습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다양한 빛깔로 창의적 교육과정이 반짝이다.

● 마음이 따라가는 감성 가득 예술 교육

1-6학년 학년별 1인 1 악기와 전 학년 우쿨렐레 수업과 어울림 한마당, 그리고 5! 인천 사랑하기 일일 예술 캠프에 참여한 4개 학년 8개의 학급 공연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이성 뿐 아니라 감성 가득한 예술 교육을 배우고 그 익힌 것을 관객 앞에서 연주하였다. 교육과정 안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모두와 함께 나누는 활동으로 문화 예술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을 누리고 다양성을 찾아 나가고 있다.



1인 1악기 교육+우쿨렐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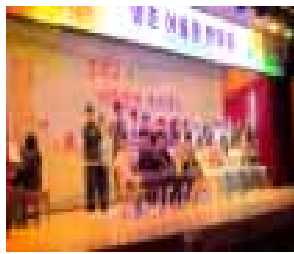


5!인천사랑하기 찾아가는 예술 캠프

흥미와 교육적 효과라는 두 가지 면은 모두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음악 연주 관람과 연주 활동을 통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에 관람하는 음악 콘서트는 다양한 음악의 분야를 경험하도록 하여 특히 클래식 음악 연주회 음악이 주는 색다른 빛깔의 느낌을 경험하며 미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등굣길 음악회



어울림 한마당



찾아가는 아트스쿨



1~3학년 뮤지컬 관람

쉬는 시간에 하는 축구도 좋아요. 하지만 다양한 신체 활동과 놀이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 있어 하는 체육 활동을 알아가고 체육 활동이 주는 즐거움을 일상생활의 여가 시간에 활용하고 자발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농구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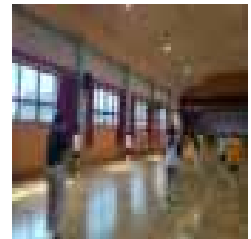
놀이 교육



무용수업



놀이 시간



줄넘기수업

● 마을과 함께 체험하고 자라는 교육

봄부터 시작되는 학교 텃밭 교육은 1~6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실시되었다. 주변의 식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과 함께 주변의 식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주의 깊은 관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음식을 만들며 주변에 있는 식물과 음식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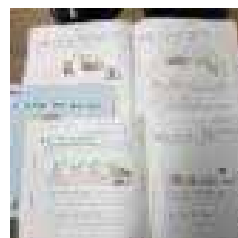
씨앗 심기



텃밭 식물 수확



김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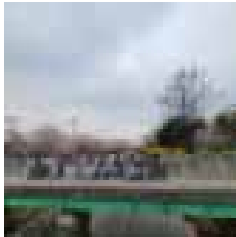


재배일지



석박지 만들기

텃밭 수업으로 시작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을 직접 교육과정에 녹여내어 마을과 연계된 교육 활동하였다. 우리 마을에 있는 과학, 문화, 체육시설 뿐 아니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알려주는 농업 기술 센터와 봄과 가을에 변하는 자연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 마을의 지리적 특성과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교육과정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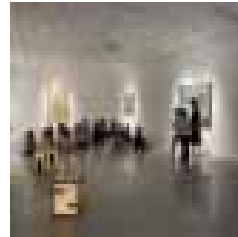
우리마을 생태 관찰



어린이 과학관



생태숲놀이



지누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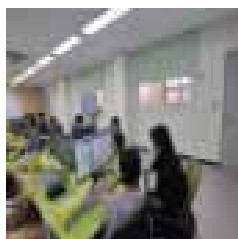
인천치즈마을

● SW교육으로 미리 체험하는 미래 역량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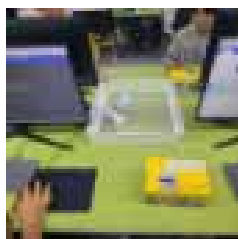
미래의 삶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확대를 교육과정에 담아 드론과 코딩을 통한 SW 교육을 1~6학년까지 학교 자율 과제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문제를 수립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보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와 함께 디지털 문해력 교육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항공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종이비행기 날리기라는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비행체에 대한 렉처 콘서트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될 수 있는 덕업일치라는 진로 교육을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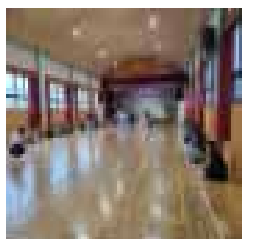
드론수업



코딩수업



5-6학년창의미래교실

종이비행기날리기
렉처콘서트

3

다양한 빛깔을 담은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빛깔들이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 안에 담아낸 다양한 교육과정들로 학생들이 교육과정안에 들어와 만들어진 빛깔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교육과정밖에서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며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음을 느끼도록 열개를 교사들이 고민하고 엮어서 만들어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교사들이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이 생각들을 교육과정내에서 제시한다. 양촌 어울림 한마당과 같이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대본을 만들어 스스로 역할을 분담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정하고 발표하는 행사성이 강한 활동임에도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또한 교육의 공동체인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을 고민을 통해서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그려보고자 한다.



모두 함께 읽·견·쓰 합일교육공동체 한마음걷기대회

학 교 명	합일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1학급(152명)
소 재 지	강화군 강화읍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교직원, 학생, 학부모 교육공동체가 함께 읽·견·쓰 활동 추진 - 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 도모		

1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다시 시작하다.

● 2022년, 멈추었던 교육공동체 활동의 부활

2022년,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학부모 다모임과 학생 다모임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행복배움학교 8년을 거쳐오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갔던 합일의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았다. 큰사람여름학교 1박 2일 어울림 캠프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교육활동에서 안전과 방역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제약이 많았으므로 다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 해 가을, 합일교육공동체 한마음걷기대회를 새로운 활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2년이 넘는 공동체 간의 소통의 공백을 채우고자 계획했던 교육공동체 한마음걷기대회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다시 학부모님들은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학생들은 선배와 후배가 함께하는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됨으로써 배려와 공감을 배우게 되었다. 교직원들도 학년군 중심의 활동에서 학교 전체가 함께하는 활동으로 다시금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저력으로 우리는 다시 결대로자람학교 3기를 이끌어내었다.



2022 합일교육공동체 한마음걷기대회

2023년, 두 번째 교육공공체 한마음걷기대회 준비

작년에는 강화나들길 15코스의 남쪽코스로 남문-남장대-국화저수지-학교로 돌아오는 코스로 활동하였고, 올해는 우리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강화읍을 둘러싼 강화성곽길을 중심으로 4대문을 돌아 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강화읍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번쯤 가보았을 강화 4대문을 모두 둘러보았다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역사의 숨결이 녹아있는 강화 성곽길을 걷기대회 코스로 정하여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걸으며, 느끼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읽고, 걷고, 쓰기의 활동으로도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관련 활동을 연계하게 되었다.

2

모두 함께 읽·걸·쓰 합일교육공동체 한마음 걷기대회

강화성곽길 걷기대회 코스 선정



한마음걷기대회 최종 코스(총 5.5km)

행사일 3주 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하면서 선생님 3분과 함께 코스 사전답사를 다녀오게 되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걷는 활동이니 코스의 난이도나 거리, 위험요소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였다. 첫 번째 답사 이후 교사 다모임을 가졌고, 회의 결과 서문을 통하여 성곽길로 오르는 코스, 북장대에서 동문으로 내려오는 급경사 등의 어려운 코스 등을 수정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도출하였고, 이후 2번의 추가 답사와 행사 리본을 다는 최종답사까지 총 4번의 답사를 통해 총 5.5km의 코스를 선정하였다.

한마음걷기대회 읽기자료 제작

지난해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걷는 것에 충분히 만족했지만, 올해는 우리 마을 역사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읽기자료를 제작하였다.

읽기자료의 내용은 4대문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편액(현판)의 글씨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4대문의 수호신인 백호(서), 현무(북), 청룡(동), 주작(남)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유일하게 진송루(북문)에는 수호신의 그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읽기 자료를 퀴즈와 미션 형식

으로 답았다. 아쉬운 점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음에도 북문 수호신 벽화가 없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은 한 곳, 한 곳 실제로 답사해가면서 4대문에 얹힌 이야기를 읽고 배우는 과정을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였고, 함께 서로 알려주고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학생들 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들도 강화 4대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활동에서 활용된 읽기자료는 합일교육공동체에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읽기자료 표지



첨화루(서문)



진송루(북문)



망한루(동문)



안파루(남문)

● 활동을 위한 다양한 준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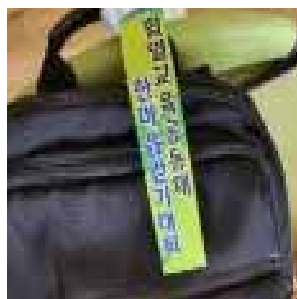
이후 걷기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나씩 준비하였다.

먼저, 학생다모임 활동에서 어울림 모듬별 모듬을 상징하는 깃발을 제작하였고, 모듬장의 가방에 꽃아 모듬별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혹시 걷기대회 중 일어날 수 있는 이동 동선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회 리본도 제작하여 코스 중간 중간에 리본을 달아 두었고, 학생의 가방에도 하나씩 리본을 달아주어 공동체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한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제동행 걷기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참가자 전원을 위한 단체모자를 제작하게 된 것은 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목적을 살려주기에 충분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걷기대회를 완주한 학생들을 위한 완주메달을 제작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학생 어울림모듬 깃발



행사 리본



참가자 단체모자



완주기념 메달

● 읽고, 걸으며, 쓰는 교육공동체 한마음걷기대회 활동

10월의 마지막주 목요일,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 총 220여 명이 함께 운동장에 모여 출정식을 가지고 힘차게 학교를 출발하였다. 학생 모듬장의 인솔 아래 모듬별 지도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걸으며, 활동을 도왔다.

강화공설운동장을 시작으로 성곽길을 관통하는 동락천의 징검다리를 지나 서문에 도착하였다. 읽기 자료를 읽고 관련 자료를 찾으며 미션활동을 수행하며, 조별 학생들이 함께 협동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북문이 위치한 북산공원에 도착해서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단체사진을 찍었고, 북장대터에 올라서는 학생들의 간이 댄스공연 및 북한이 바라다보이는 전경을 배경으로 전체사진을 찍으며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을 만들게 되었다.



동락천 징검다리를 건너는 일행



진송루(북문)에서



북장대 터에서 단체 기념사진

● 서로 격려하며 이루어 낸 걷기대회 완주, 사후 쓰기활동

5.5km가 넘는 거리를 한 번에 걷기는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다. 모두가 완주를 목표로 한 걷기대회이지만 학생들의 개인차와 건강을 고려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완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였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파서 더 이상의 걷기가 힘든 친구들은 북문 기점에서 학교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였다. 물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노력한 이들에게도 완주메달을 수여하였다. 몇 명의 친구를 제외한 모든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학교에 도착하였다. 학부모님들과 몇 교직원들은 학교에 미리 도착하여 학생들을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였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학생들이 완주메달을 받아 들고 서로 기뻐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점심식사 이후 이어진 사후활동으로 쓰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년별 특성에 맞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과 그림 또는 글을 통하여 이번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점이나 소감을 적게 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힘들었다고 하였지만 매우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고, 힘든 일을 해낸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낀다는 소감들이 많았다. 또한 강화 성곽길을 걸으며 우리 마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게 된 것에 대한 보람 등을 작성하였다.



참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완주한 학생에게 메달수여



걷기대회 활동 후 후기작성

3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아름다움

● 함께하는 기쁨과 보람이 지속되길

학교를 구성하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고, 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공동체 소멸의 위기 속에서 시작한 교육공동체 걷기대회가 두 번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기쁘다.

최근 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나 아동학대 등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보아도 교육공동체간 소통과 협력,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활동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러한 공동체가 모두 모여 함께하는 활동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것이 아쉽다.

학생의 성장을 이끌고 이를 돕는 학교 교육의 장 안에서 학부모, 교직원, 학생 모두가 함께 참여 하는 활동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 학교의 혁신, 교육의 혁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만나고, 대화 하며, 무언가를 함께하는 활동에서부터 민주적 공동체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사람의 향기가 피어나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고, 그런 곳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

강화(江華)에서 나고 자람 강화(強化) 교육

학 교 명	갑룡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5학급(554명)
소 재 지	강화군 강화읍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지역 연계 '강화 생태환경·평화·역사 프로젝트' 교육과정 -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고 가꾸는 생태환경교육 - 함께 일구는 평화로운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 나고 자람 고장의 역사를 배우며 미래를 가꾸어 가는 교육		

1 강화의 발견, 삶을 위한 배움이 있는 곳

“네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 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엄마는 믿어.”

- 영화 '리틀 포레스트' 중 -

강화도는 삶의 다양한 풍경과 소리가 듬뿍 담긴 풍요로운 곳이다. 강화갯벌과 저어새,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가득한 터전과 그것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지역공동체, 그리고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 강화에서 우리 아이들은 나고 자란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며 그러한 강화도의 풍부한 교육 자원을 통하여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자기만의 숲을 만들고 가꾸어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기를 바란다.

이러한 바람을 담아 「배움·나눔·채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를 비전으로 하는 우리 학교는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생태환경·평화·역사 프로젝트〉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 손 잡고 나아가는 지역 교육 공동체

강화도의 교육 공동체의 인적, 물적 인프라는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읍 외 11개 면 소재지 100여 개가 넘는 시설과 52개 교육기부센터를 소개하고 있어 학교는 보다 쉽게 시설을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강화군 문화관광 안내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 지도



강화교육지원청 교육기부센터

● 기후생태환경·평화·역사 프로젝트 계획

강화의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신나는 강화 창의체험학습,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통합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영역	추진 내용	지역 연계	대상
생태 환경	○ 학교 실습지 활용 식물 재배, 식물 생태 관찰 ○ 자연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 ○ 갑룡 나눔장터 운영 ○ 학부모와 함께 하는 친환경 물품 만들기	교내 강화갯벌센터 외 교내 교육 공동체 학부모 지원 활동	1~6학년 희망학년 1~6학년 1~6학년
평화	○ 문화예술교육 및 방과후 예술교육 ○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생활교육 ○ 공감 감성 소통 캠프(사제동행 캠프) ○ 또래집단 상담 활동 ○ 동아시아시민교육	교내 오케스트라 소리샘 수시 교육 교동 화개정원 외 사진심리연구소 외 놀이 지원 전문가	1~6학년 1~6학년 6학년 5, 6학년 1~6학년
역사	○ 강화사랑 창의체험학습 ○ 강화 역사 탐방 체험학습	학년별 특색화 (도래미마을 외) 문화유적 스토리 워크 외	1~6학년 3~6학년

2

우리 아이들 인생의 작은 숲 만들기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고 가꾸는 생태환경교육

강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갯벌이 드넓게 펼쳐져 있으며,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419호의 저어새가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환경을 품은 지역이다. 도대체 이 좋은 생태환경교육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삶에 담고 함께 미래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교의 생태환경교육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과정이자 강화의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고 가꾸어 가는 일상을 품는 교육이다.



저어새와 습지 생물다양성에 관련된 전문가(저어새생태학습관, 저어새와 친구들)와 함께

- 저어새 보전의 필요성
- 저어새와 물새 등의 서식지로서의 습지 보존에 대한 인식
- 지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생물다양성이 필요하다는 마음의 다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교육 활동을 통하여

- 우리 고장 강화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종류와 개체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증진
- 우리 고장의 환경 및 생태계를 지키려는 마음과 애향심의 함양

저어새와 멸종생물 교육



인천학생교육원 해양환경체험학습장(화도면 장화리)에서 갯벌 해설사와 함께

- 갯벌 생태 체험을 통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
-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 도모

바다와 갯벌, 강화 해양&환경 체험 활동

● 함께 일구는 평화로운 삶에 섰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오해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한다. 다양한 국적의 부모와 아이들이 많은 강화에서 이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친구, 이웃, 마을과 고장 곳곳의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며, 배려와 존중을 통해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문화를 나누고 배우고 알아가는 선량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 활동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해내는 우리 아이들은 강화의 자람이자 긍지의 세계시민으로의 성장하는 것이다.



다문화 전통 놀이 체험(교육지원청 지원 놀이 강사 외)을 통하여

- 다양한 문화 이해와 인정의 태도 함양
- 또래 관계 회복과 공동체 상호작용 활성화

아침을 여는 오케스트라 ‘소리샘’ 공연을 통하여

- 예술 감수성 자극을 통한 회복적 생활 태도 함양
- 문화예술 생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향유하는 수준 함양

나와 우리, 세계를 품는 예술&문화 교육



‘찰칵, 우리다움’ 학급 상담 프로그램(사진심리연구소 루모스 외)을 통하여

- 자기 심리 상태의 발견과 이해
- 공감과 이해, 인정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호관계 형성과 유지 도모

또래집단 상담 프로그램, 사진으로 배우는 나

● 나고 자란 고장의 역사를 배우며 미래를 가꾸어 가는 교육

강화를 깔끔한 분식집을 지나쳐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 아담하고 단정한 철종 외가를 만날 수 있다. 일상에서 친근하게 스며든 유적이 있는 반면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는 광성보의 어드매를 걷다 보면 가슴 뭉클하고 뜨거운 애국심이 타오르기도 한다.

강화 삶과 역사의 현장은 오래 묵어 익숙하고 우아하며 하루하루 함께하는 일상이다. 살아 숨 쉬듯 생생한 유산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와 미래는 현재처럼 생생하게 읽혀지고 있다.



도래미 마을, 교동 대룡시장 외, 해든뮤지움 등 강화의 삶이 녹아 있는 현장을 통하여

- 내 고향 강화의 생활문화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삶의 터전으로써 자부심과 긍정적인 인식 함양
- 강화의 특색있는 자연과 문화환경 유지에 대한 인식 증진

강화 사랑 체험학습



강화 문화유적지 스토리워크 도보해설을 통하여

-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과 교육과정에서 학습할 내용에 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
- 교실 밖 고향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창의성 사고 유발

강화 역사 탐방 체험학습(고려궁지, 대한 성공회 강화성당, 용흥궁 외)

3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힘’을 키우는 슬기로운 강화(江華&強化) 교육

살다보면 사람은 인생에서 각자 작은 숲을 가지게 된다. 그 숲은 사계절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바라본다면 우리 아이들의 ‘숲’은 따뜻한 쉼이 있고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큰 자리가 있는 이곳, 강화였으면 좋겠다.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지속 가능(sustainable)한 삶이다. 강화에서 터 잡은 가정, 학교, 마을 공동체 그리고 지역의 물적, 인적 인프라를 통해 가치 높은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지속 가능하도록 가꾸고 지켜 주기를 바라본다.

인성·꿈·건강이 함께 자라는 행복한 자연학교

학 교 명	명신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6학급(53명)
소 재 지	강화군 하점면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2.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 자연을 담은 계절학교로 함께 자라는 행복한 자연학교		

1

명신 예뻐이들의 외침 “명신초등학교에 다녀서 행복해요!”

● 설렘으로 다가오는 등하교시간 3시간 30분!

강화군 하점면에 위치한 명신초등학교 학생 53명 중 서구 검단지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이 34명, 기타 김포등의 지역에서 오는 학생 4명, 강화지역 학생 15명이다. 강화지역 학생 15명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등하교시간만 3시간에서 3시간30분이 걸린다. 1년 내내 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명신초등학교 학생들은 행복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힘들거나 지루하다 하지 않고 이 먼거리, 긴시간을 들여 기꺼이 명신초의 아침을 맞이한다. 검단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오는 차량에서 잠을 청하고 왔기에 내리는 순간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내리지만 아침맞이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명신초의 교정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한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학부모님들은 이야기 한다.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힘들면 전학갈까? 라고 물으면 오히려 “명신초등학교가 최고예요.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데요.” 답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들이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학교! 그 곳이 명신초등학교이다.

2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자연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운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학교 운영으로 자연속에서 어우러지는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연계 교육과정, 농촌의 특성을 살린 생태 환경 교육, 심과 놀이가 있는 교육과정, 다양한 체험과 배움을 실천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AI 교육등을 연간 계획하고 운영하여 인성·꿈·건강이 함께 조화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가 3주체 협의회 및 다모임을 통해 계절학교 주제와 내용을 협의하여 반영하였다. 무학년제인 꿈타래동아리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토론 토의를 병행하여 정해진 주제와 활동 내용은 교육목표 달성과 함께 더 큰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 2023학년도 사계절학교 운영 내용 〉

봄 계절학교	여름 계절학교
놀이 및 생태체험 <신나는 놀이동산>	농장 및 생태체험 <체리 팡팡!!>
파라다이스시티 원더박스 및 생태체험	체리주아농원 및 연미정 -체리따기 및 맛보기/ 연미정 및 월곶돈대 탐방 및 역사해설
미래 체험 <드론과 AR의 세계로!>	놀이 체험 <신나는 워터파크 세계로!>
드론카페 스카이라크-드론만들기 키트로 드론만들기, 드론 날리기, 드론 축구, 총쏘기, AR체험 등	원마운트-워터파크 체험
농장 및 생태체험 <딸기 따러가세>	스포츠 및 놀이 체험<빙상위에 펼쳐는 꿈>
감성딸기밭및 화개정원 -딸기 따기 체험, 딸기아이스크림 만들기, 동물먹이주기, 자연 생태 관찰 등	선후빙상경기장 -스케이팅 강습 및 체험, 아이스피트 강습 및 체험
가을 계절학교	겨울 계절학교
놀이 및 생태체험 <파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전통 및 놀이체험 <떡마을 >
밤따기체험 및 밤,고구마 찌서 먹기	두텁단자 만들기 및 장담그기 체험
놀이 및 생태체험 <툼아저씨 트리하우스>	미래 및 놀이 체험 <실감콘텐츠 탐 및 월미테마파크>
목공체험, 모닥불 음식 구워먹기, 숲속 놀이터 체험, 트리하우스 내 독서, 나뭇잎 공예 등	실감콘텐츠 탐, 차이나타운, 월미테마파크 체험
생태 및 놀이 체험 <가자! 서울랜드로>	놀이 및 생태체험 <롤러장 및 동물원>
동물원 및 놀이동산 체험	롤러스케이팅, 동물원 및 키즈카페체험



딸기농장 체험



스케이팅 체험



트리하우스 체험



장담그기 체험

● Reader에서 Leader로! 독서교육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되는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연중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지역사회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책 읽어주는 선배, 책 읽어주는 어머니 등의 활동으로 누구나 독서Leader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이나 동화책 작가 등을 초대하여 깊이 있는 독서 활동을 진행하였고, 북콘서트 등을 기획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었다.

활동	『사제동행 독서114』프로젝트 - 사제동행 아침맞이 독서 활동	명신 독서 활동 프로그램
시기	연중운영 (전 학년)	3~12월 중(전 학년)
방법	• 도서관 대출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 • 일주일에 2~3회 실시, 아침활동 시간 • 아침 독서 4원칙 지키기 ① 모두 읽어요② 날마다 읽어요 ③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④ 그냥 읽기만 해요 • 담임교사와 함께 읽는 행복한 시간 마련	• 학년별 책놀이 ▶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 놀이 전개 • 도서관 놀이 Day ▶ 이루라 책방 및 바람숲 그림책 도서관 체험(지역 도서관)
활동	낭독학교	전문가와 함께 하는 책놀이
시기	3~12월 중(전 학년)	연중
방법	• 학생 스스로 책을 찾아 소리 내어 읽는 독서문화 조성 • 학급 낭독회, 책 읽어주는 선배, 책 읽어주는 어머니 등 • 책과 친해지기, 나도 작가 프로젝트, 진로 체험 등 학년별 프로그램 전개	• 지역사회 도서관에서 독서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독서 흥미유발과 독서 의욕을 고취 • 독서 문화 경험을 제공하여 넓은 시야와 사고력 신장 • 작가를 초대하여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독서 심화 활동 전개 및 진로교육

● DREAM 프로젝트 진로교육

[나의 꿈], [나의 주장] 발표와 학기당 한번의 진로주간 운영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꿈 관련 롤 모델을 찾고 이를 활용한 진로 프로젝트 세우기, 직업 체험관련 체험 학습 실시 등으로 원스톱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 재능기부를 받아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커리어코치 수업으로 [나의 미래 찾기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연간 꾸준히 실천해 보았다.

2020년부터는 학생주도형 창의체험 활동으로 ‘쿠킹클래스’, ‘라이프스타일 클래스’, ‘아트클래스’, ‘3D & 컬러 클래스’, ‘융합 과학 클래스’를 진로주간에 개설하여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보다 특별한 즐거움과 놀랄만한 새로움, 가슴 두근거리는 감동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기대감 등 자신과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도록 해오고 있다.

● STAR 탄생 문화예술교육

음악, 미술, 체육,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영역별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명 신초등학교의 멋진 STAR를 배출하고 있다.

영역	운영내용
체육 재능 - 무용	- 문화예술 전문 강사와 무용활동(1~3학년: 22차시, 4~6학년: 23차시) - 함께 하는 신체 활동을 통해 배려하고 협동하는 감성을 지닌 바른 인성 함양
음악 재능 - 1인 1악기	- 학년별 교육과정 중심 다양한 악기 연주 - 방과후학교를 통해 관심과 재능이 있는 악기 연주- 피아노, 사물놀이 - 음악오감놀이로 주1회 기타 연주 및 발표회
미술 재능	- 자연과 함께하는 공예 체험 - 마을연계 문화예술활동(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을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연극 재능	- 교육과정 중심 다양한 연극 표현 활동 전개 - 전문 연극인과 함께하는 연극 수업 전개 및 발표회
미적 감수성	- 박물관 견학 및 전시회 감상 -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3

함께 빛나며 성장하는 명신 STAR를 꿈꾸며



행복나눔학교, 자율학교, 마을연계 모델학교, 작은학교 두레교육과정, 결대로자람학교 등을 운영하며 지난 몇 년간 정말 다채롭고 새로운 체험학습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해 오면서 명신 교직원들의 학생 만족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한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교사 및 교직원들은 매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교직원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은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들도 느끼고 행복하고 감사해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순간 협업하고 협의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학생만족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진심과 최선의 마음은 어디서나 통하는 매직이다.



넘나드는 배움, 함께하는 학교. 양사 꿈자람 터

학 교 명	양사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6학급(43명)
소 재 지	강화군 양사면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4.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생 주도성을 살리는 학생 자율동아리 및 아양품학 교육과정 반영 - 꿈자람 초록학교 운영 중심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특성화 및 다양화 - 양사 마을교육자치회 출범을 통한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1

학생 주도성을 살리는 학교 교육과정

● 원하는 대로 배우며, 하고 싶은 것을 배워보기

- 2024학년도 상반기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공고(양사 다모임 및 학생 직접 제작)
- 공고 후 학생 자율동아리 오디션 (학생 심사위원회 구성 후 선별)
- 학생 자율동아리 선정 및 교사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반영(학생-교사 간 협의)
-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교사 학생 선택 및 학생 교육과정 운영안 협의
- 요리부, 축구부, 밴드부, 마술앤'n 쇼츠제작부, 놀이 활동부 5개 부서 운영
- 차년도 교육과정 반영 및 학생 자율동아리 방과후 부서로 확대 운영 예정

● ‘아름다운 양사, 품격있는 학교’ 교육연극 프로젝트

- 학생 다모임 및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아름다운 양사, 품격있는 학교’ 운영
- 지역 연계 젊은 예술인 모임_강화 배우 농부 협동조합 ‘조롱박’ 프로젝트 연극 관람
- 극단 어니스트와 협력 학년별 연극 프로젝트 운영_교육과정 학년 별 16차시 반영
- 연말 양사 교육과정 발표회에 연극 공연 발표 예정

2

아름다운 양사 품격있는 학교 - 꿈 자람 초록학교



봄·여름·가을·겨울_양사 꿈자람 초록학교 운영

- 봄 꿈 자람 초록학교 운영(2023. 4. 17. ~ 2023. 4. 21.)

- 프로젝트 운영주제: (진로, 평화) 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행복한 봄나들이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즐겁고 행복한 봄 나들이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우리	꿈을 찾아 떠나는 우리

- 프로젝트 활동: 봄 체육대회, 도시문화체험, 교육기부, 진로교육, 승마학교, 봄꽃 음식, 평화마을 걷기(공통 및 선택)

- 여름 꿈 자람 초록학교 운영(2023. 7. 3.~2023. 7. 7)

- 프로젝트 운영주제: (환경, 생태 전환) 나와 지구를 살리는 Clean 환경 프로젝트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환경과 우리의 관계 일기	생활 속 환경보존의 방법을 알고 태도 기르기	지구를 살리는 Clean 환경 프로젝트

- 프로젝트 활동: 학부모 교육기부, 토털공예, 미래교육, Up-cycling 제품 만들기, 농부교실 등 (공통 및 선택)

- 가을 꿈 자람 초록학교 운영(2023. 10. 16.~2023. 10. 20)

- 프로젝트 운영주제: (평화, 인성, 세계시민) 올바른 역사와 문화 인식을 통한 대한민국 대표 알림이 되어보기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우리 고장의 인물과 역사 살펴보기	강화의 유무형 문화와 산업 조사하기	대한민국과 강화의 문화 알리미 되어보기

- 프로젝트 활동: 농부 교실, 강화문화체험, 예술문화체험, 다도 교실, 해양스포츠(카누) 및 도시 문화, 미디어 체험, 플리마켓, 가을레포츠(공통 및 선택)

- 겨울 꿈 자람 초록학교 운영(2023. 12. 11. ~ 2023. 12. 15.)_예정
- 프로젝트 운영주제: (진로, 환경, 평화) 배움과 경험이 현실이 되는 글로벌 리더 되기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
장래에 내가 하고 싶은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알아보기	글로벌 리더

- 프로젝트 활동: 목공체험, 로봇교육, 마술공연, 진로교육, 눈썰매, 스키캠프(공통 및 선택)

3

양사 함께 꿈을 그린다 - 양사 마을교육자치회와 함께 교육과정 그리기

○ 양사 마을학교 - 찾아오는 승마 클럽 활동

- 꿈자람 초록학교 운영과 연계 지역의 승마클럽과 협업하여 학교로 찾아오는 승마학교 운영
- 강화도 내 다양한 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교육활동
- ‘말’을 통한 동물 보호 활동(강화도 내 로드 킬 방지 동물 보호하기 운동)
- ‘말’을 통한 강화도 역사 이야기 배우기(왜! 강화도에 말 목장이 많을까?)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한 마을 영화 상영회

- 미디어 교육 전문 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 재단과 협업을 통한 마을 영화 상영회 운영
- 인근 학교 및 유치원 등과 함께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동 실시(인근 5개교)
-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마을 영화상영회 운영
- 영상 미디어 교육 지원으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 영상 축제 참여

○ 제 2회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참여 프로젝트 수업 활동

- 강화도 내 동화·가곡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총 20차시 이상 프로젝트 수업 운영
- 그리운 금강산 작사, 작곡가의 삶에 대한 교육을 통한 애향심 키우기
(한상익 작사, 최영섭 작곡가 강화 출신의 발자국 찾아보기)
- 제 2회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무대 참여하기 활동

○ 인천 카누연맹, 강화 궁도 협회와 함께한 카누 및 국궁 활동

- 강화도, 동북아 해상 교류 중심의 고려 역사 살펴보기
- 강화 궁도 협회와 함께한 국궁 체험활동_고려 향몽활동 살펴보기
- 카누를 통한 마을 돌아보기(삼별초 향몽 유적 살펴보기)

○ 마을교육자치회 협약을 통한 마을교육 네트워크 강화

- 강화 양사면 다양한 마을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마을교육활동 실시
- 찾아오는 문화 축제 '강화 양사 마을 축제' 운영_강화군 협업 활동
-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을교육자치회 출범

○ 2023학년도 주요 마을교육 연계지도 활동

주제 (프로그램)	운영 내용	운영학년	연계기관 (마을자원)
양사 마을 승마 학교	- 찾아오는 승마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교육활동 가. 강화도 말과 함께하는 동물 보호 교육 실시 나. 강화 말을 통해 배우는 역사 교육 이야기 다. 몸 마음이 건강해 지는 승마교육활동	1-6학년	강화도 자연체험 농장
양사 꼬마 농부 학교	- 학교 텃밭을 이용한 농작물 기르기 가. 봄 꿈자람 초록학교 감자, 고구마 심기·수확하기 나. 수확작물 이용한 양사 플립마켓 다. 학교 텃밭 수익금 양사면사무소 기부 활동 (마을 어르신들 위한 나눔 이어가기)	1-6학년	양사마을 교육공동체 ·양사 학부모회
카누로 떠나는 마을 탐방	- 인천카누연맹과 함께한 해양스포츠 체험활동 (일일 카누체험을 통한 인천 둘러보기)	1-6학년	인천카누연맹
미디어를 통한 마을 잇기	-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미디어 체험교육	1-6학년	인천시청자미디어 센터
마을영화 상영회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하는 마을 영화 상영회 (양사초등학교 운동장 대형 스크린을 통한 마을 영화 상영회)	1-6학년	시청자미디어재단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참가	- 교육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제 2회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참여	3-6학년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운영협회
양사 갯별탐험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해양체험학습센터와 함께 갯별 체험교육 활동	4-6학년	인천학생교육원
강화 국궁체험	- 강화 궁도협회와 함께한 국궁 체험활동		강화 궁도협회

4

결대로자람학교 1년 -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양사초등학교의 결대로자람학교 1년 차 학교입니다. 결대로자람학교 관련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많은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양사마을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덧붙이고 있기도 합니다. 마을의 곳곳을 탐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선진 사례를 찾아보려 교사 중심의 서울 선진 탐방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늦더라도 같이 어깨동무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도 최북단에 있는 초등학교 양사초등학교는 미래를 아이들과 함께, 마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래를 향해 씨 뿌리는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양사초등학교입니다.



양사 마을 거닐기(승마)



강화도 갯벌 탐방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양사 마을 거닐기(카누)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



마을 영화상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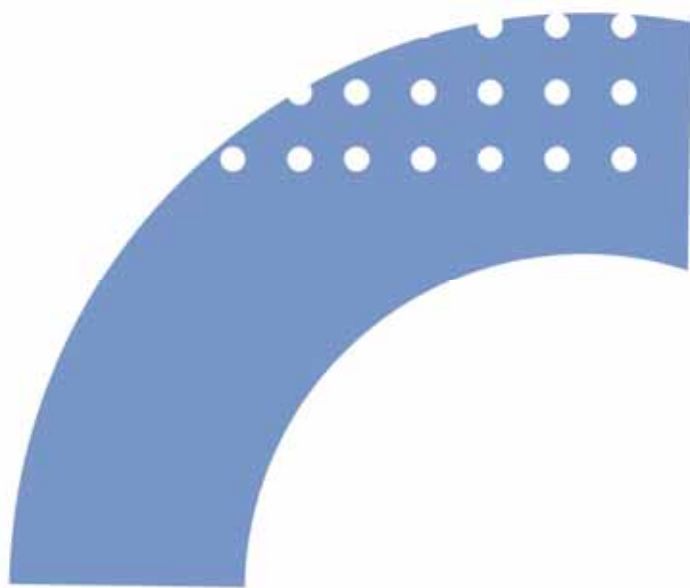
강화 궁도 국궁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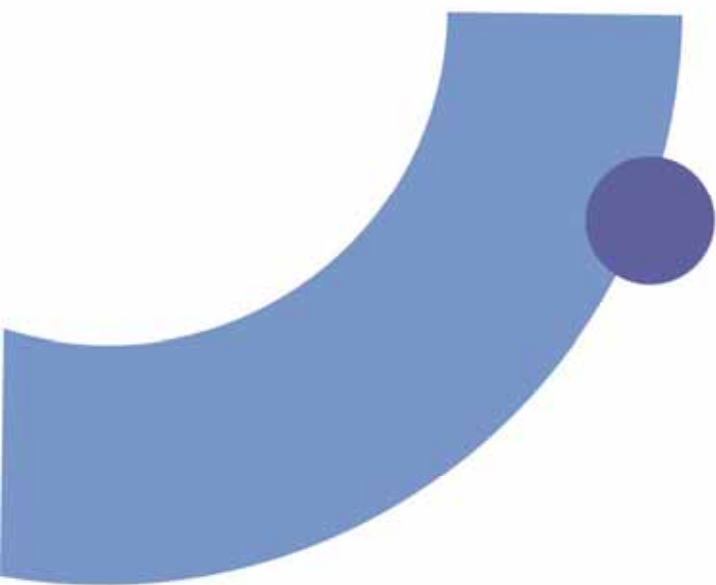
양사 예절학교



양사 꼬마 농부



중등 · 특수



마을에서 자라는 세계시민

학 교 명	신흥여자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7학급(398명)
소 재 지	중구 신흥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마을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해 및 탐구, 실천 활동 - 교육과정 연계 통합 프로젝트, 자유학기제 연계 활동, 교과 내-교과 간 활동 추진		

1 마을에서 자라고 세계로 향하는 아이들

인천시 중구는 항구의 문이 열리고 개항장이 만들어지면서 외국의 문화가 전파된 곳으로, 현재는 바닷길과 하늘길의 시작점에 위치한다. 인천시 중구라는 마을에서 자라고 있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올해 본교는 ‘마을에서 자라는 세계시민’이라는 교육목표를 세웠다. 마을에 관한 배움과 마을을 통한 배움이 일어나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마을 연계 세계시민교육이 특정 학년이나 특정 교과에 집중되지 않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마을에서, 세계로 향하는 교실

● 마을연계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흥미 돋우기

학생들이 마을연계 세계시민교육에 관하여 쉽게 이해하고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학부모회가 주관하여 따뜻한 인사와 정성 담긴 선물로 등교맞이를 하는 ‘엄마품 Day’, 어버이날 맞이 감사한 분께 직접 만든 카네이션 키링과 편지를 전하는 ‘효도해 孝’ 이벤트, 국립 오페라단이 본교에 직접 방문하여 오페라 공연을 펼친 ‘학교로 찾아가는 오페라 - 사랑의 묘약’,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무엇 인지 공유한 ‘세계시민의 날 9!8!’ 이벤트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이해하고 확장 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엄마품 Day



효도해孝 이벤트



학교로 찾아가는 오페라



세계시민의 날 이벤트

● 교육과정 연계 통합 프로젝트 1. 마을에서 놀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교육 결손 해소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면서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몸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인권 이해 및 존중 태도 형성을 위한 ‘마을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학기 말에 운영하였다.

‘마을에서 놀자’는 1부 마을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놀이 교육과 2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문화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놀이 교육으로 1학기에는 풍선을 인권으로 상징화하여 규칙에 맞는 게임을 통해 인권을 경험하는 활동, 2학기에는 팀빌딩 활동을 통해 나와 너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문화체험활동으로 1학기에는 단편영화 ‘페루자’ 감상 및 영화 주인공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 소재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는 커피박 연필 만들기, 아동학대 및 차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하는 블루리본 보석십자수 키링 만들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2학기에는 MBTI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나를 이해하고 소개하는 미니북을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를 확장하는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놀이 교육



주인공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블루리본 보석십자수 키링 제작

● 교육과정 연계 통합 프로젝트 2. 읽·견·쓰!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

읽·견·쓰!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 활동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기를 기대하며 계획되었다. 신흥여중에는 ‘창의인성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교과별로 다양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활동을 구상하고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착안하여 역사 교과에서는 개항장 체험활동 코스 계획 세우기 및 체험 활동지 제작을 계획하였고, 최우수작으로 뽑힌 학생 작품을 기초로 하여 중구청 교육지원사업인 중구마을 구석구석 탐방 활동을 구상하였다.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국어 교과에서는 놀이 수업을 통해 인천 중구의 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와 행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역사 교과에서는 개항 이후 조선의 역사와 개화기 신문물의 도입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개화기 의상을 직접 입고 개항장 역사·문화거리를 누볐고 대불호텔전시관, 개항박물관, 인천근대건축전시관 등을 둘러보았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들을 방문하였다. 신평국제시장과 차이나타운에서 음식문화를 체험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에서 영상문화 체험활동을 하였으며, 인천 중구에 남아있는 김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를 탐방하였다.



국어과 마을 놀이수업



개항장 일대 탐방



청년 백범 김구 역사거리 탐방

● 자유학년제 연계 활동 - 마을과 세계를 만나다

자유학년제의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과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녹여내고자 하였는데, 우선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주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일구는 마을 텃밭’ 활동이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직접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였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실천하며, 수확한 농산물은 이웃에 기부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 동아리 학생들은 밀거름 주고 밭 갈고 밭 고르는 것부터 모종 및 씨앗 구입, 모종 심고 씨앗 뿌리기, 비료 주기, 버팀목 세우기,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등교하여 물을 주고 가꾸었으며 수확을 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렸다.

‘축구로 만나는 우리마을’ 동아리는 창단 이래 강등된 적이 없고, 인천시 중구에 축구전용 경기장이 있는 인천유나이티드FC를 통해 인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천시 홍보영상을 통해 인천의 슬로건·캐릭터·랜드마크 찾기, 인터넷 전자지도를 검색하여 인천시 중구에서만 찾을 수

있는 보물찾기, 인천유나이티드FC 경기 관람, 관람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건의하기,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면 대박 날 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음식 메뉴 개발하기, 인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포함하여 유니폼 디자인하기, 인천시와 인천유나이티드FC를 홍보하는 머그컵 만들기 등을 하였다. 축구를 매개로 하여 인천시와 충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교실에서 자라는 세계시민’ 주제선택 강좌는 UN이 정한 열일곱 가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해 및 탐구를 기본으로 활동하였다. 세계시민에 관한 인식을 키우는 그림책 함께 읽기, 인간·지구·번영·평화·파트너십과 관련된 영화 감상 및 토의하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블루리본 보석식자수 키링 만들기·바다유리 업사이클링 종이방향제 만들기·실팔찌 만들기·지속가능발전목표 홍보 머그컵 만들기 등을 하였다.

그 외에도 동아리 목공예에서는 이동식 나무의자를 만들어 등갓길에 배치함으로써 학생들뿐만 아니라 마을 이웃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아리 감성 D.I.Y.에서는 인천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개발하여 적용한 미니 거치대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마을 텃밭 가꾸기



축구로 만나는 우리마을



이동식 나무의자 설치



인천 상징 미니 거치대

● 교과 연계 활동 -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경매 활동

올해 2월 튀르키예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를 교과와 연계하고 학생들의 사회체험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던 중에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회과와 과학과, 기술·가정과에서 다뤄지는 자연재해를 주제로 하여 개념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이 자연재해 중 한 가지를 골라 자연재해의 의미와 발생시기 및 원인, 긍정적·부정적 효과와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 수칙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진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자원순환교육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기부받아 학급별 경매 활동을 하고 그 수익을 튀르키예 대사관에 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냈다. 학생들은 튀르키예 지진을 통해 자연재해가 먼 나라의 동떨어진 일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기부 및 경매 활동을 통해 먼 나라 이웃의 피해를 돕고 위로하는 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자연재해 자료 전시회



경매 활동



튀르키예 대사관에 기부

3

우리 교실이 위치한 마을에서 세계를 보다



우리 아이들은 마을에서 자란다. 마을의 역사를 바탕으로 삼아 마을의 문화를 누리고 마을의 정치와 경제를 경험하며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간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교실에서 만난다. 이제 교실은 아이들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교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세운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업과 수업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내에서 교육활동이 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구성원의 참여와 소통,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학생 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혁신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결대로자람학교의 맥과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꿈 꿀 준비된 만수인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교육

학 교 명	만수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186명)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자원순환, 생태환경교육, 생태환경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여 에코포인트 획득 및 적립 - 학부모/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에코페스티벌 개최 - 적절한 에코포인트를 사용하여 친환경식단 체험, 친환경 소품 제작, 중고장터 등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 체험활동에 참여 - 에코포인트를 활용한 직접적인 보상을 통해 자신의 활동이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의식 향상		

1 목적

- 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 교과간, 주제중심 융합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확산적 사고 능력 함양한다.
-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실시하여 학교 홍보에 기여한다.

2 세부 실천 내용

- 교육과정 핵심 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추진시기: 2023년 2~3월
 - 참여대상: 전교직원
 - 내용
 - 2023년 2월 결대로자람학교 워크숍을 통해 수립한 학교 비전 ‘꿈 꿀 준비된 만수인’과 학년형 교육과정을 토대로 2023학년도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제 후보 중에서 교사, 학생 모두가 중요하다고 꼽은 ‘생태환경’을 주제로 선정했다.



워크숍 장면



학생들이 지녀야할 가치 선정

● 수업 설계 및 주제 관련 교육활동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 추진시기: 2023년 4월
- 참여대상: 전교직원
- 내용
 - 교과 및 교과간 수업 중심 생태환경 교육과정 수립
 - ▶ 국어/미술: 생태환경 문예 대회 운영
 - ▶ 기술가정: 친환경 소품 제작(목재)
 - ▶ 과학: 태양열 배터리 자동차 만들기
 - ▶ 영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여러 나라의 실천 방법·수경재배
 - ▶ 도덕: 생태환경 윤리
 - ▶ 사회/역사: 경제발전(산업혁명)의 의의와 부작용
 -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생태환경 교육과정 수립
 -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코 프로젝트 추진
 - ▶ 페트병 수거 로봇 운영(롯데케미칼-시교육청 협조)
 - ▶ 급식실 연계 '채식급식의 날' 운영
 - ▶ 생태환경 동아리 '리틀 파머스' 운영
 - ▶ 에코포인트 제도 운영(분리수거, 잔반제로, 환경교육참여 등으로 포인트 제공)
 - ▶ 에코페스티벌 운영(에코포인트 활용 부스체험, 친환경물품 구매)



[기술가정] 친환경 소품 만들기



[영어]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 준비



[생태환경 동아리] 플러깅 활동(걷기 + 쓰레기 줍기)



[생태환경 동아리] 텃밭 가꾸기와 텃밭 채소 회식



에코 포인트 적립 기준



에코페스티벌 전경



에코페스티벌 행사장(강당)



에코 마트(선생님 애장품 판매)



비건식 체험(대체육 핫도그)



학부모회 제작 천연 모기퇴치제 판매

● 에코페스티벌 관련 보도자료

- 인천광역시 블로그: 만수중학교 안에서 실천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로 실현해보자!
(<https://blog.naver.com/incheontogi/223158313176>)
- 뉴스핌: '내가 줄인 온실가스' 보상받는 체험 교육...만수중, '에코 페스티벌' 개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715000013>)

3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 사항

- 일관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조율된 핵심적인 주제 중심으로 운영한다.
- 교과간 공통 지도 요소 추출을 위한 평가계획 및 교육과정 협의회 실시한다.
-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회 및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연계하도록 한다.

4

학교문화, 공동체 및 교실의 변화



-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태환경과 마을에 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과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교과서를 통해 습득하여 명제적 지식을 경험적·절차적 지식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
- 교과간, 부서간 협업을 통해 교직원 사이의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 역시 융합 수업의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을 신장한다.
- 우리 마을과 학교에 관한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학교 홍보 활동을 강화에 기여한다.



RGS 교육과정 (알지? 선행!)

학 교 명	선행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6학급(364명)
소 재 지	연수구 선행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관계(R)를 통한 성장(G)과 공생(S)의 교육과정 - RGS 교육과정 사례1 : 소통 및 공동체 - RGS 교육과정 사례2 : 생태 환경		

1

관계(R)를 통한 성장(G)와 공생(S)의 교육과정

선행중학교는 ‘미래형 혁신학교’ 모델교로서 2021~2022년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중학교 미래형 교육과정인 RGS 교육과정을 수립하였다.



RGS 교육과정

선학중학교 교육과정의 중심 가치는 ‘관계’이다. 평화롭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과 공동체에 협력 및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선학중학교 교육 방향에 따라 각종 활동과 수업이 이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3월 개학과 함께 서클 및 공동체 활동으로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운영과 관련해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을연계사업을 통한 마을과의 관계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배움에 영향을 준다. 안정되고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생 중심의 모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탐구 중심의 수업이 운영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2 (소통)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3월 새학년이 시작되는 첫날에는 ‘관계’에 중점을 두고 학기 초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학생-학생 간의 관계, 학생-교사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기반으로 수업 활동 시 협력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2023학년도

학 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선학 디딤돌(안내서)

-학생용-



1. 입학준비물 및 선학생활규칙 준수사항

1. 입학준비물 및 선학생활규칙 준수사항
2. 입학준비물 및 선학생활규칙 준수사항
3. 입학준비물 및 선학생활규칙 준수사항

2.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1.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2.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3.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4.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5.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6.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7.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8.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9.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10.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3.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1.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2.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3.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4.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5.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6.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7.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8.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9.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10.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학생 안내서

2. 2023년 3월 새 학년 적응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학년	3월 3주 (월)			3월 4주 (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2학년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3학년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4학년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5학년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6학년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학급 안팎 선학과 어울림 프로그램

새학년 적응 프로그램 시간표

담임 소개 시간, 학급 공동체 놀이, 학급 서클, 평화를 위한 약속 정하기는 ‘관계’ 형성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첫날은 새롭게 만나는 친구, 선생님들 모두가 낯설고 질문을 트기도 어렵다. 공동체 놀이 시간에 자리바꾸기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섞이고 놀이를 하면서 긴장감을 풀게 된다. 학급 서클 시간에는 토크스틱만 가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비밀 보장 등의 서클 약속을 담임 교사가 간단히 소개하고 질문을 한다. 학기 초 서클의 질문은 주로 나를 소개합니다, 친구 사귀기에 대한 것이다. 써클을 통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면서 나를 알리고 서로에 대해 파악하게 된다. 담임 교사 또한 서클에 나온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급 운영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평화를 위한 약속 정하기 시간을 통해 학급 규칙을 정하는데 모두가 잘 배우기 위해 수업 활동에서 어떤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지를 의논한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학급 운영이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 중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에도 학급 규칙에 따라 의논하면 학생들이 더 잘 받아들이기도 한다.

업무 경감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 있다. 학기 초에 꼭 해야 할 담임 교사들의 업무들이 있다. 나눠 주고 모아야 하는 것이 산더미이고, 결정해야 할 것도 많다. 조회, 종례 시간에 짬을 내어 안내하고 건느라고 애를 먹었던 자기소개서 작성, 각종 봉사 도우미 선정, 표준화 심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짐으로써 담임 교사들이 학기 초 여러 업무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응 프로그램에는 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다.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지 우리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가야 할지 그것에 따라 우리 학교는 어떤 비전과 철학으로 수업하고 있는지 교장 선생님께서 안내하신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강조하고 모둠 활동에서의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공감, 배려, 협력 자세의 학습을 강조한다.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년 부장님도 말씀하시고 담임 선생님도, 교과 선생님도 “너의 생각은 어떠니?” 등 수업 중 모르는 것을 묻고 배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학급 서클



평화로운 관계, 배움의 공동체 철학

모든 교사가 교과 활동, 학급 활동에서 학교 비전과 철학에 대해 안내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니 학생들도 일관성 있고 안정적이게 모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함께하는 것의 긍정적인 효과는 학생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3

○ (생태환경) 중딩~ 지구를 지켜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3학년에서는 생태환경 영역으로 과학, 영어 교과가 함께 ‘중딩~ 지구를 지켜라’ 탄소중립 프로젝트 수업을 하였다. 과학 교과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복사평형의 관점에 설명하는 내용을 배우고, 지구 온난화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수업이 수업으로 멈추지 않고 질 높은 배움과 삶의 연결을 위해 학생들은 기후 행동 1.5°C 앱을 통해 기후 행동 실천 일기를 작성하면서 배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 학생들은 내가 실천한 기후 행동이 지구 온난화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실천 사례를 성찰하는 내용을 수행평가에 서술한다. 영어 교과에서는 환경문제를 위해 실천한 것들을 적어보게 하여 환경문제와 해결 방안을 영어로 표현해 보게 하는 수업을 한 후 기후 행동 실천 일기를 영어 블로그를 작성하는 수행평가를 하였다. 수업이 본인의 경험과 연결되었을 때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자기의 수준에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세운다. 또한 학생들은 모둠 활동에서 각자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적 대화를 통해 과제를 해결한다.



과학 수업 활동



영어 활동 결과물

이 프로젝트 수업은 환경 동아리의 협조를 얻어 3학년뿐 아니라 다른 학년에도 스쿨 챌린지를 통해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확대되었고, 과학과의 예산으로 열심히 기후 행동을 실천한 학생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했다.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 중 환경 관련 행사와도 연계하였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이동 수업 시 전등, 에어컨 끄기’ 등 학급에서 늘 하는 생활 지도는 더 이상 담임의 잔소리가 아니고 기후 행동을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행동이 된다.



기후 행동 실천일지



학생회 활동

수업과 학생 자치 등 학교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졌던 여러 활동들이 교육과정의 상위 목표 및 주제에 따라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활동에 임하게 되고 교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배운 내용의 삶 속에서의 실천을 경험할 수 있다.

4

나오며

미래형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선학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선학중학교는 학생들에게 오늘의 배움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행복한 삶을 이끌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이라는 교육 주체의 협력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고민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한다. 선학중학교가 내일을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근거는 선학중학교의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한해 한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성장’을 교육과정으로 구현하는 학교 공동체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나다움을 찾아가는 인천중학교

학 교 명	인천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4학급(284명)
소 재 지	연수구 연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독서에 재미를 더하다 - 읽·견·쓰와 함께하는 동아리, 교과 활동 - 결대로자람학교 글쓰기, 백서 출판		

1 독서에 재미를 더하다

○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

학기 초 학생들에게는 한 권의 책을 선물 받는다. “시간을 파는 상점”. 국어과 선생님께서 손수 한 권, 한 권에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학생들에게 주신다. 국어 교과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아침 조회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책을 읽기 시작한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업에 바쁜 시간이지만 문학적 소양과 함께 문해력을 키우는 노력을 점차 하고 있다.

○ 시간을 파는 상점 연극 관람

2학기 정기 고사 등의 일정이 끝난 후에는 독후 활동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파는 상점 연극 관람을 한다. 청소년 필독 도서로 선정된 김선영 작가의 책을 읽으며 시간에 대한 고민할 수 있게 하며 독서 후에 연극 관람으로 확장되어 독서하며 느꼈던 상상 속의 온조와 주인공의 관계를 엿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 김선영 작가와의 만남(시간을 파는 상점 지은이)

김선영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내가 보낸 시간이 나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작가의 강연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작가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설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었다.

● 북콘서트 관람

책과 관련된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 하는 북콘서트를 관람하며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친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흥겨운 시간과 책 속에 나오는 명대사들을 맛깔나게 소개하는 사회자의 진행에 퀴즈도 풀면서 책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책과 가까워지고 책 읽기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



연극 관람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2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걸·쓰」 연계 교육활동

● 전·학·공 「읽·걸·쓰 워크숍」을 구성하다.

읽·걸·쓰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브랜드로서 23~25년 역점과제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읽기, 걷기, 쓰기의 통합 활동이다.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 문해력 및 사고력이 발달해서 좋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글로 쓰는 활동까지 한다면 학생들의 변화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또한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과 사유하는 힘을 기르기까지 하니 지덕체(智德體)를 모두 겸비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

읽·걸·쓰 활동을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과정에 녹여낸다면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읽·걸·쓰 활동을 우리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전·학·공 읽·걸·쓰 워크숍”을 구성하였고, 우리 학교의 특징과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선생님들이 먼저 경험하고 의견은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읽·걸·쓰」와 연계한 교육활동의 활성화

- 동아리 활동 주요 사례

동아리	세부 내용
문화체험반	▶[읽] ‘인천역사여행’과 ‘안녕, 나는 인천이야’를 읽은 후, 인천길탐방과 재래시장 체험 계획서를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여 발표함. ▶[걸] 인천길탐방(학교→신연수역→센트럴파크역→트라이볼, 센트럴파크→인천역사박물관→G타워→국제세계문자박물관), 신포시장 체험 ▶[쓰] 독서 후에 걸으며 느낀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짐  ‘나는 인천이야’ 읽기  센트럴파크 걷기  소감문 작성
동아리	세부 내용
과학탐구반	기후변화의 이해와 공감 ▶ 기후변화 사례 - 도서 「도시에 저어새 섬이 있어요」 - 도서 「그레타 툰베리가 외쳐요!」 ▶ 기후변화의 개념 학습-멸종위기종 특강 ▶ 지역연계 생태환경교육 - 승기천 생태탐방 및 남동유수지 탐조활동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탐구 ▶ 플라스틱 사용 문제 해결 과학기술 탐구 ▶ 에너지 문제 해결 과학기술 탐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 참여 ▶ 녹색 소비 체험 - 자원 순환, 친환경 텃밭, 3R 운동 체험 활동 ▶ Fame Lab(나도 그레타 툰베리!)  멸종위기종 특강  승기천 생태탐방  남동유수지 탐조활동

- 교과 활동 주요 사례

교과	세부 내용
과학, 정보	◆ 생태 및 천체관측 체험 프로그램 - [읽] 천체 및 환경 관련 독서 활동, 행성과 별자리 특강 - [견] 생태 및 천체관측 체험 프로그램 실시 ▶ 페트병을 재활용한 천체망원경 제작 ▶ 천체망원경 조작법 연습 및 모둠별 천체관측 대회 - [쓰] 환경과 천체관측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소감문 작성 및 발표 ◆ 카드 코딩 드론 - [읽] 정보 및 과학 교과서 연계 학습 ▶ 정보(III.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과학(VII. 과학과 나의 미래) - [견] 카드 코딩을 활용한 드론 조종 모둠별 미션 수행 - [쓰] 드론 산업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 직업에 대한 조사 및 발표
체육	◆ 체육 올림피아드대회 - [읽] 체육 관련 도서함을 만들어 각 학급에 비치, 독서활동을 통해 다양한 체육 경기에 대한 룰을 배우고 익힘. - [견]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 반 대항 경기 진행 - [쓰] 시상을 통해 학생들의 협동심을 격려하고, 경기 소감을 나눔



과학 독서 활동



카드코딩 드론



학급 체육도서함



탁구 경기 모습

3

3년간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과정의 기록

2020년 9월 1일자로 지정되어 운영하던 혁신학교(현 결대로자람학교)는 인천중학교에서 3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28일로 연장 운영될 예정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과정,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백서를 출판하기로 하였다. 백서 출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읽·견·쓰 활동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학생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느낀 결대로자람학교(전 행복배움학교)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백서 출판을 통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진행한 인천중학교의 혁신학교로서의 교육과정을 돌아

보고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 대로 기록에 남기고 더 나은 발전을 다짐하며 우수한 부분은 더욱 견고히 하려는 마음을 담아 백서에 기록하였다. 백서에는 선생님들의 기록뿐 아니라 학생들이 아는 결대로 자람학교, 학생들이 느낀 결대로자람학교, 학생들이 바라고 원하는 결대로자람학교를 담아 발간하였다.



결대로자람학교 백서



백서출판전학공 읽건쓰 워크숍

4

마치며

인천중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의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신장과 자존감 향상 및 인성 중심의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인천중학교만의 결대로자람학교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급·학년 자치 강화로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로 학생 주도형 교육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례화한 학생자치회를 열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자치 부서별로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이 즐거운 가운데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결대로자람학교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교육과정 특성화, 숲 산책 자율 시간 확보 운영

학 교 명	함박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215명)
소 재 지	연수구 청학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아침 숲 산책’ 정규 교육과정 내 포함 자율 2시간 운영 - 숲 산책하며 걷고, 숲에 관한 시 읽고, 따라 쓰며 숲의 소중함 생각하기		

1 지리적 특성 살린 생태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 2021, 2022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으로 진행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자 특징 중 하나는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서 3분이면 산(청량산)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강점을 살려 2021년~2022년 2년 간 ‘아침 숲 산책’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우울했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학생과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 식구는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활동 시간은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30분까지 20분간으로 하고, 산을 오르내리며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줍는 ‘줍깅’도 함께 실천하였다.

또 참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학생에게는 봉사 시간과 간식 선물을, 교직원에게는 환경을 생각하며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같이 활동하기에는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았고, 또 학년이 섞였을 때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생활지도 문제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1주일씩, 5월과 10월에 총 3주간씩 1년에 두 차례를 진행하였다.

● 2023학년 정규 교육과정 내 포함

숲 산책을 2년 연속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호응도 있고 취지도 좋아서, 연말 ‘교육활동 돌아보기’ 때마다 차기 년에도 계속 해야 할 교육활동으로 2년 연속 꼽히게 되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하나 회를 거듭하면서 담당 부서에서는 1년에 두 차례를 학년별로 1주일씩 연속 3주간이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점, 또 매번 날씨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힘든 점이 많았다.

교직원들도 참여하고 싶지만 평소 출근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2023학년도에는 자율활동 2시간을 확보하여 정규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켜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범위를 확대하였고, 동시에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

2 5월과 10월 두 차례

○ 월요일(또는 휴일 다음 날) 1교시

	일시	학년	내용
5월	8일(월) 1교시	1	아침밥 먹기 캠페인, 숲 산책
	15일(월) 1교시	2	아침밥 먹기 캠페인, 숲 산책
	22일(월) 1교시	3	아침밥 먹기 캠페인, 숲 산책

‘아침 숲 산책’은 나뭇가지가 파릇파릇해지는 5월과 가을바람이 선선해지는 10월 두 차례 실시한다. 학생과 교사 모두 수업 집중이 가장 힘든 월요일(또는 휴일 다음 날) 1교시, 산에 잠시 다녀옴으로써 상쾌한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꿀떡(5월), 삼각김밥(10월) 등을 제공하여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연계하였다.



월요일(또는 휴일 다음 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물론 교장선생님도 늘 동행하십니다.



이런 풍경이 학교 바로 뒤에서 선물처럼 연출됩니다.

10월에는 ‘읽.견.쓰’ 활동으로



숲 산책 나서기 전
숲에 대한 시 한 편을 읽으며
따라 써봅니다.



숲의 본질

오보영

숲은 숲이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큰 나무 작은 나무
굵은 나무 곧은 나무
소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후박나무...

찬 기온엔 서로를
품어가면서
비바람엔 서로를
감싸주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곳

뚜렷이 볼품없는
여린 들꽃까지도
여럿이 함께
어우러져서

겉보기에 번듯하고
깨끗하고 환하기만 해
그저 허울만 번지르르
보이는 것은
숲이 아닌 도심빌딩
얘기다

피꼬리 참새 까치
매미 나비 풀벌레...
누구나 다 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 숲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려면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그곳이 바로 숲인
것이다



산에 들어서서
5분 정도 올라가면
운동 기구도 만납니다.



출발 전 숲에 대한 시를 한 편 읽고, 따라 쓰며 숲이 주는 고마움과 숲 산책의 의미를 학생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도 가졌다. 10월에는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2, 1, 3학년 순서로 진행하였고 2학년은 개천절 뒤에, 1학년은 한글날 뒤에 진행해서 연휴 다음 날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하였다.

일시		학년	내용	비고
10월	4일(수) 1교시	2	아침밥 먹기, 숲 산책, 시(詩) 필사	2교시 봉사활동과 연계
	10일(화) 1교시	1	아침밥 먹기, 숲 산책, 시(詩) 필사	
	23일(월) 1교시	3	아침밥 먹기, 숲 산책, 시(詩) 필사	

3 숲 산책 활동 의미 알도록



희망자가 아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이 활동의 의미를 모른 채 오히려 불평하며 산을 오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서 1학기에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연계함으로써 그 부분을 보완했고, 2학기에는 숲에 대한 시를 읽고 필사하는 활동을 하나 더 추가하여 학생들이 숲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읽.걷.쓰’ 활동이 되도록 했다.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긍정적인 참여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 교육활동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삶과 삶이 일치하는 열두 달 계기교육

학 교 명	북인천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215명)
소 재 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22번길6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교육과정의 틀을 깨는 다양한 주제의 활동중심 월별 계기교육 - 시사적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참여를 이끄는 실천적 계기교육		

1 계기교육 왜 필요할까?

계기교육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최근 일어나는 사회 현안을 반영할 수 없는 교과서 위주의 교과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의성 있는 사회적 사건과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성을 학습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미래사회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교사, 학생을 포함해 우리는 모두 정치적 존재들이다. 기계적 종립을 앞세워 시사적 현안을 외면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에서부터 현안 교육으로서의 계기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기교육을 통해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다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 더불어 시사적 현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삶과 학습이 일치되는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평생학습자로 이끌 수 있다.

2 월별 계기교육 어떻게 운영했을까?

● 3월 세계 여성의 날, 세계 물의 날, 지구촌 불끄기(Earth Hour), 제로웨이스트의 날

- 3. 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전 교생 실시간 퀴즈 온라인 퀴즈 및 양성평등 홍보 및 캠페인
- 3. 22. 세계 물의 날 맞이 전 교생 실시간 온라인 퀴즈 및 홍보
- 3. 25. 지구촌 불끄기 온라인 퀴즈 및 사제동행 참여 인증 이벤트
- 3. 30. 제로웨이스트의 날 맞이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 및 이벤트



세계 여성의 날
온라인 퀴즈 행사



세계 여성의 날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이벤트



세계 물의 날
온라인 퀴즈 행사



지구촌 불끄기 퀴즈 및 사제동행
참여 인증



제로웨이스트의 날
급식 잔반 줄이기 캠페인



제로웨이스트의 날
급식 잔반 줄이기 이벤트

4월 식목일, 4.19혁명 기념일, 지구의 날, 장애인의 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 4. 5. 식목일 맞이 계양산 나무 이야기 전시회 및 퀴즈 행사
- 4. 19. 4.19. 혁명기념일 맞이 단어찾기퍼즐 행사
- 4. 20. 장애인의 날 맞이 N행시 대회 및 활동지 작성과 편견지우개 증정 행사
- 4. 22. 지구의 날 맞이 사제동행 게릴라 가드닝, 씨앗폭탄 만들기 및 도전 골든벨 행사
- 4. 23.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맞이 독서 명언 쓰기, 독서 굿즈 만들기 등 도서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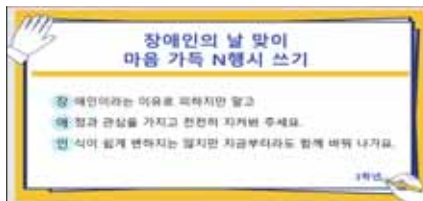
식목일 계양산 나무 이야기 전시회
및 온라인 퀴즈



4.19. 혁명 기념일
단어찾기퍼즐 행사



지구의 날
사제동행 가드닝 행사



장애인의 날
N행시 대회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독서 명언 쓰기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독서 굿즈 만들기

● 5월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바다의 날

- 5. 21.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맞이 영상 교육 및 학급 대항 온라인퀴즈 대회, 영화 감상제, 3행시 대회
- 5. 22.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맞이 세계 멸종 위기 동물 그리기 및 작품 전시, 학급 대항 퀴즈 행사, 자유학기제 마을활동가 연계 ‘우리는 편안해졌고, 저어새는 힘들어졌다’ 수업
- 5. 31. 바다의 날 맞이 물살이의 길 그리기 및 플로깅 마을봉사활동, 사행시 짓기, 퀴즈 및 활동지 행사, 홍보 캠페인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3행시 짓기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영화 감상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영상 교육 및 학급 온라인 퀴즈



국제 생물 다양성의 날 세계 멸종
위기 동물 전시 및 퀴즈



‘우리는 편안해졌고, 저어새는
힘들어졌다’ 수업



바다의 날
물살이의 길 그리기 마을봉사활동

● 6월 세계 환경의 날

- 6. 5. 세계 환경의 날 맞이 환경 영화제 및 홍보 캠페인

● 7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

- 7. 3.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 맞이 마을활동가 연계 사제동행 폐우산으로 장바구니 만들기

● 8월 에너지의 날

- 8. 22. 에너지의 날 맞이 홍보 캠페인



세계 환경의 날
환경 영화제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
폐우산으로 장바구니 만들기



에너지의 날
중앙현관 TV 홍보 캠페인

9월 푸른 하늘의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국제 평화의 날

- 9. 7. 푸른 하늘의 날 맞이 푸른 하늘 사진 공모전
- 9. 10.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맞이 생명존중 캠페인
- 9. 21. 국제 평화의 날 맞이 평화와 공존 워크숍



푸른 하늘의 날
푸른 하늘 사진 공모전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생명존중 캠페인



국제 평화의 날
평화와 공존 워크숍

10월 한글날, 독도의 날,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 10. 9. 한글날 맞이 사제동행 예쁜 손글씨 공모전(아름다운 우리 시구 찾기 및 전시 및 게시), 한글날 3행시 대회, 퀴즈 이벤트
- 10. 15.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맞이 '안녕하세요, 비인간동물님들' 작가와의 만남, 비인간동물 주제 그림책 쓰기 및 전시회
- 10. 25. 독도의 날 맞이 학급별 퀴즈 이벤트, 홍보 캠페인



한글날 사제동행 예쁜 손글씨
공모전 및 전시, 게시



한글날
3행시 짓기 대회



한글날
한글 퀴즈 이벤트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학생 그림책 쓰기 및 전시회



세계 동물권 선언의 날
작가와와의 만남



독도의 날
학급 대항 퀴즈

● 11월 세계 비건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 11. 1. 세계 비건의 날 맞이 비거니즘 전문가 초청 강연, 비건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
- 11. 3.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학생 등교맞이 행사, 만화동아리 작품 전시회, 학급별 퀴즈이벤트, '학교에 바란다' 학생 설문 및 결과 전시



세계 비건의 날
비건 음식 만들기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만화동아리 작품 전시회



학생독립운동기념의 날
학생 건의 설문 및 결과 전시

3

더 나은 계기교육을 운영하려면?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계기교육은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교사가 계기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육과정 외 내용이라 수업에 참고할 자료나 활동을 스스로 모두 준비하고 찾아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계기교육 본연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고 계기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생, 학교,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계기교육 운영을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두기보다는 교육청이나 여러 교육기관들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미래형 교육 모델 학습나침반

학 교 명	인천석남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7학급(332명)
소 재 지	서구 석남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미래형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학생 중심의 새로운 맞춤형 교육 과정 - 특성화 고등학교 및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 모델 개발 -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1 미래, 꿈, 성장을 위한 학습나침반

○ 미래형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강화

- 마을과 함께 학생들의 꿈이 자라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 교육, 학습 역량 강화, 심리·정서 및 사회성 회복을 중심으로 학생 역량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목적

-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꿈 하나씩 갖기
- 미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
- 자신의 성장 과정을 비롯하여 직업 선택과 관련된 흥미, 적성 종합적 이해

○ 방침

- 학생,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무학년제 수업 모델 구현
- 3년 재학 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참여
- 학교 밖, 마을 연계 교육과정 실현을 통한 공동체 교육 모델 실천
- 교육 종료 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한 교육과정 평가 및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 미래형 교육 모델

- 전문 교육기관 별 무학년제 20명 내외 배정
- 참고용 일정표(안)

구분	1일차(6시간)	2일차(6시간)	3일차(5시간)
1교시	학교 소개	전문 교육과정 운영	전문 교육과정 운영
2교시	학교 탐방		
3교시	과별 소개		
4교시	과별 소개		
점심시간			
5교시	과별 소개	전문 교육과정 운영	설문지 및 수료식
6교시	과별 소개		봉사활동(석남중)

2

미래, 꿈, 성장을 위한 학습나침반 교육과정 운영 계획

○ 주관 및 운영: 인천석남중학교 / 신청 학교(기관)

○ 2023년 운영 기간

- 3기: 2023년 7월 12일(수)~14일(금)
- 4기: 2023년 9월 6일(수)~8일(금)

○ 운영 장소: 인천석남중학교 / 신청 학교(기관)

○ 참여 학생

- 2023년: 본교 재학 중인 1, 2, 3학년

○ 운영 방법: 각 3일간 본교 및 신청 학교(기관) 등 위탁 운영

- 1, 2, 3학년 1학기 및 2학기 각 17시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학년은 자유학기제 동아리 시간 활용
- 학생 재학 중(3년) 6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18개 프로그램

구분	참여 학교(기관)	교육내용	운영 장소	비고
교내 운영	서울대학교 미래교육혁신센터	인공지능	2층 미래교실	
	메이커스핸즈	기계공학	4층 과학실	
	맥스트레이딩	목공	5층 목공실	
	비전3DP	로봇공학	5층 창의융합실	
	모씨네	영화	4층 소리울채	
교외 운영	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	창업	청라로봇타워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바이오공학	특성화고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공학	특성화고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항공공학	특성화고	
	축구의신	풋살	석남동 인근	
	아인병원	의료	시민공원역 인근	
혼합 운영	클라임스퀘어	클라이밍	마전역 인근	※3일차: 2층 글마루채
	어울림이플림 사회적협동조합	세계시민	5층 진로교육실	※2일차: 부평구청역
	서구도서관	읽기걷기쓰기	서구도서관	※식사는 학교
	피플앤컬처	바리스타	석남동 인근	※1일차: 3층 소담채
	언어와 문화(베트남, 필리핀, 중국)	외국어	3층 과학실 영어실	※2일차: 동인천 등

운영 로드맵



3

미래·꿈·성장을 위한 학습나침반 교육과정 평가

- 평가 방법: 온라인 설문 조사
- 시기: 학습나침반 프로그램 3일차 5, 6교시
- 내용
 - 학습나침반 운영 역량, 운영 과정, 운영 성과 평가
 - 학습나침반 개선사항 및 추가 과정 파악
- 대상: 학생, 전교직원
- 활용
 -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사항 파악
 - 차기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에 반영

4

미래·꿈·성장을 위한 학습나침반 설문 결과

- (학생) 미래형 혁신학교 학습나침반 만족도 조사

설문내용		2022 결과	2023 결과
1	참여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유익하였습니까?	4.30	4.46
2	강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였습니까?	4.33	4.58
3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만족합니까?	4.23	4.47
4	강의 장소에 만족합니까?	4.15	4.35
5	참여한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운영해도 좋습니까?	4.20	4.50
6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평가 점수는?	4.27	4.52

○ (학생) 참여한 프로그램을 통해 길러진 역량은?

역량		2022 결과	2023 결과
1	자기관리 역량	44.0 %	42.0 %
2	지식정보처리 역량	39.6 %	44.0 %
3	창의적사고 역량	59.0 %	50.4 %
4	심미적감성 역량	14.3 %	19.5 %
5	협력적소통 역량	30.0 %	31.5 %
6	공동체 역량	29.4 %	32.5 %

5 세부 실천 사례

○ 인천석남중학교 미래형 혁신학교 아카이브 QR코드



<https://sites.google.com/seoknam.icems.kr/snms>

6 기대효과

- 마을 안, 마을 밖 교육과정 편성을 통한 미래형 학교문화와 교육과정 혁신 모델 개발
- 전문 교육기관의 우수한 물적 인프라와 체험활동 전문교육 노하우를 결합한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 제공
- 무학년제로 운영하며, 3년간 다양한 진로 설계를 통하여 자존감을 기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

7 제 언

-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3주체 협의 필요
- 학교의 자율적인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협의 필요



지역과 함께 가는 작은 학교 이야기

학 교 명	동광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3학급(58명)
소 재 지	강화군 양도면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2. 17.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 학생 체험위주의 즐거운 배움		

1

우리지역 구심점으로서의 우리 학교

● 마을과 학교

예전의 학교는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근거지였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학교에서만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학교 교육의 기능이 예전보다 약해졌다.

단순히 학교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삶과 연계한 지식 혹은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마을 속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삶의 터전인 마을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마을과 학생

아이들은 마을에 산다. 마을에서 키운 아이들이 학교에 온다. 학교에 온 아이들은 마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배운다.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이해와 배움이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마을이 아니라 세계만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자기가 사는 마을 혹은 지역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 지역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

● 학교 텃밭 운영

부모 세대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는 토끼장도 있고 닭장도 있었다. 또 주변에 있는 숲에서 벌레도 찾는 등 자연 풍경이 가까이 있었다. 그렇게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가 없이 늘 배우는 일상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학습량으로 분주하거나 컴퓨터 게임, SNS에 빠져 있어 다른 사람과 교류할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 텃밭은 자연과 더불어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학교법인 전담 일부를 사용하여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 동아리반을 만들고 학급별로 텃밭을 분양하였다. 여름에는 텃밭에 오이, 애호박, 가지, 비트, 깻잎, 고구마 등의 작물을 심어 마을장터인 ‘씨마켓’이 열릴 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텃밭 전경



텃밭 가꾸기



고구마캐기 체험

● 마을 장터 ‘씨마켓’

양도초등학교, 조산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산마을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진강산 마을 교육공동체에서 주최하는 ‘씨마켓’은 올해로 벌써 18번째이다. 양도면의 교육공동체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서 마을 장터이자 마을 놀이터이다. 우리 동광중학교는 학교 텃밭에서 자란 작물로 만든 피클과 애호박, 오이, 비트, 깻잎 등을 팔았다. 학교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작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은 정성 들여 기른 작물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의미 있는 먹거리가 된다는 것에 뜻깊어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마을과 학교 그리고 공동체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씨마켓 마을 장터



씨마켓 판매 부스



씨마켓 참여 학생

강화 나들길 걷기

매년 강화 나들길을 걷고 있다. 올해는 강화 나들길 1코스인 심도역사문화길 중 용흥궁에서 시작하여 연미정까지 9.3km의 거리를 걸었다. 강화는 고려시대에 있어 전시 수도로서 구심점을 제공하는 중요 지역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강화 나들길 걷기 행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적 유적지를 탐방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강화 나들길 안내자인 나들길지기들의 도움을 받아 코스를 걸으며 재미있는 역사적 설명과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화나들길(용흥궁)



강화나들길(북산)



강화나들길(연미정)

하곡 정제두 묘제 참가

우리 학교가 위치한 강화군 양도면 지역에는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 가릉, 곤릉, 석릉 등 고려시대 왕, 왕비의 무덤과 건평돈대, 굴암돈대 등 방어시설 유적지 그리고 학교 가까이에는 정제두 선생의 묘가 있다. 조선 후기 강화학의 태두인 정제두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강화문화원 주최로 묘제 봉헌 행사를 실시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묘제 봉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유명한 인물에 대해 알고 애郷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묘제 봉헌 행사



묘제 학생 참여

● 분단의 현장, 강화도

강화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잊고 있던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강화 평화전망대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평화전망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살펴보면서 북한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해병대대의 도움을 받아 철책선 걷기 체험을 하였다. 북한 사람이 귀순했던 지점을 보면서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을 걷어내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전시관



전망대



시청각 교육

3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우리 학교

학교는 그 지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로 온다. 하지만 학교에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계획은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강화도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소규모학교이다. 자연 감소하고 있는 인구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작은 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학생, 학부모들로 인하여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는 더 줄어들고 있다. 지역 연계 교육이야 말로 소규모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작지만 강하고 탄탄한 학교를 만들어야 그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학교로 올 것이다. 그 중심에는 결대로자람 학교가 있다.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 교 명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0학급(364명)
소 재 지	미추홀구 도화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변화의 시작, 그 이후 - 열정과 도전, 우리 함께 -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아이들		

1

변화의 시작, 그 이후

● 학교의 변화

우리 학교는 2018년 3월 행복배움학교 최초 지정 이후 혁신학교로 4년을 보냈다. 그리고 2022년 3월 재지정을 받아 올해는 결대로자람학교 2년 차에 들어섰다. 그 사이 우리 학교는 ‘인천하이테크고등학교’에서 전국 최초 대중예술계열 공립고등학교인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로 탈바꿈하였다. 학과도 기존 공업 계열에서 실용음악과, 연기예술과, 드론영상과, 실용무용과와 같은 예술 계열로 바꾸었다. 각 학과에 맞게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교육과정을 새로 짰다. 또한 학과별로 실기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훨씬 역동적인 학교로 변화하였다.

● ‘우리’의 ‘열정과 도전’이 만들어 낸 교육과정의 특성화

우리 학교는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로 탈바꿈한 지 4년 차이이며, 완성된 학과 체제로는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열정과 도전, 우리 함께’라는 학교의 철학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대중예술고등학교답게 학과별로 무대에 설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축제뿐만 아니라 각 학과의 정기공연, 버스킹 무대, 각종 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학교의 정기공연 및 인천예술고등학교와 함께 한 협연 발표회, 미추홀구 노인 복지회관과 연계한 장수 사진 촬영 등이 그것이다. 대중 예술고등학교로서는 아직 신생 학교인 우리 학교의 이 모든 과정은 ‘도전’이다. 힘들지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열정’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2

열정과 도전, 우리 함께



● 각 학과의 실기 수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각 학과의 실기 수업은 대부분 교사와 강사의 코티칭(co-teaching)으로 이루어진다. 전공에 따라 강사와 학생을 연결하여 소수 지도를 하고 있어 수준별 및 개인별 지도가 가능하다. 또한 교과에 따라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평가하는 발표회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용음악과 수업 중 ‘공연 실습’이라는 과목과 연계하여 ‘향상 음악회’를 연다. 형식은 자유롭되 전공(보컬, 작곡, 기악)의 특성을 살려 개별 공연을 한다. 또한 ‘합주’라는 과목과 연계하여 ‘앙상블 콘서트’를 여는데 합주 시간에 연주했던 곡들 중 팀별 대표곡으로 공연을 만든다. 전공별 연주 기법을 익혀 팀별로 다양한 제재곡을 조화롭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 발표한다. 악기와 보컬 간의 조화에 유의하며 연주 기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성과가 있다. 연기에술과는 ‘연극 제작 실습’이라는 과목과 연계한 ‘제작 발표회’를 하기도 한다. 1학년은 20분 남짓한 공연을, 2학년은 50분 정도의 공연을 보여준다. 이런 활동을 통해 본인의 실력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또한, 서로의 공연을 보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드론영상과에서는 현장 실무자와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 활동 및 취업에 유리한 국가 공인 자격시험 대비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질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실용음악과, 연기에술과, 실용무용과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교사 뿐만 아니라 강사들을 활용하여 수준 높은 지도를 하고 있다.



실용음악과 향상 음악회



실용음악과 앙상블 콘서트



연기에술과 제작 발표회



드론영상과 방과 후 학교

● 다양한 동아리 운영

학과에 따라 다양한 전공 동아리를 운영하여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진행한다. 드론영상과의 ‘시네아스타’는 촬영과 편집의 모든 분야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편 영화를 제작하여 영상제에 발표한다. 또한 ‘메이킹필름’은 촬영과 편집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며, 학교 및 학과 홍보 영상, 공연 영상 등을 촬영·편집해서 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린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결대로자람학교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사진부’는 미추홀구 노인 복지회관과 협력

하여 어르신들의 영정(장수) 사진을 촬영하고 선물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지역과 함께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의미가 크다.

실용무용과의 ‘춤추는 미남과 야수’는 실용무용과 1, 2학년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팀이며, ‘실무 시대’는 실용무용과 1학년 여학생으로만 이루어진 팀이다. 두 팀 모두 2023 그린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실력을 뽐냈다. 또한 ‘춤추는 미남과 야수’는 2023 미추홀 Youth k-pop festival 노래·댄스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전공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을 돕는다. 그 중 바리스타 동아리 학생들은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함께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한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교직원들을 위한 카페를 열어 실전 경험을 쌓는다. 또한 학년말에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한 카페를 열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도 한다.

● 학교를 대표하는 정기 공연 ‘예향제’ 및 ‘수작’

‘예향제’는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학교 축제이며, ‘수작’은 전교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연으로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정기 공연이다. 올해는 7월 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미추홀’에서 공연하였다. 특히 올해 ‘수작’은 ‘레인보우’라는 이름으로 밴드, 뮤지컬, 코레오, 현대무용, 한국무용, 연합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사전에 오디션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공연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각 학과의 정규 수업 시간 및 방과 후 수업 시간,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공연이라 뜻깊다.

● 인천예술고등학교와 함께 한 공연 ‘예술이樂’

2023년 8월 31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우리 학교와 인천예술고등학교가 함께 하는 협연 발표회 ‘예술이樂’이 열렸다. 학생들에게 고전 예술과 대중예술 간 융합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연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예술 분야 간 협력을 통해 시각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되었다.



‘예향제’



‘수작’



‘예술이樂’

● 각 학과의 정기 공연

각 학과의 정기 공연은 학생들에게 한 해 동안 열심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이다. 보통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무대에 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에 학교나 학과를 홍보할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실용음악과 정기공연
'화작'



드론영상과 영상제 '비상'



연기예술과 정기공연
'우리 읍내'



실용무용과 정기공연
'라운제나'

● 각 학과의 버스킹 공연 및 각종 대회 운영

실용음악과에서는 올해 총 5회의 버스킹 공연을 하였다. 제1회 버스킹은 '드럼 쉼드'로 실용음악과 드럼 전공 학생들이 3명씩 5개조를 이루어 5분씩 1층 학교 뒤뜰에서 '드럼'만을 위한 버스킹 공연을 하였다. 드론영상과 학생들이 버스킹 장면을 카메라와 드론으로 촬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 자치 및 협동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에도 4번의 버스킹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보고 즐기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5회 버스킹 공연은 제물포역 광장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였는데, 지역 사회와 함께 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며, 점점 더 무대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버스킹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실용음악과에서는 보컬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실용무용과에서는 안무 창작 대회를 하였다. 1, 2학년 학생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음악을 선곡하고 안무를 창작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연기예술과에서는 독백 대회를 하였다. 학생들이 새로운 희곡 작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와 연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실용음악과 제1회 버스킹



실용무용과 버스킹 공연



실용무용과 안무창작대회



연기예술과 독백 대회

● 진로 탐색 활동

실용음악과에서는 재즈 콰르텟 특강을 진행하였다. 1부는 재즈 콰르텟 공연을, 2부는 재즈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재즈 전문가의 전문 음악 기술 및 연주 기법을 습득하고, 재즈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음악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실용무용과에서는 정아예술대학교에 직접 가서 브레이킹댄스 수업 및 진로 특강을 받기도 하였다. 6월에는 직업교육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대중예술 분야 직업 및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전공별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10월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별 능력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본인이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게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실용음악과 재즈 콰르텟 특강



실용무용과 장체험학습



직업교육설명회



진로 진학 특강

3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는 지쳐 있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우리 학교 아이들이다. 무대를 한 번 보고 나면 ‘아, 너희들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았구나.’라고 단번에 이해가 된다. 노래가 좋고, 연기가 좋고, 춤이 좋고, 촬영이 좋아서 온 아이들답게 열정적이다. 계속 되는 공연과 이에 따른 연습으로 많이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니 교사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한 번이라도 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깨어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 또한 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우리 학교의 변화는 단순히 시설이 바뀌고 교과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의 새로운 것에 대한 끝이 없는 도전과 열정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물론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은 많다. 지금까지는 학과의 틀을 다지기 위해 학과별로 노력했다면 이제 그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춤을 추기 위해서는 음악의 선율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연기를 위해서는 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서로 다른 학과의 특성을 이해하고 융합해 나간다면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결을 담은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꿈꾸다

학 교 명	인천강화여자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462명)
소 재 지	강화군 강화읍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2월,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교육과정 워크숍 - 학생이 주도하는 빛깔있는 창의적 주제중심 교육과정 - 전학공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율형 교육과정		

1

2월, 우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 예술로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가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1년의 교육과정을 고민하는 워크숍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2023년은 새로 전입한 교사가 유독 많아서 전입교사와 기존 교사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워크숍은 우선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는 마음과 새로운 시작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강화도 지역에 있는 더리미 미술관에서 더리미 앙상블의 연주로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 선생님들의 마음을 열고자 예술로 놀며 푸는 공동체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선생님들이 몸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만드는 동안 서로 웃고 떠들며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다가가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기대한다.



워크숍 단체 사진



예술로 놀며 푸는 공동체 워크숍



● 학급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다.

이번에 새로 기획한 부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워크숍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옆 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학급 운영사례 발표 시간이었다. 함께 1년을 보냈지만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학급 운영 비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함께 지냈던 선생님이 나눠주시고 우리 학교의 사정을 반영한 사례라 더 재미있고 집중이 잘 되었다. 특히 몇 년째 실천하고 있는 마음공부 사례는 선생님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워크숍 만족도 조사에서 학급 운영사례 발표가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이렇게 서로에게 배워가면서 옆자리 선생님이 내 교직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또 알아간다.



학급 운영 사례

<마음일기>

Stop (멈추기)	- 주변의 상황이나 자신이 한 행동(생각)을 적어보세요 - 맞—잘게구나
Think (바라보기)	-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Action (실행하기)	- 어떻게 행동(생각)했나요? - 앞으로 어떻게 행동(생각)하면 좋을까요?
Review (마음 돌아보기)	- 반성 또는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마음 일기 학급 상담 사례발표

● 따로 또 같이, 학년형 전학공 모여라!

우리 학교의 특색사업인 주제중심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도 학년형 전학공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올해 주제중심 교육과정의 주제는 SDGs(지속발전가능목표)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학년형 전학공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비교과 선생님들은 따로 전학공을 구성하시기로 결정하였다. 학년형 전학공으로 크게 묶고 전학공 안에서 선생님들이 교과별 융합 수업을 구상하고 이를 자율교육 과정의 한 파트로 구현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이다. 서로 이견이 있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정이다.



1학년형 전학공 계획 세우기



2학년형 전학공 계획 세우기

2

학생이 주도하는 빛깔있는 창의적 주제중심 교육과정

● 강화의 결을 담은 교육과정을 만든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결대로자람 6년 차인 우리 학교의 창의적 주제중심 교육과정은 6년째 그 고유의 특색을 담아 진행중이다.

년도	주제중심 교육과정	특징
2018년 행복배움학교 1년차	고려 건국 1,100주년 '고려역사문화 교육과정'	
2019년 행복배움학교 2년차	대한민국 100년 '평화 교육과정'	
2020년 행복배움학교 3년차	'생태·환경 교육과정'	
2021년 행복배움학교 4년차	1학년 '강화역사·문화', 2학년 '평화', 3학년 '생태·환경'	학년별 주제중심 교육과정 실시
2022년 행복배움학교 5년차	1학년 '강화역사·문화', 2학년 '평화', 3학년 '생태·환경'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형 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융합으로 심화
2023년 결대로자람학교 6년차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중심 교육과정 1학년 인간과 번영, 2학년 인간과 평화, 3학년 인간과 환경	SDGs의 17개 주제를 학년별 대주제로 나누고 반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원하는 주제로 학생주도 주제중심 프로젝트팀 구성



2022년 1학년 강화 역사 문화



2022년 2학년 평화



2022년 3학년 생태

● SDGs(지속발전 교육목표) 주제중심 교육과정 심화 정착을 위한 학년별 위계화와 학생주도형 주제중심 탐구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SDGs의 17개 주제를 학년별 대주제로 나누고 반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원하는 주제로 학생 주도 주제중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을 12월 자율형 교육과정 안에서 발표하고 서로 나눈다.

학년별 주제			
연번	1학년 인간과 번영	2학년 인간과 평화	3학년 인간과 환경
1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7)	빈곤 종식(1)	깨끗한 물과 위생(3)
2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8)	기아 해결(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12)
3	산업, 혁신과 인프라(9)	건강과 복지(3)	기후변화 대응(13)
4	불평등 해소(10)	양질의 교육(4)	해양 생태계(14)
5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11)	성평등(5)	육상 생태계(15)
6	평화, 정의, 제도(16)	평화, 정의, 제도(16)	평화, 정의, 제도(16)
7	글로벌 파트너십(17)	글로벌 파트너십(17)	글로벌 파트너십(17)



프로젝트 팀별 활동



SDGs 전문 강사 설명

● 학생이 기획하는 교육과정을 꿈꾸다.

우리 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은 학술제 기획단, 교육과정 기획단 등 프로젝트별 기획단을 구성하여 학생 스스로 기획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고 학생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교사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빛을 발한다.



학술제 기획단 모집 공고



학술제 기획단 회의



기획단 평가회

3

전학공과 함께 하는 융합수업 프로젝트, 자율형 교육과정에서 구현된다.

우리 학교 전학공은 3개 학년 전학공과 비교과 선생님들이 구성하신 전학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요일 5-7교시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분야 직무연수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학년별로 SDGs 학년별 주제를 가지고 학년별 교과별 융합 수업을 교과 선생님들끼리 구상하여 12월 자율형 교육과정의 한 파트로 구현하기로 한다.



학년형 전학공 협의회



주제별 독서



교과별 전학공 융합수업 고안

교사들이 뭉쳐 수업 융합을 꿈꾸다.

전학공 내에서 주제별 도서를 함께 읽고 총 14분의 선생님 중 두 분씩 짝을 지어 교과 융합 수업을 고안하여 자율형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기로 맘을 먹었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하시면서 썩 내켜 하지 않는 분도 계셨지만 학생들을 위해 한번 뭉쳐보기로 한다.

1학년 전학공-SDGs 주제 도서 관련 융합수업 활동 내용				
전학공명	융합교과	주제	주제도서	수업 활동
1학년 세바수 (세상을 바꾸는 수업)	과학+체육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넥스트 그린 블루션 (조원경)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UCC, 캠페인송, 공트, 에세이 작성, 홍보 팸플릿 제작 등의 형태로 모둠원과 협력하여 완성
	역사+수학	좋은 일자리와 경제 성장	일지리의 미래 (엘렌 러펠 셀)	〈활동1〉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영향, IMF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설명 〈활동2〉일자리 관련 통계 자료의 해석 및 활용 방안 설명
	정보+수학	산업혁신과 인프라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인류의 삶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프로젝트 산출물- 메타버스 맵 만들기, 인포그래픽
	국어+사회	불평등 해소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의식 분석 - 공정한 사회인지 생각한 후 문제점 파악 -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생각과 해결 방안에 대한 글쓰기

1학년 전학공-SDGs 주제 도서 관련 융합수업 활동 내용				
전학공명	융합교과	주제	주제도서	수업 활동
	영어+국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어디서 살 것인가	* 내가 살고 싶은 공간 디자인하기-유현준 유튜브 시청 * 과제(아래 주제 중 택 1)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공간 DESIGN -내가 살고 싶은 마을 공간 DESIGN -내가 살고 싶은 주택 DESIGN
	음악+영어	평화 정의 제도	우리는 난민입니다,	*현재 국제 사회 이야기-예. 가자지구 & 이스라엘 *책 소개 (위와 관련하여) *프로젝트 소개 - 영어과 음악의 교과 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 조별 악곡 선정하여 평화, 난민, 정의, 책 주인공의 이야기를 주제로 가사 창작 후 영어로 번역
	진로+지리	글로벌 파트너십	오늘로부터의 세계 (제레미 리프킨 외)	* 코로나19가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봄 * 교육과정 프로젝트 소개 - 통합사회 교과와 연관한 융합 프로젝트 실시. - 필요시 다른 교과와도 연계 가능 → 예 : 통합과학과 연계하여 질병의 발생 원인 및 확산 과정 탐구 - 프로젝트 결과물을 카드 뉴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안내

2학년 전학공 융합 수업안			
전학공명	융합교과	주제	수업 활동 내용
2학년 (북산 나들이)	문학+국어	단편소설로 사회적 독서하기	단편소설을 읽고 북토크 및 독후 활동하기
	중국어+수학	교과 융합 퍼포먼스 슷품 제작 A	교과융합(수학, 생명과학, 중국 문화)을 퍼포먼스로 승화하여 슷품 제작하기 수업
	생명과학+미술	교과 융합 퍼포먼스 슷품 제작 B	교과융합(미술, 생명과학, 중국 문화)을 퍼포먼스로 승화하여 슷품 제작하기 수업
	체육+한문	모션코어 측정을 통한 과학적 분석 원리 A	모션코어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얻은 자신의 건강체력평가 및 바른체형검사를 과학적 원리로 적용
	지구과학+화학	모션코어 측정을 통한 과학적 분석 원리 B	모션코어 측정 및 분석을 통해 얻은 자신의 건강체력평가 및 바른체형검사를 과학적 원리로 적용
	사회+역사	다시 쓰는 역사 영화 시나리오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함께 감상한 뒤 상상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써보고 실연하는 수업

4

결대로, 우리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서서히, 함께 만들어가는 중이다.



미래형교육과정, 수업량 유연화,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교사교육과정 등 요즘에 핫한 용어들을 들으면 교사들은 때론 부담을 느끼곤 한다. 특히 창의적 교육과정은 우리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협업이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들다. 이에 교사들 사이에 논의를 거쳐서 또 수정되고, 시도해 보고, 실패해 보는 과정 속에서 점차 우리의 결을 담은 특별한 교육과정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그 안에서 부담과 고통도 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함께 감내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우리 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 6년 차 운영을 통해 민주적 공동체 문화, 주제중심 교육과정 등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작년에 새로 전입해 온 구성원이 많아지고 기존 혁신학교의 문화나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혁신학교를 운영해 왔던 기존 구성원들과의 가치나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다.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결대로,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결대로자람학교 6년차, 이렇게 우리는 한발 한발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배우 高, 나누 高, 느끼 高’

학 교 명	계산여자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3학급(485명)
소 재 지	계양구 계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생 주도형 교과 융합의 날 및 학업 설계의 날 운영 - 교육과정 리더와 교사가 함께한 교육과정박람회, 선택과목박람회		

1

학교자율과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다.

● 함께 만들어가는 계산여자고등학교만의 독창적인 운영 계획 수립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삶과 연계하는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배움의 경로를 통해 고유한 빛깔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기 초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학년 자율과정 운영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진로 집중형과 교과 융합학습 프로젝트형, 동아리 주도형으로 학년 단위의 학교자율과정 운영. 인문학 특강/과학특강, 과학실험캠프, 창업 프로그램, 교과별 융합 프로젝트, 교육과정설명회, 선택과목박람회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날짜	교과 융합의 날 (인문+과학+예체능+정보+진로+미래교육)						학업 설계의 날			교과 융합의 날 (학생 주도형)	
	7/10			7/11			7/12			7/13	7/14
학년 교시	1	2	3	1	2	3	1	2	3	1, 2, 3학년	
1교시	주제 탐구 활동	지식 공감 나눔 콘서트	[진로 캠프]	지식 공감 나눔 콘서트	주제 탐구 활동	전국연합 학력평가 실시	자기활동 보고서작성		현장 체험 학습	학년별 강연 프로젝트	학년별 강연 프로젝트
2교시			주제탐구 활동		택1		교육과정 설명회				
3~4 교시	택1	택2		택2			선택과목 박람회				
5~6 교시	[진로 캠프]		지식 공감 나눔 콘서트	[진로 캠프]	[진로 캠프]		진로진학 로드맵 설계			문화 예술의 날	
7교시	직업인 특강		택2	교과선 택캠프	주제탐 구활동					퓨전국악	
										활동보고서 작성 (리로스쿨 이용)	

2

방과후 프로그램을 학교 자율과정으로 녹아낸다.

● 교과 융합의 날 운영

사전에 안내된 학년별 주제탐구 활동, 직업인 특강, 지식+공감 나눔콘서트, 진학(대입) 전략 프로그램 등의 특강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 등을 고려하여 리로스쿨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참여한 모든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맞게 학교자율과정 활동 내용 입력,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다.

1학년의 사례

7.10(월) 주제 탐구 활동 / [진로 캠프] 직업인 특강

택1 주제 탐구 활동(주관: 과학부/인문사회부)							
장소	화학생물실	물리화학실	미디어실 II	1-4반	1-5반	1-6반	1-7반
1교시	〈과학실험캠프〉 (화학) 염산과식초의 적정실험	〈과학실험캠프〉 (의생명) 전기영동 기법을 활용한 사람 가계도 분석	3D모델링의 기초	창업 프로그램 진로 개척 역량 및 기업가 정신 함양 (메인콘텐츠)			
2교시							
3교시							
4교시	실험 정리		활동 정리				
[진로 캠프] 직업인 특강							
시간	내용					장소	
5교시	희망분야1					희망전공1 교시	
6교시	희망분야2					희망전공2 교실	
7교시	소감문 작성					소속 학급 교실	

1학년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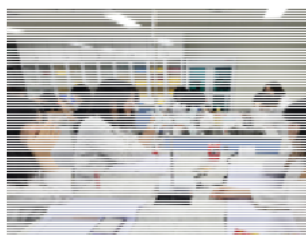
7.11(화) 지식+공감 나눔콘서트 / [진로캠프] 진학(대입) 전략 프로그램

택2 지식+공감 나눔 콘서트(주관: 과학부/인문사회부/교육과정부/정보부/예체능부)

과학 특강	SPOT: 메타버스 가상공간 만들기(체험)
과학 특강	우리는 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까? 생체모방로봇 : 자연에서 영감을 얻다.
인문학 특강	호모 사피엔스 -이기적 유전자와 사회적 동물 사이에서 문명과 이기적 인간의 미래
인문학 특강	능력주의, 평등, 공정에 대하여 사회적 자유와 민주주의
환경 특강 (자원순환/해양폐기물)	이상기후 이론 및 씨글라스 그림톡 만들기 실습 해양폐기물 이론 및 드림캐처 만들기 실습
시아바타	AI 아바타 앱 코딩(얼굴인식, 사물인식 앱 코딩)
몸짱 클리닉	근육 밸런스 교정을 통한 바른 자세 만들기
[진로캠프] 진학(대입) 전략 프로그램 (진로진학부)	
5~7교시	교과선택캠프
장소	소속 학급 교실



1학년 과학 실험 -
가계도 분석



1학년 과학 실험 -
염산식초의 적정



1학년 대상 과학 실험 -
단백질 정량



2학년 과학 실험 -
산화환원반응을 이용한
비타민C의 분석 및 적정



환경 특강(자연 순환)
- 커피 찌꺼기 세제



과학 특강 - 우리는 왜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까?



SPOT: 메타버스 가상공간
만들기(체험)



3D모델링의 기초

○ 학생 주도형 교과 융합의 날 및 문화 예술의 날 운영

학년별로 학생들의 진로 분야와 흥미를 중심으로 학생별 모둠활동을 계획하고 주제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1학년의 경우 체육관에서 조명 및 무대 구성 등을 계획하여 열광적인 패션쇼를 선보였다. 학년 내 게시판에 각 모둠이 만든 주제 융합 프로젝트 포스터를 부착하여 참여도를 높였다.



1학년 주제 융합 프로젝트
- 패션쇼



1학년 주제 융합 프로젝트
홍보지



1학년 주제 융합 프로젝트 - 학생 중심 수업



음악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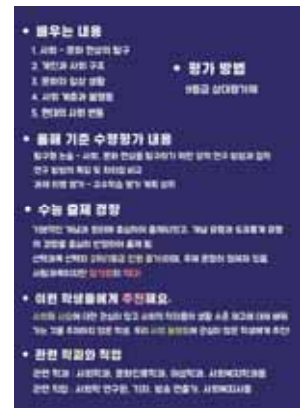
퓨전 국악

●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한 교육과정 박람회 및 학생주도의 선택과목 박람회

2024학년도 학년별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의 학생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진로 및 학업 설계, 선택과목 체크리스트, 선택과목별 「슬기로운 과목 선택」 책자를 제작하였다. 2, 3학년 선택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과 담당교사의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이 직접 선택과목에 대한 소개(배우는 내용, 수행평가 안내, 수능 출제 경향 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리더를 모집하였다. 교육과정 리더와 교과 담당 교사가 함께 과목 안내 포스터 및 대본을 함께 작성하고 학생의 눈높이에서 과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해와 선택과목 선택을 위해 제작·배부된 「슬기로운 과목」 책자



교육과정 리더들이 직접 제작한 선택과목 안내 포스터와 대본



교육과정 리더 학생과 담당 교과 교사가 함께한 선택과목박람회

3

2024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언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월 교직원 워크숍을 활용하여 2023년 교육 활동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한 부서별 프로그램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 및 조율하고, 특색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학교 구성원과 공감한 후 운영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부서나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학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대를 가져본다.

맑음과 밝음과 따뜻함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학급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예일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4학급(606명)
소 재 지	계양구 방축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2.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동아시아 시민 교육 프로젝트 -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 학급별 자유 주제 프로젝트		

1

학급 자율 활동 시간의 작은 변화

●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학급 자율활동 시간

학급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학급별 특색활동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면서 주제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준높은 학급 자치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 결대로 자라는 학급 활동

동아시아 시민, 지속가능발전, 학급별 자유 주제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학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고, 학급의 특성을 살린 활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세 영역의 큰 주제별로 학급의 결을 살린 소주제 설정을 통해 학급의 개성을 살려 즐겁게 실행할 수 있는 학생 주도 활동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시민 학급 프로젝트

● 동아시아 시민교육 프로젝트

반	학급 프로젝트명		
	1학년	2학년	3학년
1반	동아시아 문화 정복하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1반	자율, 자발, 자주적인 동아시아 인식 확장 프로그램(자.자.자)
2반	동아시아의 문화와 환경	우리는 하나 (너와 나의 연결고리)	동아시아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력
3반	인천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및 사회문제 탐구활동	우리는 같은 동아시아 시민, 일본 문화 동행 프로젝트	동아시아 문화 탐구 및 패널 제작
4반	동아시아 문화, 역사 여행	동아시아 국가 소개 리플렛 만들기	함께하는 우리, 함께 사는 우리 지역 이해
5반	공존과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 이슈 월간 신문 제작	1모듬 1책 온책 읽기 1인 1책 읽기	동아시아 관련 모의 NGO 기구 조성 활동
6반	토론으로 접근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조사하기	동아시아 도시 탐구 및 문화체험
7반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실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앞으로의 과제 탐구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평화 감수성	텃밭의 만찬 (재배 작물로 건강만들기)
8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ESG여행에 관한 아이디어 모색과 더 지속가능한 여행객 되기	너나들이-동아시아지역 상호 이해 촉진	동아시아 풍경 보고서

[illegible]

학급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해양 생태계 오염에 대한 조사 및 보고서



동아시아 포스터



인종차별 금지 포스터와 구체적 행동 방안을 공유한
학급 패들렛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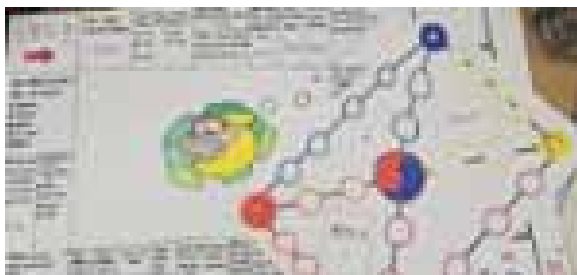
반	학급 프로젝트명		
	1학년	2학년	3학년
1반	기후행동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1반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 속 건강과 행복 찾기
2반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육상생태계 보호	너와 내가 사는 환경, 함께 살기 위해서	인류와 지구를 지키는 청정에너지
3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탐색 및 실천 활동	작은 것부터 천천히, 지구 보호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4반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	학교 텃밭 재배 체험 활동	에너지를 지키는 우리는 지구지킴이
5반	멸종 위기 동물 구조 프로젝트	어린이 과학관 및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펫말 환경캠페인 활동
6반	시로 접근하는 지속가능발전	공기정화식물 재배해서 실내환경정화	자원절약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
7반	해양생태계에 대해 조사 및 보존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	지속가능발전을 가능케 하는 디자인	307 꽃마당 (1인 1식물 가꾸기)
8반	다양한 업사이클링 활동과 학급 텃밭 가꾸기 활동으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하기	환경달력으로 보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위기 극복 프로젝트



학급 텃밭 상추 심기



멸종 위기종 조사



생물 다양성 보전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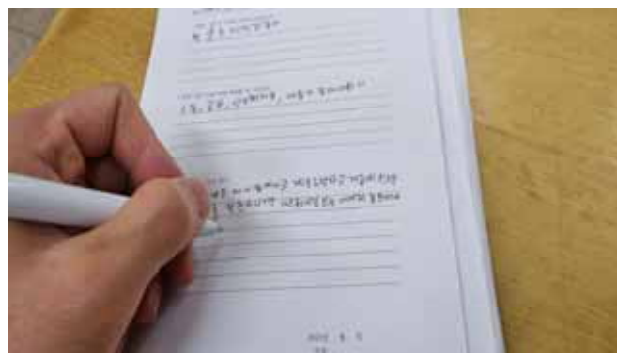
학급 애착나무 앞에서

● 학급별 자유 주제 프로젝트

반	학급 프로젝트명		
	1학년	2학년	3학년
1반	함께 걸어서 멀리 가는 우리반	함께 있어 행복한 1반	상담, 봉사, 힐링 (기적의 상봉)
2반	학급 학예회	점점 더 다가오는 우리의 꿈	탐구활동을 통한 삶의 즐거움
3반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학급 만들기	행복한 우리반, Memory 프로젝트	하모니 작은 음악회 및 우리의 마지막 침대 추억으로 남기기
4반	지금 1학년 4반은	학급 앨범 달력 만들기	기후 환경과 미래 사회
5반	우리 다 같이 즐기자! 세계 전통 놀이 체험	나만의 건강한 식단 만들기 및 비빔밥 요리 체험	나는야 도시농부
6반	1년간의 활동 기록 남기기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고 점검하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수험생활
7반	해양생태계를 해치는 요인을 없애고 수중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일상 속 습관 기르기	평화	행복한 공동체 (인성 실천)
8반	행복을 주제로 한 그림책 제작하기 및 학급 친목 활동	마음 성장 프로젝트	더불어 사는 세상



학급 텃밭 가꾸기



에코백, 에코 파우치 제작

7월 미래의 나에게 점검

3

교실에서의 작은 변화

학급별 주제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은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었다. 제시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지를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의사소통 과정을 거쳐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학급별 주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체적 문제를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급별 자유 주제는 학급 구성원과 동일한 주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활력소 역할을 하였다.

학급 특색활동은 학생들의 학생 자치 문화 형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경험을 제공해주고 학교 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다채로운 학교 생활이 가능해졌다. 학급 특색활동을 통해 학교의, 학급의, 그리고 학생의 걸을 살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원 교육과정

학 교 명	인천세원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3학급(549명)
소 재 지	계양구 병방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9.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넓고 깊게 배우는 학교자율교육과정 - 오늘은 우리가 선생님 - 우리가 만드는 우리 학교 교육활동		

1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원 교육과정

●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것은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교육과정이란 교육과정 편제표와 같은 말로 생각되었다.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3년간 학년에 맞추어 정해진 과목을 동일 학년의 학생 누구나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해진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모든 학습자의 교육과정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달라졌다. 이는 각 학교에 따른 교육과정의 차이를 만들었으며, 나아가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의미 확대를 가져왔다. 나라에서 지정한 내용의 교육과정이 아닌 지역과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맞게 말 그대로 백교 백색, 우리 결대로자람교육에서 말하는 그 결대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존재하게 되고, 학교의 교육이념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그동안 교육을 계획하는 자가 교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에 맞는 교육활동을 세워가는 교육과정 공동 디자인을 실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 나타난 커다란 변화는 학생자치의 가치 상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육활동의 커다란 축을 학생들이 계획하여 운영하는 학생주도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되었다. 동아리 활동이라는 간단한 예만 들어도 과거에는 교사들의 개설 희망에 따라 동아리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동아리를 만들고 구성원을 모집한 후 교사를 섭외하여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그 외 학교에서 실시하던 계기교육 역시 학생들에 의하여 구성되고 스스로 참여를 독려하며 스스로 생각을 키워가는 교육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로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이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실행해보고 싶은 교육활동이

있다. 교육공동체 누구나 만들고 시도하고 싶은 교육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과정 공동디자인이다.

2

너, 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교육과정

● 교사가 말하는 내가 만든 교육과정(학교자율교육과정)

2020년 세계적 감염병으로 학교의 거의 모든 활동이 멈추었다. 교실에서의 협동수업과 활동수업은 전면 중지되었으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어가던 22년도에는 교사의 설명 소리 외에는 어떠한 소리도 없었다.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이 사라지기 전에 학생 스스로 성장하고 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이 절실했다.

본교의 학교자율교육과정은 교사의 요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 교실의 인원으로는 협동 및 활동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특정한 기간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연구하고 활동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는 학교자율교육과정을 제안하셨다. 사실 22년 5월에는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란 용어조차도 잘 알지 못했으나 의견을 들으신 교육과정 부장님께서 알아보시겠다는 한마디가 시작이었으며, 2학기에 들어와 수 차례의 연수 및 교과별 안내와 회의를 통하여 차츰 알아가고, 동시에 바쁘게 준비에 돌입하였다. 담당 부서는 학교자율교육과정의 정의부터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기획회의부터 교과부장단, 교과별 협의회를 여러 차례 거치며 주제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순번	1	2	3
대상	기획위원	교과부장 (1회차)	교과별협의회 (1회차)
내용	학교자율교육과정 개론 및 운영절차 세부사항	운영절차 세부사항 및 교과협의 내용안내	학교자율교육과정 안내 및 교과별 주제발제
순번	4	5	6
대상	교과별 협의회(2회차)	교과부장 회의(2차 ~ 3차)	전 교직원 회의
내용	주제별 구체적 방안 연구	교과별 주제 공유 및 운영방안 토론	구체적 일정 및 질의응답

사실 교사들 스스로 만든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첫 번째 시도가 끝난 다음에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본교 교사들은 12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23학년도 교육과정 공동디자인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시기, 기간, 운영 방법에 대해 6개 조로 나누어 토론하고 발표하였으며,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바로 적용하였다. 학년말의 부담을 덜고 학술제 및 축제와 겹치지 않도록 1학기 말로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조금 일찍 준비한 결과 외부 활동의 접목과 전문 강사 초청 등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학교자율교육과정(오늘은 내가 선생님)



2월 대토론회



● 아이들이 말하는 내가 만든 교육과정(학생 자치 활동의 실제)

작년은 본교에서 행복배움학교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면 올해는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하고 노력하였던 해였다. 22년도에 종합발표회를 위해 다양한 학생들을 모아 혁신 학교의 진정한 목적은 너희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자 한다면 학교는 지원하겠다는 점을 아이들이 믿고 따라와 주었다. 학급 집단의 특색활동, 스스로 만드는 동아리 활동 및 다양한 활동 지원을 약속하니 아이들도 자신의 활동을 계획하게 되었다.

- 내가 만든 동아리(밴드부)

작년 2학기에 두 명의 1학년 학생이 밴드부를 구성하고자 여러 선생님들께 문의했다. 사실 밴드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교사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아 아이들은 23년이 되어서야 신입생을 모집하였다. 2학년 3명, 1학년 5명으로 시작하였으며, 초반에는 악기와 연습실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으나 관심을 가진 선생님께서 드럼과 건반을 갖춘 청소년 센터를 수소문해서 밴드부가 운영될 수 있었다. 또한 전자기타를 처음 접하는 신입생을 6개월 동안 교육해 동아리 창립 반년 만인 9월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공연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밴드부 모집 안내



밴드부 첫 공연



- 연예인 보러올래? 베스트셀러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있어~ (도서부)

본교의 전통있는 동아리 중 하나인 도서부는 다양하게 활동한다. 최근 읽·걸·쓰 흐름에 따라 책읽기를 권장하고 세계 '책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예능인으로 알려진 튀르키예인 알파고를 초청하여 '책읽기와 도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북 콘서트를 개최하고, 김동식 작가의 '회색인간'을 읽고 직접 작가와 소통하는 '톡톡톡 토크 콘서트'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에게 책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북 콘서트 : 있는 그대로의 나



톡톡톡 토크 콘서트



- 학생 자치의 끝판왕 학생회. 너와 내가 하나일 때, 우리는 더 빛이나!

우리 학교 학생회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자주 운영한다. 9개의 부서는 선거가 있는 7월을 제외하고 월별로 1회씩 부서주관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전통이며, 부서의 특색이나 교육청의 계기교육을 주제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유행을 반영한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행사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던 “아이스 브레이킹 피구대회”이다. 학기 초 학급 대항 피구대회를 통하여 어색할 수 있는 반 분위기를 깨고, 반의 단합 및 친목 도모와 코로나로 움츠러진 몸을 깨우는 건강 증진의 효과를 목표로 내세웠다. 작년 2학기 선출된 학생회장의 공약이었던 ‘함께하는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사였으며, 목표 설정에서부터 진행 방법 및 운영까지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마지막 사진전까지 진행하였다. 교사들이 주가 되어 진행되는 행사는 3월에 운영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2월부터 스스로 준비한 이 행사는 23년 학교에서 가장 먼저 실시된 전교생 대상 큰 행사였으며, 신입생들이 학교에 빠르게 적응하고 서로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학생회 임원들 역시 학교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학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스 브레이킹 피구대회



온 마을이 키우는 우리 학교



● 학부모가 제안하는 마을이 함께 키우는 학교

자연에 둘러싸인 본교의 경우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조금 부족한 편이다. 어려운 가정의 비율도 높으며, 학부모의 참여율은 낮은 편에 속하여 학부모 요청으로 학부모 모니터링이 중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청소년 수련관이나 계양도서관과 함께 활동을 연계하여, 학교 밖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계양산 전통시장의 상인회와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장학회’를 통하여 감사의 편지쓰기 및 전통시장 돌아보기를 이어가며 상생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학교 앞에 생긴 카페 사장님의 제안으로 시험이 끝난 본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온 마을이 협력하여 키우는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3 학교의 모든 활동이 곧 교육이다.

혁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할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해야만 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강박이 제일 컸다. 학교는 늘 성장하고 있지만 혁신학교를 5년 운영한 본교의 활동은 여타 다른 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학교나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학교가 더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다. 하지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원고는 분명히 변하였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처음에는 교사가 변했고 지금은 학생이 변하고 있다. 누군가가 정해진 시간표와 행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스스로 활동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어 가는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다 교육이다. 그것이 비록 시행착오일지라도 말이다.



결대로 성장한 동산문화

학 교 명	동산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5학급(501명)
소 재 지	동구 송림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 다양한 학생중심 교육과정		

1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도움닫기

● 미래형 교육과정이란 무엇일까?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이란 대체 무엇일까? 해마다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만들어내고,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과정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해 우리도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 함양이 가능하고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노력할 때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미 결대로자람학교 운영교로서 미래형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기에 동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도움닫기를 시작했다.

●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이번에 학교 홍보를 가는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산고만의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 홍보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었다.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구도시 소재의 학교에선 항상 연말에 학교 홍보를 나갈 때마다 하는 질문이었고, 이젠 이 질문에 모든 교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며 동산고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라고 생각했다. 대토론회가 열리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 고민에 대한 교사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볼 수 있었고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과 동산이 나아갈 길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보았다. 그 이후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 다양한 각도에서의 교육과정에 관해 연구하되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그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기르기를 목표로 두었다. 각 학년별 그리고 각 분과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모여 끊임없이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에 대해 토의하고, 학생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산만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1학년 전학공 모임



전학공 해움 독서토론회



2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뛰어오르기



●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사 모두 받아들였다. 교사가 노력해야 아이들이 발전한다는 생각 또한 모든 교사가 갖게 된 것이다. 교사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학년형과 교과형 전학공을 통해 그 내용을 공유했고, 때로는 다양한 과목의 융합으로 수업과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자신의 수업을 자발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교사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통합사회와 체육 그리고 영어과의 융합, 체육과 보건의 융합, 일본어와 영어의 융합, 미술과 역사와 지리의 융합 수업 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수업 기회를 주었고, 자발적인 수업 나눔을 통해 다채로운 수업을 공유하며 수업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과학과 수업 나눔



빅데이터 수업 나눔

● 다양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 자율적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1년 동안 함께 연구하고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했던 다양한 수업을 자율적 교육과정의 날을 통해 수업 나눔을 했다. 전 교사가 참여하여 두 교과 이상의 융합 형태로 하기도 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운영해나가기도 했으며, 다양한 활동으로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등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교실 안 수업이 아닌 자유롭고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보여주었다.



통합사회와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인포그래픽



스포츠 생활과 공중보건의 운동과 안전



수학과 음악사이



영어와 일본어로 만드는 리플릿

- 교과목의 날

처음 수리과학의 날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전 교가 참여하는 교과목의 날이 되었다. 1년 동안 교실 안에서 했던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의 참여 수업 형태로 진행했고, 교실 안에서 무기력하게 수업 참여를 하지 않던 학생까지도 부스 운영으로 끌어내어 예외 한 명 없이 모두가 즐기는 수업 나눔의 날이 되었다. 학생들 입장에선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 학생 중심의 교과목의 날이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과목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 만들기(교과의 날)



증류를 이용한 향수 만들기(교과의 날)



할러윈 체험(교과의 날)



유카타 체험(교과의 날)

- 다양한 읽·견·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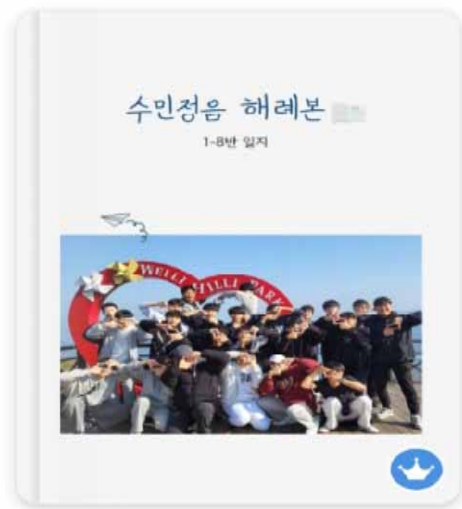
‘동산고등학교 도서관 읽·견·쓰 패들릿’, ‘한 학교 한 책 읽기 캠페인’, ‘읽·견·쓰 쓰기중심 독서교육 it 프로젝트’, ‘독서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읽·견·쓰 활동으로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문해력을 향상시켰고, 문학기행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후 활동을 통해 독서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사회 문화, 역사, 사회 현상 등을 탐구하며 역사, 사회과목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갖게 되었고, 독서를 매개로 한 발표·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및 표현 역량, 논리력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 학교 한 책 읽기 캠페인



독서 역량 강화 프로젝트



1학년 8반 학급문고 '수민정음 해례본'



동산고 도서관 읽.견.쓰 패들릿

3 결대로 성장하여 비상하다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민주적인 교육과정, 미래형 교육과정.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 첫발을 뗐고, 도움닫기하고 뛰어올랐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와 외부 강사 초청 선택과목 선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교과와 날을 통해 학생들이 교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교과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변하고, 학생이 변하고, 동산만의 교육과정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성장의 뒷면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교과 진도와 수험 준비는 무시할 수 없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다교과 수업과 고정시간표 등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결대로 성장하여 비상하기 위해 우리 동산 구성원들 모두 흔쾌히 감당하며 노력할 것이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과정

학 교 명	대인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36학급(1036명)
소 재 지	서구 공촌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11. 24.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학생의 삶을 가꾸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함께하는 독서 글쓰기 교육 - 삶과 분리되지 않는 다양한 배움과 성장		

1

다양한 교육활동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 학생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교육과정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준비교)로 운영해 온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교과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실제 선택 과목을 경험하고 있는 선배 학생들의 참여로 후배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지원하였다.

● 다양한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

2014학년도부터 시작한 사회 중점 과정과 2021년부터 준비한 ‘미래 융합 과정’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분야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식을 쌓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독서,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미술동아리와 음악동아리를 중심으로 교내 예술 교육을 활성화했다. 오랫동안 진행해 온 교내축구대회, 농구대회, 배드민턴대회 등이 활성화 되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 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들이 주도 하였다.

●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활동 운영

학년 초 교육과정 설명회를 비롯하여 수시로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독서 글쓰기 모임을 3년째 운영하며 학부모들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행복하게 자라나는 교육활동의 실제

● 학생들이 주도하는 교육과정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 선택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맞게 최대한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각 반의 창의 체험 부장이 주도하였다. 각 계기 교육은 각 반의 학생들이 나누어 맡아서 각자의 교육 내용을 준비해서 진행하였다.

● 인문 사회과학 체험활동 진행

독서 동아리를 중심으로 동네 책방 탐방 활동을 진행했으며, 학생-학부모 독서 글쓰기 모임을 3년째 운영 중임. 인문, 사회, 환경,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자 초청 특강, 북토크, 낭독콘서트, 세계 책의 날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학급 대부분이 참여하는 학급 대항 축구대회와 농구대회 등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다.

●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학생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학부모 독서 글쓰기 모임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학부모 독서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 나도 작가 프로젝트에 당선되어 책 출판을 앞두고 있음. 한편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평가위원회, 학부모회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3

행복한 학교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소외되지 않는 학교 만들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에게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칫 고등학교 교육활동에서는 입시라는 목적에 가려져 학부모 활동이 형식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소통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 행복하게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결대로 자라는 학교가 되려면 서로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쪽이 부각되면 어느 한쪽이 밀려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 설명회 1



로봇 연구자 특강



창체부장 워크숍



영어단어 배틀 행사



대인 챔피언스리그



학부모 독서 글쓰기 모임



릴레이 소설 쓰기 행사



도서관 저자 초청 강연



함께 나누고 스스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학 교 명	덕신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9학급(224명)
소 재 지	강화군 강화읍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교육과정과 학생 자치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1

학생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학생 소위원회 운영

2022년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교육과정 학부모 위원회 및 학생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와는 다른 교육과정 학생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3월에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4월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간단한 자체 연수를 진행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5월에는 교육과정 박람회의 전체 운영 과정을 기획한다. 기획한 내용은 수시로 협의하여 개선한 뒤 교사의 협조하에 운영 역시 직접 진행하게 된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G-T 공동교육프로그램, 꿈이음대학 등 공동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진행하고, 11월에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과정 디자인 캠프를 기획·운영하면서 매년 교육과정 학생 소위원회 주관으로 학생 대토론회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학생 소위원회는 학생 수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기획하고 운영했던 2023년
교육과정 박람회



교육과정 학생 소위원회 회의 장면

● 탐구력을 확장하기 위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총 9개 학급, 224명으로 강화 지역 고등학교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의 학교이지만 교육과정을 수시로 정비하여 현재까지 2학년에 21개 선택과목, 3학년에 22개의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으로 사회과제연구, 과학과제연구, 국어과제 연구와 같이 학생의 탐구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 연구 과목을 3개 과목 편성하였으며, 인문학적 상상여행과 같은 고시 외 과목, 경제 수학과 같이 진로와 연관이 깊은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자율적 교육과정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2022년 2학기에는 이집트 상형문자로 편지 쓰기, AI 활용 수업, 범교과 융합 토론 등 8개 융합 수업을 계획하고 학생선택에 따라 운영하였다. 2023년 역시 5개의 전학공에서 생성형 AI로 에세이 쓰기, 강화 건축물 탐구 등 수업의 테마를 설정하여 학생 선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 2학기 자율적 교육과정 중 이집트 상형문자로
편지쓰기 수업 장면



주변 물을 채취하여 PH 농도를 측정하는 학생 탐구
활동

2

인천과 함께, 강화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 공동교육과정의 폭발적인 확대

2021년까지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이 매년 15명 내외였던 상황에서 학생 주도의 진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동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장점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 2022년 1학기 32명, 2022년 2학기 35명으로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74명으로 44%의 학생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G-T 도약지구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2022년 참여학생이 17명에 불과하였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로 2023년에는 53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꿈이음 대학, 창의융합진로 공동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까지 더하면 참여 학생 수는 더욱 늘어난다. 더불어 본교에서의 공동교육과정 강좌 역시 확대하여 2021년에 1과목에서 2022년 3과목, 2023년에는 5과목으로 개설을 확대하였다. 지역 교육 네트워크를 끈끈하게 구축하여 우리 지역 학생들의 꿈을 함께 응원하고자 한다.



2023년 G-T도약지구 공동교육프로그램
(경인여대 아동 생활지도)



2023-2학기 본교 문예 창작 입문 수업

● 강화도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

우리 학교는 2021년부터 지역 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교육활동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 현재에도 꾸준히 지역 저수지 정화활동 등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십수 년 전부터 운영한 ‘강화사랑한바퀴’ 활동을 매년 여건에 맞게 변화를 주어 활동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세계시민교육과의 융합을 시도하여 1학기에는 지역 문화해설사를 통한 인천세계시민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2학기에는 서울까지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한 국화리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문화해설사와 함께한 인천세계시민활동

3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자란다는 믿음을 주는 학교

우리 학교는 4개의 학부모 자치 동아리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학생 선택 자율적 교육과정을 위한 교사 전학공, 학생자치회와 교육과정 학생 소위원회 운영 등 교육 3주체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믿는 학교를 구현하고 있으며 더욱 발전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러한 활동이 지속되고 정착된다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라는 타이틀이 단점이 아니라 엄청난 장점으로 우리 학교만이 가진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하여 ‘나는 자라고 있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나눔 실천을 위한 감사상자 전달식



2023-1학기 동아리 발표회에서 학생들이 직접 구안한 수업 교구



매달 진행되는 지역사회 연계 멘토링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한 비전 페스티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일한 ‘결대로자람’ 특수학교

학 교 명	인천청인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56학급(328명)
소 재 지	미추홀구 도화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및 지역화		
주요내용	- 지역사회 참여 역량을 증진하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장애 학생의 사회 통합을 위한 학교의 마을교육 자원화		

1

인천시교육청 유일한 혁신 특수학교로서의 새 출발

● ‘혁신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하는 학교. 관내 특수학교 최초로 혁신미래교육 모델로 지정된 인천청인학교는 장애가 있는 330여 명의 유·초·중·고·전공과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다. 장애학생들의 성장과 자립,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청인학교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혁신학교에 공모하게 되었다. ‘결대로자람학교’로서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의미를 명확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어느 누군가의 지시나 판단,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운영되는 학교, 함께 세운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학교’를 혁신의 의미로 공유하게 되었다.

● 교육공동체 4주체의 고민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 4주체(학생, 교직원, 교사, 지역사회)가 연수, 워크숍을 통한 협의 끝에 장애 학생들의 당당한 사회 통합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에 모든 주체가 공감하였으며 학교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학교를 마을로, 마을을 학교로!’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장애 학생들이 우리 마을의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본교의 특성을 살린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결정 하였다.

2

학교를 마을로, 마을을 학교로!

● ‘진로와 직업’ 교과를 활용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

장애 학생들의 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본교육과정 ‘진로와 직업’ 교과를 미추홀구의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진로와 직업부’에서 이와 관련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교사들이 쉽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공공기관, 마을 내 다양한 상점 등을 실제로 이용하며 장애 학생들의 사회 자립에 필요한 실제적인 경험과 기술을 우리 학생들의 생활 현장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학급별로 ‘마을 탐험의 날’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접하고 지역사회 시설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진로와 직업 교과를 재구성한 교수·학습자료



● 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

인천청인학교 학부모회는 전공과를 제외한 유·초·중·고등학교 과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월 1회 외부 강사를 초빙한 학부모 연수, 학부모 강사를 활용한 평생교육 차원의 다양한 워크숍들을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식개선 활동의 하나로 본교 중학생 73명과 함께 천연물감으로 손수건을 염색하여 인근 학교와 장애 통합 유치원, 장애 통합 어린이집에 손수건을 배부하였다. 또한 제8회 학부모 에듀페스티벌에서 ‘천연염색(손수건)’ 부스를 운영하여 체험에 참여한 관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천연염색 경험과 함께 특수학교에 대한 관심과 편견 없이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였다. 본교 학부모회는 “연수 및 평생교육, 마을협력교육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학교에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학부모 대상 천연염색 연수



제8회 학부모 에듀페스티벌



●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교내 행사 진행(마을 속 작은 역할 프로젝트)

‘플로깅 챌린지’, ‘나의 첫 아르바이트(도서관 대출, 반납)’, ‘우리 마을 포켓스톱을 찾아라!’ 등 학생들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교내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소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장애 학생들이 마을공동체에 작게나마 기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미래의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속 작은 역할 프로젝트’ 교내 행사 포스터



●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최

마을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교의 상호 의존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 구성원들을 학교로 초대하여 ‘별 볼 일 마을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본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마을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영화 상영 전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뽑기 행사’를 진행하여 상품을 나누어 주는 시간을 가졌고 그 후에는 학교에서 준비한 팝콘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안녕 보리’라는 영화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별 볼 일 마을 영화제’에 참여한 고등학생, 행정복지센터, 교회 등 마을 구성원들은 “이러한 영화제를 좀 더 자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 기관으로 긴밀하게 교류해봅시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행사를 주최하는 학교 입장에서 부딪힘을 느꼈으며 마을 속의 학교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별 볼 일 마을영화제’



3

‘결대로자람’ 특수학교의 첫해를 마무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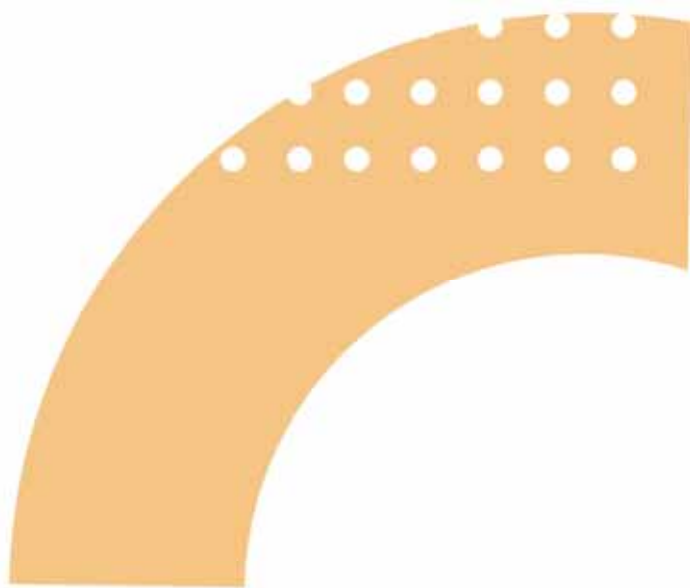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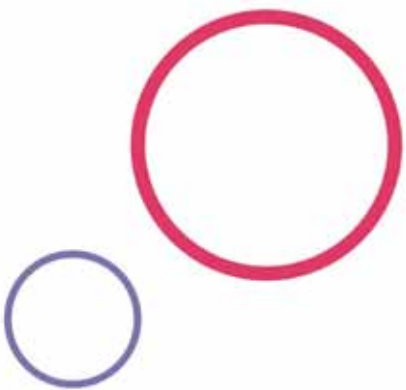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일한 혁신 특수학교로 새롭게 출발한 2023학년도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많은 고민과 협의가 거듭되는 시간이었다. 인천청인학교 유·초·중·고·전공과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통합을 위하여 330명 각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결’들을 학생들이 속한 마을, 그 속에 생활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결’로 다듬는 과정은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인천청인학교 교육공동체의 고민은 진행 중이다. 어쩌면 앞으로의 시간도 고민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민과 협의의 시간 자체가 ‘혁신’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올 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나아갈 방향을 같이 보고 각자 맡은 역할을 무겁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 맞추어 나아갈 것을 다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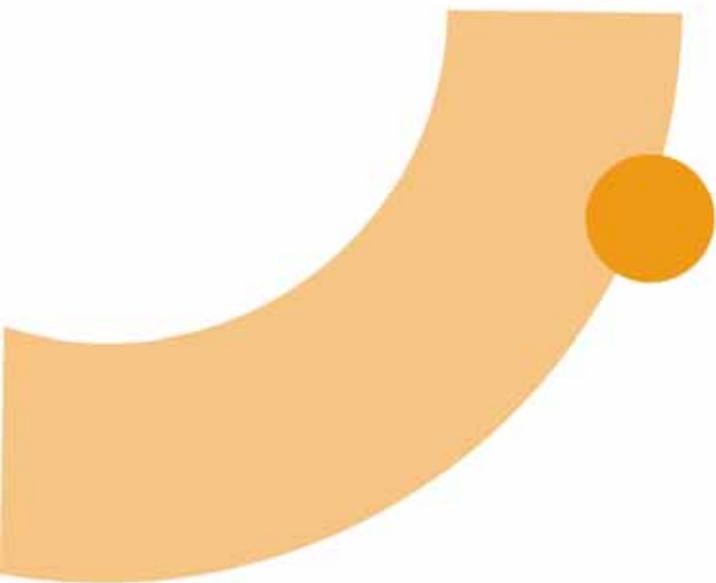


2

민주적 학교공동체



초등 · 중등



학생 자치활동, 어디까지 해 봤니?

학 교 명	인천창영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2학급(240명)
소 재 지	동구 창영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스스로 만드는 학교 규칙 - 학교의 주인이 되는 학생 자치		

1 학생 자치의 필요성

○ 학생은 학교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비전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사람’ 즉,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는 사람을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스스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배운 지식을 체득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며 학교 교육은 이러한 바를 전략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을 학교 운영의 주체로 바라보고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는 민주적인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학생은 학교를 넘어서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은 학생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교사나 관리자 또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격변하는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 능력을 함양하고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가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2 학생 자치, 싹을 틔우다.

○ 한해살이 계획 학교 규칙 만들기

학생이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교 규칙 만들기였다.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지키는 학교생활 규칙 외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규칙이 몇 가지 있다. 이러한 규칙으로는 ❶ 방과후 학교 강당 개방 및 학생 자율 사용에 따른 강당 사용 규칙 ❷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모두의 냉장고 사용 규칙 ❸ 여자 화장실 자율 생리대 사용 규칙 ❹ 앞·견·쓰와 함께하는 아침 10분 독서 규칙 등이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촘촘한 규칙을 제정하고 학급, 학년, 전교에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를 끌여가는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내면화하였다. 학교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학급별로 학급회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세울만한 내용을 정리하여 결정하고, 전교 학생회의에서는 학급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 그리고 참여 희망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종결정하였다. 학생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치열한 토의와 토론의 과정, 다수결을 통해 최종결정하는 과정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체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험이 되었다.



전교 학생회의



모두의 냉장고



여자 화장실 자율 생리대

3 학생 자치, 꽃 피우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에도 그 조직을 끌여가는 리더 그룹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전교 학생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이 맡고 있다. 따라서 학생 자치활동은 자연스럽게 전교학생회 임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장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도 모았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과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몇 가지 행사를 진행하였다.

○ 꿈오름 무대 운영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전교학생회에서는 방과 후에 꿈오름 무대를 운영하였다. 행사계획 수립 및 홍보, 참가학생 접수, 발표 순서 선정, 무대 진행, 무대 장치 설치, 방송 관리, 관람 홍보에 이르기까지 꿈오름 무대 운영에 필요한 전체적인 내용을 전교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참가 학생이 너무 많아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2회에 걸쳐 나누어 운영하였다. 저학년 학생들의 귀여운 춤과 노래에서부터 태권도 공연, 우쿨렐레 연주, 피아노 연주, 기타 연주, K-POP 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함께 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흥겨웠다.

꿈오름 무대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과 평가도 학생들 스스로의 몫이었다. 방송 음향은 괜찮은지, 조명 지원은 어떻게 할지, MR 지원은 어떤 방식이 좋을지 등을 고민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해 주는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도 학생들 스스로 고민한 결과였다.



꿈오름무대-학생회 주관 개회



꿈오름무대-피아노 연주



꿈오름무대-춤

○ 학교, 마을과 함께 한 365 나눔활동

학생 자치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지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일시	활동 내용	참가자	장소	활동 모습
2023.5.3. 2023.5.10.	○ 효자손 만들어 금창동 이웃 어르신께 나누기	학생회 임원	마을경로당, 마을 도로	 
2023.5.15.	○ 스승의 날 기념 감사 인사 캠페인 활동	학생회 임원 참가 희망 학생	학교 교문	 

일시	활동 내용	참가자	장소	활동 모습	
2023.9.27.	◦ 비누 만들어 마을 추석 인사 나누기	학생회 임원	창영복지관, 금창동 일원		
2023.10.11. 2023.10.25. 2023.11.1.	◦ 실크인쇄 에코백 제작 하여 복지관에 기증 하기	전교학생회 임원 학급 학생회 임원	학교 문화재관, 창영복지관		
2023.11.8.	◦ 물살이 동물의 물길 보호 표시 캠페인 활동	전교학생회 임원 학급 학생회 임원	금창동 마을길		

4 학생 자치, 학교의 주인이 되다.

학교 규칙, 스스로 정한 규칙이었기 때문에 더욱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학교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보면 다른 학생들이 나서서 이야기하였다. 꿈오름 무대, 서투르고 실수도 많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의하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모두의 냉장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하는 누군가의 나눔으로 운영되는 공유 냉장고이다. 학생들은 스스로 ‘한 사람에 하나씩’이라는 사용 규칙도 만들어 냈으며, ‘모두의 냉장고’에 공유하고 기부하는 보람도 경험할 수 있었다. 나눔 365 활동, 친구들에게 좋은 일을 권유하고 응원하였고, 금창동 이곳저곳을 다니는 동안 마을과 가까워지고 나눔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참한 친구를 좋아하는데 꿈오름 무대 에서
꿈을 추는 떨리고 긴장 했지만 막상 공연을 끝내고
나니 너무 내 자신이 백투 하고 좋았다 친구들이 드림
작곡가 친구들한테서 기억에 남았고 앞으로는 더
가 되며 또 연습을 연습해서 꿈오름 무대에 나가고 싶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해 우려하던 교사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잠재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앞으로 학생들은 숱한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 어느 순간 교사의 바람과 학생의 요구가 상충되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 자치활동에서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는다. 이제 비로소 그 한 걸음을 내디뎠다.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며 학생들 스스로 진정한 학교의 주인으로 성장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갈산학생자치회 이야기

학 교 명	인천갈산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3학급(232명)
소 재 지	부평구 갈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9.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학생자치회의 구성 및 활동 - 학생자치회의 의사결정권 제도화		

1 학생자치회의 구성

○ 학생자치회 및 학급대의원 규정 개정

혁신학교로 지정이 된 후 4년 동안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학생자치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하지만, 학생자치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학급대의원의 역할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였다. 기존의 학급 정·부회장과과의 차이를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 역시 기존의 학급 정·부회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2022년 12월 교육과정 성찰 협의회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23년 2월 교육과정 워크숍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첫 번째, 학급대의원으로 시작한 취지가 좋으나 홍보가 잘 안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학급대의원 선거 주간에 담임선생님들은 각 학급에서 학급대의원의 의의 및 역할에 대한 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현재 학급당 20명 내외에서 학급대의원 3명은 많다고 보고 학급대의원을 학급당 2명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현재 4~6학년으로 구성된 학급대의원을 3~6학년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세 번째, 또한 학생자치회의 활동 시간을 바꾸기로 합의하였다. 방과 후에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였으나, 방과 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 일부 학생들만 자치회에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점심시간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학급대의원 규정 개정은 교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하였다.

○ 학급대의원 선거 및 학생자치회 구성

학급대의원 규정을 개정하면서 학급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학급대의원의 의의와 역할 그리고 학생자치회 활동에 대한 안내가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이 학급대의원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3~6학년 각 반에서 2명씩 선출된 18명의 학급대의원에 전교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학생자치회가 구성되었다.

우리 학교는 전교 회장, 부회장을 12월에 선출한다. 그렇게 되면 전교 회장과 부회장이 겨울 방학 동안 앞으로 1년 동안의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이전 연도 전교 회장과 다음 연도 전교 회장과 의 만남을 통하여 한 해의 학생자치회의 활동과 주의해야 할 점 등 여러 가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또한 3월에 학급대의원이 선출되고 나면 바로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기도 쉽다.

2

학생자치회 활동

○ 학생자치회 리더십캠프

학생자치회 구성이 예년보다 늦었기 때문에 바로 리더십캠프를 진행하였다. 리더십캠프에서는 1년 동안의 학생자치회 목표를 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운다.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 담당 교사가 학생자치 회의 취지를 이야기해 주고 작년 활동 등을 설명하면서 학생자치회의 방향을 어느 정도 알려주지만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1년 동안 활동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도록 해야 학생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활동할 수 있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 자치회 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계획을 세워서 할 활동 들을 알려주면 완성도가 높고 쉽게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자라는 힘을 키워주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리더십캠프에서 학생자치회 구성원들간의 친목 활동 또한 빠지면 안 된다. 1년 동안 같이 활동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야 학생자치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리더십캠프는 학급대의원들이 리더십을 기르고 1년 동안 학생자치회 활동을 계획하여 학생자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자치회 회의



학급자치회 구성 및 활동 계획

○ 학생자치회 활동

학생자치회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정하였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점심시간이 학생자치회 활동 시간이다. 학급 다모임에서 나온 의견을 학생자치회에 전달하고 나온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행할지 계획을 세운다. 올해에는 4~6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구성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구성하였다. 학급 다모임을 통하여 학급에서 나온 의견을 학생자치회에 전달 하였다. 그리고 학생자치회는 학급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동아리 후보군을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가능한 부서를 선택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가 완성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요구와 흥미가 반영된 8개의 부서가 만들어졌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모였지만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는 수시로 자주 모였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모이다 보니 학생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다. 방과 후 시간도 미리 조정하면서 방과 후에도 모여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가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지시했다면 학생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모이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 학생들 스스로 준비하다 보니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었지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했기 때문에 교사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힌트 정도만 제공해주어도 쉽게 위기를 극복해가며 행사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자치회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회 아침맞이

학생자치회는 각종 캠페인 활동, 아침맞이 활동, 학교 사랑 행사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했다. 활동이 계획되면 학생자치회는 더욱 자주 모인다. 행사 날짜가 다가오면 매일 빠지지 않고 모여서 활동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한다. 학생자치회 활동이 시작되면 모두 정해진 시간에 와서 맡은 일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는다. 그리고 학생자치회 활동이 끝나면 협의회를 통해 소감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점을 함께 이야기하며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다.

3

더 나은 학생자치회를 위하여

우리 학교 교육 계획상 12월에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고 졸업하게 되면 1년 동안의 학생자치회가 마무리된다. 최근 3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자치회 활동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올해는 학생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편이다. 다수의 학생이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구나’를 인식하고 있고 학급대의원의 역할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활동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다. 학생자치회의 활동이 커다란 행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구성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학생자치회가 큰 역할을 했고, 학급 다모임에서 나온 의견들을 학교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학생자치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역시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할 때였다. 올해의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속 이어 나가 내년에도 더 나은 학생자치회를 준비해야 하겠다.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는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기도 만나고 때때로 실수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위기와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나 어른들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일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내었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학생자치회는 이제 필수이다. 학생자치회는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소통 창구이다.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구성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면 내년에는 더 다양한 의견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학생자치회가 더욱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학교 MBTI 만들기 대작전

학 교 명	인천주원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일반18, 특수3(278명)
소 재 지	남동구 간석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2.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학생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우리 학교 학생 활동 - 작은 학교 모두가 어울리는 학교 행사		

1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 학교 MBTI

○ 우리들의 혈액형은 어색형?

우리 학교는 작년까지 한 학년에 두 학급뿐이어서 3·4학년쯤만 되면 같은 학년뿐만 아니라 동생 학년에도 선배 학년에도 모르는 학생이 없을 만큼 서로를 잘 알고 지낸다. 혹시 이름은 조금 헛갈리더라도 얼굴을 보면 알아볼 수 있다.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와도 몇 주 후면 모두가 또 다 알게 된다.

하지만 얼굴이랑 이름을 알고 있어도 같은 반 친구가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도 먼저 말 걸기가 참 어렵다. 부모님이 어릴 때는 골목에서 동생들이랑 언니, 오빠, 형들이 다 같이 어울려 놀았는데 우리는 그게 어색하다.

○ 우리 학교 MBTI는?

골목에서 어울려 놀지 못해도 학교에서 같이 놀고 공부하며 어울리다 보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우리들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답다. 어울릴 수 있는 마당, 골목, 시간, 놀이를 학교에서 우리들이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주원학생회가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내고, 손을 맞잡고 만들어 낸 활동들을 통해 우리들의 어색형을 다정형으로 만들려는 작전, 우리 학교 MBTI 만들기 대작전은 이렇다.

2

우리들이 만드는 우리 학교 MBTI

○ 일단계 - 우리들의 아지트 ‘학생자치회의실’

학교에 우리들의 아지트가 생겼다. 4층 5·6학년 교실 옆에 생긴 멋진 학생자치회의실, 언제라도 우리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누군가 자치실 복도 화이트보드에 안건과 모임 시간을 쓰면 거의 모두가 다 모인다. 정기적으로 하는 학생자치회의 보다 번개 회의가 더 활발하고 진지하다.



학생자치회의실의 번개 회의

○ 2단계: 학생자치회가 만드는 ‘주원 해피 통신’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어느 학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알기가 힘들다. 우리 번개 회의에서 나온 첫 번째 작전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하는 방송조회 시간에 한 달간 있었던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재미난 사진을 베스트 포토상으로 뽑고 그 장면을 만든 학생에게 과자를 선물했다. 심심한 방송조회 시간은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주원 해피 통신 속에 우리반 사진이 나오고 어쩌면 내가 베스트 포토상을 받는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원 해피통신 방송



베스트 포토상 선물

○ 3단계: 즉석 사진을 찍어드려요 ‘꿈트리 학교숲 추억 찍기’

올해 여름, 우리 학교숲은 새 단장을 하였다. 정문에서 운동장을 동글게 도는 오솔길도 생겼고 근사한 벤치와 케노피도 생겼다. 계절별로 색색깔의 야생화도 핀다.

이런 좋은 골목길이 또 어디 있겠어? 우리들은 계절마다 학교숲에서 등교 시간에 즉석 사진을 찍어 주는 주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석 사진기와 필름도 사고 귀여운 소품도 준비 완료. 요일별로 조를 짜서 일주일 동안 학교숲 오솔길 사진관을 운영하였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이렇게 귀여운 후배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많은 학생이 학생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는 것이 참 뿌듯하였다.



학교숲 즉석사진 주간
홍보



여름 학교숲에서 찰칵!



학교숲 오솔길의 추억
저장



꽃보다 고운 친구들과
함께 가을 학교숲에서

○ 4단계: 모두 모여 외치는 소리 ‘여름방학이다, 야호! 야호! 야호!’

이제 슬슬 다 함께 모일 때가 되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도 우리는 280명 정도.

처음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강당에 모여 여름방학을 외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에서 시작하였는데, 일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학년에서 특색활동으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을 뽐내는 것, 1학기를 보내며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소감을 물어보는 등곳길 인터뷰 영상을 만들자는 것까지는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핸드벨을 전교생이 들고 같은 음악을 연주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담임 선생님들과 우리 주원 학생들이 도와주니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근사한 울림으로 감동을 주었다. 280개의 핸드벨 울림은 어디서도 들어 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만든 소리였고, 여름방학을 외치는 280명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느끼는 신나는 떨림이었다.



함께하는 여름방학 선포식



1-2학년 학생들의 댄스타임



6학년 학생들의 우쿨렐레 연주



전교생이 울리는 핸드벨

○ 5단계: 결대로 자라는 우리들의 ‘주원 학교 생일잔치’

이 이야기는 2022년도 12월 이야기다. 물론 올해 12월 5일에도 우리들의 최고 축제, 학교생일잔치를 한다. 아쉽게도 이글에는 올해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어서 작년 학생회가 주최한 학교생일잔치를 소개한다. 첫 시작이 작년이었다. 학생회가 모여 개교기념일이 있는 주간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꾸민 것이 개교기념일(12월 6일) 전날, 전교생이 모여 공연도 보고 학교 퀴즈도 푸는 신나는 시간을 만든 것이다. 11월부터 학생회 모두가 바빠진다. 학급마다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홍보하고 공연팀을 모집한다. 공연팀 오디션은 참여하는 학생도 심사하는 우리들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오디션에 선정된 팀이 학교 생일잔치 무대에 선다. 이날 우리는 얼굴만 알던 선후배와 친구들의 끼와 재능을 알게 되고 함께 모여 노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열리는 올해 학교 생일잔치를 더 신나고 정다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학생회는 오늘도 모여 회의를 할 것이다.



심각하다! 오디션 심사



우쿨렐레를 연주하며 노래까지



걸그룹 댄스의 최강팀



학교 사랑 OX 퀴즈 출전 준비 완료!

3

우리 학교 MBTI는 STAR!!!

우리 학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든 슬로건은 ‘빛나라, 별들아!’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다. 우리들 각자의 MBTI는 16종류가 아니라 280가지이다. 그럼 280개의 저마다의 빛과 색으로 어울려 빛나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 우리 학교 MBTI는 무엇일까?

그렇지, 우리 학교 MBTI는 STAR! 세상 하나뿐인 제일 예쁘고 빛나는 별이다.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요

학 교 명	인천동부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4학급(475명)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학생자치와 학부모회 자치 활동 활성화 - 3주체 교육공동체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과 공유		

1 행복한 학교,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 동부초 학생자치회 역량강화 캠프 운영

동부초 학생자치회가 구성된 후 첫 활동으로 학생자치 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하였다. ‘토론으로 풀어가는 리더의 문제해결’이란 주제로 학생들 스스로 학교의 해결되어야 할 공동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토의하면서 학생자치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토의에 임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1년, 1학기 동안 학급 또는 학교의 대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만다라트 기법으로 모둠 토의하기



토의 결과 발표

○ 동부초 교육공동체 학생생활협약 제정

2023학년도 동부초등학교는 학생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가꾸고 지혜를 키우는 존재로 보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공감과 배려를 통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자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협약을 제정하였다.

생활협약의 내용은 친구의 이야기 경청하기, 실수나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기, 학교 엘리베이터 사용 규칙 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속 등을 담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제정과정은 생활협약 취지 홍보, 전교학생 자치회의 생활협약 개정 발의, 각 학급별 생활협약 토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 찬반 설문 스티커 붙이기 실시, 생활협약 점검, 및 학교 방송을 통한 선포식 및 생활협약 부채를 제작하여 실천의지를 다졌다.

교육공동체간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야 생활협약을 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학교 발전을 꾀하는 약속과 다짐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생활협약안 찬반 스티커를 붙이기



제정된 생활협약 내용을 부채로 제작.홍보

● 학생자치회 어울림 주간 행사 진행

어울림 주관을 맞이하여 학생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학교폭력 예방 뱃지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담긴 피켓을 만들고 이들에 걸쳐 아침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뱃지를 만들기 위해 모여 정신이 없었지만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학교폭력 예방 행사를 진행한 만큼 많은 학생들이 'NO 학교폭력'을 마음에 담은 시간이었길 바란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나만의 뱃지 만들기

2

동부초 학교활동 우리가 지원해요!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부모회 운영

2023학년도 동부초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총무, 각 학년 대표, 운영위원회 임원들과 교장, 교감, 교무부장, 인성부장, 담당 교사가 참석하여 수시로 각 학년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 행사도 함께 계획하였다.

○ 학부모 풍선아트 자격증 연수 실시

동부초는 올해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회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학부모회에서는 결대로자람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연수를 받고, 학교에 교육 기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풍선아트 자격증 연수’였다. 7월 3주간 풍선아트 3급 자격증 연수를 진행하였고, 22명의 학부모님들이 풍선 데코레이션, 세팅, 아트 작품, 대형장식 실습을 받아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학부모님들의 풍선아트 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예절교육, 졸업식 등의 학교행사 때 직접 풍선으로 공간을 꾸며주었다. 풍선 하나로 학교가 발랄한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 동부초 학부모회 교육기부 활동

학부모회는 10월 3주 한 주간 ‘전통예절교육 및 전통놀이체험’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을 성장시키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하고 학교와 조율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3학년은 예절 1시간과 전통놀이 1시간을, 4~6학년은 전통놀이 및 예절퀴즈 한마당 2시간을 진행하였다. 절하는 방법, 윷놀이, 떡메치기, 제기차기, 돌림판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동부초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학부모님들과 같이 운영하는 주였기에 서로 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동부초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자, 조력자, 협력자로서 교육 3주체인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었다.

이 외에도 어린이날 이벤트 (인형탈 쓰고 아이들 등교맞이), 스승의날 이벤트 (스승의날 포토존 꾸미기), 결대로자람 학부모 연수 이수, 재능기부(풍선아트, 가방 만들기), 크리스마스 이벤트(인형탈 쓰고 등교 맞이), 졸업생 포토존(풍선아트) 등을 진행했거나 진행 예정이다. 앞으로도 동부초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들의 재능이 교육기부로 이어져 교육자치 문화가 빛을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부모회 풍선아트 자격 연수



학부모회 교육기부 예절교육



학부모회 스승의 날 이벤트



학부모회 어린이날 이벤트

3

결국 함께해야 성장할 수 있다

○ 첫 단추를 끼우기 시작한 동부초 결대로자람학교

우리 동부초등학교는 올해부터 결대로자람학교를 시작하였고 학교비전과 나아갈 방향성을 계속 묻고 확인하며 큰 걸음은 아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교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뜻을 같이하지 않는다면 비틀거리다 주저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마음을 공감하며 그렇게 조금씩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행히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은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는 현재 동부초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자신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를 위해 힘쓰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부초는 결대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장아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41학급(1005명)
소 재 지	남동구 서창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함께 참여하는 학교 자치문화 확산 - 꿈나래회(대의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학생 자치활동 강화 - 학생 자율동아리 활성화		

1

함께 참여하는 학교 자치문화 확산

○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교사 자치문화 구현

- 전년도 반성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교사 다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통공감회의를 정례화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 방향 설정 등을 함께 협의해가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였다.



교사 다모임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

○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학부모 자치문화 구현

- 학부모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학부모 밴드를 통하여 수렴하고 학교 교육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행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확립하였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 주관



다양한 학부모회 동아리 활동



학부모회 사랑나눔 바자회

2

꿈나래회(대의원제도) 활성화를 통한 학생 자치활동 강화

○ 스스로 참여하는 대의원회의 조직 운영

- 꿈나래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모집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위해 활동할 대의원회를 조직하였다.
- 1차 모집 후 2차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였다.(4학년 4명, 5학년 6명, 6학년 5명)

○ 실천과 다짐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월드카페 형식을 통하여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자신의 끼를 방출하는 장기자랑과 학교생활에서 개선할 점을 함께 의논하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실천과 다짐 회의 개최



학교생활에 관한 의견 수렴



장기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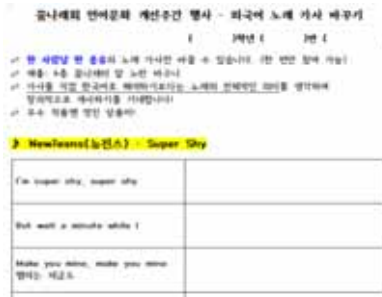
○ 꿈나래회 자체 행사 기획 및 추진

- 회의를 통해 감사의 달 편지쓰기 행사, 호국보훈 행사, 언어문화개선주간 행사, 추석맞이 마음 나누기 행사, 읽·걷·쓰와 함께하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행사를 홍보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였다.

가. 활동 기간: 2023.09.18(월) ~ 2023.09.22(금)
나. 활동 대상: 영어초등학교 저학년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
다. 활동 내용

행사명	활동 내용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 영어문화개선 캠페인 피켓 제작 및 캠페인 실시 - 행사 홍보 (각 반 안내 및 게시물 부착) 9월 18일(월) ~ 9월 20일(목) 3일간 점심 휴식에서 실시
우리말 끝말잇기	- 꿈나래회 게시판에 우리말 끝말잇기 퀘스트 부착하고 학생들의 참여로 끝말잇기 진행 9월 21일(목) 9월 22일(금) 이틀간 행사 진행
노래 가사 개사하기	- 학생들에게 친숙한 노래 곡절의 가사 영어로 바꾸어 쓰기 9월 20일(수) ~ 9월 22일(금) 3일간 행사 진행

언어문화 개선주간
꿈나래회 행사 계획



9월 언어문화 개선주간 행사
(외국어가 들어간 노랫말 우리말로 바꾸기)



9월 언어문화 개선주간 행사
(우리말 끝말잇기)

1. 5-6학년 농구 운영 계획

가. 일시: 2023. 10. 30(월)~11. 10(금) 오전
나. 운영 종목: 농구 토너먼트

2. 5-6학년군 승부차기 운영 계획

가. 일시: 2023. 10. 30(월)~11. 10(금) 방과후
나. 운영 종목: 승부차기 토너먼트

3. 전학년 사제동행 장아산 걷기 운영 계획

가. 일시: 2023. 11. 8(수)~11. 9(목) 방과후
나. 운영 종목: 사제동행 걷기

읽견쓰와 함께하는
꿈나래회 스포츠클럽 행사 계획



스포츠클럽 행사
(농구 및 승부차기)



스포츠클럽 행사
(사제동행 장아산 걷기)

3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활성화

영어동아리 조직 및 운영

- 4학년 학생 중 영어에 관심 있는 7명의 학생들로 자율적으로 조직하였으며 4학년 영어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영어를 직접 체험해보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공항 등 외부 장소를 방문하는 활동을 하였다.



인천공항 견학하기



영어 요리책 보고 요리하기



영어 독서 축제 기획 및 참여

○ 방송동아리 조직 및 운영

- 5~6학년 6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교내 방송과 관련된 활동을 기본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시나리오 제작, 방송장비 체험 및 관련직업 탐색, 단편영화 촬영 활동, 교내 영화제 개최 및 홍보, 방송부 캠프참여, 외부 영화제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방송과 관련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단편영화 촬영



영화 제작 발표회 참석



교내 시사회 개최

○ 독서동아리 조직 및 운영

- 4학년 희망 학생 중 1, 2차 선발을 통과한 4명의 학생으로 조직되어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활동하였다.
- 토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정하고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누었다.
- 지역 도서관 및 서점, 파주출판도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다양한 독서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책 함께 읽기



독서 문화 체험활동



○ 과학동아리 조직 및 운영

- 4학년 희망 학생 6명, 5학년 학생 6명으로 자율 조직되어 매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미래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폴드스코프 만들기, 종이비행기 원리 알아보기, 화학정원 만들기, 드론 날리기, 개구리알 만들기 등의 교내 활동과 창의력챌피언대회, 인천과학대제전 등의 다양한 교외 활동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고 올바른 인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창의력챔피언대회 참가



인천과학대제전 참가



4

학교문화 및 공동체의 변화

○ 따스함과 참신함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려가는 교육 실현

- 교육공동체의 소통, 참여, 협력을 통하여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다.
- 교육공동체의 참여로 '나의 학교'라는 주인 의식을 함양하였다.
- 자율적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통하여 결대로자람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원, 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5

맺는 말

결대로자람학교 3차, 이제는 단단한 민주적 학교공동체로 한걸음 나아갔다. 특히 학생, 학부모 자치 활동이 다양해지고 참여도 활발해졌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걸을 살려주는 동아리가 다채롭게 운영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학생 자율동아리가 결성되어 선생님과 탐구하는 시간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결대로 자라날 우리의 아이들 모습이 기대된다.

함께 만들어 성장하는 석남 행복 교육

학 교 명	인천석남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7학급(특수3)(532명)
소 재 지	서구 석남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교직원 자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소통의 즐거움 - (학생 자치) 틀려도 괜찮아! 우리 스스로 해 볼게요! - (학부모 자치) 부담 갖지 말고 한 번 와 보세요! - (교육공동체 회의) 함께하면 즐거운 값이의 가치		

1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리고 새로운 고민들..

“학교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석남초등학교는 2020년 9월 행복배움학교에 지정된 이후로 학교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조금씩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천되기 적합한 학교로 변화해 왔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직원 다모임 시 더 많은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생 중심의 학생 자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 등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2023년 여름에 시작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공사는 학교에 또 다른 고민을 안겨 주었다. 공사로 인해 1학기 말부터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은 놀 공간, 쉴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혹시라도 아이들이 공사 현장 주변에서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되었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여 학교가 보다 나은 생활 속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함께 만들어 성장하는 학교 교육’을 꿈꾸며 고민하고 노력하였다.

「함께 만들어 성장하는 학교 교육과정」이란?

- 함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교육 주체로서 참여
- 만들며 성장하는: 고정되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면서 교육적 성장을 이루어 가는
- 교육과정: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경험의 총체

추진영역	추진내용	시기	대상	비고
학생	학생 다모임	월1회	전교생	3~6학년은 학년, 학급 다모임과 연계 운영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모임	학기별 1회	3~6학년	3,4학년: 정부회장, 교장실 5,6학년: 학생전체, 강당
학부모	운영위원회	사안시	운영위원회	
	학부모 다모임	학기별 2회	학부모	
교직원	교육과정협의회	월1회	전교사	월별, 학년 교사 1인 참석
	교직원 다모임	월1회	전교사	

2 (교직원 자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소통의 즐거움!

교직원 다모임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안건 중심의 협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예전에 비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으며 안건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앞에서 안건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한다는 부담, 긴 협의 시간에 대한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학기부터 다모임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건 협의는 다모임 주간 내에 학년(부서) 편한 요일에 학년(부서)별로 실시한 후 협의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그 주 수요일에는 함께 먹고 즐기고 소통하는 30분 내외의 짧은 전체 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한 번은 모두가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년(부서)별 협의



협의 결과 공유



함께 즐기는 전체 모임

3 (학생 자치) 틀려도 괜찮아! 우리 스스로 해 볼게요!

학생 중심의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먼저 학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의욕을 높였다.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되는 전교 다모임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약속,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공유하였다. 또한 1학기 말에는 3, 4학년은 학급 회장, 부회장이, 5, 6학년은 학년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교장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모임〉을 운영하였다.

모든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줄이고, 학생 중심의 다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다모임에서 나온 학생들의 제안은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되었다. 운동장에 시계를 설치하고 문에 잘못 부착된 안내문을 바로 부착하는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학생 희망 급식을 하는 날인 <베푸데이>가 월 1회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12월 말에는 5, 6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선·후배가 함께 하는 진로 캠프>가 1, 2학년 학생들을 초대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1학년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겨울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를 구입하였다. 아직은 많이 서툰 것 투성이지만 자신들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성공의 경험은 학생 자치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모임 결과 안내문



운동장 시계 설치



1학년 행거 구입

4

(학부모 자치) 배움과 성장의 기회 제공으로 부담과 문턱을 낮춘다.

교직원, 학생 자치에 비해 학부모 자치는 학교 자치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 학부모회는 조직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으며,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었다.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 활동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에 오면 무슨 일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고 학교 방문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학부모 동아리 운영,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학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학부모님들이 점차 학부모 다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한 학부모님께서서는 “그동안 학교에 오면 뭔가 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어 오기가 꺼려졌는데, 막상 오니 하나도 부담이 안 된다”고 하시며, 주변에 친한 학부모님들을 데리고 오시기까지 하셨다. 아직 학부모 자치는 교직원, 학생 자치에 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학교 방문에 대한 부담과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학부모 자치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 동아리



학부모 연수



학부모 다모임



5

5

(교육공동체 회의) 함께하면 즐거운 값이의 가치



학교 역점교육인 ‘함께 만들며 성장하는 학교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의를 운영하였다. 교육공동체 회의는 학기별 2회 실시하였으며, 각 교육 주체별 다모임에서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교육공동체 회의를 통해 공사에 따른 안전한 임시 정문 및 통학로가 확보되었으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등굣길 음악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이 운영되었다. 또한 교육공동체 회의 운영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성장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다.



교육공동체 회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굣길 음악회



농업인의 날 행사

6

서로 마주 보며 웃는 행복한 석남초등학교를 꿈꾸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 도종환, '담쟁이' 중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진 요즘이다. 혹자는 말한다. 더 이상 학교에 희망이 없다고. 무너진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모두가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넘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을 통한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마주 보며 웃는 학교. 그러한 학교 석남초등학교가 꿈꾸는 학교이며, 그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다.



함께 성장하는 우리 학교: 민주적 학교공동체 만들기

학 교 명	인천석남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7학급(415명)
소 재 지	서구 석남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민주적 학교 문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 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회의: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고민하는 행복교육		

1 민주적 학교공동체 필요성

○ 학생 관점

민주적 학교공동체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은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준다.

○ 학부모 관점

학부모들은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교육의 질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교사 관점

교사들에게는 민주적 학교공동체가 전문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며, 교육과정 개발과 학교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교사의 동기부여를 증가시키며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민주적 학교공동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2

민주적 학교공동체 문화 조성

○ 교육철학을 함께 공유(학교비전과 학교교육목표의 공유)

- 학교비전에 대해 교육구성원이 논의하고 협의한다.
- 학교교육목표에 대해 교육구성원이 의견을 청취하고 설정한다.
- 함께 가는 가치를 공유하며, 모두가 학교의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을 높인다.
- 석남서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의 규약을 세운다.

○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문화의 정착)

-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킨다.
- 안건 중심의 협의를 통해 소통의 문화를 조성한다.
- 모두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든다.

○ 행복한 학교를 위한 지원

- 교사의 수업을 지원한다(교사와 협의 후 학년, 시수 결정).
- 학교 업무의 분담을 통해 수업중심, 학생중심의 학교를 정립한다.

○ 효율적인 업무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

- 대면 결재를 최소화하고, 업무 협의를 간소화한다.
- 회의나 학생 조회 등으로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

○ 민주적 학교경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 지역사회와 학교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증대시킨다.

○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

- 학교 교육과정 반성시에 학부모의 참여를 받는다.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동아리 발표회, 운동회를 꾸민다.
- 학부모회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학부모 연수를 지원한다.

3 민주적 학교공동체 활동 사례

○ 소통하는 관리자 리더십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등교와 소통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관리자(교장과 교감)가 아침맞이 활동을 쉬는 날 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장실, 교무실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민주적 학교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관리자 아침맞이 활동(안전 지도 및 소통)



열린 관리자 공간(교장실, 교무실)

○ 소통하는 학교문화

학교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복카페를 구축하고 운영해서 수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평가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띵커벨 등)를 활용해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행복카페 운영(자유로운 분위기+음료수)



교육활동 평가회-띵커벨 보드 활용

○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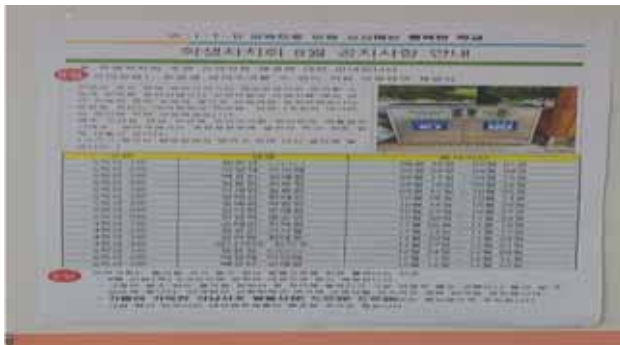
학생자치회, 학부모, 교사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주도의 학생자치회에서 제시한 의견(운동장에 쓰레기통 설치 등)에 따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있다.



교육공동체 회의-학생자치회,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회의-핑크벨 보드 활용



학생자치회 활동 대자보



학생자치회 추진 쓰레기통 설치

○ 교육공동체 한마당 알뜰시장 운영

학생자치회 안건을 반영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알뜰시장을 운영하였다. 학생 주도의 알뜰시장, 학부모 부스(슬러시, 풍선아트 등), 교직원 부스(팝콘, 과학교구 만들기 등)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학생 제작 알뜰시장 홍보 포스터



학생 밴드 공연



학생 주도의 알뜰시장 운영(1~6학년)



교육공동체 알뜰시장 부스 운영 - 꼬치구이



교육공동체 알뜰시장 부스 운영 - 슬러시



교육공동체 알뜰시장 부스 운영 - 풍선아트

4

지속적인 민주적 학교공동체 제언

- 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 교육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목표 설정과 비전 수립 과정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이를 위해 교직원 회의 등에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학교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꾸준히 실시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학 교 명	인천계양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387명)
소 재 지	계양구 장기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9.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교구성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1 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 계획

○ 학교교육 비전 및 철학



○ 추진전략

모두의 배움	따뜻한 채움	함께하는 나눔
· 즐거운 배움 · 스스로의 배움 · 기초가 튼튼한 배움 · 발전과 성장하는 배움	· 자존감의 채움 · 긍정적인 마음 채움 · 존중과 배려의 마음 채움 · 교육적역량 채움	· 나눔의 가치 알기 · 지식의 나눔 · 재능의 나눔 · 봉사와 교육기부 활성화
· 배움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 과정 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 · 개인별 맞춤 학력관리 · 온전함으로 하는 독서교육	· 기본예절을 지키는 인성교육 ·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 · 학생 중심 자치활동 전개 · 문화·예술교육	· 배움의 나눔, 니다움의 나눔 · 생활 속 배려와 봉사활동 실천 · 다양한 돌봄 시스템 운영 · 학부모, 지역사회 공감 참여 활동

○ 민주적 학교공동체 운영

-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학년 다모임 및 전체 교사 다모임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안건 중심의 교사 다모임 진행 시 협의 방식, 협의 내용, 협의 결정방법 등에 대해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였다.
 - 월 1회의 정기적인 다모임을 통해 학년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학년별 교육과정 연결 짓기·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교육구성원의 교육과정 운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구축
 - 학년별 소통 게시판과 학년 다모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교육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 학생 주도적 동아리 운영
 - 학년별 소통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학생자치동아리를 운영하여 다양한 학생활동을 보장하였다.

2

세부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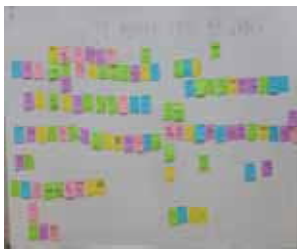
○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학교문화 조성

- 함께 만드는 학교교육과정과 학년교육과정 - 새학년 워크숍
 - 2월 21일 ~ 23일 다모임터에서 34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 학교비전 및 의미 공유, 학교교육과정 구성협의, 학년별 비전을 정하고 공유하였다.

- 매월 진행되는 다모임

- 매월 다모임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다모임 주제는 교사들의 제안으로 정했다.
- 다모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을 공유하였다.

날짜	다모임 주제
4월 19일	*교원 연수비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원 연수비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
5월 18일	* 다모임 규정정비 * 전교어린이회 임원들의 공약이행을 도울 방안을 마련해 보자.
7월	*1학기 교육활동 나누기 - 학년별 1학기 교육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나누기 - 1학기 교육활동과 관련된 퀴즈 풀기 - 서로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으로 힘 돋우기
8월 31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9월 21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들의 개정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11월 20일	*우리의 내년살이는? - 2024년 바뀌는 학교 실태 안내 - 2024년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월 새학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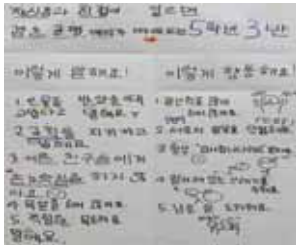
다모임 운영 모습



○ 학교 구성원의 교육과정 운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구축

- 학년 다모임을 활용한 학생들과의 소통

- 학급별 다모임을 통한 3월 학급 경계 세우기: 학급에서 1년 동안 함께 추구할 가치를 학생들과 함께 선정하고, 학급에서 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학급 규칙을 정했다.
- 학생자치위원들과 교사들이 함께 만드는 학년 스포츠데이 운영: 학년별 스포츠데이 종목과 운영 방식을 학생들과 협의하였다. 스포츠데이 운영 후 소감을 나누고 운영방안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 학생의 의견으로 만드는 학년 발표회: 수업 결과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과 협의하였다.



학급별 다모임 운영



학년별 스포츠데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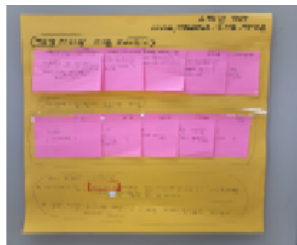


- 설문조사와 투표를 통한 학생의견 수렴

- 학생자치실 이름 공모: 의견함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 학생자치실 그림 공모: 학생자치실 블라인드와 게시판에 학생의 그림을 선정하여 게시하였다.



학생자치실 이름, 그림 공모



학생자치실 구축



- 학부모의 참여방안 확대

- 학생자치실 이름 공모: 이알리미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된 이름을 안내하였다.
- 학부모회 운영 -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였다.
- 학교도서관 명예도서봉사회 운영(21명) - 도서관 도서대출 업무를 보조하고 도서관 축제를 진행 하였다.



학부모회 운영(공예, 축제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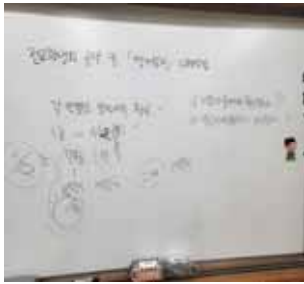


학교도서관 명예도서 봉사회 운영



- 학생자치동아리 운영

- 4,5,6학년 중 희망자와 전교학생회 임원들로 구성하였다.
- 전교학생회 임원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 학생들이 제안하는 시기별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교임원 공약이행회의



어린이날기념선물제작



스승의날 편지전달



학생자치교육

3 제언 및 의견

○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의견 나눔 자리 필요

교사 다모임의 정례화로 학교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전체 모임, 학년별 모임, 관리자와의 간담회, 교육경력별 모임 등 자신의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의견 나눔 자리를 마련되면 주인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 학생자치 동아리의 자기 주도적 운영을 위한 방안 필요

- 학생자치 동아리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과 후 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활동 시간 조정이 시급하다.
- 학생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시각에서 하고 싶은 행사를 생각하고 기획하도록 하려면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학부모 참여 활성화 방안 필요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학부모 동아리를 구성하고 학교 운영에 역할을 주어야 한다. 학부모 스스로 학교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학부모가 학교교육활동에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대로 함께 성장하는 명현의 꿈

학 교 명	인천명현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4학급 (277명)
소 재 지	계양구 효성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학급과 학년의 다채로운 성장, 그리고 회복하는 명현 - 나눔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명현		

1 들어가는 글

엔데믹의 2023년. 명현초등학교는 행복배움학교에 이어 결대로자람학교로서 9년차를 시작합니다. 매년 학급수가 줄어들고 새로운 교장선생님, 네 번째 담당자. 하지만 명현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4년을 준비하는 1년. 그 1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학급과 학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를 어떻게 나누고자 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급과 학년에 대한 이야기는 소소한 것부터 꼭 나누었으면 하는 것들이 넘칩니다.

과거, 명현교육박람회가 현재의 내부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판단에 부담은 낮추고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관련하여 TFT를 구성했으며 학년도 말 반성회와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나눔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시작은 각자 교실의 문턱을 넘는 것부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교실의 문턱을 넘어볼까요?

2 학급과 학년의 다채로운 성장 그리고 회복하는 명현

○ 학급과 학년의 다채로운 성장(회복적 생활 교육)

- 아침인사의 다양한 방법(학생들은 여러 가지 인사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선생님과 인사를 나눔),
- 학년 네비게이션(2학년, 2학년이 함께 모여 1년 동안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스스로 규칙을 만들, 학생들이 바라는 2학년의 모습을 적어 학년의 이름을 정함)

- 명현세우기(4~6학년, 학생자치와 학년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학급 - 학년 - 3개 학년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규칙을 함께 세워보는 활동, 나아가 규칙을 복도에 게시, 명현규칙으로 활용하며, 돌아보기 활동 연계 운영 등)
- 학급 규칙(학급보상활동, 학년 칭찬통장 운영 - 4학년에서는 학급보상활동을 학년으로 연계 운영하여 칭찬 포인트를 활용하여 칭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함께 운영), 1인 1역할과 연계한 활동(시기별 직업[1인 1역할], 사원증 착용, 학급문구점 운영, 학급행사 활동 실시, 수업 시작 song[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의 추천과 투표로 결정-자치활동 연계], 주말 미션 등)

○ 회복하는 명현

코로나 이전의 활동과 코로나 기간 중 위축되었던 다양한 활동 등이 전개됨

- 1학년 학교 둘러보기(5학년과 함께): 1학년 동생들이 3월, 5학년 선배들의 손을 잡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교장실, 교무실 등 학교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활동, 각 실의 선생님들께서 방문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시고 따뜻하게 인사해주셔서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뜻깊은 활동
- 6학년 학생들은 1년 간 티볼을 아침, 점심, 방과 후 쉼없이 훈련하여 스포츠클럽 대회수상 및 시대회 입상을 함. 대회 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위해 6학년 학생들이 4학년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연계 활동까지 지속됨
- 1~6학년 모두 도농교류활동으로 강화도 방문하여 나들길 걷기를 실시 그 밖에도 학교 뒷산(천마산)을 교육공간을 활용하여 계절별 숲체험 등을 실시
- 티볼, 테니스,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야구경기관람(5월, 문학경기장), 농구경기관람(12월, 도원실내체육관) 등을 실시
- 교육청 사업을 연계하여 2학기동안 운동장 걷기 활동을 운영함, 학생 뿐만 아니라 교직원 까지 참여함으로서 명현가족 모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운영됨
-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엔데믹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활기찬 학교



명현 교육가족들의 걷기 기록



티볼 연습 중인 학생들



명현세우기 참여하는 4~6학년 학생들



경복궁에서의 역사걷기 참여중인 학생들

3

나눔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명현

○ 명현교육박람회? 교육나눔축제?

코로나 이전에는 명현교육박람회, 코로나 기간 중에는 교육나눔축제라는 이름으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명현의 교육활동을 때론 학년별 때론 주제별로 학교 밖 분들에게 나누는 자리를 마련, 준비에 대한 높아지는 부담감과 ‘나눔’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2023년 외부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

이후, TFT를 구성, 6차례의 준비 모임을 통해 명현톡톡한살이라는 이름의 나눔의 시간을 마련, 월드카페 형식을 변형하여 참여자의 자발성과 호스트 지원해주신 분들의 마음이 모여져 짧은 두 시간의 자리, 중요한 것은 현장의 분위기를 이 문서에 옮기기 어렵다는 점!

앞서 언급한 이야깃거리는 명현톡톡한살이에서 일부에 한하며 다양한 나눔이 읽기와 쓰기(표현 하기) 그리고 걷기로 연계하여 갈무리 짓고 학년의 프로젝트(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것들과 쉽게 나누기 힘든 학급의 소식을 담았음

○ 명현톡톡한살이

교육과정반성회나 3주체 협의회가 아닌 그야말로 학급과 학년의 내용을 “의미있게” 나누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며, 다양한 주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부터를 교무부장님과 TFT에서 함께 고민

- 연간 교육활동을 연중 기록(패들렛 활용)
- 명현톡톡한살이를 앞두고 주제를 재분류(걷기, 읽기-쓰기-표현하기, 프로젝트 운영, 우리 반은 이래요 등 / 하단 QR코드 첨부)

-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패들렛 내용을 살펴보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발전시킴

〈명현특독한살이 패들렛 살펴보기〉



걷기 주제



읽기, 쓰기, 표현하기



프로젝트 운영



우리반 이야기

〈명현특독한살이 모습들〉



명현특독한살이 전경과 나눔의 자리를 위한 노력들

4

학생과 더불어 결대로 성장하는 명현을 꿈꾸며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명현초는 많은 변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어가는 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더불어 명현초의 지난 시절을 기억하는 학부모회 분들도 자녀의 졸업(예정) 등의 이유로 많이 바뀔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4학년도가 되면 교사의 절반 가까이도 바뀝니다. 결대로자람 담당자도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혁신학교로서 명현초의 모습을 이어가고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교육활동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4쪽이란 실천사례에 모두 담을 수 없기에 나눔을 이어가고자 QR코드를 제시했습니다.

명현특독한살이는 2시간 남짓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명현초등학교 1~6학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때론 나눔이 ‘부담’이 되고 ‘왜?’라는 물음을 던질 경우도 있지만 학생의 성장과 더불어 교사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임을 알기에 결대로 성장하는 명현을 꿈꾸며 명현초등학교의 실천사례를 나눕니다.

학교 자치로 꿈, 열정, 즐거움이 있는 행복굴현 만들기

학 교 명	인천굴현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30학급(630명)
소 재 지	계양구 굴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새롭게 시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 행복굴현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 자치 동아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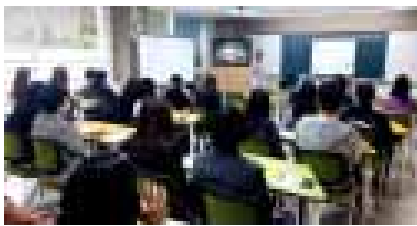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 민주적 학교 문화 성장을 위한 기초 다지기

인천굴현초등학교는 계양역과 굴현역 가까이에 있는 30학급의 학교로서, 올해 처음 결대로자람학교로 지정되어 모든 학생이 꿈, 열정,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우리만의 특별한 학교 자치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학교 혁신을 위해, 2023학년도에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직원 협의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였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학교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첫걸음은 학교 구성원들이 친밀감 속에서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첫걸음이 교직원 다모임이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고 배려받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교실 속 상황과 그 안에서 겪은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게 되자 학생 교육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민주적 회의 절차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결과를 공유하고, 공유되지 않은 의견은 교육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월 2회 학년별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교문 밖으로 나가 우리 마을 안의 교육문화공간을 찾아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을 알아보고, 교육과정에 접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년별 운영 방안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틀을 계획할 수 있었다.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교직원 다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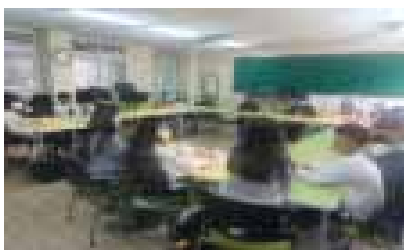
주제형 전문적 학습공동체

2

행복 굴현을 위한 학생-학부모 자치

○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 와서 이야기하는 학생 자치동아리

2023학년도에 결대로자람학교로 지정된 이후,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임원제도를 폐지하고 ‘굴현 학생자치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모이기 시작했다. 굴현 학생자치동아리는 학급 및 학교생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일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진지한 토론 문화를 정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주체적으로 학교의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생 자치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치동아리 회의에서 교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토론을 하였으며 중요한 학교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협의를 통하여 운영해보는 시도를 하였다.



학생 자치동아리 협의



학생 자치동아리 홍보활동



학생 자치동아리 행사 준비

3월 학생자치동아리는 구성원을 모집하여 자치동아리의 명칭을 선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또한 학년별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자치 현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학생자치동아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 행사 및 캠페인을 스스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올해 우리 학교는 자치동아리의 전반적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실질적 참여와 실천활동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내년에도 굴현 학생자치동아리는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행사 문화를 확대하고 학교생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자치 문화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학생자치동아리 깜짝이벤트



학생자치동아리 행사-쇼미더 굴현



학생자치동아리 캠페인

○ 행복 굴현을 위한 학부모자치동아리

굴현 교육은 학생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러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 학부모의 학교교육과정 참여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자치동아리는 학교 참여 활성화의 근간이라고 여기고 학교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학부모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학부모자치동아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생교육 강좌를 개설 하였다. 학부모자치동아리를 체계화하고 학부모 재능기부를 통하여 교육기부사업을 활성화하고 교육 공동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그 결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정서를 순화하고 학부모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 중 하나로 생동감 있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나라 사랑의 달 태극기 나눔 행사



학부모 자치동아리
간식 나눔 행사



어린이날 등곶길 맞이



현직경찰관이 알려주는 학폭예방연수



학부모자치동아리 Q&A 간담회



자녀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대화법 연수

우리 학교에서는 창밖으로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아라뱃길과 두리생태공원을 볼 수 있다. 이 멋진 풍경을 언제나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굴현초가 누리는 커다란 축복 중 하나이다. 아라뱃길과 두리생태공원은 산책하듯 걷기 좋은 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 코로나19 이전부터 학교나 지역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곤 했다. 천혜의 생태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는 많은 마을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우리 학교의 학부모님들이다. 이러한 마을 교육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학부모자치동아리에서는 학교 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더욱 풍성하고 알찬 행사로 계획할 수 있었다. 일시적인 행사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계와 협력으로 자연생태 문화체험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고 학부모 자치동아리를 통해 우리는 굴현교육공동체의 숨겨진 저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을 위해 학부모, 마을활동가를 포함한 마을교육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해주는 바가 컸다고 생각한다. 굴현 학부모자치동아리는 굴현초의 모든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늘 고심하고 노력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교육, 체험학습 등이다. 배움의 현장을 학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 마을(지역사회)로 넓혀가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자원을 찾아 학교와 학년 특성에 맞는 빛깔의 옷을 입혀가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무럭무럭 성장 발전해주었다.



가족 텃밭 체험활동



지역전문가 활용 생태감수성 교육



지역전문가 활용 생태체험학습

4 1년간의 학교 자치를 마무리하며

2023학년도 학교 자치를 운영하며 교육 공동체의 노력으로 많은 안건들이 결정되었다. 학년별 체육 대회, 학급 꿈끼재능발표대회 운영, 학부모 등갯길맞이 행사, 학부모 독서토론 토의 활동, 학생 자치회 깜짝 이벤트,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쇼미더굴현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관리자, 교직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서로의 입장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모두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학교 자치를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한 결과, 학교 자치는 단순히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성취감에 그치지 않았다. 학교의 다양한 부분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생활을 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낸 의견이 직접 수용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하였으며, 학부모와 함께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였고, 교직원들은 민주적 학교문화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켰다. 서로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학교는 여전히 발전을 준비하는 중이다.

“굴현초는 학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우리 학교를 방문한 분들은 꼭 이 말을 남기고 간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이루어나가는 행복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학교만의 자치동아리를 통해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이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더불어 꿈꾸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를 지향하고자 한다.



배움과 어울림으로 물든 가을행복주간

학 교 명	인천가원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63학급(1662명)
소 재 지	서구 가정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9.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교육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적 주체적 참여를 꾀하는 TF팀 - 배움과 어울림으로 물든 학년별 행복주간 운영 -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교 축제		

1 함께 만드는 가원다움

○ 행복주간 스케치

본교는 2015년 9월 개교 이래 봄과 가을에 1주일간의 행복주간을 운영해 왔다. 배움의 터를 한정된 교실에서 벗어나 외부 환경을 활용하며 다양한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으로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한 추억만들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학생들에게는 가방이 필요 없는 등굣길이 마냥 즐거웠다. 하루 종일 교과서를 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재밌는 교실이 만들어졌다.

학년별로 동떨어진 특별프로그램을 계획하기보다 커다란 프로젝트 속에 행복주간을 녹여내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았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예산활용 범위까지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업무지원팀의 애씀이 계속되었다.

학교 주변 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등굣길에 주울 수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친구와 놀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학교를 오가는 길이 더 행복해진 1학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2학년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 길목에 서서 교통안전 지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들이 보였다. ‘가원 전통마을’이라는 주제로 한 프로젝트 학습의 끝자락에서 다 함께 강강술래 놀이 한마당으로 학교 전체를 들쭉이게 한 3학년 학생들의 신명 나는 모습도 있었다. 온책 읽기로 즐겁게 책을 만나오던 4학년 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으로 배움의 깊이를 더하는 경험을 했다. 역사프로젝트를 이어가며 학교 구석 구석을 역사박물관으로 만든 5학년 학생들 덕분에 선후배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모두 ‘ 역사를 잇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깊이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2학년 후배들을 위해 “세계문화박람회”를 개최해 준 6학년 학생들의 모습은 가원교육과정의 열매로서 뿌듯함을 자아내기도 했다.

○ 준비된 미래

매년 봄·가을 행복주간이 끝나면 항상 교사·학생·학부모가 각각 자체 평가회를 실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더 나은 행복주간을 꿈꾼다. 행복주간 운영 평가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공유되었다.

- 봄과 가을의 행복주간 운영 방식을 다르게 하기
 - 봄: 운동, 자람, 놀이, 신체활동을 중심 주제로 하였다.
 - 가을: 결실, 세계, 나눔, 환경, 자치 등 준비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되 그 중심에는 세계와 환경 등 잊지 말아야 할 가치가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 공연마당, 시장마당, 먹거리마당 등 앞으로 점차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러 마당의 활용 방안과 그에 참여하는 학생회, 학부모회의 다양한 참여 지원 방안 고민
 - 고학년 동아리 활동이 공연마당 및 동아리 홍보 마당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안 수정
 - 학년별 행복 주간 활동들이 수직적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확인 및 정리 필요
- 매년 서로를 토닥이고 박수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잘 운영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던 평가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다.

2

살랑살랑 가을바람 가원에는 행복바람

○ 교육 3주체의 자율적, 주체적 참여를 꾀하는 TF팀 운영

- 가을행복주간 TF팀 구성
 -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가을행복주간을 위해 8월 말 첫 만남을 시작으로 4회 이상 교사(학년별 대표 1명씩), 학생(학생자치회 대표 3명), 학부모(학부모회 행복주간 운영분과 3명)가 함께 모였다.
 - 작년 평가회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전체 일정을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 학생자치회(징검다리)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안하거나 자체 운영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 학부모회에서는 가을행복주간 마지막 “전체 어울림의 날” 학부모 부스 운영 계획을 세우고, 홍보분과(사진 및 영상촬영팀) 등 학년 요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였다.
- 가을행복주간 TF팀 운영 효과
 - 당해 연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학년별 프로그램 운영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학년 간 연계 교육이 가능해졌다.

- 학생자치회나 학부모회에서는 행복주간운동을 연중 가장 크게 기대하며 적극 참여하였다.
- TF팀에 학생자치회(징검다리) 행복주간 분과 대표 2~3인이 참석하여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고 실제 반영되는 경험으로 학생자치역량이 강화되었다.
- 준비 과정에서 실제 운영까지 참여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이해도가 낮은 학부모들의 크고 작은 민원 등에 대해 먼저 학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 배움과 어울림으로 물든 학년별 프로그램

- 시청각실, 강당, 운동장 등 특별실은 학기초에 학년별 사용날짜를 조율하였다.
- 각 학년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하거나 학년 교육과정에 적합한 활동으로 계획하였다.

1-2학년 주요 활동	3-4학년 주요 활동	5-6학년 주요 활동
■ 1학년 도자기 만들기 체험, 사냥감을 갈어요(사위고 시화 꾸미기, 남송하기 등), 폭도의 날 의미도새끼기 행사 등 ■ 2학년 두지골 강상(우리 마을 공연장 체험하기), 가을 놀이, 그림 속 가을 세상, 생존 수영 교육, 세계문화체험 등	■ 3학년 강강술래 체험, 바람로 공원 나들이, 알뜰시장 놀이, 전통문화 체험, 전래놀이 체험, 두지골 관람(우리 마을 공연장 체험하기), 전통악기 체험 등 ■ 4학년 가람 숲공원 체험, 다문화 페스티벌, 새끼만속 놀이 체험, 단채 영화 관람, 사냥길을 갈어요(사냥복하기, 사냥/감상문 전시 등), 알뜰시장 등	■ 5학년 역사 영화(명왕, 한산도 등) 관람, 카메라로 보는 세상(사진 촬영하기), 크리켓 학교 대항전, 한그릇 음식 만들기, 영어 축제 한마당 등 ■ 6학년 행복운동회, 학급별 자율 체험교실 운영(교실미니체육대회, 알뜰시장, 불행8foot살, 배드민턴, 가을소풍, 영화관 방문, 요리 경연대회 등),



학년 프로그램 I
다함께 강강술래



학년 프로그램 II
행복 운동회



학년 프로그램 III
크리켓 리그전



학년 프로그램 IV
작가와와의 만남

○ 학생자치회 주관 활동 및 업무지원팀 주관 프로그램

- 학생자치회(징검다리) 회의를 통해서 직접 운영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했다.
- 요즘 춤과 노래를 일상에서 즐기는 학생들이 길거리 공연장 같은 무대를 만들고자 하여 등곳길 공연마당을 기획하고 운영하였다.(100여 개의 팀이 신청할 만큼 매우 좋아함)
- 등곳길 음악회는 교육청프로그램으로 매년 신청하여 활용하였다.

학생자치회 활동	학교 주관 활동
등곳길 공연마당 • 학생자치회 '징검다리' 주관 • 10.23(금), 10.25(수), 10.26(목) 08:20~08:50 • 신청학생 중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학생들의 공연 • 가연조 공식 유튜브 생중계 예정	등곳길 음악회 • 10.24(화) 08:30~08:50 • 병설유치원 열 무대 • 학교 공식 유튜브 생중계 예정
	전체 어울림의 날 • 행사명 : 열렁동마을 어울림가? • 10.27(금) 1~5교시 • 5,6학년 학생 및 학부모 부스

○ 전체 어울림의 날: 열렁뚱땅 가을인가?

- 전체 어울림의 날 행사명은 학생자치에서 작명한 “열렁뚱땅 가을인가?”는 전체 어울림의 날의 실제 모습과 너무 어울려 우리 모두의 감탄을 자아내었다.
- 1부와 2부로 나누어 1·2학년과 3·4학년 이 부스 체험을 하였다. 5·6학년은 조를 나누어 1부와 2부에 운영과 참여를 번갈아 하였다.
- 5·6학년 학생 주도 체험 부스 및 학부모회 주도 체험 부스 총 40여개 운영

운영 시간표			
1부(1,2학년 참여)		2부(3,4학년 참여)	
09:00~09:20	부스 운영 준비	11:40~11:50	준비 및 안내
09:20~11:00	행사 참여 (100분)	11:50~13:30	행사 참여 (100분)
11:00~11:20	정리	13:30~13:40	정리
11:20~11:40	2부 인수인계		

5학년 운영 부스	
■ 소망을 담은 그림, 민화 (5-1) ■ 새로 쓰는 황룡사 9층 목탑 (5-2) ■ 조선시대 신분증을 만들어보자! (5-3) ■ 나는 대한민국이다!! (5-4) ■ 거북선을 멀리멀리 띄워라 (5-5)	■ 문화유산&역사인물 그림책 (5-6) ■ 나도 주몽처럼 (5-7) ■ 첨성대를 아시나요? (5-8) ■ 활자로 편지쓰기 (5-9) ■ 전통 갓, 땡기 머리띠 만들기 (5-10)
6학년 운영 부스	
6-2 (1부) ■ 아나운서 게임 6-1 (2부) ■ 다트 게임 ■ 미니두더지 게임 6-3 (1부) ■ 미니 굴대 굴널기 6-8 (2부) ■ 요리조리 공찾기 ■ 행복노래방(1)	6-5 (1부) ■ 병뚜껑 컬링 ■ 추억의 뽑기 ■ 미니 양궁 6-4 (2부) ■ 버나놀이 ■ 초성퀴즈 ■ 행복노래방(2) 6-7 (1부) ■ 깃발뽑기 ■ 추억의 뽑기 ■ 페이스페인팅
학부모 부스	
음식 ■ 떡꼬치 ■ 초콜릿 풍류 마시멜로 ■ 팝콘 체험 ■ 야구의 꿈 ■ 축구의 꿈 ■ 양궁의 꿈 ■ 에코백 만들기 ■ 안전 교통왕 OX 퀴즈	■ 미션임파서블 ■ 나만의 포토존 ■ 타투랜드 ■ 물병세우기 ■ 빙고 ■ 신문지 격파 ■ 알파기 ■ 물풍선 터트리기 ■ 샌드아트 ■ 떡매치기



등곳길 공연마당



학생 운영 부스
거북선을 멀리멀리



학생 운영 부스
행복노래방



학부모 운영 부스
먹거리 마당



학부모 운영 부스
떡매치기

3

가원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

2023년 10월 말 가을행복주간 운영을 위해 8월 말 첫 TF팀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간 배움과 어울림으로 물든 가을행복주간이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며 마지막 전체 어울림의 날 행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대로 끝이 아니었다. 11월 초 학년별 평가회, 학부모회 자체 평가회, 학생자치회 자체 평가회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사-학생-학부모 행복주간 TF팀은 또 한차례 모임을 가졌다. 가원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시간이었다. 잘된 것은 충분히 칭찬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었다. 준비 과정부터 함께 했기에 개선할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의 수고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 나갔다. 형식적인 평가회로 끝나지 않고 나온 이야기들이 모두 내년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우리는 가원다움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교사-학생-학부모 가원 교육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결대로 성장하는 우리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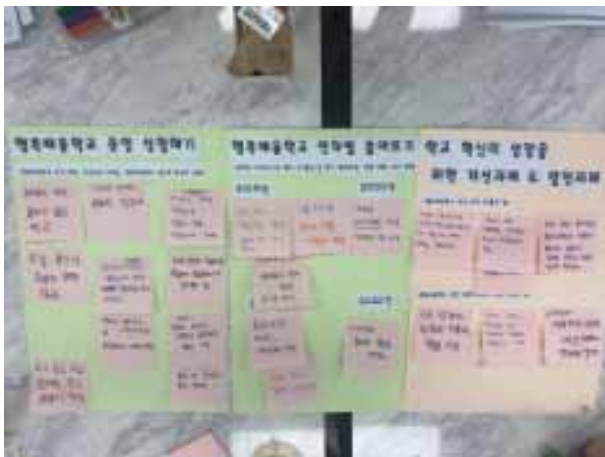
학 교 명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3학급(362명)
소 재 지	미추홀구 도화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9.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학생이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 운영 -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공유의 날'을 통해 함께 하는 배움 - 부모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1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는 결대로자람학교

○ 함께 행복배움학교 돌아보기 그리고 결대로자람학교로 나아가기

우리 학교는 2019. 3. 1.에 행복배움학교 최초 지정에 이어 2023. 3. 1.에 재지정을 받아 결대로 자람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작년 행복배움학교 4년차 종합평가를 통해 행복배움학교를 돌아보고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의견을 나누었다. 그 결과 학생 개개인의 나다움을 찾고 학교의 철학과 고유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 4년의 부족했던 점을 되돌아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활동들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22년 성찰 협의회



2022년 교사-학생-학부모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운영

2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결대로자람학교

○ 학생주도 학생 동아리 활동 운영

매일 똑같은 일과 속에서 학생들이 가장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일까? 바로 동아리 시간일 것이다. 우리 학교는 작년까지는 학기 초 교사가 개설한 동아리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아리를 운영했었다. 그러다 작년 평가회 및 설문조사에서 나온 학생들의 제안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합의한 결과 올해부터 학생 수요조사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개설하기로 했다. 그 결과 ‘타로 심리 상담 동아리’, ‘D.I.Y’ 동아리를 비롯해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 계획도 학생 참여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2022년 학교 동아리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동아리 활동 이름을 ‘꿈끼랜드’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꿈끼랜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자신들의 꿈과 끼를 펼쳐가며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을 살리며 자기 주도적인 학생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23학년도 동아리 활동 편성 희망 설문 조사		
연번	동아리명	부서 활동에 대한 설명
1		
2		
3		
4		
5		
6		

동아리 활동 편성 희망 설문 조사지



치어리딩 동아리 활동



스포츠 동아리 활동



밴드 동아리 활동



타로 심리 상담 동아리 활동

○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성장하는 교사

학생들의 주도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교사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교 교사들은 더욱 성장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평가회에서 ‘다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활동도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기 초 같은 관심 분야의 교사끼리 모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서로 연구하고, 학기 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공유의 날’을 새롭게 정하여 패들렛을 통해 각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동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공동체의 연구 내용도 살펴보고 더욱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상업 교과 연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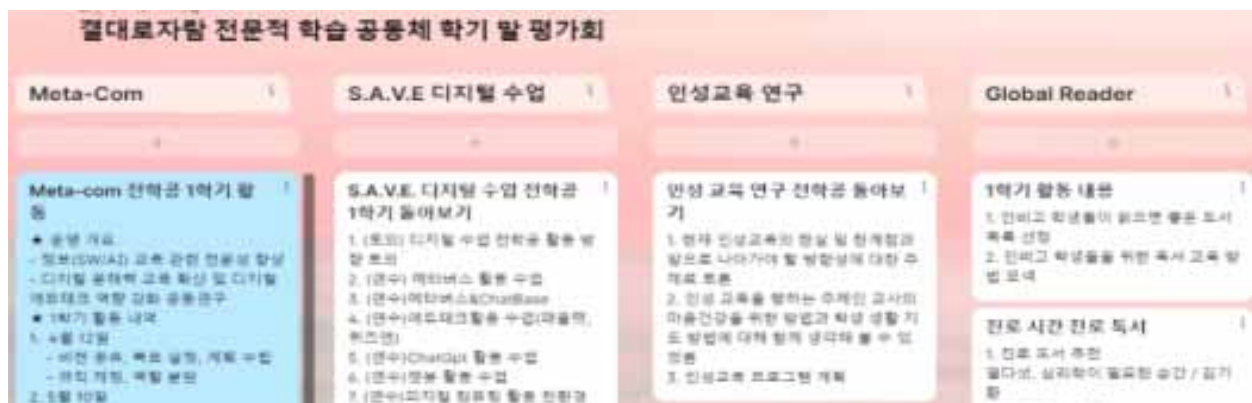
인성 교육 연구 활동



정보 교육 연구 활동



디지털 수업 연구 활동



패들렛을 활용하여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간 활동 공유

○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로 다채로워지는 학교

교육공동체에서 학생과 교사와 더불어 빠질 수 없는 교육 주체가 바로 학부모이다. 작년 평가회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사, 학생들도 이 의견에 공감하여 올해는 학부모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으로 다채로운 행사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먼저 스포츠데이에 학부모님께서 직접 포장하신 간식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학업 분위기 형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또한 학교 축제 때 학생들이 분식코너 부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분식코너를 운영해주심으로 학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셨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 부스 참여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 내 미혼모 시설, 아동센터, 무료 급식소 등에서 기부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에게도 봉사 정신의 중요성과 기쁨 등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셨다.



스포츠 데이 등교맞이 행사



학교 축제 분식 코너 부스 운영



학부모 에듀 페스티벌 참가



다양한 지역센터에 기부 활동

3

함께 결대로 성장하는 우리 학교

2023년은 지난 4년 동안 세웠던 행복배움학교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우리 학교만의 고유한 민주적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켰던 해였던 것 같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모아 실천하면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해였다. 앞으로 올해 정착했던 문화들을 더 발전시켜서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와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더욱더 활발하고 공고하게 하여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대화와 연결이 있는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작전여자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531명)
소 재 지	계양구 작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민주적 학교공동체		
주요내용	-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학교의 주인이 되는 작전여자고등학교 -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는 읽·걸·쓰 활동		

1 마음을 움직이는 학교 만들기

○ 집단 지성에 귀를 기울이다

- 교육 3주체가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자발성에 입각한 토론 및 협의를 실시하였다.
-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공동체와 소통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혁신학교 기반을 조성하였다.
- 집단 지성 발휘를 통하여 교육 공동체의 공동연구와 실천을 통한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역량을 강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였다.

○ 마음을 다스리는 읽·걸·쓰

- 읽기: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 하나 읽어 학교 운영에 반영하였다.
- 걷기: 교육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곳,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 학교 운영에 반영하였다.
- 쓰기: 우리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반영할 내용을 찾아 효율적으로 학교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2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학교

○ 안전과 토론 중심의 기획 회의 문화 조성

- 원탁 테이블을 활용한 수평적 협의 문화 환경을 조성하였다.
- 1주~4주는 안전 및 토의 중심으로 기획 회의를 운영하였다.
- 4,5주차 중 월중 교육활동 계획을 중심으로 협의 및 협조를 통한 소통중심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내용 중심, 업무이해도 중심, 협조 사항).
- 활동 중심으로 전달식의 회의문화에서 탈피 안전, 협의, 토론,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미래 학교 구현을 위한 협의 문화 정착).

○ 안전 위주의 전 교직원 협의회 운영

안전 발생 → TF팀 1차 협의 → 1차 협의 결과 전달 → 1차 협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수렴 기간
→ 필요시 전 교직원 회의를 통한 안전 재논의 → 최종 협의 사항 도출

○ 학년중심의 수평적 협의 문화 조성

- 수평적 협의 문화 조성 및 학년 중심 협의 문화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학년 중심 협의 -> 기획 회의 전달 및 협의 -> 전체 교직원 안전 상정 ->협의 결과 수용 및 반영 순으로 진행하였다(학년별 협의회 공간 조성).



안전 중심의 기획 회의



교무센터 협의실



2학년 협의실



1학년 협의실

○ 공동설계 워크숍 운영

- 2023학년도 준비를 위한 부장단 1박 2일 워크숍(2022.12.29~30) 실시하였고, 2023 석면공사로 작전고에서 2일간 1차 공동 설계 워크숍을 운영하였다
- 1차 2월 교직원 워크숍은 1일차 학교 교육과정 공동 설계, 2일차 교과 교육과정 공동 설계를 진행하였다.
- 1차 공동 설계 워크숍에서는 주요 학사일정 운영 협의 및 교육공동체 활동 사업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2023학년도 1학년 자율시간운영에 대한 협의, 창체1시간 증배운영).
- 2차 공동 설계 워크숍은 3월 1주차 운영하여 3월 학교 정상화 운영 방안 협의하였다 (학년 중심, 교과 수업, 학교 환경 정상화).
- 2차 공동 설계 워크숍 결과물로 학생 자치와 활동 구체화 및 공간 재구성을 실시하였다.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대토론회



공동설계 워크숍(2차)



학생회 등굣길 화분 만들기



학생 휴식 공간 재구성

●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더하기와 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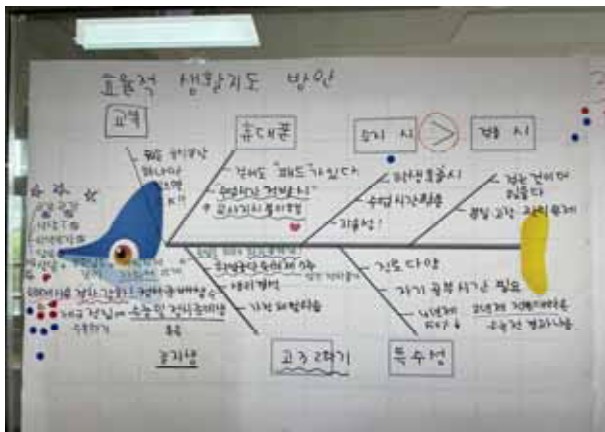
- 토론을 통한 함께 만드는 작전여고라는 결대로자람학교의 비전 완성을 만들었다
- 대토론회: 1차 분과별 토론(1학기)→ 2차 대토론(학년 말 1회 실시 예정)→ 대토론 결과를 중심으로 TF팀의 차년도 학교운영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고자 한다.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대토론회



피시본으로 분임토임



피시본 결과물



협의내용 중심으로 발표

- 토론회 진행 프로세스

추진 사항	내 용
토론회 준비를 위한 업무 담당자 사전 협의	▶ 교감, 연구부장, 교육과정 부장 사전 협의
↓	
주제 선정을 위한 교직원 의견 수렴	▶ 전 교직원 대상 대토론회 주제 의견 수렴(리로스쿨)
↓	
토론회 주제 선정 및 실무 협의	▶ 대주제, 소주제 선정 ▶ 내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의 - 역할 분담, 운영 방향 협의 등
↓	
대토론회 준비	▶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한 전문 외부 강사 섭외, 필요 물품 구매 등
↓	
최종 주제 공지 및 기획위원회 최종 점검	▶ 리로스쿨을 통한 전 교직원 대상 주제 공지 ▶ 학교 구성원이 토론 주제를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리로스쿨 등) ▶ 대토론회에 앞서 분과별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사전 협의회 시간 제공 ▶ 기획위원단을 통한 토론 주제 및 토론 방향 최종 점검
↓	
대토론회 진행	▶ 일자: 2023.8.11.(금) 16:40~ ▶ 편안하고 즐거운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 퀴즈 정답자에게 선물 제공, 다과 제공 등) ▶ 6개의 분과가 3개의 소주제 중 할당된 한 가지 주제를 집중 토론

○ 교내 소통공간(카페테리아) 조성 및 운영

- 학부모 및 교사의 다양한 건의 사항 상시 접수 및 교직원 회의를 통한 중요 안건 해결
- 본관 1층 학생 소통 칠판 마련: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생회 주도 개선 방안도출

-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변화 → 주인의식과 주체성 확보의 틀



교내 소통공간 카페테리아



체험활동을 통한 교직원 소통의 장 운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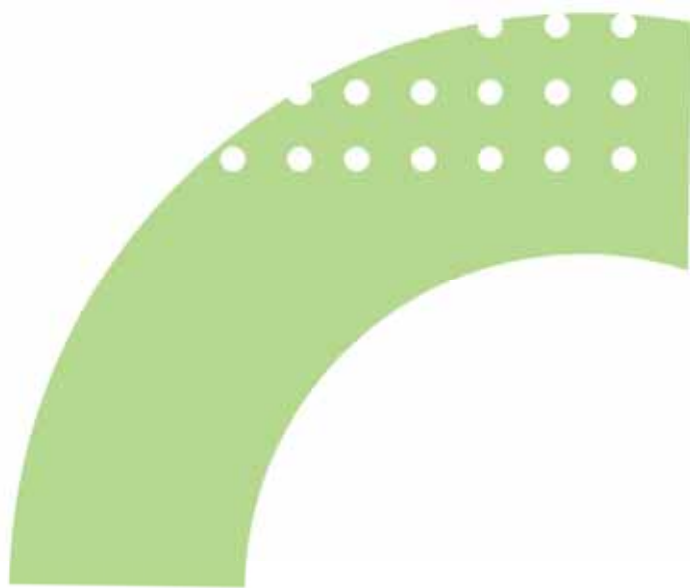
함께 더 나아갈 학교를 꿈꾸며

- 행복배움학교에서 시작된 작전여자고등학교의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결대로 자람학교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수평적 교직원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교직원간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 민주적 소통문화는 학교 혁신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공동체의 잠재된 역할을 극대화시켜 역량 강화로 이어 나가고 있다.
-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통해 작전여자고등학교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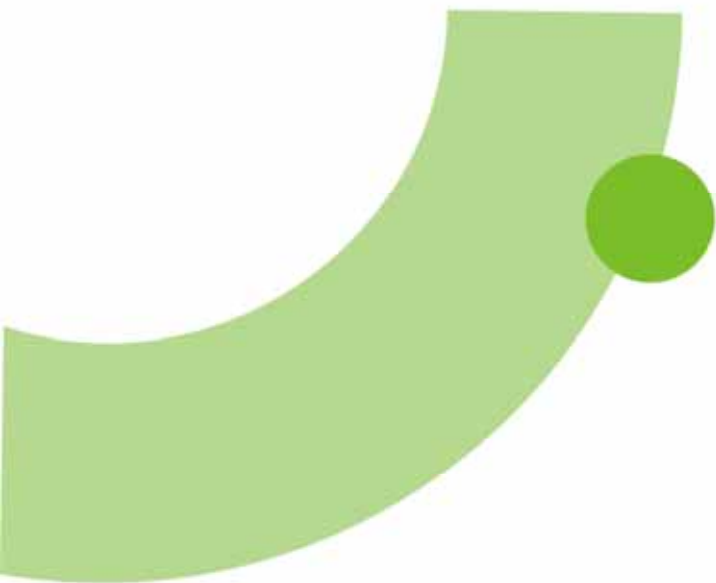


윤리적 생활공동체





초등 · 중등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평화로운 학교

학 교 명	인천구산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8학급(357명)
소 재 지	부평구 부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요내용	- Wee Class와 함께 하는 상호존중 프로그램 - 학생자치회가 주관하는 관계향상 프로그램		

1 학생들의 마음 놀이터 Wee Class

인천구산초등학교 4층에는 집처럼 따뜻하고 카페처럼 아늑한 Wee Class가 있다. Wee는 we(우리들) + education(교육)과 'we(우리들) + emotion(감성)'을 접목시킨 단어이다. Wee Class는 나와 너 속에 우리를 발견하고,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감성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음 놀이터이다.

학생들은 이곳을 자주 찾는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엄마처럼 고민을 따뜻하게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Wee Class를 자주 찾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우리 아이들에게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실제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Wee Class를 이용하고 있다.

2 나, 너, 우리는 소중해

○ 지피지기면 화기애애

생명의 전화'와 연계하여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였다. 친구에게 응원과 격려 활동을 함으로써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관계력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자기표현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와 함께 활동하게 하여 자기 존중감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 내 생명 다시 봄

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와 연계하여 푸드테라피를 실시했다. 맞벌이가정 자녀들로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정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했다.

푸드테라피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상호 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심리적·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었다.



지피지기 화기애애 활동 모습



내 생명 다시 봄 '푸드테라피' 활동 모습

3

친구사랑!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애플 Day

학교생활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과의 글과 감사의 글로 마음을 표현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애플데이(사과의 날)를 운영하였다. 친구들과 선생님께 간식과 편지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등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별로 행사 포스터를 부착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고,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간식 포장과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애플데이 행사는 친구들과 마음속에 묵은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고 우정을 돈독히 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 포스터



학생들이 쓴 편지



편지와 함께 전달하는 간식 꾸러미

4 어린이날 기념 학년별 체육대회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학생자치회 공약 이행사업 중 하나인 학년별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모든 학년에서 개인 달리기와 이어달리기를 하였고, 학년별 다양한 경기를 하며 즐거운 어린이날 주간을 보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년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였으며, 고학년 학생들은 직접 경기 규칙을 만들고 진행도 하였다.

1학년은 <점핑 농구와 구름다리 릴레이>, 2학년은 <반별 피구>, 3학년은 <2인 3각 경기와 투호 던지기>, 4~6학년은 <반 대항 피구 대회>를 하였다. 학급 대항 경기에서는 반 친구 모두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였으며 힘찬 응원을 통해 학급이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체육대회 상품을 들고 있는 모습



반 대항 피구대회 모습

5 구산 런닝맨-2 인자를 찾아라!



‘구산 런닝맨-2 인자를 찾아라’는 즐거운 학교,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교생 참여 프로젝트로 학생자치회에서各班 임원들이 모여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학년별 주제에 따른 10개의 단어를 제시해 주고, 각 학년 학생들이 학년 주제 낱말 중 1개의 낱말을 선택하여 미션지에 적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한다. 각 학년에서 2번째로 많이 나온 낱말을 선택한 학생들은 선물을 받는 활동이다.

1학년은 <만화 캐릭터 이름>, 2학년은 <운동 경기>, 3학년은 <나라 이름>, 4학년은 <인천의 역사적 인물>, 5학년은 <도시 이름>, 6학년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낱말 주제로 정하였다. 학년별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였기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도 하며 전교생이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1석 2조의 프로젝트 행사였다.

1 인자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1 인자가 아닌 2 인자가 더 빛나는 행사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



학생자치회에서 만든 행사 포스터



학생자치회 임원이 2 인자를 찾고 있다

6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드라마



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능력은 경험에 의해 늘어난다. 작지만 소중한 교육과정 참여 경험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 우리 학교도 단순한 활동 참여에서 벗어나 학생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구산교육공동체가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천 개의 행복 드라마를 기대해 본다.



친구야, 네가 있어서 참 좋다

학 교 명	인천부일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0학급(355명)
소 재 지	부평구 부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요내용	- 전교생이 참여하는 자기와 타인 이해 및 존중 활동 - 동아리로 활동하는 개별성과 다양성의 이해		

1 들어가며

○ 윤리적 생활공동체, 왜 필요할까?

학교가 윤리적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니 왜 윤리적 생활공동체여야 하는 것일까? 학교는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학교가 통제와 경쟁, 불신과 무관심을 키우는 곳이 된다면 학생들이 커서 만들어 나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학교는 존중과 배려, 도움과 감사, 격려와 행복을 경험하고 이를 실천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결대로자람학교를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교는 윤리적 생활공동체,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는 공존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전교생이 참여해요! 친구야, 네가 있어서 좋아

○ 위클 편지와 타임박스 만들기

우리 학교는 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이다. 그래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전체 학생에게 새 학년이 된 소감을 묻고 나의 소중함, 타인의 소중함을 탐색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지 쓰면서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있어서 좋다는 문항에 낮은 점수를 준 학생은 상담을 실시했다. 이는 자기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기함과 동시에 학년 초

아이들의 상담을 위해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타임박스에 넣고 학년이 끝나는 시기에 열어본다.



개인파일에 편지를 넣어 배부



위클 편지 양식



타임박스

● 학년 초 학년 학급 바로 세우기 활동

학년 초 자치 시간을 활용해 학급 규칙을 정했다. 우리 반이 일 년 동안 지킬 약속을 함께 정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또한 학교 규칙을 반별로 의논하고 이 의견을 모아 학생자치회에서 우리 학교의 규칙을 정했다. 학교의 규칙을 정할 때 학생 의견뿐만 아니라 교사 다모임을 통해 교사의 의견, 설문을 통해 학부모의 의견까지 모아 '369 함께하는 약속'으로 만들어 학교의 모든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은다.

● 학급별 가위바위보 데이

학년 초 학급별로 위 클래스에 방문해 선생님과 가위바위보를 했다. 스스로 도전을 결정하고(이기기, 지기, 비기기) 나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한다.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친구를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학습이나 또래 관계 등 일상에서 가볍게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 가벼운 활동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놀이로 저학년의 경우 쉬는 시간 놀이로도 잘 활용할 수 있다.



369 함께하는 약속



반별로 방문 진행



각자 도전



최장도전자

● 푸른꿈을 읽건쓰

2학기를 시작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독려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다음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꿈에 관한 동요 ‘꿈을 꾸는 어린이’를 감상하고 가사를 음미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를 찾고 그 표현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탐색하였다.

둘째, 생명사랑 꿈길걷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직접 걷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내가 꾸민 나의 인형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걷는 모습을 표현하여 전시하였다. 인형에는 나의 생명과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나를 표현하여 꾸미고 힘든 친구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도록 했다.

셋째, 긍정왕을 찾아라 활동을 진행했다. 나의 푸른 꿈을 쓰고 최근 힘든 일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활동은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모두 수행한 친구를 위한 간식을 준비하여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꿈 노래 감상하기



마음에 드는 가사 쓰기



생명사랑 꿈길걷기



긍정왕을 찾아라

3

끼리끼리 모여요! 같이 해보자

● 학생자치회- 칭찬 기네스

각반의 대의원들이 모여 구성된 학생자치회에서 칭찬 기네스 활동을 진행했다. 각 반에 칭찬 적을 종지와 붙일 종이를 배부해 주면 우리반 친구의 좋은 점을 써서 붙여주는 활동이다. 칭찬하기 활동은 다양한 형식으로 반에서 자주 실행하면 좋은 활동이다. 칭찬릴레이, 칭찬샤워, 마니또 활동 등 평소 칭찬을 생활화했다. 학생자치회에서 이런 활동을 기획하고 기념품도 나누어 주면 색다른 칭찬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다.

● 또래상담동아리- 응원 카드 전달 캠페인

또래상담동아리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전체 학생 및 선생님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준비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모여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쉽지 않은 준비 과정을 거치며 타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한명 한명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카드를 받은 학생들은 감동, 놀람, 고마움 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칭찬 기네스



응원편지 쓰기



등굣길 캠페인



선생님 응원 방문

● 생태 동아리 ‘우지지’- 텃밭 가꾸고 부일 생물 도감 만들기

5학년은 생태동아리를 조직했다. 학교 운동장 한켠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 당근, 수세미 등 다양한 작물을 가꾸었고 수확한 작물을 어떻게 할지 함께 논의했다. 그 결과 수확물을 요리해서 학교 공동체와 나눔하고 관찰한 내용은 도감으로 제작해 각 반에 배부해 주었다. 우리학교에 있는 다양한 동식물을 섬세한 그림으로 그려낸 도감은 각반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5학년에서 시작한 배움이 전교로 퍼지는 순간이었다.

● 독서동아리 반디 - 도서 추천하기

‘반디’는 매월 정기적인 독서토론 모임을 갖고, 우리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반디 추천 도서를 선정했다. 급식실 앞 전교생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이해와 존중을 기를 수 있는 추천 도서 안내와 함께 퀴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독서 생활화를 도왔다.

● 학생뮤지컬동아리 - 작품 발표

1년 동안 춤과 노래, 연기를 연습하여 11월 전교생 앞에서 뮤지컬 작품을 발표했다. 동아리 학생들은 노력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며 뿌듯함을 느꼈다. 친구들의 공연을 본 전교생은 재미와 더불어 친구들의 꿈과 끼를 느끼고 나의 재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텃밭 가꾸기



부일 생물도감



반디 행사



뮤지컬 발표

4

마치며



윤리적 생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좋은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와 격려, 도움과 감사,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 따뜻한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별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윤리적 생활 공동체는 무력무력 그 싹을 틔워 나갈 것이다.



다르지만 같이, 느리지만 함께

학 교 명	동암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6학급(303명)
소 재 지	부평구 십정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3.1.
추진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요내용	- ‘다같이 함!’ 교육공동체, 같이 고민하다 - ‘다같이 함!’ 교육공동체, 힘모아 실천하다 - ‘다같이 함!’ 교육공동체, 함께 꿈꾸다		

1

‘다같이 함!’ 교육공동체, 같이 고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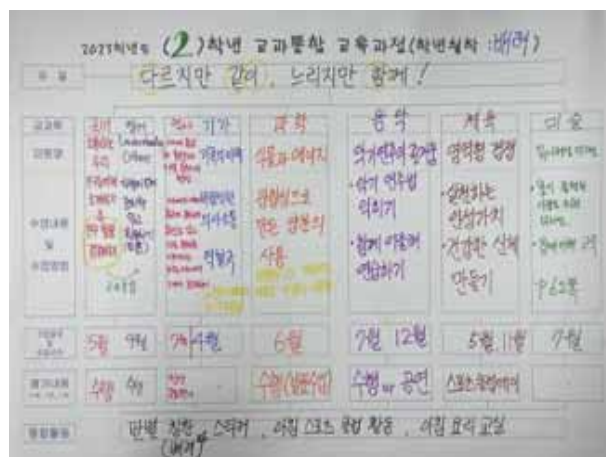
2023년 2월 동암중 워크숍 둘째 날, 드디어 2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첫인사를 나누었다. 모두 유쾌하고 열정이 가득하셔서 그런지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하나가 되었고, 2학년 철학을 정하기 위해 열린 토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올해 2학년 아이들은 개성이 뚜렷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덕분에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결대로 자랄 수 있게 돕되,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 역량도 길러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배려’라는 학년 철학 아래, ‘다르지만 같이, 느리지만 함께!’라는 멋진 슬로건이 세워졌고, 학년 철학을 길러줄 수 있는 교과 수업 및 다양한 활동도 하나둘 완성되었다.

다만 3월 한 달은 아이들에게 새 학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고 아이들의 성향을 반영해 계획한 활동들을 보완하며 구체화하기로 하였는데, 예상대로 우리 아이들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었지만 그만큼 갈등도 잦았다. 덕분에 선생님들은 쉴 틈 없이 아이들과 함께하며 틈틈이 모든 상황을 서로 공유하였고, 공동체 정기모임 자리에서 배려의 가치 아래 우리 아이들의 성향을 녹여 활동 계획을 세세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구체적인 활동 방향까지 공유한 뒤,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들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다같이 함!’교육공동체 첫 모임



‘다같이 함!’교육공동체 철학 세우기

2

‘다같이 함!’ 공동체, 힘모아 실천하다

반별 칭찬스티커

4월부터 ‘배려’의 가치를 지켜 수업하면 매시간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 반별로 도장을 찍어주는 칭찬스티커 활동을 시작했다. 도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준을 꼼꼼히 세웠으며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33개를 채우면 1차 보상, 77개를 채우면 2차 보상을 받도록 활동을 설계했다.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스티커를 받고 싶은 욕심에, 즐거나 수업을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일이 잦아 스티커를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일관된 태도로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부단히 강조하신 덕분에 많은 아이가 변화되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각반마다 성장의 속도에 차이가 있어 정해진 기간인 한 학기 내에 77개를 채우지 못한 반도 있었지만, 학기 초에 비해 확실히 아이들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업 문화가 형성되어 부듯한 활동이었다.



2학년 칭찬스티커 활동 결과

● 제주도 수학여행

1) 여행 전: 수학여행 추진단 협의회

첫 모임에서 신나게 수다 떠는 마음으로 한 명씩 의견이 계속해서 보태졌던 제주도 수학여행의 꿈이 추진력 뛰어난 회장님 덕분에 1학기에 바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먼저, 아이들에게 배움을 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모여 여행의 큰 틀을 정했다. 이후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수학여행을 설계하기 위해 여행을 앞두고 2달 전부터 각 반의 회장, 부회장을 ‘수학여행 추진단’으로 발탁해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회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건이 정해지면 추진단 아이들이 먼저 각 반의 조종례 시간을 활용해 반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회의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안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반 친구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방 배정, 버스 좌석, 복장, 핸드폰 사용, 집결 방법 등 많은 세부 사항에 아이들의 의견이 담겼고 2일 차 일정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추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 당일 조별로 출발해 김포공항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결정되었기에 추진단 아이들은 주말에 모여 먼저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 이후 김포공항까지 가는 길, 식사 등 관련 내용을 PPT로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설명했다. 이처럼 수학여행의 계획 과정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실제 여행에서도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나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이 훨씬 눈에 띄어 아이들이 기뻐했다.



수학여행 추진단 회의 기록



수학여행 추진단 학생 발표

2) 여행 후: 교과 통합 활동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아이들이 여행을 한 번 더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각 교과에서 수학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미술 시간에는 개인 당 한 권의 빈 책자를 주고 수학여행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림일기로 표현해보는 활동을 했으며 기술·가정 시간에는 수학여행에서 찍은 의미 있는 사진들을 받아 사진전을 열었다. 국어 시간에는 기행문을 작성해 우수작을 뽑은 뒤, 아침 조회 시간에 작성자 친구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처럼 2학년 각 교실에 낭독하는 활동을 했다. 역사 시간에는 수학여행 당시 방문한 제주 4·3 평화공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영어 시간에는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했다.

이렇듯 각 교과에서 밀도 있게 통합 활동을 진행하자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곱씹으며 깨달음을 늘려갔다. 여행 당시 갈등이 심했었던 성산 일출봉 등반에서도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고 느꼈던 뿌듯함의 가치를 도출해냈으며 3일간 친구들과 동고동락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나누면서 서로 간 공동체 의식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알찬 교과 통합 활동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수학여행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기기에 충분했다.



미술: 수학여행 그림일기 책자 제작



기술·가정: 수학여행 사진전

3

아침 활동: 스포츠 클럽 및 '아침 머꼬' 조식 지원



처음에는 지각, 결석이 잦거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아침 스포츠 클럽을 구상했고, 이와 연계해 아침에 일찍 오는 아이들에게는 조식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하다 보니 활동이 확대되어 지금은 누구나 아침에 일찍 와 조식을 먹은 뒤 야구, 축구 등의 활동으로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에서 운동 활동과 아침을 모두 지원해주니 확실히 초반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교에 일찍 오는 모습이 많이 보였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아침을 먹으러 학교에 온 여학생들이 친구들의 운동 활동을 구경하며 소문이 퍼져 지금까지도 아침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아침 활동은 현재 까지도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의 지각, 결석률을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생활 지도가 어려운 아이들과 래포를 형성하기 가장 좋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침 스포츠 클럽 활동



‘아침 머꼬’ 조식 지원



3

‘다같이 함!’ 교육공동체, 함께 꿈꾸다



이제 거의 모든 활동이 정착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얻은 깨달음을 나누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두려움을 버리고 일단 시작해볼 것. 둘째, 아이들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따라와준다는 것. 셋째, 공동체 구성원이 힘을 합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깨달음들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는 남은 학기도 서로 다른 아이들을 하나로 엮으며 느린 아이들을 함께 챙기려 한다. ‘다같이 함!’, 파이팅!



‘다같이 함!’ 교육공동체

함께 할수록 행복한 교육공동체

학 교 명	만성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1학급(415명)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7. 3. 1.
추진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요내용	- 관계중심 생활교육, 회복적 서클 활동 - 관계중심의 마을연계 교육과정		

1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 공동체의 시작

공동체는 같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때 시작된다. 우리는 2월 <사진-1>, <사진-2>와 같이 결대로자람학교 워크숍에서 공동의 가치를 세우고 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다. 첫 모임을 시작하며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 공동체가 학년형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만큼 일년동안의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학년의 목표와 인간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가장 먼저 ‘존중과 책임!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1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마을연계 교육과정 재구성과 회복적 서클을 활용한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사진-1> 외부강사 초청 연수 활동



<사진-2> 결대로자람학교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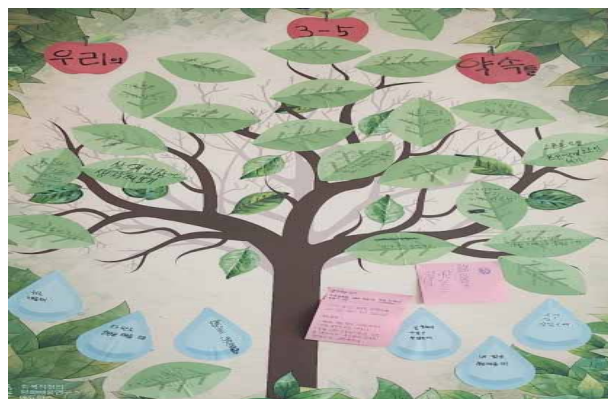
회복적 서클 활동

교육의 역할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서로의 삶을 공감하며 친구가 되고, 개별적 존재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우리 전학공은 1학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 성장하고 서로 협력하며 평화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실천하였다.

우선 3월 초에 회복적 서클 활동을 학급별로 실시하였다. 학기 초에 회복적 서클을 실시한 이유는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관계를 세우고, 학급 친구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만성중학교 학생들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회복적 서클의 주제는 ‘한 해 동안 함께 할 우리 반을 행복한 반으로 만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다. <사진-3>, <사진-4>에서와 같이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존중의 첫걸음으로 자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는 자기 존중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고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반을 위한 가치에 대해 발표하고, 1년동안 학급 친구들이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인사귀에 적어 붙이면서 행복 나무를 완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일시	목표 및 활동내용	준비물
1학기	- 도입 • Ice Breaking - 교육에 대한 기대 등 확인 - 공감 • Check in 서클 - 공동체 놀이 - 경청 • 주제 서클 : 우리 반을 행복한 반으로 만들어요 - 마무리 • 배움 나눔 및 질의응답	센터피스 토끼피스 물방울 스티커 사진 카드 등

일시	목표 및 활동내용	준비물
2학기	- 도입 • Ice Breaking - 교육에 대한 기대 등 확인 - 우리 반 • Check in 서클 - 공동체 놀이 - 가치 - 경청과 연결 - 찾기 • 주제 서클 : 우리는 모두 소중한 우리반의 가치 찾기 - 마무리 • 배움 나눔 및 질의응답	센터피스 토끼피스 공동체 가치카드 사진카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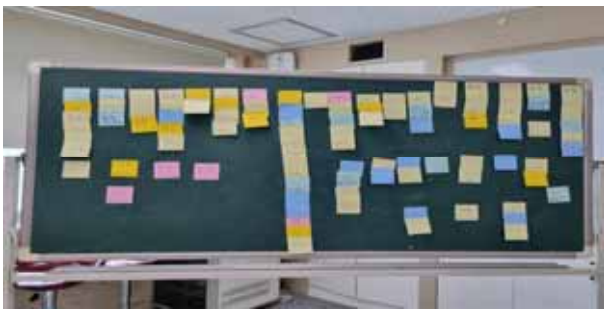
<사진-3> 학급별 회복적 서클 활동

<사진-4>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회복적생활교육 교육과정 예시

2 행복한 공동체로 자라나다

● 공동체의 성장

학년 중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장점은 각 학급별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생활교육과 수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학생들만 회복적 서클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사진-5>와 같이 소통과 존중을 위한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수업과 생활교육 측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정하고, 학생들의 회복적 서클의 결과 분석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논의된 활동을 통해 동료 교사들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좀 더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만들어가는 협력 지향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2024학년도 1학기 회복적 생활교육 방안 토의 결과

구분	내용
1. 회복적 생활교육의 필요성	1.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교육 2.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3.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생활, 정서적 발달을 위한 교육
2. 회복적 생활교육의 내용	1. 회복적 생활교육의 내용 2.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3. 회복적 생활교육의 평가

2.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구분	내용
1.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1.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2.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3.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법

3. 회복적 생활교육의 평가

구분	내용
1. 회복적 생활교육의 평가	1. 회복적 생활교육의 평가 2. 회복적 생활교육의 평가 3. 회복적 생활교육의 평가

<사진-5> 우리들의 약속, 협약 만들기 및 회복적 생활교육 방안에 대한 토의

●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인간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감은 자신과 타인을 돌보고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교육은 학교 구성원 사이의 연결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진-6>와 같이 6월 전문적 학습공동체 때 학생과 학부모의 특성에 따른 이해 관련 연수를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은 2학기에도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인 ‘생활교육 플러스’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생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 공동체 간 관계 맺기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사진-6〉 학생, 학부모 이해 및 대인관계 이해 연수

3

행복한 공동체로 배우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마을연계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의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존중과 책임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학생, 교사, 학부모, 마을활동가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내면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도록 마을 연계 주제중심통합 교육과정을 실천해 나갔다.

학생들은 마을 속에서 사람, 자연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사진-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대공원에서의 우리 마을 암석 사진 찍고 관찰하여 분류하기, 매실 및 살구 수확체험 활동하기, 내고장 음악회 관람하기, 읽.걷.쓰 연계 사제동행 동네 책방 탐방하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처럼 관계 중심의 마을연계 교육과정은 1학년 학생들이 우리 마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소통해야 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7〉 관계 중심의 마을연계 교육과정 활동

○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계 수업

‘소통과 존중의 배움공동체’의 비전을 바탕으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함양시키고 관계 속에서의 나다움을 찾아 진로를 개척하도록 진로 수업과 연계하여 공동수업디자인, 제안수업, 수업 나눔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수업나눔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공동수업디자인 구상



제안 수업



수업나눔협의회

〈사진-8〉 수업 나눔 활동



나답게 자라나는 [영마이스터 행복] 실천

학 교 명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4학급(361명)
소 재 지	미추홀구 도화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요내용	- 학생이 가져야 할 인성 덕목 알기 - 생태의 원칙 배우기(환경, 건강, 공정, 배려) - 사이좋은 교우 간·사제 간 추억 만들기		

1

영마이스터 행복 - 계획

○ 학생이 가져야 할 인성 덕목 알기 - [덕목 갑(甲)프로젝트]

- 인성교육은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인성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한다.
- 학생의 기본 덕목을 알게 하고 자신감, 협동, 인내, 책임감 등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덕목을 분기별로 정하고 실천·실행하여 아름다운 성품과 역량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생태의 원칙 배우기(환경, 건강, 공정, 배려) - [생태문명으로 가는 삶]

-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의 건강이 우리를 둘러싼 생태계 전체의 건강과 분리될 수 없다.
- 건강한 토양과 물이 건강한 식물을 키우고, 이 식물이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함께 누리는 환경과 삶의 기회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취업과 입시를 위한 무한 경쟁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활력이 필요하다.
- 생태교육을 통하여 윤리적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지는 학생이 되길 희망한다.

○ 사이좋은 교우 간, 사제 간 추억 만들기 - [영마이스터 히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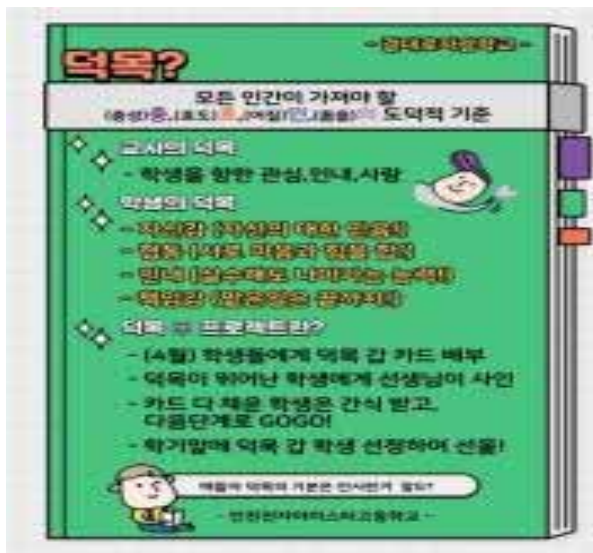
-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에서 바람직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

- 학교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 학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나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교우 간, 사제 간 함께 사진을 찍고 추억을 만들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감과 소통 능력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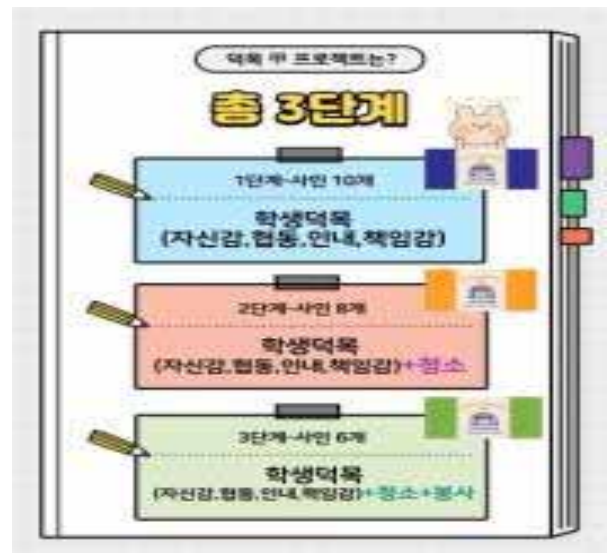
2

영마이스터 행복 -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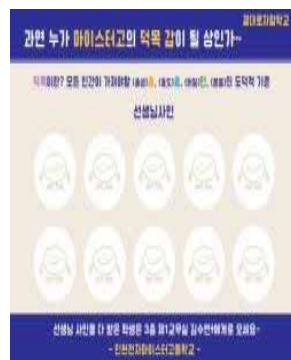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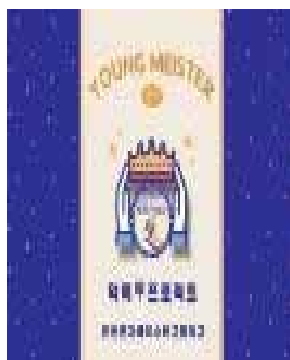
○ 덕목 갑(甲) 프로젝트



덕목 갑(甲)프로젝트 안내문



덕목 갑(甲)프로젝트 안내문



덕목 갑(甲) 카드 제작(총 3단계)



덕목 갑(甲) 카드 제작(총 3단계)



1학기 상품 수여



1학기 상품 수여

● 생태문명으로 가는 삶



잡초 뽑기



땅 고르기



비닐작업



고구마 모종 심기



잡초뽑기



고구마 수확



고구마 수확물 말리기



고구마 굽기

● 영마이스터 히스토리



꽃 벽 포토존



꽃 벽 포토존



노래방 생일 포토존



노래방 생일 포토존



생일선물

3

영마이스터 행복 - 기대효과, 지난 3년을 돌아보며

- 교사와 학생의 믿음과 신뢰로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한다.
-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통해 학교·학부모가 함께하는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한다.
- 교직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토론문화 형성으로 민주적 공동체를 실현한다.
- 결대로자람학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생각한다.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는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과정, 교직원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왔다.
-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는 변함없이 교육 공동체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학생 공감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안남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2학급(548명)
소 재 지	계양구 작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9. 3. 1.
추진과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주요내용	- 학생 공감 프로젝트 활동 사례 소개 - 학생과 교사의 교류 활동 사례 소개 - 교육 3주체가 만드는 학교 자치 문화 소개		

1 학생 공감 프로젝트의 시작

○ 학생이 행복한 안남고등학교

올해 우리 학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배움의 과정에서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공감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학생들의 관심사를 교육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시작으로 멘티미터를 활용하여 ‘음악, 학교 밖 체험, 전자 기기 사용’ 등의 키워드를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①모두가 하나 되는 ‘스쿨 樂 콘서트’, ②사제동행 문화체험의 날 ‘SSG 랜더스 경기 관람’, ③교내 스마트기기 찬반 토론 ‘안남고 Ubuntu’ 등을 기획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음악과 스포츠 등의 청소년 문화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2 학생 공감 프로젝트 사례

○ 모두가 하나되는 『스쿨 樂 콘서트』

‘스쿨 樂 콘서트’는 코로나19를 겪어온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음악을 매개로 한 소통으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회복을 지원할 수 있었고, 교사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콘서트는 학급 자치 시간에 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1부는 초청 공연, 2부는 학생 장기 자랑으로 운영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끼와 장기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통해 예술을 소극적인 감상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예술 활동에 참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콘서트를 즐기는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교육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되새길 수 있었다.



스쿨 樂 콘서트



스쿨 樂 콘서트

● 학생과 교사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제동행 문화체험의 날』 SSG랜더스 경기 관람

학생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을 홈구장으로 하는 SSG랜더스 경기 관람에 참여했다. 때마침 구단에서 ‘스쿨 데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작하여 상영하고, ‘레드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는데 선생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영상 이어서 최근 다양한 이슈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는 선생님들께 큰 위로가 되었다. 야구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학생과 교사가 한 마음이 되어 응원을 한 경험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illegible]

SSG랜더스 경기 관람 신청서



학생 단체 사진

●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의하는 『안남고 Ubuntu』

올해는 교내 전자기기 사용 문제가 학생들 사이의 주된 이슈였다. 우리 학교는 휴대폰 수거 도우미가 아침에 휴대폰을 걷었다가 종례 후에 돌려주는 교칙이 있는데 이때 휴대폰이 아닌 태블릿 PC 사용이 논란이 되었다. 현재는 시험 기간에 한해서 태블릿 PC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건의하여 교육공동체 회의가 소집되었고 ‘안남고 Ubuntu’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의 전통 사상으로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자 기기 사용 문제에 관한 토의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여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같은 무게로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기회가 되었다. 협의 결과 학생들은 태블릿 PC를 교육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범주를 논의하고, 이에 어긋나는 사례와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할 교칙을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교내 전자 기기 사용에 관해 우려를 표했던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의견에 동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안남고 Ubuntu 포스터



협의 장면

3

공감을 통한 나눔의 실천

●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지구의 날 행사』

학생 공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존중받는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느끼는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지구의 날 행사’는 학생들이 받았던 공감의 경험을 타인에게 돌려주는 실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공감의 대상을 자연으로 확대하여 기후 위기, 자원 활용,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고민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플로깅과 텀블러 사용’을 제안했다. 급식실 앞에 작은 부스를 마련하여 ‘텀블러 사용 캠페인’을 홍보하고, 작은 쓰레기 봉지를 나눠주며 ‘교내 플로깅 챌린지’를 안내했다. 지구의 날 행사는 일년에 4회로 계획하여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구의 날 포스터



교내 플로깅 챌린지



● 지역사회 봉사 활동 『사랑의 송편 나눔 행사』



독거노인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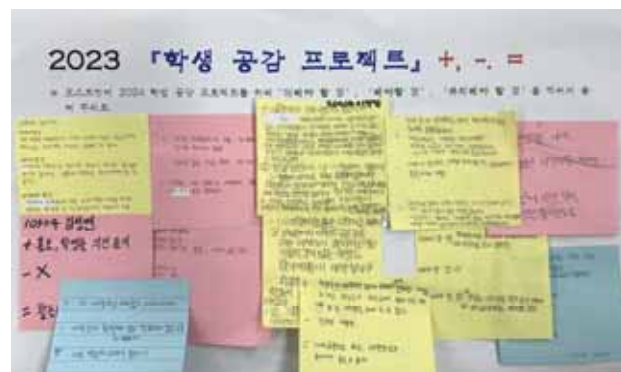
사랑의 송편 나눔행사

우리 학교는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주변의 주거 환경의 격차가 크고 주민의 비율도 독거 노인이 많은 편이라서 지역사회 봉사 활동으로 연탄 배달, 김장 김치 나눔 활동 등을 실천해 왔다. 올해는 추석을 맞이하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송편을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여 독거노인 아파트를 방문했다.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되어드리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 배울 수 있었다.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마을과 지역사회는 학생들을 지탱하는 뿌리와 근간이 된다. 이는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자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4 더 나아가기



학생 공감 프로젝트 피드백 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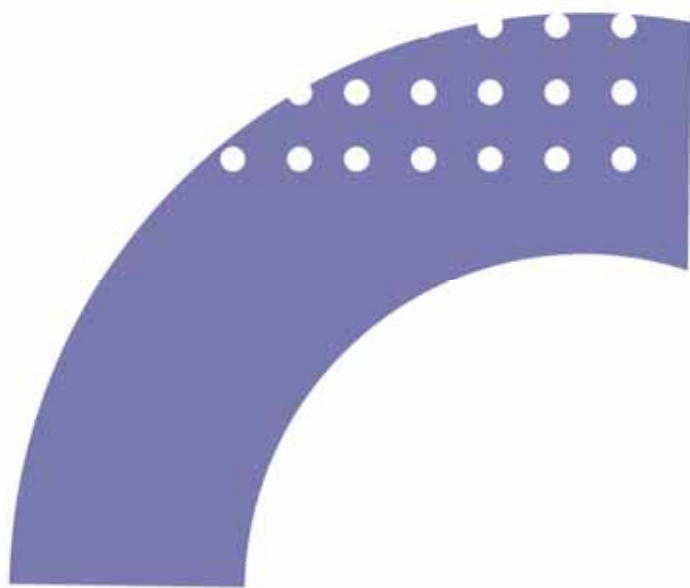
학생 공감 프로젝트 피드백 보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 공감 프로젝트’가 끝나고 학생들이 자주 지나가는 급식실 앞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보드를 게시해 두었다. 이를 통해 공감 프로젝트에서 ‘빼야 할 것’, ‘유지해야 할 것’, ‘더해야 할 것’에 관한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특히 마을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활동에 관한 고민과 성찰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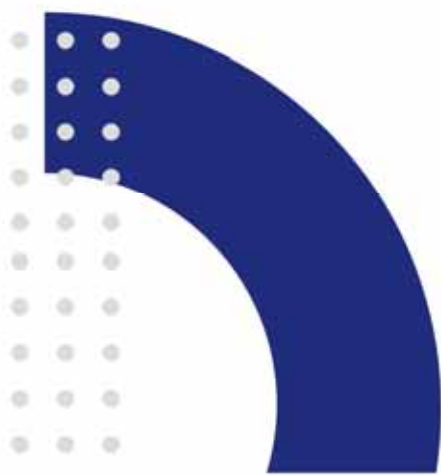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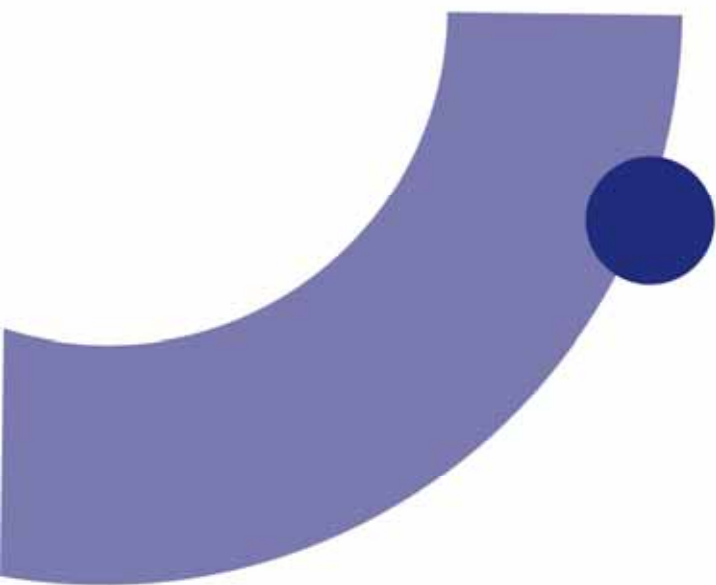


전문적학습공동체





초등 · 중등



함께하는 배움으로 행복 찾는 전.학.공

학 교 명	인천만석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5학급(353명)
소 재 지	동구 화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함께하는 배움으로 교직원의 행복으로부터 출발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7가지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1

‘함께’, ‘배움’, ‘행복’을 향한 고민의 ‘나눔’

○ 민주적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자치활동 운영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에 따른 민주적 공동체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교직원 자치활동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학년별, 부서별 협의를 거쳐 전체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한 결과 추려진 키워드는 ‘함께’, ‘배움’, ‘행복’, ‘나눔’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자치활동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게 되었다.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첫째, ‘함께’하기 위해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원하는 활동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최소 인원 이상이 희망한 주제로 7개의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구성하였으며, 각부별 활동일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여 희망에 따라 복수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제별로 회원들이 논의하여 활동내용을 정하도록 하였다. 주제별 특성에 따라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초빙하고, 활동 장소나 시간,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였다. 교직원 1인 1부서 이상 참여를 권장하며 참여 부서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활동일을 연초 운영계획에 명시하여 회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주제를 선택한 회원들 간의 교류로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이 더해지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내용을 학기별 1회 전 교직원과 나눔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활동 과정 및 결과물을 공유하고 나아가 수업 활동 및 학생자치 동아리 등 학생 지도로까지 확장할 방법도 함께 찾아 보았다.

2

자발적 참여로 더욱 행복한 7가지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함께 땀 흘리며 운동으로 하나 되는 ‘탁구연구회’

회원수	7명	장소	강당	시기	월 2 회(격주 금요일)	횟수	10회
활동내용	- 전문 외부 강사 개별 코칭 - 기초부터 심화까지 회원 수준별 레슨 - 연습 기계를 활용하여 개인별 수시 연습 - 회원간 단식 및 복식 경기를 통한 기능 향상						

● 삶과 연계한 학습 ‘생활과학부’

회원수	11명	장소	2-2	시기	월 1 회(셋째 수요일)	횟수	6회
활동내용	- 실과, 과학 교과 속 생명공학 및 초등 화학의 심화 탐구 - 우리 삶에 이로운 생활 과학 기술의 이용 - 탐구 내용의 수업 적용 방안 연구						

● 마음을 가꾸는 ‘원예활동부’

회원수	7명	장소	3-2	시기	격월1회(마지막화요일)	횟수	5회
활동내용	- 관상용 꽃에 대한 지식 나눔 - 마음을 정화 시키는 꽃꽂이 배우기 - 꽃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 향기 나는 삶을 만드는 ‘아로마테라피부’

회원수	9명	장소	꿈찬누리	시기	월 1 회(둘째 수요일)	횟수	4회
활동내용	- 천연 아로마 오일 소개 및 아로마 테라피란 - 천연 라이프 아이템 만들기 - 천연 모기 기피제 및 여름철 썬 번 스프레이						

○ 내 손으로 만드는 ‘생활공예연구부’

회원수	8명	장소	2 협의실	시기	월 1 회(셋째 월요일)	횟수	7회
활동내용	- 생활 속 활용 가능한 공예품 만들기 - 개인별 원하는 공예 분야로 자유롭게 활동 - 손뜨개, 양말목, 유화 액자, 라탄 공예 등 - 학생자율동아리 공예부 지도 방법 연구						

○ 읽고 느끼고 향유하는 ‘화수독회’

회원수	11명	장소	인근책방	시기	월 1 회(셋째 화요일)	횟수	8회
활동내용	- 화수동 모도 책방 탐방 및 책 구입하기 - 모도 책방 책 읽기 프로그램 참여 - 동인천 헌책방 거리 탐방 - 학년별 온 작품 읽기 지도 방법 연구						

○ 배우고 익혀서 나누는 ‘배드민턴연구회’

회원수	23명	장소	강당	시기	10-1월 (매주 수, 금)	횟수	30회
활동내용	- 스트로크 동작 연습 및 간이 게임 - 서비스 연습 및 간이 게임 - 단식 및 복식 경기 (규칙 익히기) - 학생자율동아리 배드민턴부 지도 방법 연구						

3

행복으로 성큼 다가가는 만석교육공동체



만석초등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3년 차에 이르렀다. 이제는 학년 초 전문적학습공동체 조직을 할 시기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홍보 및 같은 관심 분야가 있는 교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이 생겨나기도 한다. 주제별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있는 날이면 선생님들의 표정과 발걸음이 달라지기도 한다. 교직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은 학생 및 학부모 자치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치활동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연구하며 발전하고 있는 만석교육공동체는 지금도 행복을 향해 한 걸음 성큼 내딛고 있다.



배움과 나눔으로 성장하는 영화 전문적학습공동체

학 교 명	영화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3학급(303명)
소 재 지	동구 창영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학생 중심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배우고 나누는 교사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1 영화 전학공의 시작

소규모 학교, 전교생이 3시 30분에 하교하는 영화초등학교는 일과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모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2021년부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2023년에 자리를 잡았는데 결대로자람학교의 창의적 교육활동을 위한 전격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린 마음의 관리자와 13명의 동료 교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려는 공동체 협의 체제가 확립되었기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학년 및 학습자들의 성향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학년별 모임을 한다. 전 학년 모임에서는 수업에 대한 나눔 및 성찰, 피드백의 시간을 가지며 점차 발전하고 함께 성장한다. 영화초등학교의 전학공은 학생을 위한 수업 연구뿐 아니라 교사의 성장과 발전에도 초점을 맞춰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nput과 Output이 균형을 맞출 때 그 어느 때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바쁜 시간 가운데에도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애쓰는 영화초등학교 공동체임을 자부한다.

2 영화 전학공의 현재 - 학생 중심의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 1학년-그림책을 활용한 인성 중심 교육

그림책 연계 수업으로 한글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한글 이해도 학생이 최소화되고 있다. 1학년 선생님의 꼼꼼하고 정확한 지도로 그림책 활용 수업이 매우 효과적이고 학생의 심신이 안정되어 학교 생활에 적응이 빠르며 인성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봄-말들이 사는 나라
예쁘고 고운 말 실천 교육



여름-수박 수영장
시원한 여름 건강한
물놀이 교육



가을-숲은 살아 있다
아름다운 계절과 자연
교육



독서
바른 자세로 집중하며 책
읽는 독서교육

● 2학년-놀이 활동을 통한 관계 중심 교육

놀이 활동 중심 수업으로 관계 개선 및 올바른 놀이 문화를 배우면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학년 선생님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가 매우 밝아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의 중요성이 수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실 놀이-집 만들기



교실 놀이-모형 만들기



교실 놀이-컬링



교실 놀이-카드 게임

● 3학년-읽고 쓰는 인천 교육에 부합한 학년 특성화 교육

독서교육, 글쓰기 교육을 학년 특색교육으로 하여 연간 교육과정을 계획하였다. 모든 수업에 읽고 쓰기 활동을 적용하였으며 주 1회 독서교육과 글쓰기 교육 시간을 잡아 운영하였다. 본교 유일한 세 학급인 3학년 선생님의 열정과 패기로 한 해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교육하고자 수시로 협의하며 책 읽기와 글쓰기의 정착을 위해 애쓴 결과 3학년 학생들의 독서 및 글쓰기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독서교육



글쓰기 교육



4학년-동네 문화 탐방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

마을연계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교 주변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본교는 인천 각 지역에서 통학하는 사립학교로 학교 주변을 탐색하기 쉽지 않은 실정 이지만 마을연계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최대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자 노력하여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중요한 지역 특성을 배울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애보 박물관 견학



동구 내 시장 방문-상인 인터뷰

5학년-역사적 인물,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프레젠테이션 교육

사회과 역사 분야가 시작되는 5학년에서는 역사적 인물, 사건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계획, 시행하였다. 1학기에는 학생 개인이 관심 있는 역사적 인물, 2학기에는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여 준비 부터 자료 제작, 발표까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다. 역사에 관한 관심과 역사가 중요한 이유를 학생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 끊임없이 협의하고 돕는 과정에서 교사 또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역사 인물 자료 준비



역사 인물 발표



역사 사건 자료 준비



역사 사건 발표

6학년-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자기주도학습 교육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년인 만큼 6학년 선생님들의 고민과 협의는 바쁘게 이루어졌다. 자기주도 학습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재구성하여 적용했고 아침 자습 시간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스스로 수업 내용을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피드백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6학년 선생님의 여유로움과 차분함이 재미 위주의 수업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진지하게 수업으로 이끌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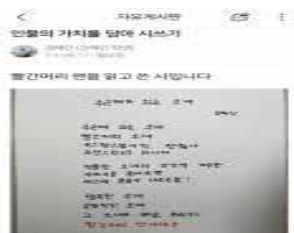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후 관심
주제 발표하기



국어과 자기주도학습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
인증



3

배우고 나누는 교사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사 중심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생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가득 담겨있다. 연초, 학기별, 매월, 매주 시기별로 이뤄지는 교사 모임은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잘 가르치기 위해 꾸준히 배우고, 배운 것을 서로 나누며 보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학생뿐 아니라 교사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전 교직원 워크숍

연 2회 전 교직원 워크숍을 진행하며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뤄나가야 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1박 2일 또는 2박 3일 워크숍을 통해 공동체 훈련, 마음 나누기, 전체 비전 및 학년별 비전 공유하기 등 교육에 대한 나눔과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

● 동학년 모임 및 수업 나눔의 시간

동학년 모임은 주 2회, 수업 나눔의 시간은 전 교사를 대상으로 주 1회 운영한다. 동학년 협의에서 나온 방법을 적용한 후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 또는 준비 단계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전 교사 나눔 시간에 공유한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나누다 보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교사와 기존 교사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도움이 된다.



워크숍



동학년 모임



전 교사 나눔의 시간



월별 지원 도서

● 독서, 글쓰기 동아리

교사 동아리 모임으로 독서, 글쓰기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본교는 독서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아침 10분 독서를 시작으로 전교생 다독 및 정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교사 모임이 필요하다고 여겼고, 월 1회 모여 읽은 책을 나누고 글쓰기를 하며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눈다. 교사에게 힐링의 시간으로 자리 잡아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 본다.

4

영화 전학공의 미래 -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본교는 소규모사립학교로 교직원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 같은 마음이 아니면 교직 생활이 쉽지 않지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때 학교는 힘찬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개인 사정이 있고 바쁜 것은 어느 집단이나 동일하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교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뜻이 이뤄질 때 학교와 학생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사’라는 이름에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육과 교직, 개인의 삶과 권리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교사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영화초등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이다.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살아가는 우리지만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이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성경 말씀처럼 학생들에게뿐 아니라 서로에게 옳은 길이 되어줄 수 있는 빛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

나와 너를 넘어 함께 가는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인천남동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0학급(418명)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수업 나눔 - 학년 전학공 운영으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협업 문화 정착		

1 교육과정은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학교 교육을 교실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주체는 인격을 갖춘 개별 교사이다. 인격을 갖추었다 함은 개인의 삶의 가치관에 따라 교육의 실행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개별 교사라 함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교육철학에 따라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구현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개별 교사가 실제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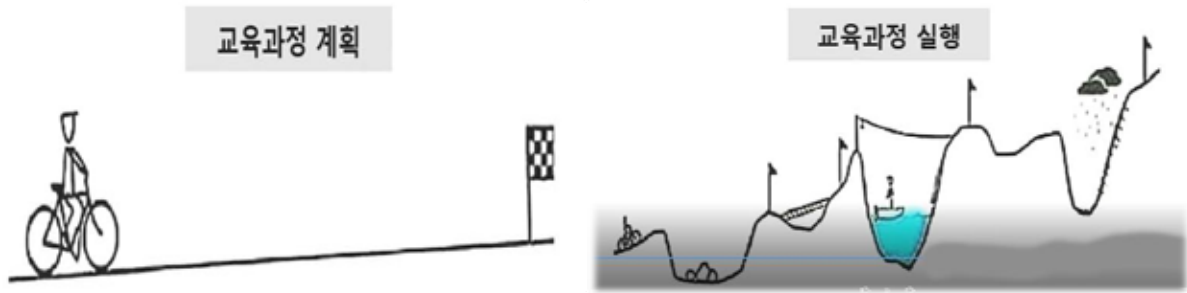
그러면 교육과정은 온전히 ‘교사 개인의 일’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교육과정은 늘 개인의 일을 넘어선다. 교실에는 국가 교육과정, 지역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학년 교육과정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종 교육과정을 교실의 상황에 맞추어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결국 교육의 결과가 학생들 안에 실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체이다.

교육과정을 수업으로 풀어내는 것은 개별 교사의 몫이지만 교육과정은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

2 우리는 왜 수업을 나누는가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많이 확산 되어왔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 했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출처〉 경기도교육청 오재길

함께 설계했다면 운영 시에 만나게 될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프로젝트(통합단원)를 함께 운영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 2023년 학년별 수업 나눔 주제

학년	대주제	통합단원명	관련 수행과제
1	계절감	착한 지구인의 신나는 여름 나기	신나게 여름을 나는 방법 실천하기 여름 패션쇼
2	생태	함께 성장하는 지혜로운 9살의 여름	장수천을 아끼는 방법 실천하기
3	장소감 형성	마을을 아끼다	우리 마을 보물지도 만들기
4	지역 문제 참여	인천에 반하다, 인천에 바라다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제안하는 글쓰기
5	인권	오르막 너머 피어난 꽃, 인권	우리 학교 인권 진단지 제작하기
6	경제	뒤로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 공존 경제를 배우다	6학년 공존 장터 기획·실행하기

수업 나눔에는 관리자, 교육과정지원팀 업무부장, 동학년 교사가 모두 참여한다. 관리자는 교장 선생님이 2, 4, 6학년을 맡고 교감 선생님이 1, 3, 5학년을 나누어 맡는다. 교육과정 지원팀의 업무부장 3인은 전 학년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이 겹치면 그때마다 분담하여 참석한다.

2023년 학년별 수업 나눔 및 수업 협의 일정

학급	사전협의	수업나눔	사후협의	학급	사전협의	수업나눔	사후협의
1-1	6/5(월)	6/9(금, 5교시)	6/12(월)	4-2	4/27(목)	5/2(화, 5교시)	5/9(화)
1-2	6/12(월)	6/16(금, 5교시)	6/19(월)	4-3	5/9(화)	5/11(목, 5교시)	5/16(화)
1-3	6/19(월)	6/23(금, 5교시)	6/26(월)	5-1	5/19(금)	5/24(수, 6교시)	5/26(금)
2-1	- (병가)	-	-	5-2	5/26(금)	5/31(수, 6교시)	6/2(금)
2-2	6/14(수)	6/16(금, 5교시)	6/20(화)	5-3	6/2(금)	6/7(수, 6교시)	6/9(금)
2-3	6/20(화)	6/23(금, 5교시)	6/23(금)	5-4	6/9(금)	6/14(수, 6교시)	6/15(목)
3-1	5/9(화)	5/11(목, 5교시)	5/16(화)	6-1	5/11(목)	5/17(수, 6교시)	5/23(화)
3-2	5/23(화)	5/25(목, 5교시)	5/30(화)	6-2	5/23(화)	5/24(수, 6교시)	5/26(금)
3-3	5/16(화)	5/18(목, 5교시)	5/23(화)	6-3	5/26(금)	5/31(수, 6교시)	6/2(금)
4-1	5/16(화)	5/19(금, 5교시)	5/23(화)	6-4	6/2(금)	6/7(수, 6교시)	6/9(금)

남동초는 학급을 맡는 담임들에게 행정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교장, 교감, 지원팀 업무부장 3명, 교무실무사, 교무행정실무사가 학교의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그리고 교육과정지원팀 업무부장들은 1학기의 가장 주요한 업무를 수업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수업 나눔에 집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역량에 있어 학년마다 다른 특징이 있다. 구성원의 경험과 철학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들의 집합에서 기인하는 역동이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 학년마다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 새로운 구성원들이 서로 합을 맞추고 개인 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위한 단초를 이 시기에 마련할 수 있다.
- 새로운 학교 구성원에게 우리 학교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수업 나눔 문화이다.
- 교육과정지원팀이 행정업무에만 몰입하지 않으려면 각자가 어떻게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지원팀은 전 학년 수업 나눔에 참여하여 학년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지원팀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기획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학교는 했던 일을 의미 없이 반복하게 된다. 매년 구성원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 데 했던 일을 반복하는 것은 퇴보하는 것과 같다.
- 학교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덜어내고 무엇을 새로 할지를 결정하려면 플로어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발코니에 올라서 우리 학교를 조망하는 눈을 가지려면 관리자와 지원팀 부장들이 수업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실제 상태를 파악하고 무엇을 지원해주어야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해질지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이다.

3

수업 나눔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수업 나눔 때 관리자와 지원팀 부장들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평가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설계의 방향을 예리하게 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관리자1: 이 수업 전에 그런 가치(수업자가 언급한 용기, 책임감, 공감, 배려, 존중 등)에 학생들이 이 노출된 적이 있나요? (3학년 수업 사전협의에서)

지원팀 부장1: 인권에 대한 의견이 충돌한다면 답은 어떻게 찾아갈 계획인가요? (5학년 수업 사전협의에서)

관리자2: 실제 기업의 방향은 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상업적으로 어필하는 부분(수업 활동 중 맥도날드 인용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학년 수업 사전협의에서)

지원팀 부장2: 아이들은 장소에 대해 어떻게 애착을 갖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4학년 수업 사전협의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동학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보면 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내놓기가 쉽지 않다. 사전협의 때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설계는 촘촘해지고 수업에 대한 상은 보다 분명해진다.

교사: (이번 협의를 통해) 잠깐 잊었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어요. 수업에 대한 상이 명확해졌어요. 장소에 대한 추억, 애향심 등의 이야기가 다가 왔어요. (4학년 수업 사전협의에서)

사전협의를 마쳤다면 이제는 실제로 수업을 참관하게 된다. 남동초 수업 참관 풍경은 조금 독특하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만 뒤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수업 참관의 목적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에 대한 관찰에 있지 않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관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참관인은 아이들 곁에서 수업을 관찰한다.

동학년 교사들의 경우에는 당장 이 수업 활동을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자기 반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된다. 관리자와 지원팀 부장들도 마찬가지다. 사전협의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과연 학생들에게 잘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니 학생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그래서 수업을 관찰하는 눈은 많지만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 눈이 학생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참관 후 사후협의 때는 각자가 관찰했던 학생 활동 모습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예상했기에 잘 적용되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한다. 또한 동학년 교사들이 각자의 학급에서 이 수업 활동을 진행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간과했던 부분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점과 그 이유들이 보다 분명해진다.

사전협의에서 예리하게 버리고 수업 참관에서 관찰하고 사후협의에서 전문가로서 진단하고 평가하는 일.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역량 강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일,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수업 나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4

결대로자람학교, 남동초가 나아가고 있는 길

모든 학교에 학교 교육과정은 다 있다. 다만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뿐이다. 남동초도 남동초만의 고유한 학교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동초의 구성원들은 비교적 분명하게 그 빛깔을 체감하며 실행하고 있다.

남동초의 빛깔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가설을 세우고 실행한 후 평가하면서 변화해간다. 11월의 평가 설문, 12월의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워크숍, 2월의 구체적인 설계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1년 간 열심히 운영한 후 다시 평가 - 의사결정 - 설계의 과정을 거친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결정한 것에 대해 추진 동력이 생긴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을 촘촘히 설계하고 힘 있게 추진해가는 목적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학교 교육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더 많이, 더 잘 성장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보람과 함께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해서이다.

남동초가 나아가고 있는 길은 그 길을 함께 걸을 우리를 곧게 세우는 일이다. 앞으로 남동초가 만나게 될 문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은 결국 우리 안에 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지금도, 앞으로도 남동초는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행복한 성장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학 교 명

인천장도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9학급(362명)

소 재 지

남동구 논현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함께 연구하고 실천하는 장도 행성공 운영
- 교사와 학생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전문성 함양
- 교내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다양한 강좌의 교직원 힐링 연수

1

시작은 어떻게?

결대로자람학교는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한해가 잘 운영된다. 결대로자람학교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2월의 중요성을 알고 2월부터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였다. 민주적학교공동체, 윤리적 생활공동체, 학생주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들 간의 끈끈한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2월이면 정들었던 분들을 보내고 새로운 공동체 구성을 위하여 분주해진다. 특히 우리가 해왔던 활동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와 의무감을 심어줄 필요성을 느꼈다. 2023학년도 교육과정 워크숍을 할 때 전학공을 위해 이렇게 운영하였다.

제목 2023학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신학년도 교육과정 워크숍 지원

1. 관련: 인천장도초교-1583(2023.2.14)
2. 2023학년도 새학기를 준비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워크숍 지원 강의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회차	일시	진행자	대상자	주제
1	2023. 2.20. 10:30~11:30	장도초 교사 000	전 교직원	2023 새 학기의 시작, 기본 좋은 설명
2	2023. 2.20. 14:30~15:30		전 교사	2023 전학공 함께 세우기
3	2023. 2.21. 10:00~11:30		요청 학년	2023 학년 교육과정 함께 세우기 실습

- 붙임 1. 2023학년도 새 학기의 시작, 기본좋은 설명 진행자료 1부
2. 2023학년도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함께 세우기 진행자료 1부. 끝.

2023. 2. 20.(목)

새 학기의 시작, 기본 좋은 설명



학년도 교사 다모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전문적학습공동체란 무엇일까요?

-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연구, 실천과 성장, 공유로
- 공동체 구성원의 전문성 신장과
-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조직



교육과정 워크숍 속 전학공 만들기

전학공 함께 세우기 자료

활동 모습

이런 우리의 노력으로 공동체 모두에게 전학공에 대한 의미와 효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잘 맞추어진 첫 단추는 한 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2

운영은 어떻게?



○ 첫 번째 수요일 - 함께 하는 다모임 운영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도 공동체성이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공동체성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잘 회복하고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모임은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교사들 간의 소통 협의를 위한 다모임의 활성화는 교사 민주주의 과정의 디딤돌이 되어주며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녹아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다모임을 통해 교사들이 수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해결책 공유, 교사 간의 정서적 지원을 이어 나갔는데, 힘든 시기일수록 감성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다모임은 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모임에서 우리는 전학공이 운영되는 수요일은 최대한 전학공을 위해 다른 일을 넣지 않고 함께 하여 성장하는 우리가 되자고 공동체 약속을 하였다.

○ 두 번째 수요일 - 함께 주제별 교직원 전학공 운영

두 번째 수요일은 주제별 교직원 전학공을 운영하였다. 교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교직원 모두가 함께 하는 활동으로 함께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상호 의존성을 높여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였다. 활동내용은 교수학습 운영방안-연구-실행-평가로 이어지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들끼리 협의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공동체 명	활동 주제	회장(인원수)
체육 놀이 연구	체육 놀이를 통한 즐거운 체육 시간 및 건강한 학교 생활 만들기	강○선(4)
뒤GO 걸GO	변화하는 우리마을 탐방 연구	이○희(5)
Hello Art	문화예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이○주(6)
행복 배움 북클럽	책을 통한 행복 배움 연구 및 체험	최○지(3)
한 발짝 우리 마을 속으로	프로젝트 수업 사전 준비 및 자료 제작	김○제(4)
여럿이 한걸음	눈으로 느끼며 몸으로 표현하고 마음으로 알기(미술·운동·독서)	정○철(5)
[탐인탐스] 탐방: 인천 탐구 스케치	동북아 허브, 인천 도시 탐방	강○귀(5)
교양있는 그녀들	자연과 예술로 만든 교육 비법	강○영(5)

교직원 공동체별 조직 현황

시기	주제 및 강사(진행)	비고(장소)
3월 22일 (수) 14:00~ 14:30	〈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방향 및 계획 세우기 〉 - 토킹스틱을 활용한 감정 나누기 - 기본적인 활동 방향 안내 및 건의 사항 반영하기 - 월별 계획 함께 정하기	●교사자치실
4월 19일 (수) 13:40~ 15:00	〈 수석교사 교내 공개수업 및 수업 성장 협의회 〉 - 5학년 사회과 6교시 공개수업(13:50~14:30) - 수업 참관 후 수업 성장 협의회(14:40~15:00) - 학생들의 배움과 수업 피드백 나눔	●5학년 교실 - 사회 공개수업 수업 협의 ●교사자치실
5월 17일 13:40~ 16:40	선택형 1 〈 알지오 활용 기본교육 실습 연수 〉 -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초빙 연수 - 질문과 소감 나눔	●2층 컴퓨터실 - 3시간 직무연수 이수 시간 인정
5월 17일 15:00~ 16:00	선택형 2 〈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에 어떻게 적용할까? 〉 -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신뢰 서클을 활용한 워크숍	●교사자치실 수석교사 진행

교직원 공동체별 활동 내용



교직원 공동체별 활동 모습

○ 세 번째 수요일 - 교원 전학공 운영

세 번째 수요일은 교원 전학공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주제형 및 교간형 등 다양한 전학공이 운영됨과 함께 교사 성장 지원을 위하여 교원 전학공을 매달 2~3시간 정도 운영하였다. 공동체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연수 및 교육기부 계획을 세워 실천하였다.

시기	주제 및 강사(진행)	비고(장소)
3월 22일 (수) 14:00~ 14:30	〈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 방향 및 계획 세우기 〉 - 토킹스틱을 활용한 감정 나누기 - 기본적인 활동 방향 안내 및 건의 사항 반영하기 - 월별 계획 함께 정하기	●교사자치실
4월 19일 (수) 13:40~ 15:00	〈 수석교사 교내 공개수업 및 수업 성장 협의회 〉 - 5학년 사회과 6교시 공개수업(13:50~14:30) - 수업 참관 후 수업 성장 협의회(14:40~15:00) - 학생들의 배움과 수업 피드백 나눔	●5학년 교실 - 사회 공개수업 수업 협의 ●교사자치실
5월 17일 13:40~ 16:40	선택형 1 〈 알지오 활용 기본교육 실습 연수 〉 -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초빙 연수 - 질문과 소감 나눔	●2층 컴퓨터실 - 3시간 직무연수 이수 시간 인정
5월 17일 15:00~ 16:00	선택형 2 〈 회복적 생활교육 학급에 어떻게 적용할까? 〉 - 회복적 생활교육의 이해, 신뢰 서클을 활용한 워크숍	●교사자치실 수석교사 진행

시기	주제 및 강사(진행)	비고(장소)
6월 21일 13:40~ 16:40	선택형 1 < 메타버스 활용 기초교육 실습 연수 > -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초빙 연수 - 질문과 소감 나눔	●2층 스마트 교실 - 3시간 직무연수 이수 시간 인정
6월 21 15:00~ 16:00	학생 생활교육과 학습지도의 어려움과 해결방안 나눔 -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집단 지성으로 해결책 나누기	●교사자치실 사회자 선정 진행
9월 20일 (수) 15:00~ 16:00	< 학생의 행복한 배움을 위한 수업 방법 실기연수 > -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다양한 적용 방법 워크숍 - 교실에서 적용 방안 함께 나누기	●교사자치실 강사초빙연수
10월 18일 (수) 15:00~ 16:00	< 행복한 배움을 위한 참여형 수업디자인 워크숍 > -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평가를 적용한 수업디자인 - 자발성과 동료성을 토대로 전문성 지원 수업 나눔	●교사자치실 교내장학 활동과 연계한 연수와 수업 코칭 안내
11월 15일 (수) 15:00~ 16:00	<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기 체험 > -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 외상의 생리학과 외상후 성장 알아보기	●교사자치실 트라우마 극복 연수
12월 20일 (수) 15:00~ 16:00	<2023년 전문적학습공동체 반성 및 2024년 계획 세우기> - 올해 되돌아보기 - 내년도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반성 및 나눔	●교사자치실 워크숍 결과 내년 계획 수립



알지오 활용 연수



어려움과 해결 방안 나눔



수업 디자인 워크숍

● 네 번째 수요일 - 전문적 심화 연수

네 번째 수요일은 좀 더 심화된 전학공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운영하였으며 10명의 교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인성, 사회성 발달을 위한 상담 연수(컬러테라피)를 실시, 컬러DNA분석과 컬러별 특성 이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인성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진시켰다. 2022학년도에 실시한 15시간짜리 다소 긴 연수였는데 연수 종료 후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2023학년도에 연수를 받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하여 연수를 다시 실시할 만큼 교원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연수였다.

구분	활동 내용	활동자료	차시
인성진단 및 개발교육	< 나를 찾아가는 컬러 코드 알기 > 1) 성격과 기질의 정의 알기 2) CPA검사 이해하기 3) DNA컬러 12가지 구분하기 4)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컬러 알아보기	컬러DNA관련 교재 강의용PPT	3
	< Color DNA 탐색 > 1) 진단을 통해 본인의 DNA컬러 찾기 : 진단 결과(자기보고서) 해석하기 2) 우리 가족, 반 학생 등 DNA컬러 찾기 3) 12컬러별 특성 알기	컬러진단설문지 강의용PPT	3
	< Color와 관련된 건강 > 1) 나의 오라 측정하기 2) 오라를 보고 자신의 건강상태 진단하기 3) 건강 상담받기	오라측정기 개인건강기록지 강의용PPT	3
컬러테라피를 활용한 상담 기술 익히기	< 학생 상담 진행 방법 익히기 > 1) 컬러테라피 상담을 위한 다양한 자료 공유 2) Color DNA앱 활용법 익히기 3) 학생이 가진 컬러별 상담 방법 알기	컬러카드 스티커 및 학습지 강의용PPT	3
	< 컬러별 아로마테라피 상담 방법 익히기 > 1) 컬러 보틀을 활용한 아로마테라피 경험하기 2) 자신의 보완컬러 알아보기 3) 내담자의 보완컬러로 상담하기	컬러보틀 보완컬러표 강의용PPT	3

3

공동체의 변화

2023년 한 해를 보내며 교사들은 전학공 활동이 나 혼자가 아닌 동료 교사와 함께 하는 활동이라는 인식 전환으로 수업 공개 및 수업 나눔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수업 방법 및 평가 방법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전학공 뿐만 아니라, 교내 모든 교육활동마다 먼저 힘든 일을 기꺼이 솔선수범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노력을 알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24학년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 및 학생들의 배움이 성장할 수 있는 전학공 활동이 되도록 해야겠다.

함께 배우고 결대로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만들기

학 교 명	제물포여자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5학급(345명)
소 재 지	미추홀구 주안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한해살이 -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 - 함께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반성과 제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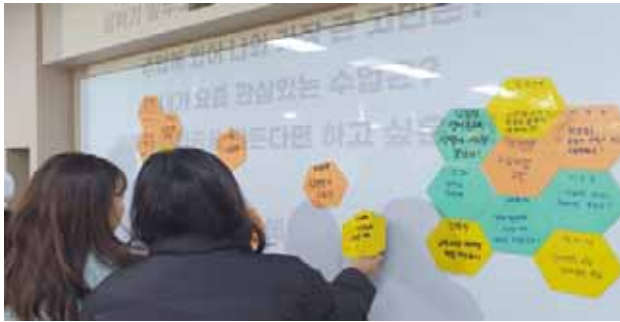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한해살이

○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을 위한 기반 다지기

제물포여자중학교는 ‘스스로 서고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학교’를 비전으로 삼아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는 인천형혁신학교인 결대로자람학교의 비전 및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2022학년도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및 협의회를 거쳐 2023. 3. 1. 부터 결대로자람학교의 최초 지정교가 되었다. 결대로자람학교로의 첫해를 맞은 우리 학교는 2023학년도 결대로자람학교 교육과정워크숍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

○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변화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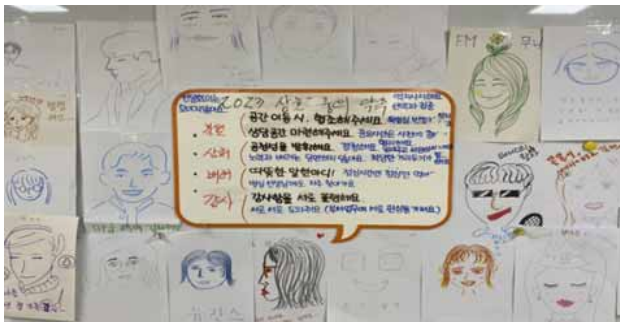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업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우선 교직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학년 초 배려와 존중의 약속을 만들어 각 특별실과 교무실에 부착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은 약속의 변화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고 공감하는 모습들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우리 학교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3 교육과정워크숍



2023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공동체 문화 조성



소통·공유·연결(패들렛)

2

결대로 성장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

다채로운 구성으로 함께 결대로 성장하기

우리 학교만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제형 3가지, 학년형 3가지 등 총 6가지의 다채로운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운영되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주제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결대로 배움터, 결대로 나눔터, 결대로 체험터로 구성하였다. 결대로 배움터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결대로 나눔터에서는 장학 활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대로 체험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활동, 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였다.

2023학년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유형	일시	장소	주제	
주제형	결대로 배움터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뜻 세울 도서관 스터디 카페	- 공동수업디자인, 수업 나눔 - 교육과정 재구성 -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 연수
	결대로 나눔터	셋째 주 금요일	교사 커뮤니티실 외부 체험처	- 수업 브랜딩, 모둠학습, 교과 간 융합프 로젝트, 학생참여활동 아이디어 나눔
	결대로 체험터	셋째 주 금요일	체육관 외부 체험처	- 다양한 스포츠 안전교육 - 스포츠 체험 및 지도 방법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는 1학년 인성 교육 산책, 2학년 수다로 인성 교육, 3학년 그림책 마실로 구성되었다. 학년 중심의 다채로운 인성 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그림책을 활용한 교수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실천해 나갔다. 이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시민역량을 함양시키는 토대가 되었다.

2023학년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				
유형	일시	장소	주제	
학년형	인성 교육 산책	첫째 주 수요일	학년 교무실 마을 연계 체험처	- 다채로운 학급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교육 역량 강화
	수다로 인성 교육			-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 교육 역량 강화
	그림책 마실			- 그림책을 활용한 학급운영과 교수·학습 역량 강화

교사들의 바쁜 하루의 일과 중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함께 배우고, 나누고, 체험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어느덧 학생의 성장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및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대로 배움터



결대로 나눔터



결대로 체험터



인성 교육 산책



수다로 인성 교육



그림책 마실

3

함께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배움과 성장을 위한 반성과 제언

2023학년도 다채로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은 교사들의 수업 혁신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 정착에 토대가 되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과중한 업무 및 교육 환경적인 제약으로 정작 수업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공감대 형성 및 실천 의지 강화 연수 및 활동 지원, 둘째, 수업 전념을 위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지원 강화, 셋째, 소통과 협력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노력 강화, 넷째,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핵심 리더 교육 및 배치, 다섯째,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주제 구성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이 그것이다.

존엄과 공존,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을 위해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수업의 변화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언에 대한 지원을 통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도록 이끌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배우고 결대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인천상정중담게, 전문적학습공동체 만들기

학 교 명	인천상정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5학급(363명)
소 재 지	부평구 십정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9.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전문적학습공동체 마인드 함께 만들기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의 어려운 점 극복하고 성장시키기		

1

인천상정중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시작하기

● 마음의 문 열기

“정부장 나 전학공 같은 거 하기 어려워!” 결대로자람학교 지정을 위해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복도에서 만난 부장님이 크게 건네신 말씀이다. 2020년 9월 1일자로 결대로자람학교로 지정되면서 시작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전학공의 조직 및 운영이 마음에 제일 큰 과제였다. 이때 전학공 구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먼저 한 발짝 다가가자. 같이 할 수 있다고 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 열기 활동부터 시작하였다. 선생님들의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힐링 연수, 선배 결대로자람학교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꾸준한 소모임을 통해 결대로자람학교의 철학을 공유하고 전학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2021년 3월 신학기부터 선생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전학공을 시작하게 되었다.



교원 힐링 연수



선배 결대로자람학교들의 연수

2

전문적학습공동체 문화 만들기

○ 전문적학습공동체 형태 결정하기

‘우리 선생님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믿고 자발성을 기초로 자율적으로 전학공을 구성해 봅시다.’, ‘전학공을 처음 시작하며 학교가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계속 유지 될 수 있어요, 누가 자발적으로 없던 업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2021년 신학기 업무를 논의하며 전학공 구성 형태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은 학년별로 전학공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시작하였고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 시키고 있다.

○ 학년별 전문적학습공동체 꾸리기

인천상정중학교는 결대로자람학교 시작 이전부터 학년별 교과 통합 수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학년별 전학공을 교과 통합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각 학년 부장님께서 리더 역할을 해 주셨고 학기 말에는 학생들의 활동을 모아 작품 발표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전학공 첫째 해에는 3개의 학년이 모두 ‘마을’이라는 주제로 교과 통합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매년 같은 주제가 지루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학년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년	리더	전학공 이름	교과 통합 활동 주제
1	이00	그린라이프	지속가능한 실천 의지를 지닌 자원 순환 전문가 키우기
2	홍00	다·문·화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합하는 세계 시민
3	유00	공·배·수	어서 와! 열우물 마을은 처음이지?

○ 전문적학습공동체 문화 유지 발전시키기

매년 전학공의 구성원들이 바뀔 수 밖에 없으므로 활동의 내용이나 역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수업 나눔과 학년별 시스템이 몇 해 진행되고 나니 전학공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 되었다. 전학공 문화의 형성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력의 시간이 오랫동안 필요했으며 새로 전입해 온 선생님들을 위한 신학기 워크숍에서의 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교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겠지만 신학기 워크숍 때 전학공을 구성하고 학년별 교과 통합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을 꼭 포함해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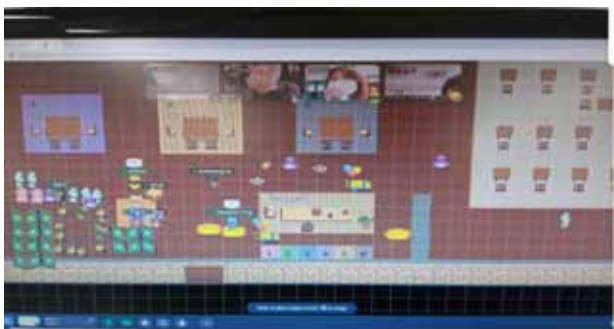
3

전문적학습공동체 이런 점이 좋아요

○ 학년별 배움이 깊어지는 교육과정을 구성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의 교과 통합 활동의 주제는 ‘지구 > 세계 > 마을’로 좁혀지는 범위로 운영하여 학생의 배움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자기와 가까워지는 범위로 세밀화되어 배워 나갈 수 있다. 또한 교사들도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준비하며 가르치는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 서로의 수업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수업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수업 공개

교사들은 누구나 자신의 수업에 최고이기를 바라며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다. 동료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좋은 수업을 위해 다양한 연수 및 수업 공개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의 수업을 공개하라면? 그건 좀 곤란한데...’ 수업 나눔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수업 나눔을 시작하며 ‘신규 교사, 전임 교사’가 통과 의례식으로 거치고 지나가던 수업 나눔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석 교사, 선배 교사들이 먼저 본인의 수업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자발적인 선배 교사들의 수업 나눔에 다음 학기부터는 ‘그렇다면 저도 수업 나눔을 해 보겠습니다.’하고 지원자가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드라마 같을 수는 없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 뽑기로 그 순번을 결정하기도 하며 수업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소통의 마당이에요

전학공을 토대로 끈끈한 동료성을 구축함으로써 개별 교사의 힘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학교 문제와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학년의 어려운 일을 논의하며 자유로운 소통의 장에서 평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전학공에서 나온 의견을 전체 회의

시간에 반영하여 회의 문화 혁신을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있구나’하는 따뜻한 관계 맺기를 통하여 힘든 학교 현장을 버틸 수 있는 역할을 전학공이 담당하고 있다.

4

발전 과제

인천상정중학교답게 전학공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전학공을 위한 몇 가지 발전 과제를 제안해 본다.

‘나눔의 날’을 운영하여 전학공 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어떨까?’ 구상해 보고 있으며 연구부의 업무라 미루고 있었던 전학공 활동 시간을 연수 학점으로 인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을 제안해 본다. 또한 교육 공동체의 주체로서 학생을 참여자로 인정하는 것에서 한 단계 혁신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실행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인천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모두 함께 도약하는 공동체

학 교 명	연성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8학급(756명)
소 재 지	연수구 동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모두가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 교육공동체 문화 형성		

1 모두가 함께하는 배움의 준비

● 다 함께 준비하는 새 학년

새 학년을 시작할 때는 모두가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그것은 결대로자람학교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연수와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연수를 열고 모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 준비 과정에서 새 학년에 대한 계획과 교사 배움의 기획이 수립된다.

2 모두가 함께하는 배움의 실천

● 다 함께 준비하는 결대로자람학교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교의 교육 비전과 학년별 교육철학 및 구체적 운영 방향을 학년과 교과를 반영하여 선생님들이 그룹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정했다. 학교 비전을 먼저 살펴보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 날 비전을 바탕으로 학년 가치를 정했다. 학년 가치에 맞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여 각 교과에서 학년 가치에 적합한 단원을 추출하여 재구성하는 시간을 갖고 계획하였다.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자신의 현재 마음 표현하기 활동으로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체 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열고 같이 웃는 시간도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연수를 활용하며 진행한 연수 활동에 있어, 모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족스러운 교육 계획을 짰 상태에서 신학기를 맞이했다. 2월부터 구성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총 12회의

수업 공개를 위해, 수업 연구에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

● 수업의 변화에 중점을 두기

형식적인 지도안 작성과 수업 공개가 아닌, 학년과 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수업 연구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했다. 총 12회의 수업 공개를 위하여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년별, 학습공동체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2차에 걸친 사전협의회에서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각기 다른 과목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다. 각 반 학생들의 특징까지 고려해서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수업을 계획하였다.

수업 공개에는 학년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교내 선생님들이 수시로 참석하며 다양한 교수법과 수업 방법, 모둠 활동, 학생들의 참여 및 반응을 살피며 각자의 수업에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기쁨을 누렸다. 수업 계획에서부터 학습공동체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에, 수업 이후의 협의회도 항상 활기를 띠었다. 서로 협력하며 쌓은 수업 결과물을 보고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의 수업이라기보단 학습공동체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더욱 보람을 느꼈다.



학년별 모둠으로 새 학년 준비



결대로자람학교 수업 연수

● 학교와 한 걸음 더 가까워 지기

학부모, 학생, 교사가 연성중학교라는 교육공동체로 묶여 연대 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 었다. 학교를 마음속에서 더욱 가깝게 생각하기 위해 공동체로서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교내 음악회 및 음악경연대회, 외부 공연단 초청음악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참여 시간 또한 마련 해서 적극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세월호 기념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변과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였다. 행사를 학생회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행사의 주체도 학생들이 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 고취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가까워지길 바라며, 학교 전체의 행사로 적극적으로 꾸려갔다.



모두 함께하는 축제



등교 맞이

● 모두가 함께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3월 신학기 시작 전, 2월에 전입 예정의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결대로자람학교와 전학공에 대한 연수를 진행해 나갔다. 2월부터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총 12회의 수업 공개를 위해, 수업 연구에 집중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다.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본 건데, 수업 공개 자체에만 선생님들이 집중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수업을 준비해나가는 과정과, 하나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함께 준비한 수업의 진행 과정을 살피고, 그 속에서 각자의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과정,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한 번의 수업을 위해 수업디자인을 2회에 걸쳐서 하였다. 학년, 교과, 학생별 특징을 모두 고려하며 선생님들의 활발한 수업 계획이 이루어졌다. 교과가 달라, 지도안이 생경한 느낌이거나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질문하셨고, 다양한 활동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기탄없이 의견을 내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유의미한 학습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보람을 많이 느꼈다.

협의회 때에만 수업을 준비한다기보다는, 학년 실에서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1차와 2차 협의회 사이에 수시로 지도안을 수정하며 수업을 준비해 나갔다. 이 과정을 거치며 공개수업을 할 즈음에는, 어떤 교과의 누구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함께 꾸려 내어놓는 수업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할 때는, 해당 학습공동체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대부분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점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하며 수업에 참석했다. 수업 후의 협의회에서는 계획대로 된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고, 예상치 못했던 학생들의 반응에 감탄하며, 의도한 대로 진행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다. 모두가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각자의 수업에 적용시킬 부분을 찾는 기쁨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수업디자인



수업 공개

...

3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공동체



결대로자람학교의 일 년은 정말 바쁘게 지나간다. 학생, 교사,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배려와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1학년은 연결, 2학년은 사랑, 협력, 3학년은 더불어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모두 함께 손잡고 가는 공동체를 위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학교이다.



배움과 나눔으로 한 단계 UP! 함께해서 빛나는 백석 공동체

학 교 명	백석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9학급(335명)
소 재 지	서구 백석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1. 3.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학년의 특색을 살려 협업으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학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 관심 분야를 함께하며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주제형 전문적학습공동체		

1 톺아보며 한 걸음씩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

우리 학교에 언제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있었다. 다만 연말에 강사를 초빙해서 갑자기 연수를 연다든지, 교육에 관련된 도서를 2~3권씩 전교원에게 똑같이 제공해 준다든지, 재료비가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만들기 연수를 하고 나면 ‘이게 전학공 활동이구나’하는 정도였다. 형식적인 활동 몇 개로 스치고 지나가는 전학공은 학교생활에서 크게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전문적학습공동체란 공동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협력적으로 연구, 성찰, 공유하는 학습조직이다. 결대로자람학교가 되면서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를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당장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았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했고, 누군가의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천천히 스며들기

전학공을 제대로 해보자고 제안한 첫해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거셌다. “전학공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 학교는 업무량이 많아서 부담된다, 어차피 형식적일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소수의 목소리가 어느새 학교 전체의 여론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조심스럽게 학년 전학공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운영해 보자고 설득하여 첫발을 떼었다. 매주 넷째 주 수요일 전학공의 날을 운영하되 퇴근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축 수업으로 일과를 진행했다. 또 대화 분위기를 말랑하게 풀어 줄 협의비를 충분히 확보하였다. 학년 전학공은 학년 부장이 이끌고 가야 하는 구조였기에 몇몇 교사의

부담이 분명히 있었으나 어쨌든 운영이 되었고 아쉬운 점과 긍정적인 면이 모두 있었다. 학기가 끝날 무렵 진행한 평가회에서 교과 지도와 교과 전문성에 대한 의견 교류가 더 있기를 바란다는 점, 다루는 주제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점,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점, 정기적인 모임 날짜가 전학공 유지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등이 나왔으며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를 바라는 긍정의 신호로 다가왔다.



전학공에 대한 의견(2022평가회)

22년도 학교평가 설문 응답

2 지난해의 단점을 딛고 UP!

● 공감대 형성으로 시작한 특색 있는 학년 전학공

전학공은 필요성에 대해 구성원이 공감해야 계획과 실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전입 교사로서 새로운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새학년 워크숍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인천혁신미래교육의 '존엄과 공존,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한 배움' 비전과 교육철학, 결대로자람학교의 중점 실천 과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 교육 비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전학공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다. 학년 전학공은 전교사의 동의를 얻어 의무적으로 한 개의 학년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작년에 운영한 경험이 있어 반대는 없었다. 한 달에 한 번 전학공의 날을 운영하며 단축 수업으로 물리적 시간과 협의비를 확보하였다. 학년 전학공의 경우에는 생활지도나 교육과정 협의를 주로 했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보다는 협의비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좋았다. 2월 새학기 워크숍에서 학년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함께 구상하며 동학년 내 교과 간 교류를 시도했다. 이때 교육과정 실천 계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특정 시기에 물리는 교과의 수행평가들을 통합적 주제로 묶어 교사와 학생의 평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도록 제안했다. 학년마다 자율성을 두었는데 3학년에서는 진로진학과 생활지도 협의에 중점을 두었고, 2학년에서는 학년 부장을 중심으로 회의 형식의 생활지도와 교과 지도에 대한 나눔이 많았다. 1학년에서는 다루고 싶은 주제를 미리 정하고 모든 교사들이 월별로 해당 주제를 책임지고 맡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중 전학공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가장 만족했던 것은 1학년의 방식이다. 전학공 운영에 대한 부담을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었기에 부담이 줄었고 교사 개인의 장점, 교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교과와 생활지도, 학급 운영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 좋았다는 평들이 많았다.



교육과정 논의 모습



교육과정계획 전체공유

2023학년도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1학년)

학년/과목	주제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1학년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1학년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주제중심교육과정계획

1학년 전학공 월별주제

월	주제
1월	1월 주제
2월	2월 주제
3월	3월 주제
4월	4월 주제
5월	5월 주제
6월	6월 주제
7월	7월 주제
8월	8월 주제
9월	9월 주제
10월	10월 주제
11월	11월 주제
12월	12월 주제

1학년 전학공 월별주제

● 자발적으로 구성된 주제형 전학공

의무로 소속된 학년형 전학공과는 달리 주제형 전학공은 100%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배움과 나눔에 대한 욕구가 있던 교사들이 스스로 모임의 대표가 되어 놀이 수업(교수 학습 방법), 책수다(온라인 독서), 그리다 보면(미술 창작과 감상)을 만들었다.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어 활동하기를 희망한 교사는 전학공별 각각 7명, 13명, 8명이나 되었기에 전체 교원의 수를 고려하면 놀랍다. 주제형 전학공의 경우는 협의비 지원보다는 도서, 물품, 재료 구입비를 충분히 제공했고 모임의 횟수나 시간도 회원들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

〈놀이 수업〉의 경우 국어, 영어, 기술가정, 중국어와 같은 다양한 교과 교사가 모였고 교과와 내용과 재미 요소가 포함된 각자의 수업 놀이 노하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매달 1회씩 모임 시간을 1년 동안 꾸준히 가졌는데 월초에 모임 날짜를 미리 정하고 놀이 실습에 적합한 도서관을 활동 장소로 했다. 교사가 매달 두 명씩 돌아가며 자신 있는 놀이수업 방법을 소개하고 다른 교사들은 학생 처럼 놀이를 해보며 자기 교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조언했다. 놀이 수업에 대한 외부 연수에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교내 공개수업에 참여하여 전학공의 활동을 타교사들과 공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놀이수업〉 전학공 활동



〈놀이수업〉 활용 도서

1년 도서 목록

월	주제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3월	성공한 인생(김동식)	3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4월	취업하기 대회(김동식)	4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5월	새로운 가난이 온다(김만권)	5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6월	노티나우 수포대(김동미)	6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정진호)	7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8월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정진호)	8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9월	청소년 여대생 세계사 특강(이상수)	9월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1년 도서 목록

7월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12일 간 읽기 계획

날짜	주제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1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1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2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2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3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3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4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4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5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5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6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6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7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7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8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8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9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9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10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10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11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11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12일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7월 12일 주제중심 교육과정 운영 계획

7월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인천〉 12일 간 읽기 계획

〈책수다〉는 밴드를 활용한 온라인 독서모임이다. 평소 독서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다양한 분야의 꾸준한 독서가 필요했던 교사 위주로 조직되었다. 매달 함께 읽을 도서를 미리 공지하고 함께 읽기를

희망한 회원에게 도서를 제공해 정해진 분량을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매번참여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가볍게 꾸준히 읽을 수 있다는 점, 온라인 밴드를 통해 자유롭게 감상평을 나누었으므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언제든지 이전의 독서 활동을 복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전에는 학교 업무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생각을 동료 교사와 나눌 기회가 드물었으나 도서를 매개로 꾸준히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전학공의 가장 큰 성과이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독립서점, 배다리 헌책방 탐방, 강화와 파주 북스테이 체험을 다녀오기도 했다.



온라인 감상 나눔

동인천 배다리 방문

교사 자화상 전시

도자기 접시 핸드페인팅

〈그리다 보면〉은 미술 교사가 중심이 되어 작품을 창작하고 감상을 나누는 모임이다. 우리학교의 대표적인 인성 교육 활동 중 하나로 학생들이 개인 전시회를 열어 작가로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전학공에서는 1학기 동안 사제동행 전시회를 장기간 준비하였다. 교사들은 시간을 쪼개어 틈이 날 때마다 미술실에 들러 본인의 자화상을 완성했고 교내에 학생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회를 열어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전학공에 속해 있는 교사들은 꾸준히 조금씩 작품을 완성해 내면서 학생들과 래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기 내면에 대해 들여다보게 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3 꾸준히 성장하는 백석 공동체

1년, 2년, 3년, 4년 전 백석중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해 회상해 보면 매해 꾸준한 변화가 있었다. 형식적이기만 했던 적이 있었고, 누군가의 거센 반대의 벽에 부딪혀 운영이 불가능했던 적도 있었고, 의무적으로 시작한 해보았으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구성원의 비판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며 한 걸음씩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

학년형, 주제형 총 6개의 전학공 중 대부분은 한두 명의 수고와 노력을 바탕으로 활동이 유지되고 있으나 꾸준히 오래 가려면 모두가 비슷한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함께 성장해보겠다는 한 뜻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있고 24년도를 생각하며 더 나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다. 몇 달 남지 않은 2024년, 앞으로의 백석 공동체에는 과연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을 것인지 매우 기대된다.



교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생 주도성을 함양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연결된다.

학 교 명	인천효성고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2학급(585명)
소 재 지	계양구 효성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전문적학습공동체		
주요내용	- 교육 4 주체가 함께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과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구성과 운영 - 교과 융합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 - 교과 수업 나눔과 성찰의 협력적 운영		

1 우리 모여서 함께 공부해볼까요?

● 결대로자람학교의 첫걸음, 교육공동체의 만남과 상호작용

2023년 3월, 인천효성고에 “결대로자람학교” 현판이 정문에 걸렸고, 교육감을 비롯하여 학생회 임원들, 교직원, 학부모님들, 지역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시작을 축하해주셨다. 그달에 바로 효성고 주민자치 회장과 간사들, 학부모들, 교직원, 학생들이 교육 4 주체 토론회를 열었다.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그간 활동을 성찰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로 간의 입장과 역할을 이해하고 독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교육공동체로서 하나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출발이었다.



현판식



교육 4주체 토론회

● 교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구성과 배움

COVID-19를 겪으면서 다소 멀어졌던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교과별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다시 구성되었다.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예체능 각각의 교과별로 1년 동안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어떤 주제로 무엇을 배울까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리고 각 교과의 특성을 담아 연수를 함께 듣고 배우며 교과의 고민을 나누었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교과의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들과 소통의 채널이자 배움의 장을 공유하게 되었다.



수학 전학공 연수



과학 전학공 연수

2

2

교과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과융합 교육과정을 열다.



● 교과가 모여서, 교과융합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다.

교과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구성되고 학생 주도형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교과 특성에 맞는 배움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회 고사를 마치고, 방학 전까지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수업을 자신의 진로 맞춤으로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교과별로 융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취합하고 설계하였다.

● 교과융합 교육과정,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로 첫발을 떼다.

교과별로 제시된 융합 주제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교사들은 2~3명씩 수업 코티칭 교사로팀을 이루었다. 프로젝트 수업을 처음 시도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팀을 이루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맞춰 교과융합 강좌를 신청하였다. 수업 진행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함께 수업 준비를 하였다. 교과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기에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었고, 모두가 교육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기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1학기 2회 고사가 끝나면서 드디어 교과융합 교육과정이 시작되었다. 1학년에 보급된 노트북이 100% 활용되었고, 1, 2학년 모든 교실에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었다. 3일 동안 9 차시에 걸쳐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강좌 주제에 맞는 프로젝트 소주제를 설계하고 콘텐츠를 구성하여 발표하며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제주도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한 영어 발표 영상 제작하기”, “역사와 문학의 만남”과 같이 교사들은 서로 다른 교과와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학생 주도형 수업을 운영하는 전문성을 발휘하였다.



교과융합프로젝트



교과융합프로젝트 학술제

3

3

교육공동체로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열고 수업을 함께 성찰하다.

● 교육 4 주체 토론회, 지역연계 프로그램(효성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탄생

교육 4 주체 토론회를 통해 효성동 지역자치 회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효성동 주민자치 예산으로 실시 되는 독서모임에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학부모 모임, 학생 모임 2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라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3~4번의 독서모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북 콘서트를 통해 집필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쌓고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견고히 하였다.

○ 과학과 인문학의 균형을 맞춘 전인적 교육과정의 실현

교과별 대표 교사들은 “수업”과 “교육과정”을 주제로 자주 만났고 소통했다. 과학 중점 학교로서 확장되었던 과학교육부 활동들이 인문 사회부, 국제교육부와 함께하면서 과학을 넘어 인문, 사회가 연결되며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교육활동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제교육부에서 진행한 “대만 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과학 서포터즈와 국제교육 서포터즈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대만과 우리 학교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과학 실험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과학교육부와 인문 사회부가 함께 스타트업 창업 캠프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전공의 벽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을 동시에 쌓을 수 있었다. 결대로자람학교의 윤리적, 민주적 공동체의 철학 아래 우리는 실천적 공동체로서 경험을 함께 공유하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함께 교사도 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전문가로서 한 걸음 더 성장했다. 이렇게 결대로자람학교에서 말하는 결대로의 성장은 교사-학생-학부모-지역, 공동체 모두의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결대로자람학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며 교내 수업 나눔과 공유가 시도되었다. 1학기에는 학부모 대상으로 수업 공개, 2학기에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교과 교사들의 수업 나눔이 진행되었다. 8명의 교사는 설레기도 하고, 부담도 있었지만, 수업 나눔으로 인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할 수 있어서”, “새롭게 수업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서”, “참관하는 여러 교사들로 인해 학생들이 더욱 집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수업 장학에서 수업 나눔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가 살펴보는 주체가 “교사뿐만 아니라 교사와 함께 호흡하는 학생들”이라는 것을 모두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 주도형 수업”이 교과 특성 맞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식의 깊이를 놓치지 않으면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을 두루 활용하며 함께 고민했다.



스타트업 창업 캠프



국제교류 프로그램



수업 나눔과 참관



수업나눔 교사커뮤니티

4

학생 주도형 수업, 학생 맞춤형 수업이 무르익는 2년 차가 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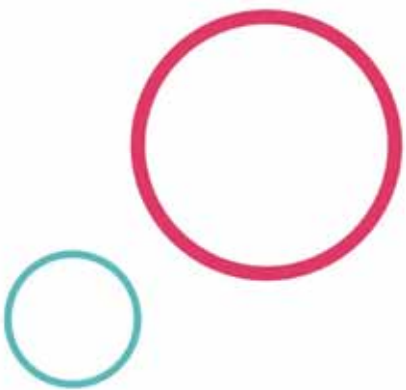
첫해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안착되고 교사들의 배움이 수업과 교육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수업량 유연화 제도는 교사들의 시도가 수업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교과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함께 이야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시공간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교과별로 다소 분리되었던 우리의 교육 과정은 함께 융합되고 다채로워졌다. 그리고 융합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사들도 학생들도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자기 주도적 역량”을 목표로 우리가 함께 협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2년 차에는 “학생 주도형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교과별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롭게 수업을 재구성하여 시도하며 학생들의 성장, 교사들의 성장을 풍부하게 담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대로자람학교로서 우리 인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천 효성고 교육공동체의 2년 차를 응원하며, 파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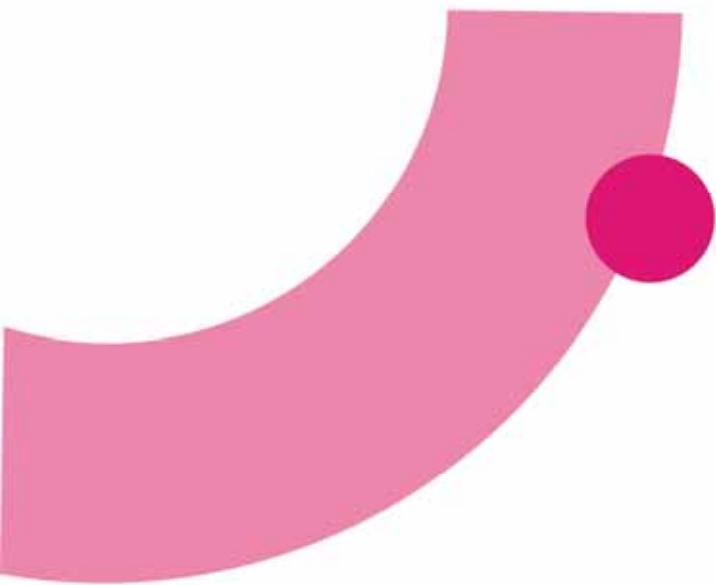


5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초등 · 중등



미래 사회의 대안을 찾아가는 서울 수학여행

학 교 명	인천서흥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7학급(452명)
소 재 지	동구 송림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수학여행의 의미 제고 -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학여행 -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의 모습 경험		

1

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학여행이 필요할까?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여행이 포함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행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전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행을 통해 힐링을 하고,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 속에서 학생들에게 여행이 어떤 의미로 자리 잡으면 좋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논의를 거친 후 학생들이 누군가에게서 주어진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는 관광이 아닌,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경험을 가지기에는 ‘여행’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7~19년까지 이어져오다가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학생이 만들어 가는 수학여행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2

수학여행에서 우리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까?

○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수학여행을 시작함에 앞서서, 학생들이 가지는 수학여행의 이미지는 사실 많이 흐릿해져 있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로 마치 대학생들이 애타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몰라서 교수들에게 문의했었다는 이야기처럼, 수학여행 자체가 학생들에게 이제 멀어졌다고나 할까? 그로 인해 우선, 수학여행의 의미부터 학생들과 되새겨 보았다. 수학(修學), 말 그대로 학문을 갈고 닦는다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6학년 동안 배워왔던 것, 혹은 그 이전에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으나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들을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며 수학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찾아보았다.

우리나라의 역사, 다양한 문화, 기후 위기와 생태 등등... 학생들이 내놓았던 여러 주제들은 사실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중요한 것은 이런 주제들을 학생들이 수학여행과 관련지어 떠올려 보면서 스스로 찾아냈다는 것이다.

●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수학여행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학여행을 단순히 계획하고 떠나보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훗날 학생들이 자기들만의 여행을 만들어 가는데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든지, 어떤 장소에 가보고 싶다는 의견 조사를 해서 교사가 정리하여 설계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수학여행의 대부분의 일정을 동선과 이동시간, 장소에서의 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학생들이 구성하고 학급에서 함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직접 여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보며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겪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각 학급에서는 2박 3일의 일정 동안 함께 이용하는 공동 숙소를 중심으로 어디를 방문하고, 경험 하고, 무슨 활동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하고 싶은지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어떤 학급은 전체 다모임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같이 살펴보고 토의하며 하나 하나 일정을 쌓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학급은 모둠별로 학생들이 여행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발표한 후에, 투표를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하여 다듬어가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된 코스에 따라 학급별로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사전답사를 가보면서 학급의 일정을 보완해가며 프로그램을 완성시켜갔다.

2023학년도 수학여행 일정표-2모듬(1일차)

목적지별 코스로 참여자(학생)별 동선(일정)을 살펴본다!

구분	목적지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2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3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4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5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6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7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8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1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2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3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4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5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6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7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8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99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100차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숙소

수학여행 일정 작성 자료



학생과 함께하는 사전답사

○ 과거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수학여행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유일하게 학년 교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잡은 공통 일정이 바로 수요집회 참여였다. 6학년 2학기 사회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갈등 상황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라고 생각했기에 수학여행 중 수요집회 참여를 결정하였고, 학생들과 이와 관련한 학습을 통해서 집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변에 전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학급별로 서울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역사 혹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러 체험장소들이 학생들의 프로그램 구성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창덕궁, 인사동 문화의 거리, 북촌한옥마을, 서대문형무소 등이 그러한데, 이전에 역사와 관련하여 방문의 이유를 찾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지만 우리가 쉽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 각 학급의 여러 학생들이 공감했기에 여행 일정에 선정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단순히 놀기 위한 장소만을 찾을 것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입장에서 기우였을 뿐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수요집회 진행 및 참여



서대문형무소

○ 미래 사회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여행 중 살펴볼 주제의 한 꼭지로 앞으로의 사회 변화(기후, 생태, 기술변화)부분이 있었고, 어떤 학급에서는 이런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다. 최근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사가 되어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생활 쓰레기에 주목하여 학급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알맹상점’이라는 곳에 방문하여 바람직한 소비활동이란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았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하이커 그라운드를 방문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있는 전시 공간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사회에서의 다양한 기술 변화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알맹상점



하이커 그라운드

○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수학여행 일정은 학생들의 자율에 따라 구성이 되지만, 사실 서울이란 공간 자체가 낯선 학생들에게 인터넷 등으로 탐색해보면서 어디를 가보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끌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슬쩍 교사가 이런 것은 어떠할지 던져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마침 6학년 학생들은 2학기에 연극 공연을 준비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대학교나 연극 관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학급도 있었으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방문해서 교정을 거닐어 보고 싶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프로그램이 구성된 학급도 있었다.



연극 공연 관람



배우와의 만남

○ 실제 삶에서 경험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힘들었다’이다. 그리고 그 힘듦의 대부분은 바로 전세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과 도보만으로 2박 3일의 모든 일정을 소화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교사들이 여행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함에 앞서서 의도한 바이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결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앞서 적었듯이 수학여행이

그냥 마련된 프로그램과 교통수단을 통해서 편하게 이동하고,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다 부딪치고 경험하면서 느끼고 배우길 바랐기에 우리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됐고, 거기에서 힘들게 많이 이야기 하곤 했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떠했냐고 물으면 대 부분의 학생들은 또 다시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 힘들게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학생들에게 남겨지는 수학여행이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어떤 학생들은 북촌한옥마을에 옛장수 아저씨를 만나 엿을 사 먹었다(사실 이 부분에선 교사가 좀 권유하긴 했지만). 자극적인 간식들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엿은 참 생소한 옛 간식이었는데, 1만원에 큰 봉지로 2개를 샀던 엿은 걸어 다니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그 학급 모든 학생들의 인기 간식으로 부상했다. 신호등에 멈춰 서기만 하면 다들 친구에게 엿 하나 달라며 조르고, 날이 더워서 뭉쳐진 엿을 다시 힘겹게 쪼개며 나눠 먹는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소소하지만 쉽게 경험하기 힘든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교통 이용



옛날 간식 구매

3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학년 교사들이 함께하고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수학여행. 문장으로만 보면 참 좋게 느껴지지만 쉽지 않은 과정임에는 분명하다. 학급별로 다른 일정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간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다시 한번 방문 장소나 식당 등의 예약을 확인해야 하고, 여행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 적어도 2만보 정도를 걸으며 활동을 하는 등 쉬운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9년까지 이어져 오다가, 코로나로 중단 된 수학여행을 다시금 학년 선생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하다. 그만큼 수학여행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학생들의 성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선생님들이 동학년에 몇 명이 있었고, 그 경험을 나누면서 올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수많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겪어봤지만, 준비부터 실행까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우리의 수학여행. 그렇지만, 그만큼 교사들도 수학여행을 인솔한다는 느낌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여행에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보람이 있었다.



대형 서점 방문



여행에서의 조식



전통한복체험



미술전시회 감상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현장학습

학 교 명	인천동수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9학급(598명)
소 재 지	부평구 부개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학생들이 준비하고 길을 찾는 현장학습 - 학년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주도성과 배움		

1 함께 걸어가면 길이 된다.

○ 우리가 현장학습을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수초에서는 매년 많은 현장체험학습이 이루어진다. 1·2학년은 학교 주변 마을을 중심으로 만월산에 올라가고 일신 시장을 탐방하며 마을 길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게를 그리고 부개 철길의 장미도 보러 간다. 3학년과 4학년은 마을의 개념을 확장해 부평과 인천을 무대로 부지런히 다닌다. 부평역 일대와 부평 공원 그리고 계양산까지 인천 구석구석을 찾아다닌다. 5학년과 6학년은 인천은 물론 서울과 전국까지 그 시야를 넓히고 있다.

○ 학생들이 현장 학습을 기획하기를 기획한다

그냥 쫓아 다니는 현장 학습이 아니라 사전 학습을 통하여 코스와 역할을 정하여 학생들이 준비한다. 당일 운영도 모듈별로 학급별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2 학년별 현장학습 사례

○ 3학년 “걸어서 부평 속으로”

3학년이 되면 모듈별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1학기에 부평탐방을 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모듈별로

한 명씩 학부모 교사들이 그림자 교사로 따라 다닌다. 2학기에는 민속촌 체험학습을 모둠별로 진행한다. 민속촌 안은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한다.

- 목표: 친구들과 협력하여 우리 마을 부평을 둘러보고 미션을 해결하면서 우리 마을에 대해 즐겁게 배우기
- 개요: 모둠별로 부평 탐방 계획을 세워 모둠 과제로 미션지를 따라가며 우리 고장 부평탐험하기. 탐험 후 다녀온 곳을 백지도에 나타내어 보며 고장의 지리 익히기.
- 성과: 탐험 계획 단계부터 모둠별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실제 탐험에서 서로 협력하며 미션을 해결해 봄으로써 자립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갖게 됨

학생 소감은 다음과 같다.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친구들과 어려운 미션을 해결하고 시간을 잘 지켜서 뿌듯해요"

"부평탐방을 통해 체력과 끈기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떨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학부모 소감은 다음과 같다.

"100명의 3학년 아이들이 함께 길을 나서며 도전하는 모습에 울컥 감동적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길을 물어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마냥 어리게만 보았던 아이들을 더 믿고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의 거리 미션수행



부평역 앞 집결-안전교육



부평공원 미션 수행

○ 4학년 인천 속으로

<인천을 탐구해요>

- 목표: 마을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소중함 느끼기

- 개요: 우리 지역의 지도와 축척을 배우며 고장을 알고 마을 생태체험활동을 통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생태관련 교육활동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기
- 온작품 '보물섬의 비밀'를 통해 보물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하는 시간 갖기
- 성과: 마을(인천중심지)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갖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을 열어요, 착한 장바구니>

- 목표: 사회 경제수업과 국어 온작품 수업을 연계하여 우리 마을 시장,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경제활동을 한다.
- 개요: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함께 동물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도시 생태 속 생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온작품 [햇빛마을 아파트 동물원]에서 앵무새를 구입하기 위해 주인공 미오가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 보며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의 소중함을 '착한 장바구니' 활동을 통해 느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성과: 학생들이 지역 전통시장을 탐방하여, 마을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계획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부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인천중심지 체험학습 -개항장 박물관에서



전통시장 체험학습

● 5학년 '불량한 자전거 여행' 온작품을 읽고 자전거 여행을 가다

- 목표: 온작품 '불량한 자전거 여행'을 읽으면서 주인공처럼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자전거 체험 활동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토의 자연환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알아간다. 체험 학습을 통해 친구 사이의 존중과 배려심을키운다.

- 개요: 사전> 자전거 여행 체험학습 전에 ‘자전거 면허시험’(2023.5.31.) 실시
당일> 대중교통으로 검암역 가기→ 자전거 대여→ 경인아라뱃길 자전거 타기, 목적지에서 간식, 인증샷,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자전거 반납후 학교로
- 성과: 주제 온작품과 연관된 자전거 여행 체험 활동을 도전과 협력을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자전거 타기 연습



자전거 면허시험



자전거 여행(경인아라뱃길)

○ 6학년 KTX타고 지하철타고 부산으로!

올해 6학년 수학여행은 부산이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학여행을 못 가서 아쉬움이 컸다. 지원 예산도 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설문 조사 등을 빠르게 준비하여 4월에 시행하였다.

- 목표: 우리 고장과 다른 고장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기
- 개요: KTX를 이용하며 다양한 대중교통을 알아보고, 우리 고장 인천과 다른 고장 부산의 지하철, 시장, 항구, 관광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학생 소감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시현이네 엄마 차를 타고 부개역에서 영등포역으로 가서 부산행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 ktx 안은 정말 좋았다. 자판기가 있는 기차는 정말 새로웠다. 부산역에 도착해 호텔로 갔다. 확실히 좋았다. 호텔에 짐을 놔두고 다시 부산역으로 가서 토성역으로 갔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감천문화마을로 갔다. 첫째 날은 되게 추웠다. 그래서 활동을 많이 못했다. 그래서 부채 하나를 사고 다시 부산역으로 와서 돈까스 김밥을 먹었다. 굉장히 맛있었다. 김밥천국은 돈까스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장기자랑을 했다. 재진이가 보로로를 락 버전으로 바꿔 부른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 장기자랑이 끝나고 또 쉬다가 갔다.

2일 차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조식을 먹으러 3층으로 갔다. 내 생각으로는 와플에 생크림을 발라 먹는 것이 가장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국제 시장, 깡통 시장, 자갈치 시장을 갔다. 근데 물떡, 납작만두, 단술 등을 빼고는 일신 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해변열차를 타고 롯데월드에 갔다. 롯데월드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놀이기구도 재미있는데 줄이 별로 없어서 바로 바로 탈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역시 수학여행은 최고인 것 같다. 너무 재미있었다.

부개역에서 출발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설레었다. 그리고 출발했는데 영등포에 빨리 도착해서 놀랐다. 영등포에서 기차를 탔는데 KTX를 탔다. KTX에서 자판기에서 물을 사는데 용량에 비해 가격이 싸서 좋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너무 많이 갔다. 그리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말 걸었는데 부산사투리를 못 알아 들어서 당황했지만 모든 대답에 "네" 라고 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호텔에 도착했는데 호텔이 생각보다 좋았다. 그리고 바로 감천문화 마을에 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추웠다. 그래서 좀만 보다가 부산역으로 가고 김밥천국에 갔다. 난 가서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장기자랑을 봤는데 3반쌤이 제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있었는데 애들이 벨튀를 많이 해서 거슬렸지만 벨튀하는 애를 잡아서 좋았다. 중학교때 수학여행을 또 가고 싶다.



부산항과 인천항 비교



감천문화마을에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3

학년별 현장학습 사례

○ 학생들은 길에서 배운다.

체험을 많이 한다고 많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체험이 유의미한 경험이 될때 배움이 일어난다. 교실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운다. 교실 밖에서 배움은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가 힘들다. 철차도 많고 안전 걱정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초에서 현장학습을 가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길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주도성도 커진다.

저학년에서 우리 동네를 탐험했던 학생들이 중학년이 되어 부평과 인천을 다녀오고, 고학년이 되면 더 멀리 여행 코스를 스스로 짜고 다녀올 것이라는 예측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장을 기대하게 하고 '하고 싶다'는 호기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 이번 11월에 5학년 학생들은 서울로 역사 여행을 모듈별로 이틀간 다녀왔다. 가기 전에 엄청나게 긴장하였고 당일에도 전철역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헤매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내었다는 성취감은 내년 6학년이 되어서 부산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동수초 학생들은 커가고 있다.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주제통합수업

학 교 명	인천만수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5학급(263명)
소 재 지	남동구 만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0. 3. 1.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학생의 관심과 특성을 반영한 깊이 있는 주제통합 수업 운영 - 학생의 희망을 적극 수용한 창의적체험학습 동아리 운영		

1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보람과 함께하는 주제통합 수업

○ “애들아. 무엇에 대해 공부하고 싶니?”

때는 2월, 새 학기 준비로 한창인 교실에서 학년 부장님과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아이들이 계획하고 설계에 참여하는 수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쉬이 생각나지 않는 부장님은 저런 질문이라도 아이들에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다. 학교에 적응하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1학년을 비롯한 새 학기를 맞이한 만수초 학생들의 학습자 주도성 키우기 프로젝트가 시작 된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해답인 “주제통합 수업”을 소개해 본다. 아참, 위의 학년 부장님은 당연히 저 질문을 아이들과 나누었고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놀이요!” 그 결과 1년 내내 놀이와 접목된 수업 활동을 볼 수 있었다.

○ 주제통합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 교육과정 및 주제통합 주제를 선택할 때에는 학생의 삶과 맞닿아 있는지를 고민한다.
-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를 수업 요소와 접목하여 흥미와 내재된 학습동기를 이끌어낸다.
- 읽기·걷기·쓰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활동을 고려하여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구성한다.
- 결대로자람학교의 중점추진과제인 교육과정 자치 기반 조성 및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의 하위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주제를 고려한다.
- 마을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인 경우 적극적으로 연계된 활동을 구성한다.
- 학생이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갖고(자율성) 나와 삶이 접해있는 사회를 인식하고(연대성), 그와 관련된 현상 및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공공성)하고 스스로의 꿈과 끼를 발전시킬 수 있는(예술성) 주제를 선정 및 탐구한다.

2

1-6학년 주제통합 수업 주제 및 운영

○ 학생들과 함께 선정한 학년별 주제통합 수업 주제

학년	주제	영역
1	『나는야, 에너지 지킴이!』	공공성
	읽.견.쓰와 함께하는 만수 1학년의 명절맞이	연대성
2	『행복한 2학년』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만들기	연대성
	읽.견.쓰로 알아보는 우리 마을과 세계	공공성
3	『이게 정말 나일까?』 새 학년에 적응해요.	연대성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읽.견.쓰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제대로 알기	연대성, 공공성
4	『나는 우리 반 평화지킴이』	공공성
	독서는 나의 힘 -글쓰기, 회의, 낭독극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기표현력 기르기	예술성, 연대성
5	『우리는 민주시민 꿈나무』	연대성
	우리 역사 세계로 - 우리 역사 문화를 알려요!	자율성, 예술성
6	『행복한 교실-서로 배려하는 말 사용하기』	연대성
	『너를 위한 우리의 한걸음』 - 함께하는 지구촌, 우리는 세계시민	연대성

○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읽.견.쓰 프로젝트》지도계획

- 3학년은 사회과 학습에서 처음으로 역사 영역을 배우면서 전통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을 하는 시기임을 반영하여 읽/견/쓰를 기반으로 한 전통 영역에 대한 주제통합학습을 학생들과 함께 계획하였다. (~중략~) 이에 3학년 국어과의 중심 활동인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연계하여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를 다함께 읽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는 도깨비의 수수께끼를 풀면서 사랑방, 안방, 부엌의 살림살이에 대해 알아보는 이야기이다. (~중략~) 또한 국어 교과서의 글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간추리는 활동, 책을 읽고 소개하는 활동, 마을의 전통문화와 연관이 있는 장소를 걷고 체험하기 등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고자 계획하였다.

교과/단원	시수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역량
국어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8	[4국02-05]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4국03-05]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	자식·창의력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4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18	[4사02-03] 옛 사람들의 생활 도구나 주거 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자식·창의력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교과/단원		시수	교육과정 성취기준	핵심역량
미술	9. 상상이 꿈틀	2	[4미01-03]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미술을 발견할 수 있다. [4미01-04] 미술을 자신의 생활과 관련지을 수 있다.	심미적 감성 역량
	10. 먹으로 그린 그림	2		
	11. 미술관 나들이	2		
체육	〈심화〉	2	[4체01-06]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체력 운동 및 여가 생활을 실천한다.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시수계		38	사(18), 국(12), 미(6), 체(2)	

주제통합학습 교육과정 재구성의 실제(부분 발췌)

소주제	날짜	과목	단원	학 습 내 용	비고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읽건쓰와 함께하는전통 문화 제대로 알기	9.26(화)	국어	〈독서 단원〉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주제통합)(2/8)	정 서생이 도깨비와 내기를 하게 된 과정 파악하기	읽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4/18)	집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 졌는지 알아보기 -1-	
	10.10(화)	국어	7. 글을 읽고 소개해요(주제통합)(2/4)	온돌의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 알아보기	
	10.13(금)	국어	7. 글을 읽고 소개해요(주제통합)(4/4)	글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간추리기, 인상 깊었던 장 면 그림으로 나타내기(2)	쓰기
	10.17(화)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11/18)	농사 도구가 변화하면서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 는지 알아보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12/18)	세시 풍속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10.24(화)	국어	〈독서 단원〉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주제통합)(5/8)	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 감상문 쓰기	쓰기
	10.25(수)	체육 미술	읽건쓰 현장체험학습 (1/5)	읽건쓰 인천과의 만남 도호부청사 탐험하기 -1-	걷기 / 마을연계
			11. 미술관 나들이(3/6)	미술관·박물관 견학 계획에 따라 인천 어린이 박물관 을 이용하며 관람 예절과 이용 방법 체험하기 -3-	
	10.26(목)	국어	〈독서 단원〉내가 원래 뭐였는지 알아?(주제통합)(6/8)	현장체험학습에서 있었던 일을 간추려 글로 쓰기	쓰기

○ 주제통합학습 교육과정 운영 모습



1학년 - 전통놀이 익히기



1학년 - 마을연계 작은도서관 방문



2학년 - 시장탐방



3학년 - 전통문화 익히기



3학년 - 마을연계 박물관 방문



4학년 - 낭독극과 함께



5학년 - 우리 문화 알리기



6학년 - 배려하는 말하기



6학년 - 우리는 세계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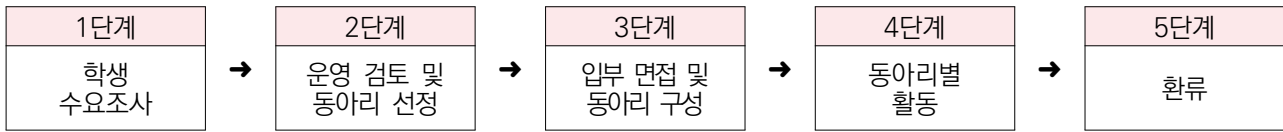
3

학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창의적체험학습 동아리 운영

○ “너 무슨 동아리가 좋을 것 같아?”, “아~ 난 드론부 신청할까?”

3월 말, 복도에 붙은 동아리 모집과 면접에 대한 대자보 앞에 선 아이들의 대화이다. 우리 학교는 22년부터 4~6학년 학생들이 8개의 개설된 동아리 중 원하는 동아리를 선택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동아리의 개설과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선생님의 지도 가능 여부였다면 만수초에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사전에 조사해서 선생님들과 최종 조율한 동아리들이 개설되었다는 점과 몇몇 인기가 있는 동아리의 경우 입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동 의지가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동아리 운영의 과정



○ 운영 결과

- 개설 동아리: 드론부, 방송부, 요리부, 방송댄스부, 문화체험부, 구기부, 컬러링부, 습식수채화부
- 드론부, 방송댄스부처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경우에 외부강사를 위촉 및 운영함
- 부서 여건과 학생 수요에 맞게 부서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조정하여 최적의 환경을 구성함
- 창체 시간 외에도 상설 동아리인 밴드부가 학생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함

○ 동아리 운영 모습



드론부



방송댄스부



방송부
(눈으로 보는 라디오)



밴드부

4

마치며

등교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 “선생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몇 년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술교육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하고 온 밴드부 6학년 학생의 이야기다. 비록 작은 학교, 많지 않은 학생 수이지만 학교는 수업과 놀이 모두 열심히 참여하는 아이들 각자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꽃피우기까지에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만수 교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학생의 관심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 위주의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자신만의 결이 드러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온작품 프로젝트로 성장해가는 도림 어린이

학 교 명

인천도림초등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20학급(434명)

소 재 지

남동구 도림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1.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깊이 있는 배움
- 온작품 프로젝트로 성장해가는 도림 어린이

1

교육과정 재구성과 온작품이 만나면?

인천도림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프로젝트 학습과 월간학습 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년별 온작품 목록을 체계화하여 작가와의 만남을 꾸준히 진행하므로 온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림초등학교 2학년 9~10월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겉보만보와 동네 한바퀴'



온작품 도서



겉보의 모험 표현하기



김유 작가와의 만남



작가 만남 소감문

2학년의 경우 김유 작가의 <겍보 만보>를 3년째 온작품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21년 1년 차에는 배움 공책을 만들고 인형극을 했다. 작가와의 만남은 첫해부터 진행했다. 2022년 2년 차에는 낭독극으로 아이들에게 연기의 맛을 보여줬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국악 수업과도 연계하여 간단한 연극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정점이었을 때라 교실에서 작은 발표회를 했다. 그리고 2023년 온작품 3년 차에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아이들도 학부모 공개수업으로 짧은 연기를 선보이고선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다.

2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도림 어린이들의 빛나는 성장 이야기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2학년 친구들과 온작품을 읽고 배움 공책에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는 다르게,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교사는 책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대본을 완성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뮤지컬 전문 강사의 수업도 함께 진행했다. 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군무를 완성해가는 아이들은 즐겁고 신났다. 뮤지컬 강사님이 지도를 해주시면 다음 만날 때까지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연습에 매진했다. 그러나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학년의 한계와 더불어 짧은 시간에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왔다.

도림 어린이들이 보여준 빛나는 성장

뮤지컬 배역을 정하면서 교사들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잘하는 아이들을 주·조연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모두에게 한마디의 대사라도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배역을 나누며 아이들은 교사들의 걱정을 일시에 불식시켰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경이 되는 돌과 나무를 하겠다며 나서는가 하면, 호랑이와 할머니는 누가 더 잘 어울린다고 배역 추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배역에 크고 작음은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했다. 실제 주연을 빼고는 모든 학급의 어린이가 해설을 한 문장씩 나누어 맡아 모두 앞에 나오는 무대를 연출했다. 수줍음이 그렇게 많던 친구도 무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나무와 돌 그리고 이름 없는 꽃들로 자신의 몫을 해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의 성장 지점을 학부모와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장을 만들어 3학년 선배와 학부모들에게 공연을 개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겍모만보〉뮤지컬 연습 장면

3 다시, 〈무적말숙〉을 준비하며

공연 당일,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함께 자리하셨다. 코로나가 7살 때부터 초등 1, 2학년에 이르기까지 발표회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이었다. 2학년 전체 71명보다도 많은 의자를 준비했지만, 서 있는 분들도 많았다. 긴장으로 시작한 첫 무대는 환호와 박수로 마무리 되었다. 중간중간 대사와 음향 실수도 예쁘게 봐주실 만큼 사랑스러워하셨다. 작년 온작품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3학년 선배들의 관람 후기는 2학년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피드백을 제공해주었다.

공연 후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반 친구들은 〈겍보 만보〉의 후속작 〈무적 말숙〉을 크리스마스에 공연하자고 제안했다. 교사들도 호기롭게 그러자 약속을 했다. 지금 도림 2학년들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누구를 초대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져있다.





〈겉보만보〉 뮤지컬 공연 장면



관람한 3학년의 소감문



나의 꿈과 너의 꿈을 잇는 진로 탐색 프로젝트

학 교 명	인천남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8학급(417명)
소 재 지	미추홀구 송의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8. 3. 1.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학생이 스스로 진로 탐색 과정을 경험하며 내면화하는 수업 - 학생의 개성과 더불어 학습하는 문화를 함께 존중하는 수업		

1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장된 삶을 인식하다.

“선생님, 우리 학교 급식 정말 맛있어요!”, “참여하고 싶은 동아리가 많아서 무엇을 고를지 고민이에요!”, “중학교에 오니 발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리그전이 많아서 신나요!”

중학교 입학 직후 인천남중 1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급식’과 ‘동아리’ 그리고 ‘스포츠 리그전’ 등에 대한 만족과 설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달리 교과마다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점차 심화되는 과제 및 수행평가 등을 경험하며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의미가 더이상 ‘즐거움’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깨달음은 ‘학교는 왜 다녀야 할까?’, ‘공부는 왜 해야 하지?’라는 나름의 진지한 물음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교육적으로 안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즉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장된 삶을 인식하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드디어 ‘진로’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에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과 진로 신문 제작’을 주제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교과 프로젝트 학습이 시작되었다.

2

삶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운동, 그 속에서 스스로 답 찾기

○ ‘나’를 탐구하다.

“OO이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구나?”

“제가요? 선생님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진로(塵勞), 앞으로 나아갈 길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진로 교과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나’의 성격, 좋아하는 활동, 할 수 있는 일로 구성된 직업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성향과 매우 유사한 유형이 나왔다고 신기한 듯 눈을 빛냈고, 관련 직업에 흥미를 보이며 워크넷, 커리어넷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직업유형에 대한 이해



자신의 희망 직업 설명하기

○ 미래를 그리며 직업에 대해 묻고 답하다.

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에는 능숙하지만, 목적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방법에는 미숙했다. 만약 진로 탐색에 대해 이론적으로만 학습했다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필요로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 학습 중에 학생들에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모든 활동에서 늘 목적을 떠올릴 것을 강조하였다. 다행히 학생들은 ‘진로 탐색’이라는 목적을 고려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해당 직업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자연스럽게 국어 학습 내용으로 연결하여 직업인 면담하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교사, 친구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중학교-고등학교-성인이 된 이후까지 폭넓게 자신의 삶을 상상하고 관심 분야의 직업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들고 다듬는 어려운 과정을 헤쳐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관심 분야의 직업인에게 이메일, 전화,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 가슴 두근거리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면담에 성공한 학생은 극히 일부였지만, 면담 대상자에게 스스로 연락을 해보는 활동은 분명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었다. 무엇보다 실제 면담하는 활동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목적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였고 면담 대상자를 섭외하지 못한 학생들은 책, 신문, 인터넷, 생성형 AI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며 자신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진로 관련 정보 탐색 및 정리 활동



면담하기 활동을 위한 직업인과의 이메일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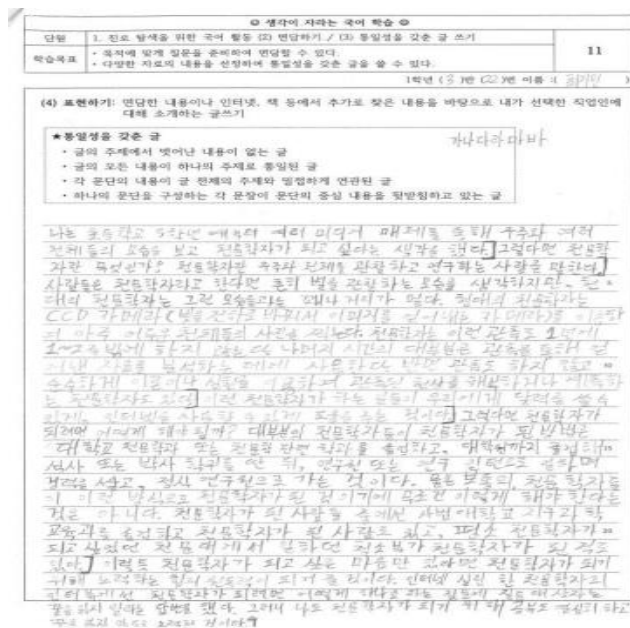
● 글을 통해 점차 선명해지는 진로를 만나다.

직업유형검사-자신의 직업 유형에 맞는 직업 탐색-전문 직업인 탐색-면담을 위한 질문 만들기-그에 대한 정보 수집까지 프로젝트 활동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꿈, 미래, 삶에 관한 학습에서 학생들은 집중력을 발휘하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 있게 도움을 청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했다. 이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활동은 바로 자신이 수집한 내용을 통일성을 갖춘 글로 쓰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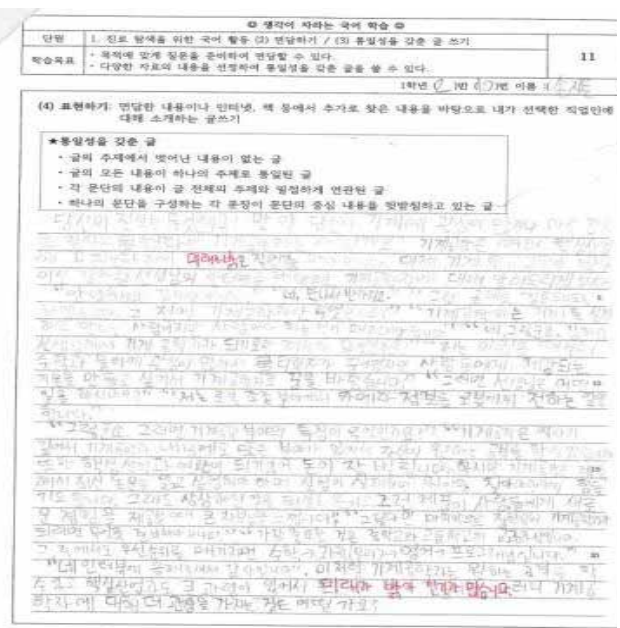
“선생님, 완결된 글 한 편을 써본 건 처음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글을 쓰는 건 정말 어려운 활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완결성을 갖춘 친구의 글을 반복해서 읽어보며 자신의 글과 비교하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드백을 받는 등 자발적으로 수 차례의 고쳐쓰기 과정을 겪으며 결국 자신의 진로와 직업 탐색 결과를 한 편의 글로 완성하였다.



천문학자라는 꿈을 적은 학생의 글



기계공학자라는 꿈을 적은 학생의 글

○ 서로의 꿈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 활동에 정성을 다한 만큼 다른 친구들의 희망 진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타인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는 이 과정이 교육이 아니면 무엇일까.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모둠 활동을 전개하였다. 각자의 진로 탐색 결과를 인터뷰 기사, 만화, 광고, 설명문 등으로 작성하여 하나의 신문으로 제작한 것이다. ‘미나리(미래를 향해 나아가리) 신문’, ‘비빔밥(우리의 꿈을 모아 비빔다) 신문’ 등 신문의 제목인 제호에서부터 각 모둠의 개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드러났다. 제호와 의미, 진로 신문에 들어갈 기사의 유형, 기사의 배치와 디자인까지 모두 모둠에서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평소 학습 속도가 느리고 수동적이었던 학생들도 만화, 광고 만들기 등에 흥미를 보이며 자신의 몫을 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서로의 꿈을 모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진심으로 참여하였다.



진로 신문 기획-제작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모둠 활동



진로 신문 제작

○ 진로와 삶, 문학으로 표현하기

인천남중 1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 프로젝트 활동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자신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기대, 삶을 대하는 자세 등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화전 활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된 장기간의 프로젝트 활동이 학생들에게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화전 활동까지 마치고 나면 학교에 다니는 이유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3

학생들의 고민을 가치 있게 담아내는 평가를 고민하다.

‘진로 탐색을 위한 정보 수집과 진로 신문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학생 중심의 자발적 학습 참여의 가치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고민하는 학생들의 활동 과정을 과연 가치 있게 담아내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고민이 된다. 활동 과정을 정리하는 학습지에 대한 평가, 면담을 위해 만든 질문에 대한 평가, 완결된 글에 대한 평가 등 실제 학생들의 활동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 평가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프로젝트 활동의 의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말처럼 교육은 더이상 교사 에서 학생으로 전해지는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학습 활동으로 실현하며 그 의의를 살리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끊임없이 연구하는 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본다.

더불어 함께!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학 교 명	신흥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5학급(285명)
소 재 지	중구 신흥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15. 3. 2.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는 학교 -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운영 - 삶의 힘을 키워주는 주제통합 수업 운영		

1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는 학교

● 학생 주도성의 중요성

주도성은 미래 교육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으로 논의되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변화할 사회 변화에서 인공지능과 차별화되는 인간 고유의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습의 영역을 넘어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고 책임감 있게 결정,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2학년 주제통합 교육과정 ‘건강한 몸(몸과 마음)’을 운영하였습니다.

2학년 주제통합 교육과정 ‘건강한 몸(몸과 마음)’ 프로젝트 운영

2학년 주제통합 교육과정의 시작

코로나19로 학생들은 3년 동안 컴퓨터,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신체활동은 줄어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또한 개인 시간, 사이버 공간상 시간 증가로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공동체 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2023학년도 2월 워크숍에서 2학년 핵심 가치를 ‘공존과 상생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정하였으며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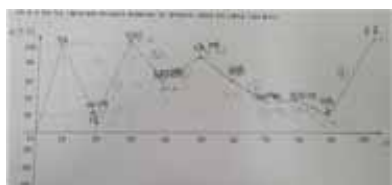
[illegible]

주제통합 교육과정 재구성

실현하기 위해 주제통합 교육과정으로 ‘건강한 몸(몸과 마음)’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강한 맘(몸과 마음) 프로젝트 준비

1학기에는 선생님들께서 건강한 뭉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각 교과와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1학기 말 학생들과 함께 건강한 뭉 프로젝트 2학기 활동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같이 야영 활동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건강한 뭉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2학기 야영 활동을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2학년 전체 회의, 각 반의 반장, 부반장 회의, 학생과 선생님과의 회의 결과 주제통합 교육과정(야영&등산) 프로그램 일과표가 완성되었습니다.



교과



3주 아침 걷기 운동



학기 : 2020. 11. 2(수) ~ 11. 31(수)		
학년 : 중학교 1학년 1반 송은성		
학사번호 : 2019-01-01 (2019학년도 1학기)		
시간	11월1주	11월2주
08:30~09:00		가정학과 1차 40분
09:00~09:30		체육학과 1차 40분
09:30~10:00		이중영어 ~ 문학사 40분
10:00~11:30		
11:30~12:15		중국어 40분
12:15~12:30		영어사 40 ~ 이중영어 40분
12:30~13:15	점심시간	
13:15~14:00	1W 1. 학교폭력 예방교육 2. 생활 체육활동 3. 과학탐구 4. 예술활동	체육학과 40분
14:00~14:30		
14:30~14:45		
14:45~15:00		
15:00~15:30	2W 1. 과학탐구 2. 생활체육 3. 예술활동 4. 이중영어 40분	이중영어 40분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3W 1. 생활체육 2. 이중영어 40분 3. 예술활동 4. 이중영어 40분	이중영어 40분
17:30~18:00		
18:00~18:30		
18:30~19:00		
19:00~19:30	4W 1. 생활체육 2. 이중영어 40분 3. 예술활동 4. 이중영어 40분	이중영어 40분
19:30~20:00		
20:00~20:30		
20:30~21:00		
21:00~21:30	5W 1. 생활체육 2. 이중영어 40분 3. 예술활동 4. 이중영어 40분	이중영어 40분
21:30~22:00		
22:00~22:30		
22:30~23:00		
23:00~	종교 휴교	

주제통합 교육과정 일정표

● **건강한 맘(몸과 마음) 프로젝트 운영**

11. 2. ~ 3. 5 ~ 6교시. 학생들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5교시에는 학급 퍼즐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에서 찍은 각 반의 단체 사진의 색을 없애고, 45조각으로 나누어 색칠한 후 퍼즐을 만들어 학급 퍼즐을 완성하였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추리와 담소를 나누며 돈독해진 교우관계와 오래오래 기억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퍼즐 조각 색칠 및 학급 퍼즐 완성

6교시에는 팝송 릴레이를 하였습니다. 팝송 릴레이는 그동안 연습한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강당에 모여 한 학급씩 나와 여러 개의 마이크를 전달하며 불렀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발음을 유창하게, 노래를 잘하는 학생은 자신 있게 불렀으며 잘 못 부르는 학생들을 위해 주변의 친구들이 함께 불러주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팝송 “Can’t take my eyes off you” 릴레이 부르기

7교시에는 저녁 식사 재료 및 쿠폰, 상품 획득을 위한 보물찾기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비빔밥 재료가 적힌 종지와 매점 간식 교환 쿠폰과 상품을 찾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며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보물을 찾았습니다.



쿠폰



열심히 학교 곳곳에 숨겨진 보물 찾기 중



저녁 식사 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비빔밥의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퀴즈45를 하였습니다. 강당에 반별로 한 줄로 앉아 돌아가면서 퀴즈를 풀고, 맞추면 퀴즈에 걸려있는 비빔밥 재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퀴즈는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환경 관련 문제 및 넌센스로 출제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여 서로 묻고 답하는 배움과 즐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과 퀴즈



비빔밥 재료 획득



비빔밥 재료를 획득하기 위해 신나게 움직이고 두뇌를 풀가동하여 허기진 배를 달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급에 공통으로 밥과 야채, 고추장, 참기름을 제공하고 여기에 학생들이 획득한 재료 참치와 계란 및 불고기를 직접 구워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고 수업 시간, 보물찾기에서 획득한 쿠폰을 이용하여 매점에서 간식을 사먹기도 하였습니다.



획득한 재료로 요리 및 정리 정돈



간이 매점 오픈

1, 2부 프로그램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회의하며 기획하고 준비하였다면 3부의 건축구조물, 고요 속의 외침, 몸으로 말해요, 역사 속 인물 탐구, 장기자랑은 오롯이 학생들이 계획하여 준비하고,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만 선생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저 놀기 위한 게임이 아닌 교과 내용을 접목시켜 학생들이 준비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교과 내용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기발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월 2일의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한 후 강당에 오순도순 모여 취침을 하였습니다.



기술-건축구조물 만들기



수학&음악-고요 속의 외침



여러 교과-몸으로 말해요

11월 3일 아침으로 김밥을 먹은 후 물과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간식팩, 등산 타월을 받아 학급 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문학산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느려도 모두가 무사히 정상까지 등반하여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당 취침



문학산 등산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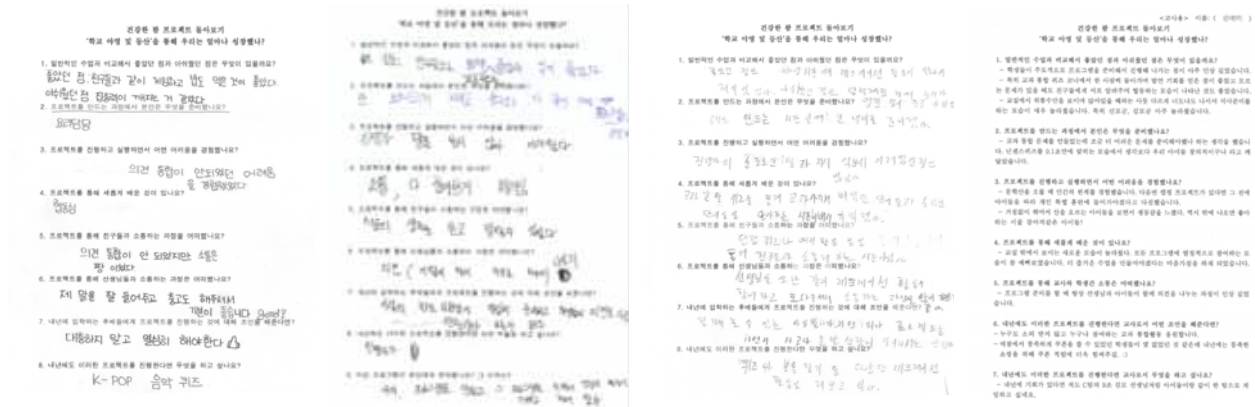


문학산 등산

◉ 건강한 땀(몸과 마음) 프로젝트 마친 소감

학생들이 주도하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의견 수렴 부터 준비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이야기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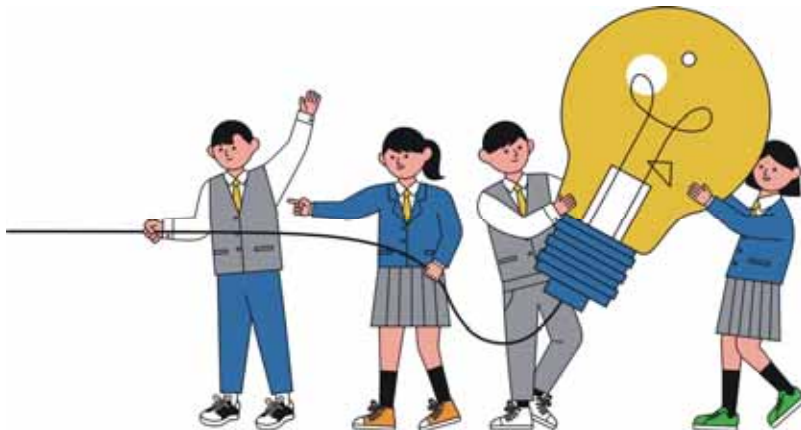
가는 과정을 통해 배려심 및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울 수 있었고, 학생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니 프로젝트 수업도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친 소감-학생 및 교사

3 미래 사회를 살아갈 삶의 힘

날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팀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하는 협동심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힘을 키우면 앞으로 어떤 사회가 다가와도 우리 학생들이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선한 인재를 위한 교육으로 한걸음

학 교 명	선인중학교	학 급 수 (학생 수)	15학급(236명)
소 재 지	미추홀구 도화동	혁신학교 최초지정일	2023. 3. 1.
추진과제	학생주도성을 살리는 수업 및 성장중심 평가		
주요내용	- 학생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수업의 다변화 - 학생의 성취감, 공동체성을 키우는 다채로운 교육활동 실시		

1 첫걸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 결대로자람학교, 첫 시작

우리 학교는 2023년 3월, 결대로자람학교로 최초 지정을 받으며 그 첫걸음을 뒀다. 신청 전에 구성원 간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하였지만, 2023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욕심을 내서 엄청난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다 같이 한 걸음을 떼는 것, 그 한 걸음을 목표로 삼았다.

2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

○ ‘스스로’의 힘, 수업으로 키우다

학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은 수업이다. 수업의 변화와 다양화는 곧 학생에게는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학교가 바라는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 및 교과수업에서 학생의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활동, 삶과 연결되는 주제 중심의 수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중 이 일부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앞이 삶으로, 나만의 도시계획 하기 [3학년 사회]

작년, chatGPT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놀라운 현재를 보여주었고, ‘검색’에서 ‘질문’으로 트렌드가 전환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고민과 시도가 이루어졌다. 3학년 사회 수업에서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은 생성형 AI인 ChatGPT나 뽀빠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를 찾고 공통적인 조건을 추려낸다. 그리고 추려낸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도시를 구상하고 icograms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체적인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이다. “주택이 공단에 가까우면 주거 환경이 나쁘지 않나?”, “사람이 살려면 공원은 있어야지.” 등, 이 과정에서 학생은 도시의 지역 분화나 내부 구조,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을 직접 체득하게 된다. ‘난 이런 곳에 살고 싶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교과서에서 배우던 개념이 스며드는 것이다. 생성형 AI의 도래로 앞으로는 지식의 습득량보다는 핵심으로 가는 질문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어떤 질문이 효과적인 대답을 도출하는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할 사고하는 능력은 아이들의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도시만들기 수업 참여



제작한 도시 이미지 모음



수업에 활용한 padlet 화면

세계시민으로 한걸음, 공정무역과 세계 이해 교육 [1학년 사회]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시민의 역량 중 하나는 실천성이다. 1학년 사회 교육과정에서 현대의 사회문제를 배우는 과정에서 ‘국가 간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실재감 있게 학습하기 위하여 공정무역을 주요 주제로 삼아 수업을 계획하였다. 초반 차시에는 공정무역의 개념을 먼저 안내하고 공정무역 카드게임을 통해 학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 후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모듈별 토론학습을 통해 생각의 확장을 꾀하였다. 마지막 차시에는 실제 공정무역 물품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통해 학생은 세계적 불평등과 이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학습하였다. 물품 선정에는 꼬끼리 배설물을 재가공해 만든 노트를 포함하여 친환경적 소비 생활의 필요성으로까지 확장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뿐 아니라 나만의 여권 만들기, 여행계획 세우기 등 세계시민 으로서 다른 문화, 다른 지역의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민주적이고 실천적 자세를 가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간 수업계획을 구성하였다.



공정무역 물품 꾸러미 제공



공정무역 카드게임 활동



나만의 여권 만들기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는 주크박스 뮤지컬 [3학년 음악]

고도로 기술이 발달할 미래 사회에서 사람에게는 소위 ‘사람다운’ 소양이 더욱더 요구될 것이다. 심미적 역량도 그중 하나이다. 그래서 예술적 방식을 통해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창작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예체능 과목의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 음악 교과 시간에는 주크박스 뮤지컬 형태의 프로젝트 수업이 학급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 창작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관련된 영상 및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의 이해도를 높여주고 친숙하게 한 뒤, 단편적인 신(scene)을 직접 만드는 연습의 과정을 먼저 거쳤다. 그리고 사용할 대중음악의 일부 파트를 선정하고 대략적인 시놉시스를 모듈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스토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풍성하게 만들고 모듈별로 만든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피드백을 해주며 학생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학습 내용과 학습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용을 작성하는 현재는 연기 및 안무 연습과 무대 소품 제작 활동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 무렵에는 3학년 전체 학생을 관객으로 학급별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스토리 작성



창작 안무 연습



시놉시스 작성 활동

● 동아리를 통해 얻는 경험, ‘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교과 시간에 대한 보충이나 다루기 어렵던 주제와 활동을 진행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 학교는 교과적 지식이나 기후생태, 마을 연계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의 운영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관심사와 소질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의 열매를 따서 나누자 [선인과수원]

수학은 다수의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과목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친숙해지고 실생활에 연결해주면 수학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다. 선인과수원 동아리는 수학적 원리를 더 이해하고 이해한 바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만들어졌다. 3월 14일, π (파이)데이를 맞이하여 3일간 일상 속 파 이와 연관 있는 현상을 활용한 부스를 직접 준비, 운영하며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 학생에게는 행사 기획의 경험까지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가 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고취하기 위해 동아리 학생 및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21일의 기적’ 프로젝트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조례를 하기 전 아침 시간에 수학을 비롯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것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본인의 목표를 직접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기 주도의 학습에 대한 소중한 성취경험을 얻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수학체험한마당 부스 운영, 학기별 수학과 친해지는 날 운영 등을 통해 동아리 학생에게 프로젝트를 운영할 줄 아는 역량을, 그리고 자신의 배움을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남부수학체험한마당 부스 운영



π (파이) 데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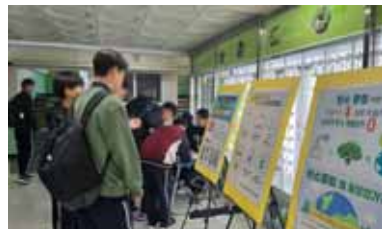
'21일의 기적' 참여 학생 사진

'같이'의 가치, 함께하는 환경 실천 [지사단]

최근 UN사무총장은 이제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가 끓는 시대(global boiling)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환경'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의제이다. 그래서 같은 뜻을 지닌 선생님과 2학년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지구를 사랑하는 단체(이하 지사단)"를 조직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해 보기로 하였다. 지사단은 업사이클링에코센터를 방문, 자원 순환의 실제 사례를 보고 듣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월미산과 월미공원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하면서 실천으로 이어 나갔다. 실천의 확산을 위해 지사단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모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활동을 구상, 캠페인을 계획하였다. 우선은 탄소중립을 주제로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실천 서약서를 받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탄소중립 실천 4컷'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이 실천으로 이어지게끔 하였다.



업사이클링에코센터 방문



탄소중립 교내 캠페인 활동



월미공원 일대 플로깅

○ '함께' 배우는 학교 교육과정

우리 학교는 2월 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학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1학년은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성품과 습관 계발을 위한 캠프 진행 등 학생 자신을 이해하는 학년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학년의 경우, 인천세계시민학교와 연계하여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성 함양을 학년 교육과정을 주 목표로 다국어 교육 및 세계문화이해교육부터 지역이해 문화탐방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하였다. 3학년은 고등학교 진학에 맞춰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 하였으며, 특히나 2학기 시험이 종료된 후 시간을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특강, 리더십캠프 등을 운영 하여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교내 버스킹이나 축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비전으로 설정한 '선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학교스포츠

클럽대회, E-스포츠대회, 체험학습 등의 크고 작은 교육활동을 ‘함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을 획득하고 또 조화롭게 살아갈 태도를 함양하도록 노력하였다.

3

이제 내디딘 첫발, 다음 발걸음을 위한 고민

○ 1년차 결대로자람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고민들

우리 학교는 1년의 짧은 기간 동안 결대로자람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직은 미흡하여 보완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선 학생에게는 스스로의 힘을 믿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을 보장해 주며 학생 자치를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생 자치의 외연적 확대뿐 아니라 나아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능동적인 역할까지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 구성원의 고민은 참여이다. 학교 구성원의 한 축인 학부모는 그동안 교육활동에의 참여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늘리는 등, 참여 기회를 넓히며 우선적으로는 학부모와 학교와 더 내밀한 관계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교사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수업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활발한 분위기의 확대가 가시적인 목표 중 하나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나 수업나눔 활동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문화 형성에 대한 고민을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 교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다

작은 규모의 학교로서 학생 수도 적지만 그만큼 교사 수도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당 업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수업 측면에서의 혁신, 교육과정에서의 변혁을 함께 추진하자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은 물론, 교사의 정서적 여유도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사에게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된다면 교사의 교육력 소진이 발생, 자칫 교육 혁신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이를 보완해야 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든 사람들

기획

변종국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장
김현주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관
이오연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이현희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최혜봉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온혜현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장학사

편집·검토 위원

김보영 / 인천함박초등학교 교사
남수현 / 인천예송초등학교 교사
변지희 / 인천만월초등학교 교사
이혜영 / 인천문남초등학교 교사
조세정 / 인천가원초등학교 교사
백승국 / 인천도담초등학교 교사
서미진 / 인천안산초등학교 교사
조우영 / 강화중학교 교사
최보길 / 산마을고등학교 교사

- 발행일 2023년 12월
-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구월동) (우)21554

|| 교육용 교재 활용 이외에 무단복제 및 콘텐츠 배포, 사용을 금합니다.